

경기 문화재총람

Gyeonggi Cultural Properties

| 국가지정편 2 |

보물



Global Inspiration

세계 속의 경기도

경기 문화재총람

Gyeonggi Cultural Properties

| 국가지정편 2 |

보물



경기도를 만나면 한반도의 찬란한 문화가 한눈에 보입니다.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전곡리 구석기 유적부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수원 화성까지 경기도는 한국 문화의 원형을 키워온 터전입니다. 백제, 고려, 조선이 수도를 세워 2천년 넘게 가꾸어온 왕도문화(王都文化)를 간직한 곳도 경기도입니다.

도내 곳곳에 자리한 수많은 산성에서는 한반도의 주도권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던 삼국시대 장수들의 함성이 들리는 듯 합니다. 고려인들의 호방함과 과격성을 보여주는 석불입상과 수려한 필제로 그려진 불화, 그리고 뛰어난 조형미를 갖춘 석탑들은 한국 불교미술의 정수(精髓)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경기도 어느 지역을 가더라도 우리 역사의 한 장을 생생하게 전해주는 왕릉, 선현의 묘와 사당, 향교와 서원을 접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세기의 출발과 함께 우리의 삶에서 차지하는 문화의 비중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문화·예술적 창의력이 곧 국력이 되는 문화의 시대가 시작된 것입니다. 관광, 영화, 애니메이션, 디자인 등 굴뚝 없는 문화산업의 근간을 이루는 것이 바로 유·무형의 문화적 전통입니다.

대한민국이 21세기의 문화강국으로 우뚝 설 수 있으려면, 전통문화의 창의적 전승에 힘써야 합니다. 특히 우리 민족의 중심문화를 고스란히 품고 있는 경기문화를 발굴하고 보존하는 일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관광객과 도민들에게 경기문화의 우수성을 알리고자 『경기문화재총람-국가지정편』을 정보·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자를 통해 경기도의 문화재와 역사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지기를 기대하며, 본 총람이 발간되기까지 열과 성을 다해주신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06. 2.

경기도지사 손학규

범례

- ❶ 본 경기문화재총람은 경기도 도지정문화재를 제외한 국가지정편으로 2005년 10월 31일을 기준으로 경기도 내에 소재한 국가지정 문화재인 국보 18점, 보물 153점, 사적 57점, 명승 1점, 천연기념물 15점, 중요무형문화재 9점, 중요민속자료 8점 총 261점을 수록하였다.
- ❷ 본 경기문화재총람의 편집은 3권 1권을 기본으로 하였다. 경기문화재총람 1권에는 국보,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 중요무형문화재, 중요민속자료 순으로 수록하였으며, 경기문화재총람 2권에는 보물을 수록하였다. 경기문화재총람 3권은 경기도내 국가지정 문화재의 현황 및 문화재 이해를 돕기 위한 색인 및 설명 자료로 꾸며져 있다.
- ❸ 수록 사진은 문화재의 성격에 따라 전경, 측면, 중요 부분을 실어 해당 문화재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 ❹ 문화재 전문용어 설명, 문화재의 유형별 분류, 시군별 문화재현황 등은 경기문화재총람 3권에 수록하여 사용에 편의를 도모하였다. 특히 석탑, 불상, 불화, 일반회화, 건축 등의 중요 용어는 사진도판을 이용하여 해당 문화재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게 하였다.
- ❺ 문장은 국한문 혼용으로 하되 고유명사나 전문용어, 인명 등을 제외하고는 가능한 한 한글을 사용하였다.
- ❻ 연대표기는 왕의 재위 연도와 서기를 혼용하되 반복될 경우에는 재위 년도만을 표기하였다.
- ❼ 문화재의 소재지는 2005년 10월 현재 행정구역으로 하였으며 모두 법정동으로 통일하였다.
- ❽ 문화재 명칭 및 영문표기는 2005년 10월 31일자 문화재청 명칭 및 표기를 사용하였다.

차례

C o n t e n t s

■ 발간사

■ 범례

보물

중초사지 당간지주	보물 제4호	10	봉선사 대종	보물 제397호	58
고달사 원종대사 해진탑비 귀부 및 이수	보물 제6호	12	금동여래입상	보물 제401호	60
고달사 원종대사 해진탑	보물 제7호	14	팔달문	보물 제402호	62
고달사지 석불좌	보물 제8호	16	화서문	보물 제403호	64
서봉사 현오국사탑비	보물 제9호	18	안성 죽산리 오층석탑	보물 제435호	66
안성 청룡사 동종	보물 제11-4호	20	칠장사 해소국사비	보물 제488호	68
의왕 청계사 동종	보물 제11-7호	22	석보상절<권11>	보물 제523-3호	70
광주 춘궁리 오층석탑	보물 제12호	24	용문사 정지국사 부도 및 비	보물 제531호	72
광주 춘궁리 삼층석탑	보물 제13호	26	김정희서심경첩	보물 제547-4호	74
창성사 진각국사 대각원조탑비	보물 제14호	28	퇴도선생 필법일책 부 퇴도선생 유첩	보물 제548호	76
여주 창리 삼층석탑	보물 제91호	30	유문철우	보물 제559호	78
여주 하리 삼층석탑	보물 제92호	32	진술선예백장동인	보물 제560호	80
파주 용미리 석불입상	보물 제93호	34	심복사 석조비로자나불좌상	보물 제565호	82
신륵사 조사당	보물 제180호	36	만기사 철조여래좌상	보물 제567호	84
신륵사 다층석탑	보물 제225호	38	안중근의사 유묵	보물 제569-3·11·17호	86
신륵사 다층전탑	보물 제226호	40	퇴우 이선생 진적	보물 제585호	88
신륵사 보제존자 석종	보물 제228호	42	이상좌 불화첩	보물 제593호	90
신륵사 보제존자 석종비	보물 제229호	44	태고사 원종국사탑비	보물 제611호	92
신륵사 대장각기비	보물 제230호	46	금동미륵보살반가사유상	보물 제643호	94
신륵사 보제존자 석종 앞 석등	보물 제231호	48	묘법연화경<권7>	보물 제692-2호	96
동제은입사항완	보물 제288호	50	소자본묘법연화경<권1~7>	보물 제693호	98
회암사지 선각왕사비	보물 제387호	52	불설사십이장경합철<불유교경·위산경책>	보물 제694호	100
회암사지 부도	보물 제388호	54	불설사십이장경합철<불유교경·위산경책>	보물 제695호	102
회암사지 쌍사자석등	보물 제389호	56	나옹화상어록·나옹화상가승	보물 제697호	104
			대불정여래밀인수증요의제보살만행수능엄경	보물 제698호	106
			<권6~10>		
			선림보훈<권상·하>	보물 제700호	108
			불설장수멸죄회제동자경	보물 제701호	110
			장승법수	보물 제703호	112
			불설대보부모은중경합철<불설부모은중태골경>	보물 제705호	114

김중만장군 영정	보물 제715호	116	몽산화상법어약록	보물 제1012호	176
월인석보(권9, 10)	보물 제745-3호	118	청자양각연당초상감운학문대접	보물 제1024호	178
월인석보(권21)	보물 제745-6호	120	청자양인각도철문방형항로	보물 제1026호	180
태고사 원종국사탑	보물 제749호	122	청자상감모란문주자	보물 제1029호	182
금제환두태도	보물 제776호	124	청자상감운학문화분	보물 제1030호	184
청화백자운룡문병	보물 제785호	126	청자양인각피어포련문접시	보물 제1031호	186
청화백자운룡문병	보물 제786호	128	청자음각연당초상감국화절지문대접	보물 제1032호	188
청자조각쌍사자두침	보물 제789호	130	청자음각여의운문병	보물 제1035호	190
영월암 마애여래입상	보물 제822호	132	청자상감맹무문표형주자	보물 제1036호	192
석남사 영산전	보물 제823호	134	청자음각국당초문대접	보물 제1037호	194
청룡사 대웅전	보물 제824호	136	청자철채양각연판문소병	보물 제1038호	196
원앙부원군 이충원 호성공신 교서	보물 제874호	138	청자상감모란절지문바릿대	보물 제1039호	198
감지금니대반아바라밀다경(권175)	보물 제887호	140	분류두공부시연해(권13)	보물 제1051호	200
괘장 및 사괘장연회도첩	보물 제930호	142	천태사교의	보물 제1052호	202
지장보살본원경(권상·중·하)	보물 제933호	144	진언권공	보물 제1053호	204
목우자수심결부사법어	보물 제934호	146	청화백자운룡문호	보물 제1064호	206
월인석보(권11, 12)	보물 제935호	148	청화백자화조문팔각통형병	보물 제1066호	208
묘법연화경(권6, 7)	보물 제936호	150	봉림사 목아미타불좌상 복장전적 일괄	보물 제1095호	210
상교정본자비도장참법(권10)	보물 제937호	152	쇄미록	보물 제1096호	218
대방광원각락소주경(권상지2)	보물 제938호	154	대방광불화엄경소(권제21, 24)	보물 제1128호	220
대불정여래밀인수증류의제보살만행수능엄경 (권4~7, 8~10)	보물 제939호	156	대불정다라니	보물 제1129호	222
백지묵서지장보살본원경(권상·중·하)	보물 제940호	158	약사유리광여래본원공덕경	보물 제1130호	224
선조어서사 송언신 밀찰첩 및 송언신 영정	보물 제941호	160	범망경노사나불설보살심지계품(제10의하)	보물 제1131호	226
묘법연화경(권3)	보물 제968호	164	백운화상초록불조직지심체요절목판본	보물 제1132호	228
화성 봉림사 목아미타불좌상	보물 제980호	166	원릉군 원균 선무공신 교서	보물 제1133호	230
태평이년명 마애약사불좌상	보물 제981호	168	정사공신 조은 사여왕지	보물 제1135호	232
태평흥국명 마애보살좌상	보물 제982호	170	입학도설	보물 제1136호	234
안성 봉업사 석불입상	보물 제983호	172	예념미타도량참법(권제6~10)	보물 제1144호	236
나암수록 외 전적	보물 제1008호	174	묘법연화경(권제1)	보물 제1145호	238
			대방광불화엄경정원본(권제24)	보물 제1146호	240

법집별행록절요병입사기	보물 제1148호	242
신간표제공자가어구해	보물 제1149호	244
선종영가집(권하)	보물 제1163호	246
남은 유서분재기 부 남재 왕지	보물 제1173호	248
청흥군 이종로 정사공신 교서 및 영정	보물 제1174호	250
청원군 심대 호성공신 교서	보물 제1175호	252
유수 영정병함	보물 제1176호	254
오명항 영정병함 부 양무공신 교서	보물 제1177호	256
반야바리밀다심경약소	보물 제1211호	258
묘법연화경(권제7)	보물 제1225호	260
청자음각반룡문주자	보물 제1228호	262
분청사기조화절지문편병	보물 제1229호	264
백자상감연당초문병	보물 제1230호	266
백자철화운죽문호	보물 제1231호	268
칠장사 삼불회 괘불탱	보물 제1256호	270
청룡사 영산회 괘불탱	보물 제1257호	272
조영복 영정	보물 제1298호	274
청룡사 감로탱	보물 제1302호	276
파주 공효공 박중손 묘역내 장명등	보물 제1323호	278
시흥 소래산 마애상	보물 제1324호	280
교지(교첩)	보물 제1334-2호	282
간찰	보물 제1334-3호	284
각택기	보물 제1334-4호	286
백자투각상감모란문병	보물 제1391호	288
김홍도필추성부도	보물 제1393호	290
경기감영도병	보물 제1394호	292
청자상감압형주자	보물 제1398호	294
청자퇴화표형주자	보물 제1399호	296
분청사기상감모란당초문장군	보물 제1400호	298
이십삼상대회도 및 김종한 교지	보물 제1406호	300

봉업사명 청동향로	보물 제1414호	302
삼현수간	보물 제1415호	304
청자퇴화화문주자 및 승반	보물 제1421호	306
수월관음도	보물 제1426호	308
정통십삼년명 분청사기상감묘지 외	보물 제1428호	310
인화분청사기 일괄		
화성행행도팔첩병	보물 제1430호	312
청사신동참제회도	보물 제1431호	314
오리 이원익 영정	보물 제1435호	316
백자대호	보물 제1441호	318

■ 찾아보기 / 문화재명

■ 시군별 문화재 목록



* 보물

중초사지 당간지주

Jungchosajidangganjiu

Buddhist flagpole supports of Jungchosa Temple site

中初寺址幢竿支柱

- 문화재종별 : 보물 제 4 호
- 지정년월일 : 1963년 1월 21일
- 시대 : 통일신라 흥덕왕 2년(827)
- 규모·재질 : 높이 364cm(화강암)
- 소재지 :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212-1
- Classification | Treasures 4
- Designated Date | 1963. 1. 21
- Age | King Heungdeok of Unified Silla Period

현재 유유산업이 공장 내에 위치하고 있는 높이 364cm의 당간지주가 서 있는 곳은 본래 고대의 사찰터였다. 드물게 당간지주에 명문(銘文)이 새겨져 있어서 이 곳이 중초사터였음을 알 수 있는데, 고려 중기의 것으로 여겨지는 삼층석탑(경기도 유형문화재 제16호)도 함께 있다. 당간의 하단에는 장대석(長臺石)을 놓아 곽(廓)을 구성하였는데, 중앙의 장대석에는 지름 26cm의 원공(圓孔)을 파고 원대(圓帶)를 마련하여 당간을 받쳤다. 지주는 원위치에서 동서로 마주보고 있는데, 당간을 고정시키던 원형 간공(竿孔)이 두 지주의 상하에 나란히 있고, 정상부에도 장방형의 고정공(固定孔)인 간구(竿溝)가 마련되어 있다. 지주의 바깥면 상단은 안쪽에서 바깥으로 등글게 깎았는데, 상단의 원형공 하면에서 1단의 턱을 이루고 있다. 서쪽 지주의 바깥면에 새겨진 명문에 의하면 신라 흥덕왕(興德王) 원년(826) 8월 6일에 채석하여, 흥덕왕 2년 2월 30일에 완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단아한 형식의 당간지주로 조성 연대가 확실한 매우 귀중한 작품으로 평가되고 있다.



명문



Jungchosajidangganjju

중초사지 당간지주

고달사 원종대사 혜진탑비 귀부 및 이수

Godalsawonjongdaesahyejintapbigwibumitisu
 Stone monument and turtle shaped pedestal of buddhist priest
 Wonjongdaesa of Godalsa Temple

高達寺元宗大師慧眞塔碑龜趺 및 螭首

- 문화재종별 : 보물 제 6 호
- 지정년월일 : 1963년 1월 21일
- 시 대 : 고려 광종 26년(975)
- 규모 · 재질 : 높이 2m(화강암)
- 소재지 : 여주군 북내면 상교리 417-3
- Classification | Treasures 6
- Designated Date | 1963. 1. 21
- Age | King Gwangjong of Goryeo Period

1916년에 무너져서 비신석(碑身石)은 경복궁 회랑(回廊)에 진열되었고 고달사지에는 귀부와 이수만이 남아 있다. 원종대사비의 받침돌인 귀부는 커다란 1개의 석재로 머리는 용이고, 몸체는 거북의 형상으로 네 발과 더불어 등에는 육각형의 귀갑문(龜甲文)이 가득히 조각되어 웅장하고도 정교한 조각 수법을 보여 준다. 비석을 받치는 비좌(碑座)는 장방형으로, 귀갑문을 휘감으며 새겨진 구름무늬의 위쪽에 마련되었는데, 상면에는 연화문(蓮花文)이 양각되었다.

이수 역시 1개의 석재로 조성되었는데, 중앙의 제액(題額)에는 '혜목산고달선원국사원종대사지비(慧目山高達禪院國師元宗大師之碑)'라 음각되어 비석의 주인공을 알려 준다. 뿐만 아니라 제액의 가장자리에는 구름무늬가 양각되어 화려함을 보여 준다. 테두리에는 제액을 중심으로 좌·우에 각각 2마리의 용이 조각되어 있는데, 이 수법이 매우 사실적일 뿐만 아니라 생동감이 있어 당대 조각의 기풍을 잘 보여 준다. 원종대사는 신라 경문왕(景文王) 9년(869)에 출생하여 고려 광종(光宗) 9년(958)까지 활동했던 고승으로 경복궁 회랑에 이전되어 있는 비신의 비문에 의하면 이 탑비가 고려 광종 26년에 건립되었음을 알려 준다.



용머리 부분



측면



중앙의 제액



Godalsawonjongdaesahyejjintapbigwibumitisu

고달사 원종대사 해진탑비 귀부 및 이수

고달사 원종대사 혜진탑

Godalsawonjongdaesahyejintap

Sarira pagoda of priest Wonjongdaesa

高達寺元宗大師慧眞塔

- 문화재종별 : 보물 제 7 호
- 지정년월일 : 1963년 1월 21일
- 시 대 : 고려 광종 26년(975) 추정
- 규모·재질 : 높이 2.5m(화강암)
- 소 재 지 : 여주군 북내면 상교리 413
- Classification | Treasures 7
- Designated Date | 1963. 1. 21
- Age | King Gwangjong of Goryeo Period

원종대사(869~958)는 통일신라시대부터 고려 광종(光宗)에 이르는 오랜 기간을 활동한 고승으로, 그의 부도는 높이 2.5m에 팔각원당형(八角圓堂形)의 형식을 따르면서 일부에서 변형을 보여 준다. 4매의 석재로 짜여진 방형의 지대석(地臺石)과 역시 방형의 하대석 위에 중대석과 상대석은 팔각으로 이루어져 있다. 하대석의 하면에는 단엽(單葉) 24판의 연화문이 조각되었고, 중대석에는 머리를 오른쪽으로 돌린 거북을 중심으로 4마리의 용이 있는데, 몸통의 사이에는 구름무늬가 가득하다. 상대석의 하면에는 큼직한 복엽(複葉) 8판의 양련(仰蓮)이 조식되었고, 상면에는 탑신을 받치기 위한 1단의 받침이 조출되어 있다. 팔각형으로 이루어진 탑신부에는 각각의 면에 문비형(門扉形)과 사천왕상(四天王像)이 번갈아 가며 조각되어 있다. 옥개석은 낙수면의 합각선이 뚜렷하고, 각 추녀의 끝에는 귀꽃이 조각되어 있다. 상륜부에는 중앙에 꽃무늬가 조각된 복발(覆鉢) 위에 귀꽃이 표현된 소형의 보개(寶蓋)와 보주(寶珠)를 놓았다. 탑비(塔碑)와 같은 해인 고려 광종 26년(975)에 건립된 것으로 추정된다.



대석



Godalsawonjongdaesahyejintap

고달사 원종대사 혜진탑

고달사지 석불좌

Godalsajiseokbuljwa

Stone pedestal for buddhist statue

高達寺址石佛座

- 문화재종별 : 보물 제 8 호
- 지정년월일 : 1963년 1월 21일
- 시 대 : 고려시대
- 규모·재질 : 높이 1.48m(화강암)
- 소 재 지 : 여주군 북내면 상교리 420-5

- Classification | Treasures 8
- Designated Date | 1963. 1. 21
- Age | Goryeo Period

고달선원(高達禪院)의 주존불(主尊佛)이 놓였던 것으로 추정되는 석조대좌(石造臺座)이다. 평면 방형의 형태로 각각 하나의 석재로 구성된 상대석·중대석·하대석을 구비한 완전한 형태이다. 하대석은 상하 2단으로 구성되었는데, 하단에는 각 면에 4구씩의 안상(眼象)이 조각되었고, 상단에는 복엽 24판의 복련(覆蓮)이 표현되었다. 하대석의 상면에는 3단의 받침을 조출하여 중대석을 받치고 있다. 중대석에는 각 모퉁이에 우주(隅柱)를 새긴 후, 각 면 1구씩의 안상이 조각되었는데, 내부의 여백을 모두 차지할 만큼 큼직하게 표현되어 있다. 상대석의 하단에는 3단의 받침을 조출하였고, 상면에는 복엽 24판의 앙련(仰蓮)을 돌렸다.

이 불좌는 방형의 평면을 지녔음과 동시에 규모의 거대함에서 고려 초기의 기풍과 조각 수법을 잘 대변하고 있는 일례로 평가된다.



고달사지 석불좌 정면



Godalsajiseokbuljwa

고달사지 석불좌

서봉사 현오국사탑비

Seobongsahyeonoguksatapbi

Monument to National preceptor Hyeonoguksa at Seobong Temple

瑞峰寺玄悟國師塔碑

- 문화재종별 : 보물 제 9 호
- 지정년월일 : 1963년 1월 21일
- 시 대 : 고려 명종 15년(1185)
- 규모 · 재질 : 높이 1.88m, 폭 0.97m(점판암)
- 소 재 지 :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2동 산 111

- Classification | Treasures 9
- Designated Date | 1963. 1. 21
- Age | King Myeongjong of Goryeo Period

고려의 고승 현오국사 종린(宗麟 : 1127~1178)의 공덕을 추모하고자 세운 탑비이다. 국사의 출가 이전의 성(姓)은 왕씨(王氏), 자(字)는 중지(重之)로 기개와 도량이 크고 넓었다. 13세에 출가하여 인종(仁宗) 19년(1141) 불일사(佛日寺)에서 계(戒)를 받았고, 의종(毅宗) 즉위년(1146) 수좌(首座)가 되어 귀신사·국태사·부석사 등의 주지를 역임했으며 승통(僧統)이 되어 법문을 이끌었다. 명종(明宗) 원년(1171) 왕에게 나아가 만수가사(滿補袞袞)를 하사받았다. 명종 8년 53세의 나이로 입적하자 국사에 추증되고 현오라는 시호가 내려졌다. 비신 윗부분의 양 모서리를 귀접이하고 방형 대석(臺石)을 단순하게 처리하는 등 고려 말 석비 형식의 간략화를 볼 수 있다. 점판암제 비신은 표면이 마모되고 아래의 일부가 탈락되었다. 비문은 이지명(李知命 : 1127~1191)이 짓고 유공권(柳公權 : 1132~1196)이 유려한 필치로 썼다.



Seobongsahyeonoguksatapbi

서봉사 현오국사탑비

안성 청룡사 동종

Anseongcheongnyongsadongjong
Bronze bell of Cheongnyongsa Temple

安城靑龍寺銅鐘

- 문화재종별 : 보물 제 11-4 호
- 지정년월일 : 2000년 2월 15일
- 시대 : 조선 숙종대
- 규모·재질 : 높이 129cm, 구경 89cm, 두께 7.5cm(동)
- 소재지 : 안성시 서운면 청룡리 28 청룡사

- Classification | Treasures 11-4
- Designated Date | 2000. 2. 15
- Age | King Sukjong of Joseon Period

조선 숙종 때 경기도와 경상도 지역에서 활동한 승려인 사인비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조선시대 종이다. 사인비구는 18세기 뛰어난 승려이자 장인으로 전통적인 신라 종의 제조기법에 독창성을 합친 종을 만들었다. 현재 그의 작품 8구가 서로 다른 특징을 보이며 전해지고 있다.

이 종은 종을 매다는 고리인 용뉴(龍鈕)와 소리의 울림을 도와준다는 대나무 모양의 음통에 역동적인 모습의 용이 새겨져 있다. 또한 종의 어깨와 아래 입구 부분에는 연꽃과 덩굴을 새긴 넓은 띠를 두르고 있으며, 어깨 띠 아래에는 사각형 모양의 대가 있고 그 사이 사이에는 보살상을 세웠다.

사실적으로 표현한 수법이 특히 돋보이는 작품으로, 사인비구의 작품세계와 조선 종을 연구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다.



용뉴



보살상



Anseongcheongnyongsadongjong

안성 청룡사 동종

의왕 청계사 동종

Uiwangcheonggyesadongjong
Bronze bell of Cheonggyesa Temple in Uiwang

儀旺清溪寺銅鐘

- 문화재종별 : 보물 제 11-7 호
- 지정년월일 : 2000년 2월 25일
- 시대 : 조선 숙종대
- 규모·재질 : 높이 115cm, 구경 71cm(동)
- 소재지 : 의왕시 청계동 산 11 청계사
- Classification | Treasures 11-7
- Designated Date | 2000. 2. 25
- Age | King Sukjong of Joseon Period

조선 숙종 때 경기도와 경상도 지역에서 활동한 승려인 사인비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조선시대 종이다. 사인비구는 18세기 뛰어난 승려이자 장인으로 전통적인 신라 종의 제조기법에 독창성을 합친 종을 만들었다. 현재 그의 작품 8구가 서로 다른 특징을 보이며 전해지고 있다.

종의 높이는 115cm, 구경 71cm이며, 무게가 700근이나 나가는 큰 종이다. 종의 꼭대기에는 두마리의 용이 종을 매다는 고리 역할을 하고 있고, 어깨와 종 입구부분에는 꽃과 덩굴을 새긴 넓은 띠가 있다. 어깨 띠 아래로는 연꽃모양의 9개의 돌기가 사각형의 유곽 안에 있고, 그 사이사이에는 보살상들이 서있다. 종의 허리에는 중국에서 영향을 받은 듯한 2줄의 굵은 횡선이 둘러져 있고, 그 아래로 글이 남아 있어 만든 사람과 시기를 알 수 있다.

18세기의 종의 형태를 잘 보여주는 것으로 조선 후기 범종 연구에 중요한 자료로 평가 받고 있다.



명문



유곽 및 보살상



Uiwangcheonggyesadongjong

의왕 청계사 동종

광주 춘궁리 오층석탑

Gwangjuchungungniocheungseoktap
Five storied stone pagoda in Chungung-ri, Gwangju

廣州春宮里五層石塔

- 문화재종별 : 보물 제 12 호
- 지정년월일 : 1963년 1월 21일
- 시 대 : 고려시대
- 규모·재질 : 높이 7.5m
- 소 재 지 : 하남시 춘궁동 466

- Classification | Treasures 12
- Designated Date | 1963. 1. 21
- Age | Goryeo Period

평면 방향의 2층 기단 위에 5층 탑신을 올린 높이 7.5m의 일반형 석탑이다. 기단은 각각 여러 매의 길고 넓적한 방형 석재로 조립하였는데, 각 면에는 양 우주(隅柱)와 탕주(撐柱)가 모각되어 있다. 상층 기단갑석은 4매의 판석으로 구성되어 상면에는 낮은 탑신기임대가 조출되어 있다. 1층 탑신은 이 석탑의 한 특성을 보여주는 부분이다. 즉, 상하 2단으로 하단에는 4매의 방형 석재를 놓았고, 상단에는 1매의 석재를 놓았는데 양 우주가 모각되어 있다. 2층 이상의 탑신은 모두 하나의 석재에 공통으로 양 우주가 모각되어 있다. 역시 하나의 석재로 이루어진 옥개석은 낙수면의 경사가 완만하고, 추녀는 수평을 이루다 전각(轉角)에 이르러 경쾌한 반전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옥개석 전체에서 주는 느낌은 날렵하고 경쾌하여 신라 석탑의 양식을 엿볼 수 있다. 이 석탑의 건립은 고려시대지만 전체적인 면에서 신라 석탑의 양식을 계승한 일례로 평가되고 있다.



탑신부



기단과 1층 탑신



Gwangjuchungungniocheungseoktap

광주 춘궁리 오층석탑

광주 춘궁리 삼층석탑

Gwangjuchungungnisamcheungseoktap
Three storied stone pagada in Chungung-ri, Gwangju

廣州春宮里三層石塔

- 문화재종별 : 보물 제 13 호
- 지정년월일 : 1963년 1월 21일
- 시 대 : 고려시대
- 규모·재질 : 높이 3,6m
- 소 재 지 : 하남시 춘궁동 465

- Classification | Treasures 13
- Designated Date | 1963. 1. 21
- Age | Goryeo Period

평면 방형의 2층 기단 위에 3층 탑신을 올린 높이 3.6m의 일반형 석탑이다. 기단의 하층은 일부 매몰되었고, 탑의 상륜부(相輪部)가 전실되는 등 손상된 부분이 있으나 전체적인 당당함을 잃지 않았다. 하층 기단의 각 면에는 3개씩의 안상(眼象)을 새겼고, 상층 기단의 각 면에는 양 우주(隅柱)와 탕주(撐柱)를 모각하였다. 상층 기단갑석의 하면에는 낮은 부연(副椽)을 상면에는 각형 2단의 탑신받침을 조출하였다. 탑신석과 옥개석은 각각 하나의 석재로 구성되었다. 탑신석의 각 면에는 양 우주가 모각되었고 옥개석의 하단에는 1·2층 5단, 3층 4단의 옥개받침이 조출되었다. 낙수면의 경사가 완만하고, 처마는 수평을 이루다 끝에서 경쾌한 반전(反轉)을 보이고 있다. 이 석탑은 탑신부에서 2층 이상의 높이가 1층에 비해 급격히 낮아지고 있지만, 기단과 옥개석의 수법에서 신라 석탑의 양식을 계승한 면을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기단부



1, 2층 탑신



Gwangjuchungungnisamcheungseoktap

광주 춘궁리 삼층석탑

창성사 진각국사 대각원조탑비

Changseongsajingakguksadaegakwonjotapbi
Stele to National Preceptor Jingakguksa at Changseongsa Temple

彰聖寺眞覺國師大覺圓照塔碑

- 문화재종별 : 보물 제 14 호
 - 지정년월일 : 1963년 1월 21일
 - 시 대 : 고려 우왕 12년(1386)
 - 규모 · 재질 : 높이 2.12m, 폭 0.81m(비·점판암, 대석·개석·화강암)
 - 소 재 지 : 수원시 팔달구 매향동 13-1
-
- Classification | Treasures 14
 - Designated Date | 1963. 1. 21
 - Age | King U of Goryeo Period

고려 말의 고승 진각국사 천희(千熙 : 1307~1385)의 탑비로 우왕(禎王) 12년(1386) 광교산 창성사에 세워졌다.

장방형 대석(臺石)에 비신을 세우고 그 위에 우진각 지붕 모양의 개석(蓋石)을 얹었다. 대석이나 개석에 별다른 꾸밈이 없는 간략한 형식이다. 천희는 충숙왕(忠肅王) 6년(1319) 반룡사 일비(一非)에게 출가, 충숙왕 12년 승과(僧科)에 급제, 김생사·부인사·개태사 등에 머물렀고, 국사로서 선교도총섭(禪敎都總攝)이 되었으며, 탑호는 대각원조이다. 앞면 좌측과 하단 그리고 뒷면 대부분이 탈락되었다. 비문은 이색(李穡 : 1328~1396)이 지었고, 쓴 사람은 권주(權鑄)로 여겨진다.



보호각



Changseongsajingakguksadaegakwonjotapbi

창성사 진각국사 대각원조탑비

여주 창리 삼층석탑

Yejuchangnisamcheungseoktap

Three storied stone pagoda in Chang-ri, Yeosu

驪州倉里三層石塔

- 문화재종별 : 보물 제 91 호
- 지정년월일 : 1963년 1월 21일
- 시 대 : 고려시대
- 규모 · 재질 : 높이 2,46m(화강암)
- 소 재 지 : 여주군 여주읍 창리 136-6

- Classification | Treasures 91
- Designated Date | 1963, 1, 21
- Age | Goryeo Period

평면 방향의 2층 기단 위에 3층 탑신을 올린 높이 2.46m의 일반형 석탑이다. 하층 기단의 각 면에는 2개씩의 안상(眼象)을 새겼고, 갑석(甲石)의 상면에는 16판의 복련(覆蓮)을 조각하였다. 상층 기단의 각 면에는 우주(隅柱)가 생략되었는데, 상면을 덮고 있는 두꺼운 갑석의 하면에는 부연(副椽)이 있다. 탑신부(塔身部)는 기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1층 탑신만 하나의 석재이고, 나머지 부분은 옥개석과 탑신석이 하나의 석재로 조성되었다. 옥개석의 하면에는 매층 각형 3단의 받침이 조출되었다. 낙수면의 경사가 급하고, 추녀는 수평을 이루다가 전각에 이르러 반전되었는데 대체로 둔중한 느낌을 주고 있다.

이 석탑은 1958년에 영월루 밑의 공원에 이전되어 여주 하리 삼층석탑(보물 제92호)과 나란히 세워졌는데 당시 초층 탑신의 사리공(舍利孔)에서 동제여래입상(銅製如來立像) 1구가 발견된 바 있다.



삼층석탑 전경



Yeojuchangnisamcheungseoktap

여주 창리 삼층석탑

여주 하리 삼층석탑

Yejuharisamcheungseoktap

Three storied stone pagoda in Ha-ri, Yeosu

麗州下里三層石塔

- 문화재종별 : 보물 제 92 호
- 지정년월일 : 1963년 1월 21일
- 시대 : 고려시대
- 규모·재질 : 높이 3.7m(화강암)
- 소재지 : 여주군 여주읍 창리 136-6

- Classification | Treasures 92
- Designated Date | 1963, 1, 21
- Age | Goryeo Period

평면 방향의 2층 기단 위에 3층 탑신을 올린 높이 3.7m의 일반형 석탑이다. 하층 기단의 갑석(甲石)은 경사지면서 상면에 2단의 받침을 조출하였다. 상층 기단의 각 면에는 양 우주(隅柱)가 모각되었고, 갑석의 하면에는 부연(副椽)이 있다. 탑신석과 옥개석은 각각 하나의 석재로 구성되었는데, 탑신석의 각 면에는 양 우주가 얇게 모각되어 있다. 옥개석의 층받침은 각 4단이고 추녀 아래쪽은 수평을 이루다가 전각(轉角)에 이르러 반전되었다. 1958년 석탑을 하리의 옛 절터에서 옮길 때 초층 탑신의 윗부분에서 방향의 사리공(舍利孔)이 확인된 바 있으며 현재 창리 삼층석탑과 함께 영월루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다.



삼층석탑 전경



Yeojuharisamcheungseoktap

여주 하리 삼층석탑

파주 용미리 석불입상

Pajuyongmiriseokburipsang

Two rock-carved standing buddha in Yongmi-ri, Paju

坡州龍尾里石佛立像

- 문화재종별 : 보물 제 93 호
- 지정년월일 : 1963년 1월 21일
- 시 대 : 고려시대
- 규모 · 재질 : 원립불-높이 2.45m, 방립불-높이 2.36m
- 소 재 지 : 파주시 광탄면 용미리 산 8
- Classification | Treasures 93
- Designated Date | 1963. 1. 21
- Age | Goryeo Period

거대한 천연 암벽에 불신(佛身)을 조각하고 머리를 따로 만들어 올린 2구의 석불이다. 원형의 둥근 갓을 쓴 불상은 사각형의 넓적한 얼굴에 눈꼬리가 긴 눈과 큼직한 코와 입이 묘사되어 있다.

암벽에 새겨진 신체는 통견 법의(通肩法衣)를 착용하였는데, 중앙의 U자형 의문(衣文)을 중심으로 직선의 옷주름이 흐르고 있다. 가슴에는 띠 매듭이 보이고 있으며, 양 손은 가슴에 들어 연화줄기를 잡고 있다.

이와 대칭적으로 서 있는 석불은 사각형의 보개(寶蓋)와 합장한 수인(手印)만 다를 뿐, 전체적인 수법은 같은 양식을 보이고 있다. 자연 암벽을 그대로 이용하여 조성한 까닭에 전체적인 신체의 비율은 흐트러졌지만, 규모에서 오는 위풍당당함을 볼 수 있다. 경북 안동의 이천동 석불입상과 함께 고려시대의 석불 양식 연구에 귀중한 자료로 평가되고 있다.



방립불 상호



원립불 상호



Pajuyongmiriseokburipsang

파주 용미리 석불입상

신륵사 조사당

Silleuksajosadang
Josadang Hall of Silleuksa Temple

神勒寺祖師堂

- 문화재종별 : 보물 제 180 호
- 지정년월일 : 1963년 1월 21일
- 시대 : 조선 현종 12년(1671)
- 규모·재질 : 조사당 1동-정면 1칸, 측면 2칸(목조)
- 소재지 : 여주군 북내면 천송리 282 신륵사

- Classification | Treasures 180
- Designated Date | 1963, 1, 21
- Age | Kint Hyeonjong of Joseon Period

신륵사는 신라 진평왕(眞平王) 때 창건되었고 나옹화상(懶翁和尚 : 1320~1376)이 이곳에서 입적한 후 고려 우왕(禡王) 2년(1376)에 크게 중창되었던 유서 깊은 고찰(古刹)이다. 영릉(英陵)이 여주로 이장된 조선 예종(睿宗) 원년(1469)부터 왕실에서 신륵사를 원찰(願刹)로 삼았고, 성종(成宗) 3년(1472)부터 대규모 중창이 이루어져 이듬해 보은사(報恩寺)라 개칭되었다. 조사당은 고려 말에 창건되어 조선 초에 중건되었는데 현재의 건물은 현종(顯宗) 12년(1671)에 중수된 것이다.

조사당은 사찰 중심에서 서쪽으로 약간 떨어진 곳에 위치하여 별도의 영역을 형성하고 있다.

정면 1칸, 측면 2칸의 다포계(多包系) 팔작집인데 몸체에 비해 지붕이 크고 추녀가 많이 올라가 있어 균형잡힌 외관을 보여주고 있다. 낮은 장대석(長臺石) 기반에 주좌(柱座)가 있는 정형 초석(礎石)이 놓이고 민흘림기둥에 공포(拱包)가 결구되어 오량(五梁)의 지붕가구가 짜 올려져 있다. 대들보 위에 가로재가 정(井)자형으로 놓이고 동자주(童子柱)가 세워져 마루도리가 올려져 있는데 이러한 구조가 우물반자에 가리어 보이지 않는 점이 특이하다. 내부 바닥은 우물마루이고 뒷벽 쪽에 불단(佛壇)이 설치되었으며 그 위에는 고려 말의 고승(高僧)인 지공(指空 : ?~1363)·나옹·무학대사(無學大師 : 1327~1405) 세 분의 영정(影幀)이 봉안되어 있다.

이 불전은 규모가 매우 작으나 특이한 공포의 형태와 가구 수법을 보여주고 있는 조선 중기의 건축이다.



조사당 내부



공포



Silleuksajosadang

신록사 조사당

신록사 다층석탑

Silleuksadacheungseoktap

Mulli storied stone pagoda of Silleuksa Temple

神勒寺多層石塔

- 문화재종별 : 보물 제 225 호
- 지정년월일 : 1963년 1월 21일
- 시 대 : 조선시대
- 규모 · 재질 : 높이 약 3m(대리석)
- 소 재 지 : 여주군 북내면 천송리 282 신록사

• Classification | Treasures 225

• Designated Date | 1963. 1. 21

• Age | Joseon Period

대리석으로 조성된 석탑으로 기단에서 탑신에 이르기까지 각각 하나의 석재로 조립되었다. 방향의 지대석(地臺石) 위에 2층 기단을 놓았다. 하층 기단의 하대석에 단엽(單葉) 40판의 복련(覆蓮)과 중대석의 각 모서리에 화문(花文)이 장식되었는데, 각 면에는 파도문을 조식하였다. 갑석(甲石)의 아래 윗면에는 앙련(仰蓮)과 복련이 새겨졌으며, 중간에는 넓은 돌대(突帶)를 형성하였다. 상층 기단의 각 면에는 생동감이 넘치는 운룡문(雲龍文)을 조각하였다. 갑석의 하면에는 앙련이 조식되었고, 상면은 편평하게 처리하여 탑신을 받고 있다. 탑신석에는 매층 양 우주(隅柱)가 모각되었다. 옥개석의 추녀는 수평으로 흐르다 전각(轉角)에 이르러 반전(反轉)을 보이고 있는데, 각 층의 체감율이 완만하다. 8층 옥개석의 상면에 소형의 탑신석이 있는 점으로 보아 본래는 더 많은 층수를 이루었던 것으로 보인다.



상층 기단의 운룡문



Silleuksadacheungseoktap

신륵사 다층석탑

신륵사 다층전탑

Silleuksadacheungjeontap

Multi storied brick pagoda of Silleuksa Temple

神勒寺多層磚塔

- 문화재종별 : 보물 제 226 호
- 지정년월일 : 1963년 1월 21일
- 시 대 : 고려시대
- 규모·재질 : 높이 9.4m(화강암 및 벽돌)
- 소 재 지 : 여주군 북내면 천송리 282 신륵사

• Classification | Treasures 226

• Designated Date | 1963. 1. 21

• Age | Goryeo Period

경기도 지방에 현존하는 높이 9.4m의 유일한 전탑이다. 기단부는 화강암을 이용하여 7단의 층단형(層段形)으로 구축하였다. 기단부의 상면에는 여러 단의 벽돌을 쌓아 탑신부를 구성하였는데, 이로 말미암아 전탑이란 명칭이 붙여지게 되었다. 탑신에 비해 옥개(屋蓋)는 극히 간략하게 처리되어 탑신간의 경계 역할을 할 뿐이다. 탑을 구성하고 있는 벽돌에는 이중의 반원 사이에 연주문(聯珠文)과 당초문(唐草文)을 조각하였으나 배치가 일정하지 못하다. 상륜부(相輪部)는 기단과 같이 화강암으로 조성하였다. 이 전탑은 조선시대에 이르러 개축된 까닭에 본래의 모습에서 다소 변화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정확한 층 수 역시 불명확한 까닭에 다층전탑이라 부르고 있다.



탑신부



Silleuksadacheungjeontap

신록사 다층전탑

신륵사 보제존자 석종

Silleuksabojejonjaseokjong

Stupa of buddhist priest Bojejonja of Silleuksa Temple

神勒寺普濟尊者石鐘

- 문화재종별 : 보물 제 228 호
- 지정년월일 : 1963년 1월 21일
- 시 대 : 고려시대
- 규모 · 재질 : 높이 160cm, 지름 110cm(화강암)
- 소 재 지 : 여주군 북내면 천송리 282 신륵사

• Classification | Treasures 228

• Designated Date | 1963, 1, 21

• Age | Goryeo Period

신륵사에서 입적(入寂)한 고려 말기의 명승 나옹(懶翁 : 1320~1376)의 사리탑이다. 통일신라시대부터 팔각원당형(八角圓堂形) 부도와 함께 이러한 석종형 부도도 함께 조성되곤 했는데 고려 때까지도 이런 전통이 이어졌음을 보제존자 나옹의 부도에서 알 수 있다. 박석(薄石)을 깎아 마련한 묘역에 방형의 넓은 기단을 마련하고, 상면에도 박석을 깎아 중앙에 2매의 판석(板石)으로 기단을 형성한 후 석종형의 탑신을 놓았다. 기단의 전면과 양쪽 면에는 계단을 설치하였는데, 면석에는 문양을 새겨 변화를 주고 있다. 석종의 신부(身部)는 위로 갈수록 원만한 타원형을 이루다가 어깨 부분에서 수평이 되게 처리하였는데, 위쪽에는 보주(寶珠)를 조각하였다. 이 석종의 배치는 양산 통도사나 김제 금산사에서와 같이 계단탑(戒壇塔)의 형식을 모방하여 건립한 것으로 보인다. 전체적으로 둔중하면서도 균형을 잃지 않고 있어 당시의 건축 양식을 잘 보여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후 건립되는 석종형 부도의 선구적인 한 예로 평가된다. 석종 뒤쪽에 있는 보제존자 석종비(보물 제229호)의 명문(銘文)에 의해 이 석종의 건립 시기도 고려 우왕(禑王) 5년(1379)으로 추정되고 있다.



계단탑 형식의 석종



석종의 탑신부와 보주



Silleuksabojeonjaseokjong

신록사 보제존자 석종

신륵사 보제존자 석종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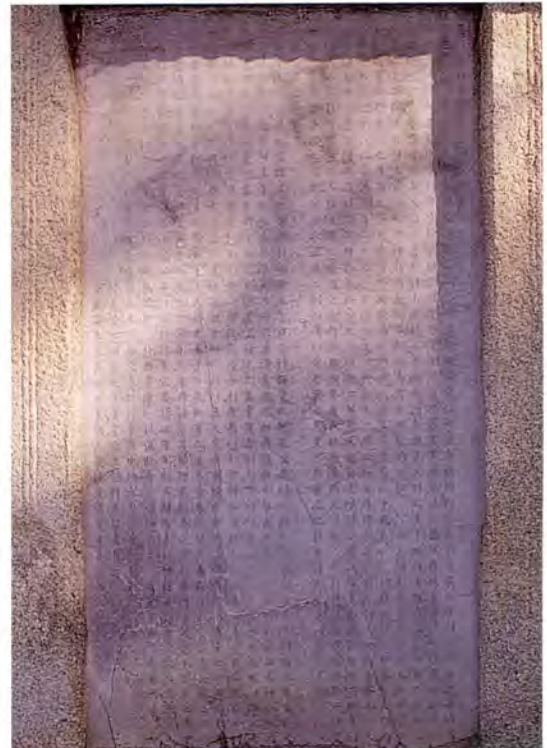
Silleuksabojeonjaseokjongbi

Stele to buddhist priest Bojeonja of Silleuksa Temple

神勒寺普濟尊者石鐘碑

- 문화재종별 : 보물 제 229 호
- 지정년월일 : 1963년 1월 21일
- 시대 : 고려 우왕 5년(1379)
- 규모·재질 : 총 높이 212cm, 폭 61cm(비신-대리석, 비대·목개-화강암)
- 소재지 : 여주군 북내면 천송리 282 신륵사
- Classification | Treasures 229
- Designated Date | 1963. 1. 21
- Age | King U of Goryeo Period

고려 말의 명승 보제존자 혜근(惠勤 : 1320~1376)의 묘탑(墓塔)과 진당(眞堂)을 조성한 내력을 적은 비이다. 혜근이 말년에 밀양 영원사로 가던 중 신륵사에서 입적하자 문도(門徒)들이 절 북쪽 언덕에 석종 모양의 묘탑을 세워 그의 사리를 안치하고, 이를 계기로 그의 초상을 모실 진당을 짓는 등 대대적인 증창을 했다. 비문은 당대를 대표하는 문필가 이색(李穡 : 1328~1396)과 명서가(名書家) 한수(韓脩 : 1333~1384)가 각각 짓고 썼는데 단정한 필치가 돋보이는 명품이다. 뒷면에는 건립에 참여한 문도·시주자의 명단과 증창 불사에 참여한 사람들의 명단이 적혀 있다. 2단의 지대석(地臺石) 위에 연꽃무늬를 새긴 비좌(碑座)를 얹어 비신(碑身)을 세웠으며 비신 양 옆에 기둥석을 댄 뒤 그 위에 기왓골과 서까래를 섬세하게 새긴 개석(蓋石)을 얹었다. 고려 말에 새로 유행된 석비(石碑) 형식으로 신륵사 대장각기비(보물 제230호)도 같은 예이다. 보제존자 석종(보물 제228호)·석종 앞 석등(보물 제231호)과 함께 당시 석조 미술의 수준을 살필 수 있다.



비문



Silleuksabojeonjaseokjongbi

신록사 보제존자 석종비

신륵사 대장각기비

Silleuksadaejanggakgibi

Monument to Silleuksa Temple sutra library

神勒寺大藏閣記碑

- 문화재종별 : 보물 제 230 호
- 지정년월일 : 1963년 1월 21일
- 시대 : 고려 우왕 9년(1383)
- 규모·재질 : 총 높이 1.33m, 폭 0.88m(비신-대리석, 비대·옥개-화강암)
- 소재지 : 여주군 북내면 천송리 282 신륵사

- Classification | Treasures 230
- Designated Date | 1963. 1. 21
- Age | King U of Goryeo Period

신륵사 대장각의 건립 내력을 새긴 비로서 극락보전 서쪽 언덕의 비각에 전한다. 목은(牧隱) 이색(李穡 : 1328~1396)이 공민왕(恭愍王 : 1330~1374)과 부모의 명복을 빌고자 나옹선사(懶翁禪師)의 제자들과 함께 발원하여 대장경을 인쇄하고 이를 보관하기 위해 이곳에 2층의 대장각을 지었다. 비문은 예문관제학(藝文館提學) 이승인(李崇仁 : 1349~1392)이 짓고 진현관제학(進賢館提學) 권주(權鑄)가 썼다. 뒷면에는 대장경 인쇄와 대장각 건립에 참여한 승려와 신도들의 명단이 적혀 있다. 비는 연꽃무늬를 새긴 장방형의 대석(臺石) 위에 비신(碑身)을 세우고 비신 양 옆에 돌기둥을 댄 다음 그 위에 팔작지붕 모양의 개석(蓋石)을 올렸다. 이러한 형식은 고려 말에 나타난 것으로 이후 조선 초에 영향을 주었다.



대장각기비 비각



Silleuksadaejanggakgibi

신록사 대장각기비

신륵사 보제존자 석종 앞 석등

Silleuksabojejonjaseokjongapseokdeung
Stone lantern in front of the stele to buddhist priest Bojejonja

神勒寺普濟尊者石鐘 앞 石燈

- 문화재종별 : 보물 제 231 호
- 지정년월일 : 1963년 1월 21일
- 시 대 : 고려시대
- 규모 · 재질 : 총 높이 194cm(화강암)
- 소 재 지 : 여주군 북내면 천송리 282 신륵사
- Classification | Treasures 231
- Designated Date | 1963. 1. 21
- Age | Goryeo Period

평면 팔각형의 구도를 지닌 석등으로 나옹(懶翁 : 1320~1376) 스님의 사리탑 앞에 있다. 팔각형의 높직한 지대석 위에 놓인 기단(基壇)은 하나의 석재로 구성되어 있다. 하대석에는 16판의 복련(覆蓮)이 장식되었고, 잘록한 간주석(竿柱石)에는 각 모서리에 연주문(聯珠文)으로 구획을 나눈 후 그 안에 아(亞)자형의 안상(眼象)을 배치하고 있다. 상대석에는 16판의 양련(仰蓮)을 조식하였다. 납석제로 조성된 등불을 올려놓은 곳인 화사석(火舍石)은 높게 조성되었는데, 만룡문(蟠龍文)을 장식한 원형의 기둥과 화창(火窓)·비천(飛天)·창방(昌枋)·평방(平枋) 등을 가득히 조각하였다. 팔각형의 옥개석은 높직한 처마와 더불어 전각의 반전이 예리한데, 하면에는 1단의 옥개반침과 낙수 홈이 마련되어 있다. 정상에는 연꽃으로 장식한 북발(覆鉢)과 보주(寶珠)를 놓아 상륜부(相輪部)를 구성하고 있다. 이 석등은 고려 말기 석등의 대표적인 양식을 보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조선시대의 무덤 앞에 놓이는 장명등(長明燈)의 선구적인 일례로 평가되고 있다.



화사석의 비천상



화사석



Silleuksabojejonjaseokjongapseokdeung

보제존자 석종 앞 석등

동제은입사향완

Dongjeeunipsahyangwan

Bronze incense burner with designs of inlaid silver

銅製銀入絲香垸

- 문화재종별 : 보물 제 288 호
- 지정년월일 : 1963년 1월 21일
- 시 대 : 고려 충목왕 2년(1346)
- 규모 · 재질 : 높이 28.8cm, 구경 29.1cm(둥)
- 소 재 지 : 의왕시 내손동 643-13 경춘빌라 가동 1302호

• Classification | Treasures 288

• Designated Date | 1963. 1. 21

• Age | King Chungmok of Goryeo Period

재료는 동이며 은입사 기법이 베풀어졌다. 은입사 기법으로 노신(爐身)에 당초문(唐草文)과 범자(梵字), 여의두문(如意頭文)이 장식되었다. 또한 향로 안쪽에 90여 자에 달하는 글자가 새겨져서 만든 시기와 소속 사찰을 알 수 있는 귀중한 문화재이다. '지정육년병술사월일이지산상원사(至正六年丙戌四月日爾智山上院寺)'라고 시작하는 명문(銘文)이 몸체를 받치는 받침의 아래 가장자리에 돌아가면서 은입사 되었다. 원래 금강산 용공사(龍貢寺)에 전하는 것으로 한 국전쟁 때 남쪽으로 가져온 것이다.



노신의 범자 무늬



Dongjeeunipsahyangwan

동제은입사향완

회암사지 선각왕사비

Hoeamsajiseongagwangsabi

Monument to high Priest Seongak of Hoeamsa Temple site

檜巖寺址禪覺王師碑

- 문화재종별 : 보물 제 387 호
- 지정년월일 : 1963년 9월 2일
- 시대 : 고려 우왕 3년(1377)
- 규모·재질 : 높이 3.06m, 폭 1.6m(화강암)
- 소재지 : 양주시 회암동 산 8 회암사

- Classification | Treasures 387
- Designated Date | 1963. 9. 2
- Age | King U of Goryeo Period

고려 말의 명승 선각왕사 혜근(惠勤 : 1320~1376)을 추모하기 위해 왕명으로 세운 비이다. 선각왕사는 보제존자(普濟尊者) 나옹(懶翁 : 1320~1376)으로 비문에는 왕사의 일생이 잘 나타나 있다. 회암사는 공민왕(恭愍王) 13년(1364)에 그가 깨달음을 얻어 중국행을 결심했던 곳이며 공민왕 19년(1370) 이후 주지로 머물렀던 곳이다. 비는 절터 북서쪽 능선에 위치하는데 귀부(龜趺)·비신(碑身)·이수(螭首)를 갖춘 복고풍이다. 귀부는 둔중하지만 이수의 용틀임이 매우 사실적이다. 비문은 목은(牧隱) 이색(李穡 : 1328~1396)이 짓고 글씨는 예문관대제학(藝文館大提學) 권중화(權仲和 : 1322~1408)가 썼는데 우리나라 금석문(金石文) 가운데 매우 드물게 예서체(隸書體)이다. 권중화가 쓴 전액(篆額) 역시 엄정한 서풍으로 고려 말을 대표한다.



Hoeamsajiseongagwangsabi

회암사지 선각왕사비

회암사지 부도

Hoeamsajibudo

Stupa of buddhist Priest Muhak of Hoeams Temple site

檜巖寺址浮屠

- 문화재종별 : 보물 제 388 호
- 지정년월일 : 1963년 9월 2일
- 시대 : 조선시대
- 규모·재질 : 높이 2.7m(화강암)
- 소재지 : 양주시 회암동 산 8 회암사

• Classification | Treasures 388

• Designated Date | 1963. 9. 2

• Age | Joseon Period

고려 말 조선 초의 명승이었던 무학대사(無學大師 : 1327~1405)의 사리탑으로 팔각원당형(八角圓堂形)의 양식을 보이고 있다. 부도의 외곽에는 장방형의 긴 돌로 2단의 기단을 쌓은 팔각형의 난간(欄干)을 두르고, 그 모서리에는 위쪽에 보주(寶珠)가 있는 방형의 동자주(童子柱)를 세웠다. 동자주 사이에는 장방형의 판석을 끼우고, 상면에 난간주를 돌렸다. 부도의 지대석(地臺石)은 8각의 각 면에 굽은 운문(雲文)을 새겼다. 하대석은 편구형(扁球形)으로 상면에 복엽 8판의 복련(覆蓮)을 새겼는데, 각 모서리의 끝에는 귀꽃이 조식되었다. 중대석은 고북형(鼓腹形)으로 각 면에는 내부에 화문(花文)이 있는 안상(眼象)이 조식되었다. 상대석의 하단에 복엽 8판의 양련(仰蓮)이 조식되었고, 각 면에는 장방형의 액(額) 내에 당초문(唐草文)을 장식하였다. 탑신석은 원형(圓形)으로 운룡문(雲龍文)을 가득 조각하였는데, 용의 머리와 비늘 등이 사실적으로 묘사되어 있다. 옥개석은 낙수면의 경사가 완만하고, 합각선의 끝에는 용머리가 장식되어 있다. 정상에는 연봉형 보주(寶珠)를 놓았다.



부도 외곽의 난간과 동자주



Hoeamsajibudo

회암사지 부도

회암사지 쌍사자석등

Hoeamsajissangsajaseokdeung
Twin-lion stone lantern on Hoeamsa Temple site

檜巖寺址雙獅子石燈

- 문화재종별 : 보물 제 389 호
- 지정년월일 : 1963년 9월 2일
- 시대 : 조선시대
- 규모·재질 : 높이 2.5m(화강암)
- 소재지 : 양주시 회암동 산 8 회암사

- Classification | Treasures 389
- Designated Date | 1963, 9, 2
- Age | Joseon Period

무학대사(無學大師: 1327~1405)의 부도 앞에 건립되어 있다. 이 석등은 전체적으로 평면 방형의 형태로 간주석(竿柱石)에 2마리의 사자가 배치되어 쌍사자석등이라 불리고 있다. 방형의 지대석 상면에는 8판의 복련(覆蓮)을 조각하였고, 각 연화문은 단판(單瓣)으로 내면에는 여의두문(如意頭文)을 새겨 넣었다. 간주석에는 2마리의 사자가 마주 보며 상대석을 받치고 있다. 양 사자는 뒷발을 웅크려 하대석을 딛고, 앞발과 머리를 올려 상대석을 떠받치고 있는 형상이다. 상대석의 하면에는 각형 1단의 받침이 조출되었고, 측면에는 복엽 8판의 양련(仰蓮)이 조각되었다. 등불을 올려놓은 화사석(火舍石)은 2매의 판석을 세워 구성하여 두 면에만 화창(火窓)을 만들었다. 화사석의 네 모퉁이에는 원형 기둥이 표현되어 있다. 옥개석은 사모자붕의 형태로 각 모서리에는 합각선(合角線)이 두툼하게 표현되었다. 정상에는 2단의 원좌(圓座) 상면에 보륜(寶輪)과 보주(寶珠)를 놓았다. 쌍사자석등은 통일신라 말기부터 조성되기 시작한 것으로 충북 중원 청룡사지 쌍사자석등과 더불어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건립되었음을 알 수 있다.



지대석



간주석의 쌍사자조각



Hoeamsajissangsajaseokdeung

회암사지 쌍사자석등

봉선사 대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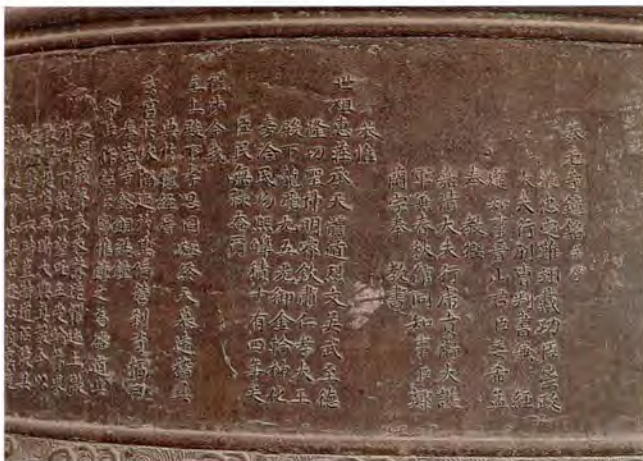
Bongseonsadaejong
Great bell of Bongseonsa Temple

奉先寺大鐘

- 문화재종별 : 보물 제 397 호
- 지정년월일 : 1963년 9월 2일
- 시대 : 조선 예종 원년(1469))
- 규모·재질 : 높이 238cm, 지름 168cm, 두께 23cm(동)
- 소재지 : 남양주시 진접읍 부평리 255 봉선사

- Classification | Treasures 397
- Designated Date | 1963, 9, 2
- Age | King Yejong of Joseon Period

봉선사 경내에 있는 높이 238cm, 지름 168cm의 동종(銅鐘)이다. 정상에는 음통(音筒)없이 2마리의 용이 서로 엉켜 고리형의 용뉴(龍鈕)를 형성하고 있는데, 어깨에는 복엽 연화문(複葉蓮花文)을 둘러고 있다. 종신(鐘身)의 중앙에는 3조의 횡대(橫帶)를 둘러 상하로 구분하고 있다. 상단에는 9개의 유두(乳頭)가 돌출되어 있는 유곽(乳廓)과 원형(圓形)의 두광(頭光)을 구비한 보살상(菩薩像)을 각 4개씩 교대로 배치하고 있다. 유곽과 보살상의 사이 및 아래쪽에는 범자(梵字)를 새기고 있다. 하단에는 강희맹(姜希孟: 1424~1483)이 짓고, 정난종(鄭蘭宗: 1433~1489)이 쓴 명문(銘文)을 가득히 새겼는데, 이를 통하여 조선 예종(睿宗) 원년(1469) 정희왕후(貞熹王后: 1418~1483)가 세조(世祖)의 명복을 빌기 위해 만든 점과 종을 만들 때 관계했던 주조장(鑄造匠)과 노야장(爐冶匠) 등의 인명과 직책 등을 알 수 있다. 종신의 가장 아래쪽에는 2조의 굵은 횡대 사이에 조선시대의 전형적인 파도문이 시문되어 있다.



종신 하단의 명문



종신의 비천상



Bongseonsadaejong

봉선사 대종

금동여래입상

Geumdongyeoraeipsang

Standing gilt-bronze buddha statue

金銅如來立像

- 문화재종별 : 보물 제 401 호
- 지정년월일 : 1964년 9월 3일
- 시대 : 통일신라시대
- 규모·재질 : 높이 32.3cm(금동)
- 소재지 :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가실리 204 호암미술관

- Classification | Treasures 401
- Designated Date | 1964. 9. 3
- Age | Unified Silla Period

넓직한 얼굴에 살짝 뜬 눈, 도톰한 뺨, 작은 입, 큼직한 귀가 적당하게 자리 잡혀 있다. 얇은 통견(通肩)의 법의(法衣)는 몸의 굴곡에 따라 속을 훤히 내비치고 허리에 이르기까지 길게 U자를 그리며 내려와 가슴을 다 드러냈으며, 가사(袈裟)의 안에는 내의(內衣)를 입고 끈으로 매듭을 묶어 싸 두 다리의 양감(量感)이 매우 강조되었으며 양 다리에는 U자형 의문선(衣文線)이 표시되었다. 손은 시무외인(施無畏印)과 여원인(與願印)에서 약간 밖으로 벌어진 형태이고 두 발은 직립했다. 이 여래상은 8세기에 정형화된 통일신라 불상의 일반적인 모습을 잘 구현한 9세기의 전형적인 여래입상 형태를 갖고 있다.



앞면



뒷면



Geumdongyeoraeipsang

금동여래입상

팔달문

Paldalmun
Paldalmun Gate

八達門

- 문화재종별 : 보물 제 402 호
 - 지정년월일 : 1964년 9월 3일
 - 시 대 : 조선 정조 20년(1796)
 - 규모 · 재질 : 5,790㎡
 - 소 재 지 : 수원시 팔달구 팔달로2가
- Classification | Treasures 402
 - Designated Date | 1964, 9, 3
 - Age | King Jeongjo of Joseon Period

조선 정조(正祖) 20년(1796) 화성(華城)을 축성할 때 함께 세운 화성의 남문(南門)으로 사방팔방으로 길이 열린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네 성문 중에 북문(北門)과 남문이 간선 도로상의 문으로, 규모와 형식면에서 서울 도성의 성문에 못지않을 정도로 크고 화려하게 꾸며 화성을 새로운 시대의 상징으로 삼으려 했던 정조의 의지가 드러난다.

석축(石築)의 홍예문(虹蜺門)은 왕의 행차시 가마가 지나들 수 있을 만큼 널찍하게 내고 위에는 중층(重層)의 문루(門樓)를 세웠다. 주위 사방에는 여장(女牆)을 돌리고 전면에는 반달형 옹성(甕城), 좌우에는 적대(敵臺)를 시설했다. 옹성과 적대는 성문 방어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시설이다. 옹성은 서울 성곽의 동대문, 전주성의 풍남문, 낙안 읍성 등 우리나라 성곽에서 일찍부터 채용되었던 시설로 팔달문의 옹성은 규모와 형태 면에서 한층 돋보이는 것이다.

문루는 정면 5칸, 측면 2칸으로 구성되었다. 가운데에 높은 기둥을 일렬로 세우고 상·하층의 대들보를 건너질렀다. 상층의 기둥은 하층 대들보 위에 놓아 상부 가구(架構)를 받치도록 하였다. 전체적인 짜임은 일반적인 문루 건축의 구조 방식을 충실히 따랐다. 지붕의 형태 및 잡상(雜象) 장식은 도성문의 격식을 갖추었다.



석축의 홍예문



성문 상부의 옹문양



Paldalmun

팔달문

화서문

Hwaseomun

Gate and the northwest lookout

華西門

- 문화재종별 : 보물 제 403 호
- 지정년월일 : 1964년 9월 3일
- 시대 : 조선 정조 20년(1796)
- 규모·재질 : 4,876㎡
- 소재지 : 수원시 장안구 장안동 25-2

- Classification | Treasures 403
- Designated Date | 1964. 9. 3
- Age | King Jeongjo of Joseon Period

조선 정조(正祖) 20년(1796) 화성을 축성할 때 함께 세운 화성의 서문(西門)이다. 좌우 성벽에 연결되는 석축에 무지개 모양의 홍예문(虹蜺門)을 내고 그 위에 문루(門樓)를 세웠다. 바깥쪽으로 반달형의 옹성(甕城)을 두었는데 한쪽에 치우치게 통로를 뚫으로써 방어에 유리하게 만들었다. 옹성 위에는 내외로 여장(女牆)을 쌓고 가까운 곳과 먼 곳을 겨냥할 수 있도록 두 종류의 총구(銃口)를 내고 벽에는 현안(懸眼)을 뚫어 철저한 방어가 되도록 했다.

옹성의 북쪽으로 조금 떨어진 곳에 서북 공심돈(西北空心墩)이 연결되어 있다. 공심돈은 내부를 3층으로 구분하여 마루를 두고 병사들이 숨어서 주변을 감시하고 공격할 수 있도록 만든 방어 시설이다. 화서문 일대는 주변이 비교적 넓은 평지로 되어 있어서 공심돈을 둔 것이다. 우리나라의 다른 성곽에서는 볼 수 없는 독특한 시설로서 화서문과 함께 아름다운 경관을 이루고 있다.

문루는 정면 3칸, 측면 2칸, 이익공(二翼工) 오량 구조의 건물이다. 문루 및 옹성 등 시설물은 남문(南門)이나 북문(北門)에 비해 한 등급 낮은 형식을 가졌다. 1975년 화성의 중수 공사시 옹성과 함께 보수되었다.



화서문 후면



Hwaseomun

화서문

안성 죽산리 오층석탑

Anseongjuksalliocheungseoktap

Five storied stone pagoda in Juksan-ri, Anseong

安城竹山里五層石塔

- 문화재종별 : 보물 제 435 호
- 지정년월일 : 1966년 2월 28일
- 시 대 : 고려시대
- 규모 · 재질 : 높이 6m
- 소 재 지 : 안성시 죽산면 죽산리 148-5

- Classification | Treasures 435
- Designated Date | 1966. 2. 28
- Age | Goryeo Period

여러 매의 크고 넓직한 돌로 지대석을 구축하고 4매의 판석으로 구성된 단층 기단을 놓고 그 위에 5층 탑신을 올린 높이 6m의 석탑이다. 기단의 면석에는 양 우주(隅柱)가 희미하게 표현되어 평평한 느낌을 준다. 기단의 상면에 놓인 갑석(甲石)은 4매의 판석으로 구성되어었는데, 위쪽에 2단의 탑신받침이 있다. 탑신석과 옥개석은 각각 하나의 석재로 구성되어 있다. 각 탑신석에는 높이에 비해 폭이 좁은 우주가 모각되었고, 1층 탑신의 남면에는 소형의 감실(龕室)이 마련되었다. 옥개석은 얇으면서 매층 5단의 옥개받침이 표현되었다. 낙수면의 경사가 완만해 편평한 감을 주고 추녀는 수평을 이루다가 끝에서 살짝 반전(反轉)되었다. 이 석탑은 기단부의 둔중감, 1층탑신이 다른 층에 비해 유난히 높은 점 등에서 고려시대 석탑의 특성을 잘 보여준다. 뿐만 아니라 안성시 내에 산재한 많은 석탑 중 가장 우수한 조형물로 꼽힌다.



상부



하부



Anseongjuksalliocheungseoktap

안성 죽산리 오층석탑

칠장사 혜소국사비

Chiljangsahyesoguksabi

Monument to National Preceptor Hyesoguksa of Chiljangsa Temple

七長寺慧昭國師碑

- 문화재종별 : 보물 제 488 호
- 지정년월일 : 1968년 12월 19일
- 시대 : 고려 문종 14년(1060)
- 규모·재질 : 높이 3.15m, 폭 1.42m(대리석)
- 소재지 : 안성시 죽산면 칠장리 764 칠장사

• Classification | Treasures 488

• Designated Date | 1968, 12, 19

• Age | King Munjong of Goryeo Period

고려의 고승(高僧) 혜소국사(972~1054)를 추모하기 위해 세운 비이다. 국사는 안성 출신으로 10세에 출가하여 17세에 용철(融哲)에게 배웠고 영통사에서 계(戒)를 받았다. 말년에 칠장사에서 수도하며 절을 크게 중창했다. 비는 귀부(龜趺)·비신(碑身)·이수(螭首)를 갖추었는데 현재 비각 안에 따로따로 안치되어 있다. 비문은 김현(金顯)이 지었고 민상제(閔賞濟)가 썼다. 글씨는 통일신라·고려시대에 유행한 구양순체이다. 비면 상단의 전액(篆額)도 민상제가 썼다. 비신은 중간이 절단되어 심하게 파손되었지만 귀부와 이수의 조각이 힘차며 비신 양 옆의 쌍룡조각도 화려하다. 고려 전기의 탐비로서 우수한 예이다.



보호각



비신, 귀부, 이수



Chiljangsahyesoguksabi

칠장사 혜소국사비

석보상절<권11>

Seokbosangjeol<Gwon11>

Episodes of life of Sakyamuni buddha part 11

釋譜詳節<卷十一>

- 문화재종별 : 보물 제 523-3 호
- 지정년월일 : 1970년 12월 30일
- 시대 : 조선 세종 29년~31년(1447~1449)
- 규모·재질 : 1책(저지)
- 소재지 :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가실리 204 호암미술관
- Classification | Treasures 523-3
- Designated Date | 1970, 12, 30
- Age | King Sejong of Joseon Period

『석보상절』은 조선 세종(世宗) 28년(1446)에 승하한 소헌왕후(昭憲王后)의 명복을 빌기 위하여 수양대군(首陽大君) 등이 세종의 명을 받아 석가의 일대기를 엮고 이를 한글로 번역한 책이다. 책을 간행한 연대는 확실치 않으나 『석보상절서』와 표지를 살펴볼 때 세종 29년에서 31년에 간행된 것으로 추정된다. 조선 초기의 불교학 수준을 말해주는 『석보상절』은 최초의 번역 불경이란 점과 한글 산문 문학의 백미(白眉)로 후대의 고전 소설에 많은 영향을 주었으며 15세기 국어 연구 및 한자음 연구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초간본은 권6·9·13·19·23·24 각 1책씩 전할 뿐이며 복각된 중간본도 권3·11의 2책만이 전한다. 오늘에 이르기까지 발견된 『석보상절』은 위에서 든 것뿐이므로 이들 모두 문헌적 가치가 높다. 특히 초간 활자본은 『월인천강지곡(月印千江之曲)』과 함께 훈민정음(訓民正音) 제정 후 주도된 최초의 한글 활자로 간행됐다는 점에서 매우 귀중한 작품이다.



변상도



釋^석의 譜^보 詳^상 節^절 第^평 十^십 一^일
 釋^석의 提^평 桓^한 因^인 이 부^부 禿^탈 之^지 請^청
 今^금 모^모 勿^동 利^령 天^천 의 가^가 사^사 어^어 마^마 닐^닐
 위^위 호^호 사^사 說^설 法^법 호^호 소^소 사^사 世^세 尊^존 존^존 이
 사^사 름^름 아^아 니^니 알^알 의^의 사^사 호^호 오^오 사^사 勿^동 利^령 天^천
 에^에 가^가 사^사 歡^환 喜^희 園^원 이^이 觀^관 喜^희 東^동
 山^산 애^애 波^방 利^령 質^질 多^다 羅^라 樹^수
 一^일 라^라 喜^희 나^나 모^모 아^아 래^래 거^거 사^사 勿^동 禿^탈 安^안



Seokbosangjeol(Gwon11)

석보상절<권11>

용문사 정지국사 부도 및 비

Yongmunsajeongjiguksabudomitbi

Stele accompanying stupa of National Precetor Jeongji of Yongmunsa Temple

龍門寺正智國師浮屠 및 碑

- 문화재종별 : 보물 제 531 호
- 지정년월일 : 1971년 7월 7일
- 시 대 : 조선 태조 7년(1398)
- 규모 · 재질 : 부도-높이 2.15m(화강암), 비-높이 1.2m(점편암)
- 소재지 : 양평군 용문면 신점리 산 99-1 용문사

• Classification | Treasures 531

• Designated Date | 1971. 7. 7

• Age | King Taejo of Joseon Period

용문사 경내에서 동쪽으로 약간 벗어난 산기슭에 위치한 팔각원당형의 부도이다. 지대석(地臺石)은 몇 개의 장대석(長臺石)으로 이루어졌고 그 위에 24판의 복련(覆蓮)이 조식된 방형의 하대석을 놓았다. 하대석의 윗부분은 3단의 받침을 조출하여 원통형의 중대석을 받고 있다. 상대석은 팔각형으로 측면에는 단엽 16판의 앙련(仰蓮)을 조식하였는데, 상면에는 각형 1단의 받침을 조출하였다. 탑신부는 팔각형으로 한 면에만 작은 문비형(門扉形)을 조각하였다. 팔각형의 옥개석은 상면의 합각선(合角線)이 두툼하고, 끝에는 귀꽃이 조식되어 있다. 상륜부(相輪部)는 완전치 않으나 양화석(仰花石)만이 남아 있다.

비는 부도에 딸린 탑비(塔碑)로 조선 태조(太祖) 7년(1398)에 건립되었으며 조성 당시의 찬조자 명단과 정지국사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이 비문은 권근(權近)이 지은 것으로, 정지국사가 태조 4년에 천마산 적멸암에서 입적(入寂)한 고려 말의 명승으로 중국 연경(延京)에서 수학하였다는 점과 입적 당시 많은 사리가 나와 태조가 이를 듣고 '정지국사'라 추증했다고 기록하였다. 이 비는 본래 부도에서 약 20m 아래쪽의 자연암반 위에 건립되어 있었으나 파괴된 것을 1970년경 현재의 위치에 다시 세웠다고 한다.

신라시대 이래 승려의 입적시 부도와 탑비를 세우던 전통을 계승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석재를 짜 맞추는 조성 방법에서 조선 초기 부도 연구에 기준이 되고 있다.



정지국사 탑비



부도 하단부분



Yongmunsajeongjiguksabudomitbi

용문사 정지국사 부도

김정희서심경첩

Kimjeonghuisseosimgyeongcheop

Simgyeongcheop of writing by Kim Jeonghui

金正喜書心經帖

- 문화재종별 : 보물 제 547-4 호
- 지정년월일 : 1971년 7월 7일
- 시 대 : 조선시대(19세기)
- 규모·재질 : 1첩
- 소 재 지 :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가실리 204 호암미술관

- Classification | Treasures 547-4
- Designated Date | 1971. 7. 7
- Age | Joseon Period(19C)

조선 후기를 대표하는 학자이자 서예가인 추사(秋史) 김정희(1786~1856)는 정계·학계·예술계 등 다방면에 걸쳐 많은 활약을 하였으며 특히 서예에 있어서는 독보적인 존재였다.

역대의 명필을 모아 깊이 연구하여 서예의 새로운 길을 열었으며 모든 서체의 장점을 밑바탕으로 해서 일명 '추사체(秋史體)'를 완성하였다. 또한 그는 어려서부터 승려들과 교류(交遊)하면서 불전(佛典)을 섭렵하였고 당대의 고승들과 친교를 맺었다. 특히 김정희는 초의선사(草衣禪師)와 깊은 관계를 맺었다. 이런 연유에서인지 김정희는 평소에 불교와 오묘한 진리를 담은 『반야심경』을 즐겨 썼다. 이 작품도 그 가운데 하나로 종손가(宗孫家)에서 보관되어 오던 것이다. 그의 작품으로는 유례가 드문 단정한 해서체(楷書體)로서 처음부터 끝까지 한 점 한 획 소홀함 없이 정성을 깃들여서 쓴 역작(力作)이다.

多羅三藐三菩提。故知般若波羅蜜多。是大神呪。是大明呪。是大

無上呪。是無等等呪。能除一切苦。真實不虛。故說般若波羅蜜

色。聲。香。味。觸。法。無眼。界。乃至無意識界。無無明。亦無無明盡。乃

至無老死。亦無老死盡。無苦集滅道。無智。亦無得。以無所得。菩

即是色。受。想。行。識。亦復如是。舍利子。是諸法空相。不生。不滅。不

垢。不淨。不增。不減。是故空中。無受。想。行。識。無眼。耳。鼻。舌。身。意。無

提。蔭。唾。依。般若波羅蜜多。故心無罣礙。無罣礙。故無有恐怖。遠

離顛倒。夢想究竟涅槃。三世諸佛。依般若波羅蜜多。故得阿耨

퇴도선생 필법일책 부 퇴도선생 유첩

Toedoseonsaengpilbeop1(il)chaekbutoedo seonsaengyucheop

Manual on calligraphy by Yi Hwang and collection of his letters

退陶先生筆法一冊附退陶先生遺帖

- 문화재종별 : 보물 제 548 호
- 지정년월일 : 1971년 8월 30일
- 시 대 : 조선 명종 11년(1556)
- 규모·재질 : 필법-가로 33.5cm, 세로 57.5cm,
유첩-가로 26.2cm, 세로 40.3cm
- 소 재 지 :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1121 샘마을APT 114-201
- Classification | Treasures 548
- Designated Date | 1971. 8. 30
- Age | King Myeongjong of Joseon Period

『퇴도선생필법』은 조선 명종 11년(1556)에 퇴계 이황(李滉 : 1501~1570) 선생이 그의 제자인 송암 권호문(權好文 : 1532~1587)에게 글씨체본으로 써준 것이다.

대, 중, 소자의 크고 작은 체와 해서, 행서, 초서의 각 체를 따로 구분하여 썼다.

이것은 표지를 제외하고 21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해서체가 13첩, 행서체가 14첩, 작은 해서가 6면, 작은 초서가 4면, 중간 초서가 2면, 또 행서가 3행이고 그 다음에 2장이 떨어져 나가고 끝에 또 작은 해서 1첩이 있다.

맨 뒷장에 '낙인구서첩'이란 제목 아래에 당시(唐詩) 9행이 있으나 퇴계의 글씨가 아닌 듯하다. 『퇴도선생유첩』은 2책으로 장첩되어 있는데, 이것은 모두 퇴계선생이 권호문에게 보낸 편지를 모아 놓은 것이다.



퇴도선생 유첩



표지

落日放船好輕
風生浪遲竹深
留客處荷淨納
涼時公子調冰
水佳人雪藕絲
片雲頭上黑應

유문칠우

Yumunchiru

Laquered bowl with designs

有紋漆盂

- 문화재종별 : 보물 제 559 호
- 지정년월일 : 1971년 12월 21일
- 시대 : 낙랑시대(1~2세기)
- 규모·재질 : 높이 9cm, 구경 24cm(목조)
- 소재지 :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가실리 204 호암미술관

- Classification | Treasures 559
- Designated Date | 1971, 12, 21
- Age | Nangrang Period(1~2C)

평안남도 대동군 석암리에서 출토되었다고 전하는 청동제 도깨비 문양의 손잡이가 달린 칠기바리(漆器鉢盂)이다. 칠을 입힌 그릇의 안팎 면에 붉은색, 청색, 녹색으로 비룡(飛龍), 쌍수운문(雙獸雲文), 운기산악금수도(雲氣山岳禽獸圖) 등의 그림과 각종 문양이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다. 도깨비 형태의 손잡이 안쪽에는 옥충(玉蟲)이라는 벌레를 사용하여 장식하였다. 이 그릇은 서북 지방의 낙랑 지배층에서 사용하였던 중국 한(漢)나라의 작품이다. 2,000여 년이 지난 지금에도 목기질과 그림 등이 잘 남아있는 호사스런 칠기그릇이다.



그릇의 안쪽



앞면



Yumunchiru

유문칠우

진솔선예백장동인

Jinsolseonyebaekjangdongin

Bronze seal awarded to chieftain of ancient Ye tribe

晋率善濊伯长铜印

- 문화재종별 : 보물 제 560 호
- 지정년월일 : 1971년 12월 21일
- 시대 : 삼국시대(3세기)
- 규모·재질 : 높이 2.5cm, 한변 길이 2.3cm(동)
- 소재지 :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가실리 204 호암미술관

- Classification | Treasures 560
- Designated Date | 1971, 12, 21
- Age | Three Kingdoms Period(3C)

경북 영일군 신평면 마조리에서 출토되었다고 전하는 중국 진(晉) 나라 관인(官印)으로 네모진 인장면(印章面)에 '진솔선예백장(晋率善濊伯长)'이라는 6자의 글씨가 3행으로 두 자씩 백문전서체(白文篆書體)로 음각되어 있다. 꼭지에는 세 개의 뿔이 달린 삼각수(三角獸)의 모습을 조각하였다.

집승의 배 부분에 둥근 구멍을 뚫어 끈을 꿰어 허리에 찰 수 있게 하였다. 이러한 동인은 중국에서 한나라 이래로 주변 지역의 지배자에게 상호 유대관계를 나타내는 징표로 준 것인데 집단의 크기에 따라 천장(仟長), 백장(伯長), 읍장(邑長) 등으로 호칭의 차이를 두었다. 즉, 진나라에서 백장급 우두머리에게 준 도장인 것이다. 고구려의 수도였던 집안(集安)에서도 이와 유사한 '진고구려솔선천장(晋高句麗率善仟長)', '진고구려솔선백장(晋高句麗率善伯長)', '진고구려솔선읍장(晋高句麗率善邑長)' 등의 동인이 출토된 바 있어 참조된다.



인장면의 백문전서체



Jinsolseonyebaekjangdongin

진솔선예백장동인

심복사 석조비로자나불좌상

Simboksaseokjibirojanabuljwasang
Seated stone Vairocana statue of Simboksa Temple

深福寺石造毘盧舍那佛坐像

- 문화재종별 : 보물 제 565 호
- 지정년월일 : 1972년 3월 2일
- 시 대 : 통일신라시대
- 규모 · 재질 : 높이 228cm(석조)
- 소 재 지 : 평택시 현덕면 덕목리 275 심복사

- Classification | Treasures 565
- Designated Date | 1972. 3. 2
- Age | Unified Silla Period

대좌(臺座)와 좌상을 구비한 높이 228cm(대좌 107cm 포함)의 비로자나불좌상이다. 능인전(能仁殿) 안에 봉안된 이 불상은 고려 말에 한 노인이 덕목리 앞바다에서 건져 광덕산 지금의 심복사 자리에 봉안하고 절을 지었다고 전해지는 것이다. 대좌는 팔각형으로 하대석에는 8엽의 복련(覆蓮)이 조각되어 있다. 중대석에는 2마리의 사자가 뒷발을 하대석을 딛고 앞발과 머리로는 16판의 앙련(仰蓮)이 조각된 상대석을 받치고 있다. 이 대좌의 위에 비로자나불이 있는데 머리는 신체에 비해 큰 편으로, 나발(螺髮)의 머리에 작고 넓은 육계(肉髻)가 있다. 상호(相好)는 살이 올라 통통한 편으로 가늘게 뜯는, 좁고 긴 삼각형의 코, 작은 입 등이 통일신라 말기 불상의 양식을 잘 보여준다. 짧은 목에는 굽은 삼도(三道)가 표현되었고, 양 귀는 길게 조각되었다. 법의(法衣)는 통견(通肩)으로 양 어깨로부터 흐르는 굽은 옷깃에 꽃무늬가 조각되었는데, 전체적으로 규칙적이고 부드러운 우면서도 유려한 의문(衣文)을 보이고 있다. 수인(手印)은 양 손을 가슴에 모아 지권인(智拳印)을 결하고 있다. 가부좌를 튼 양 다리 사이에는 부채꼴인 의문이 조각되어 있다. 이 석불은 경기도 내에서는 유례가 드문 통일신라시대에 조성된 비로자나불로 당시의 조각 수법과 양식을 잘 보여준다.



지권인



뒷모습



Simboksaseokjobirojanabuljwasang

심복사 석조비로자나불좌상

만기사 철조여래좌상

Mangisacheoljoyeoraejwasang

Seated iron Sakyamuni statue of Mangisa Temple

萬奇寺鐵造如來坐像

- 문화재종별 : 보물 제 567 호
- 지정년월일 : 1972년 7월 22일
- 시 대 : 고려시대
- 규모·재질 : 높이 142.5cm(철조)
- 소 재 지 : 평택시 진위면 동천리 548 만기사

• Classification | Treasures 567

• Designated Date | 1972, 7, 22

• Age | Goryeo Period

불상의 전체에 금도금이 되어 있지만 본래는 철로 조성된 좌상으로 양 손과 오른팔은 최근에 새로 제작했다고 한다. 나발(螺髮)의 머리 위에는 큼직한 육계(肉髻)가 있고, 이마의 중앙에는 백호(白毫)가 표현되어 있다. 상호(相好)는 가름한 편으로 가늘고 긴 눈, 경직된 코와 입, 어깨에 닿을 듯한 긴 귀, 살이 빠진 뺨 등에서 고려시대 불상의 특징을 엿볼 수 있다. 목에는 삼도(三道)가 있고 법의(法衣)는 우견편단(右肩偏袒)으로 굽은 옷주름이 도식적으로 표현되어 있다. 양 손은 새로 만든 것이어서 원형을 알 수 없지만 대체로 지금과 같은 향마촉지인(降魔觸地印)을 취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가부좌를 튼 양 무릎에도 굽은 옷주름이 표현되어 있다. 전체적으로 보아 무릎과 어깨의 비례는 안정감을 보이고 있지만, 상호와 옷주름 등의 표현에서 고려시대 불상의 특징을 잘 볼 수 있다.



향마촉지인



삼도와 우견편단



Mangisacheoljoyeoraejwasang

만기사 철조여래좌상

안중근의사 유묵

Anjunggeunuisayumuk
Relics of Patriot An Junggeun

安重根義士遺墨

- 문화재종별 : 보물 제 569-3 · 11 · 17 호
- 지정년월일 : 1972년 8월 16일
- 시 대 : 1910년
- 규모 · 재질 : 유묵 3점
- 소재지 :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가실리 204 호암미술관 외 개인소장

- Classification | Treasures 569-3 · 11 · 17
- Designated Date | 1972. 8. 16
- Age | 19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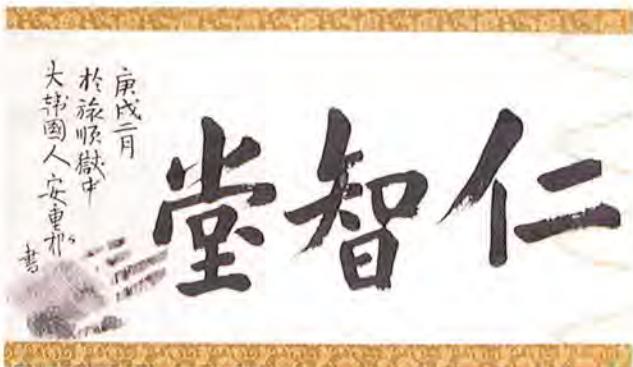
이 유묵은 안중근(1879~1910)이 여순감옥에서 쓴 200여점의 휘호와 유묵 중에서 보물로 일괄 지정된 것 중의 3점이다. 제작시기는 1910년 3월 경이다.

안중근은 황해도 해주에서 태어나, 16세가 되던 1894년 아버지가 감사의 요청으로 산포군을 조직하여 동학군을 진압하려고 나서자 이에 참가하였다. 1906년 삼흥학교를 설립하고, 돈의학교를 인수하여 학교경영에 전념하기도 했다. 항일무장투쟁을 시작한 후 일본군 정찰대를 공격, 격파했으며, 1909년 10월 26일 이토 히로부미를 태운 열차가 하얼빈에 도착하여 그가 러시아 장교단을 사열하고 군중 쪽으로 발길을 옮기는 순간 권총을 쏘 3발을 명중시켰다. 여순감옥에 수감된 후 1910년 3월 26일 형장에서 순국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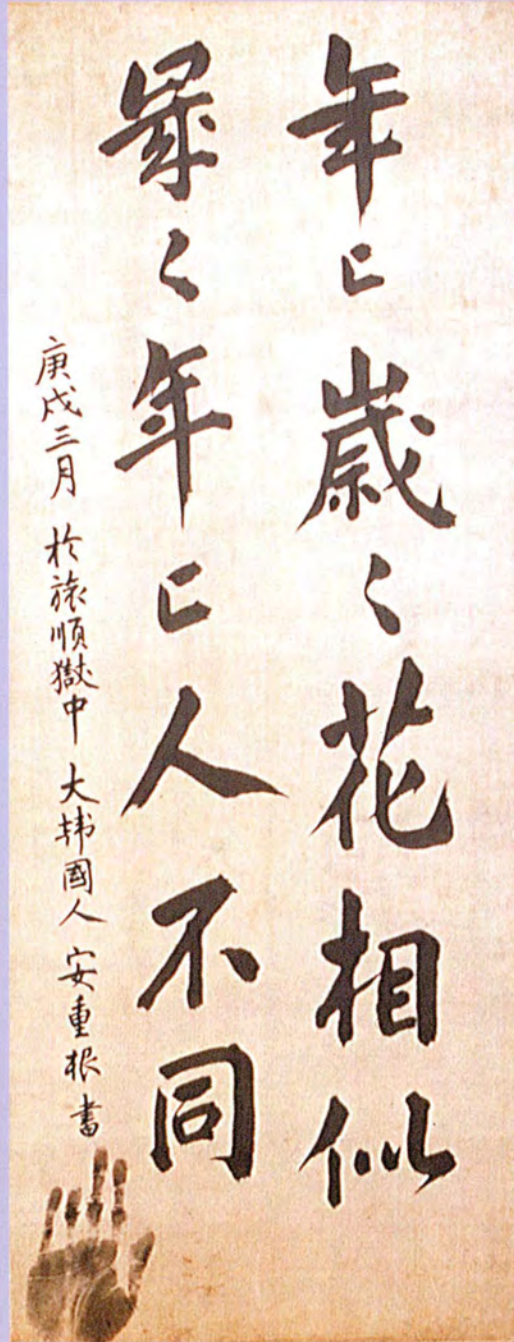
① 제569-3호 '년년세세화상사세년년인부동(年年歲歲花相似 歲歲年年人不同)'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해마다 꽃은 그 꽃으로 보이긴만(年年歲歲花相似) 사람은 해마다 그 사람이 아니네(歲歲年年人不同)." 유묵의 내용과 함께 경술삼월(庚戌三月)이라 적혀있어 1910년 3월이 쓴 것임을 확인할 수 있으며 안중근의 장인이 찍혀있다.

② 제569-11호 '사군천리이표촌성망안욕천행물부정(思君千里以表寸誠望眼欲穿幸勿負情)'은 "임 생각 천리길에(思君千里) / 바라보는 눈이 뚫어질 듯 하오이다(望眼欲穿) / 작은 정성을 바치오니(以表寸誠) / 행여 이 정을 저버리지 마소서(幸勿負情)"라는 유묵의 내용과 함께 경술이월(庚戌二月)이라 적혀있어 1910년 2월이 쓴 것임을 확인할 수 있으며 안중근의 장인이 찍혀있다. 크기는 가로 96.3cm, 세로 315cm로 족자형식이다.

③ 제569-17호 '인지당(仁智堂)'은 당호를 쓴 것으로 인지당(仁智堂)이란 어질고 지혜로워야 한다는 당호(堂號)이다. 경술이월(庚戌二月)이라 적혀있어 1910년 2월이 쓴 것임을 확인할 수 있으며 안중근의 장인이 찍혀있다. 크기는 가로 67cm, 세로 37.6cm이다.



인지당



퇴우 이선생 진적

Toeuyseonsaengjinjeok

Album of calligraphic works by Yi Hwang and Song Siyeol

退尤二先生真蹟

- 문화재종별 : 보물 제 585 호
- 지정년월일 : 1975년 5월 1일
- 시대 : 조선시대
- 규모·재질 : 1첩·가로 22.1cm, 세로 32cm(저지)
- 소재지 : 수원시(국립박물관 보관)

- Classification | Treasures 585
- Designated Date | 1975. 5. 1
- Age | Joseon Period

조선시대의 서화가인 이황(李滉 : 1501~1570), 송시열(宋時烈 : 1607~1689), 정선(鄭澈 : 1676~1759), 정선의 아들 정만수(鄭萬遂), 이병연(李秉淵 : 1671~11751), 임헌희(任憲晦 : 1811~1876), 김용진(金容鎭 : 1883~1968) 등의 글과 그림을 한데 모아 연대순으로 묶어낸 서화첩이다.

모두 8엽으로 되어 있는데 내용의 순서를 보면, 제1엽은 퇴우이선생 진적이라는 그림과 표지글이 있고, 그 뒷면과 제2엽 앞면에 정선의 계사정거도(溪舍靜居圖)가 그려져 있다.

제2엽 뒷면에서 제4엽 앞면에는 이황의 『회암서절요서(晦菴書節要序)』가 쓰여있다. 제4엽 뒷면과 제5엽 앞면에는 송시열의 글이 있다. 제5엽 뒷면, 제6엽 앞뒷면에는 정선의 그림인 무봉산중(舞鳳山中), 풍계유택(楓溪遺宅), 인곡정사(仁谷精舍) 등이 그려져 있다. 제7엽 앞면에는 이병연의 칠언절구시와 년기, 서명, 낙관 등이 있고 제8엽 앞면에는 임헌희의 글과 김용진의 글 등이 있다.

이 서화첩의 속 종이는 닥나무 종이며, 겉 종이는 두터운 종이로 만들어 상태는 좋은 편이다. 모두 뛰어난 문장과 그림이어서 학자들의 인격과 서화가들의 예술세계를 엿볼 수 있다.



회암서절요서



표지



Toeuyiseonsaengjinjeok

퇴우 이선생 진적

이상좌 불화첩

Yisangjwabhwhacheop

Album of paintings by Yi Sangjwa

李上佐佛畫帖

- 문화재종별 : 보물 제 593 호
- 지정년월일 : 1975년 5월 16일
- 시 대 : 조선 전기
- 규모·재질 : 가로 50.7cm, 세로 31.1cm(수묵담채)
- 소재지 :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가실리 204 호암미술관
- Classification | Treasures 593
- Designated Date | 1975. 5. 16
- Age | Early Joseon Period

이상좌는 조선 초기의 화가로 자(字)는 공우(公祐), 호(號)는 학포(學圃)이다. 노비 출신이지만 그림을 잘 그렸기 때문에 그림을 제작하는 기관인 도화서(圖畫署) 화원(畫員)으로 특채되었으며, 1545년에 중종(中宗)의 얼굴을 그리기도 하였다. 이상좌는 산수화와 더불어 불화도 잘 그렸다고 알려져 있다. 이 나한도(羅漢圖)는 가로 50.7cm, 세로 31.1cm의 크기의 종이에 먹선(墨線)으로 그린 그림인데, 힘차고 자신감 넘치는 호방한 필선(筆線)에는 인물화에 대한 이상좌의 실력이 잘 드러나 있다. 발문(跋文)에 의하면 이 불화첩은 모두 6장 12폭이었으나, 지금은 두 폭이 없어져 5장 10폭뿐이다. 선조(宣祖)의 손자인 낭선군(朗善君) 이우(李保)가 구해온 이상좌의 불화 초본에, 허목(許穆)이 전서(篆書)로 쓴 것이다. 발문에서 허목은 “이상좌의 인물화는 신묘하다. 신(神)의 묘경(妙境)에 들어가지 않으면 그릴 수 없다.”고 하는 등 극찬을 아끼지 않고 있다.



나한도(좌, 우)



Yisangjwabhwa



이성좌 불화첩

태고사 원증국사탑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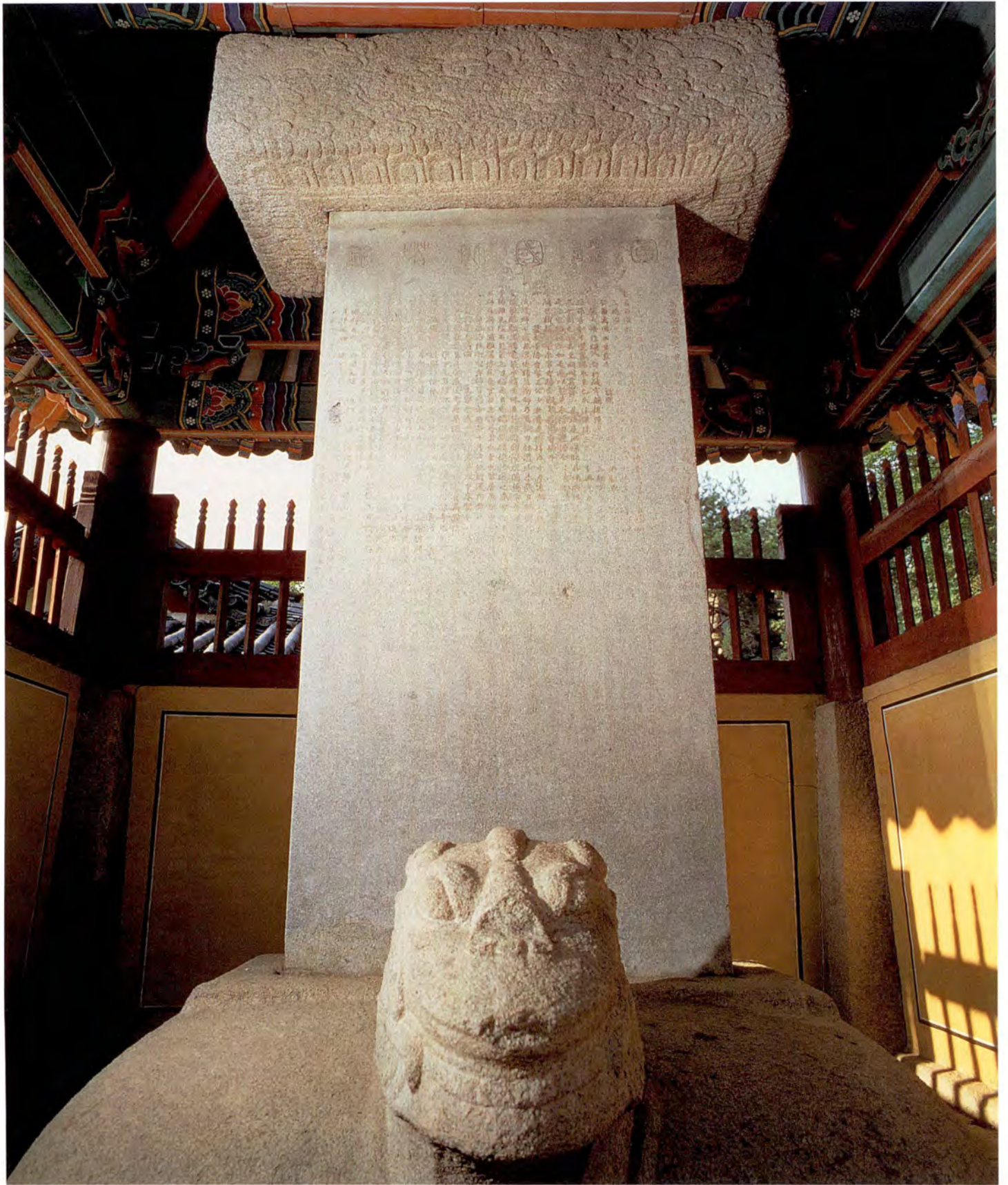
Taegosawonjeungguksatapbi

Monument to National Preceptor Wonjeungguksa of Taegosa Temple

太古寺圓證國師塔碑

- 문화재종별 : 보물 제 611 호
- 지정년월일 : 1977년 8월 22일
- 시대 : 고려 우왕 11년(1385)
- 규모·재질 : 높이 2.25m, 폭 1.05m(화강암)
- 소재지 : 고양시 덕양구 북한동 산 15
- Classification | Treasures 611
- Designated Date | 1977. 8. 22
- Age | King U of Goryeo Period

고려 말의 명승 보우(普愚 : 1301~1382)의 탑비이다. 보우는 13세에 회암사에서 출가, 충숙왕(忠肅王) 12년(1325) 승과에 급제한 뒤 여러 곳에서 수행하다 삼각산 중흥사 동쪽 봉우리에 태고사를 창건했다. 충목왕(忠穆王) 2년(1346) 중국에 가 청공(淸琇)의 법을 이어받았다. 귀국 후 미원 소설사(小雪寺)에 머물다가 공민왕(恭愍王 : 1330~1374)이 광명사에 원융부(圓融府)를 짓자 왕사(王師)가 되어 머물렀으나 신돈(辛旽 : ?~1371)의 횡포를 미워해 소설사로 돌아갔다. 그 뒤 국사가 되었고 우왕(禑王 : 1364~1389)이 즉위한 뒤 밀양 영원사에 있다가 소설사에서 입적했다. 시호는 원증, 탑호는 보월승공(寶月昇空)이다. 비문은 이색(李穡 : 1328~1396)이 지었고 글씨는 명필 권주(權鑄)가 썼다. 비신 상단에 두전(頭篆)이 있고 그 아래 해서체로 쓴 비문이 있으며, 뒷면에 문도(門徒)들의 이름이 적혀 있다. 귀부(龜趺)·비신(碑身)·이수(螭首)를 갖추었는데, 귀부가 둥글며 이수의 조각도 형식적이다. 경내에 원증국사탑(보물 제749호)이 전한다.



Taegosawonjeungguksatapbi

태고사 원증국사탑비

금동미륵보살반가사유상

Geumdongmireukbosalbangasayusang

Seated gilt-bronze Maitreya statue

金銅彌勒菩薩半跏思惟像

- 문화재종별 : 보물 제 643 호
- 지정년월일 : 1978년 12월 7일
- 시 대 : 신라시대
- 규모 · 재질 : 높이 11.1cm(금동)
- 소 재 지 :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가실리 204 호암미술관

- Classification | Treasures 643
- Designated Date | 1978, 12, 7
- Age | Silla Period

등받이가 없는 의자에 반가(半跏)한 사유상(思惟像)이다. 왼발을 내려 연화족좌(蓮花足座)를 딛고 오른발을 왼무릎 위에 얹었으며, 오른손은 턱을 괴어 사유하는 모습을 나타냈다. 머리에 커다란 다섯 잎 꽃 모양의 보관(寶冠)을 썼고, 길게 늘어뜨린 머리를 비롯한 여러 부분에 흑칠(黑漆)이 되어 있다. 고졸한 미소를 띠고 있는 얼굴은 몸 에 비해 매우 크며, 허리는 과도하게 커서 균형을 잃어버렸지만 도금색은 비교적 잘 남아있다. 이 보살상은 매병(梅瓶) 모양의 상아제 사리기(象牙製舍利器)와 함께 경남 동부 지역에서 출토되었다고 전한다.



뒷면



옆면



Geumdongmireukbosalbangasayusang

금동미륵보살반가사유상

묘법연화경<권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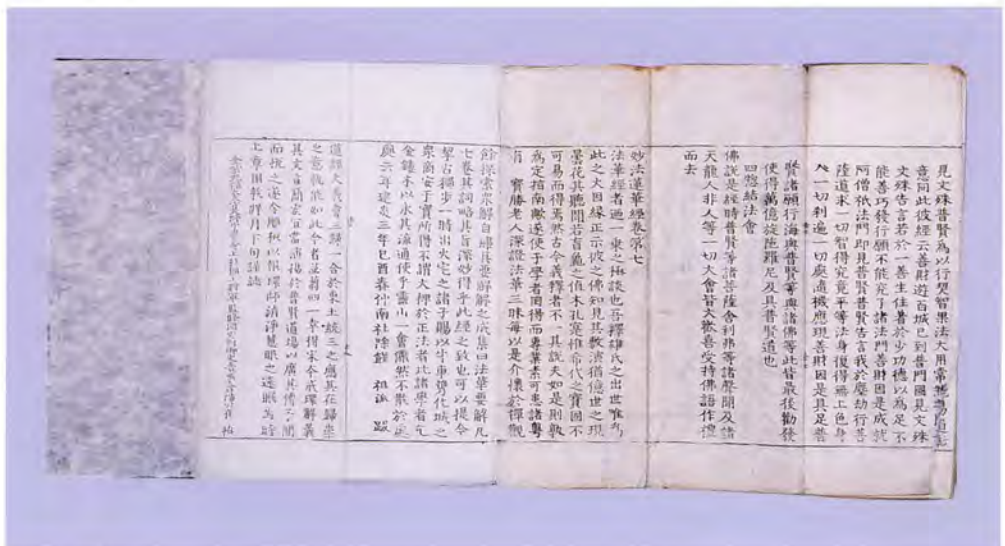
Myobebyeonhwagyeong<Gwon7>
Saddharma-pundarika sutra part 7

妙法蓮華經<卷七>

- 문화재종별 : 보물 제 692-2 호
- 지정년월일 : 1981년 3월 18일
- 시대 : 고려 고종 27년(1240)
- 규모·재질 : 1권 1첩(저지)
- 소재지 :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가실리 204 호암미술관

- Classification | Treasures 692-2
- Designated Date | 1981. 3. 18
- Age | King Gojong of Goryeo Period

한국 불교 기본 경전이 하나로 일명 『법화경(法華經)』이라 부르기도 한다. 『법화경』은 『화엄경(華嚴經)』과 함께 한국 불교 사상의 확립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또한 가장 많이 인쇄된 경전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묘법연화경』은 중국 후진(後秦)의 구마라집(鳩摩羅什)이 번역하고 송(宋)이 계환(戒環)이 해석을 쓴 7권본이 대부분이다. 이 책은 총 7권 가운데 마지막 권인 권7이다. 고려의 실력자 최충헌(崔忠獻: 1149~1219)의 아들인 최이(崔怡: ?~1249)의 명령에 의해서 목판본(木版本)으로 간행되었다. 글씨체가 단정하며 절첩본(折帖本)이다. 조선시대에 이르러 돈독한 불교 신자인 세조(世祖)의 명으로 한글로 번역되었다.



묘법연화경 일부

妙法蓮華經卷第七

妙法蓮華經卷第七

溫陵開元蓮寺比丘

戒環 解

四妙行流通

妙音菩薩品第二十四

妙音者深體妙法能以妙音隨應演說而流通是道者也名雖妙音實彰妙行觀其往昔植因於雲雷音王佛所獻樂奉鈴斬在妙音說法妙行隨應

故報生宿智佛國果能有是神力今使學者體其妙行而隨應說法開揚斯道故說妙音品為妙行流通大體妙音則不滯言詮能隨應則不局心迹不滯不局所以為妙行也經此復有圓行常行而次前苦行說者將欲以行成德必精心苦志然後造妙造妙然後能圓能圓然後真契音賢常行已如前解文九 和釋尊光召

爾時釋迦牟尼佛放八相向聽光明及放眉間白毫相光遍照東方百八萬億那由他恒河沙等諸佛世界

開會及召分身但放眉間毫相今召妙音乃無放肉髻光者肉髻為無見頂相為最上果光蓋將宣示妙圓之行乃極果行相故以極果之光召現也佛有九十七種大人相肉髻預其一

過是數已有世界名淨光莊嚴其國有佛号淨華宿王智如來應供正遍知明行足善逝世間解無上士調御丈夫天人師佛世尊為無量無邊菩薩大衆恭敬圍繞而為說法釋迦牟尼佛自毫光明遍照其國華嚴普薩所從來國表所行之行本所事佛表所證之果淨光莊嚴即依置之體也淨華宿智即依行之智也智行身嚴回果合體妙音妙行依此

力念擇覺喜輕安定捨為七覺支見語業命進念定為八正道也念以觀法勤以進修足以趣證根能不拔力能不屈覺能決了正能慙攝皆相目而設也心性如大地念處如種子正勤如種植神足如抽芽五根如根五力如莖七覺如花八正如果二子悉具所謂具體者也

淨照明三昧長莊嚴三昧大威德藏三昧於此三昧亦悉通達

淨三昧者淨藏淨眼之所本也日星宿表本智別智之照用也淨光能現眾像淨色不為形礙淨照照了萬法長莊嚴非素法身大威德藏具大神用四宿王說經

爾時彼佛欲引導妙莊嚴王及愍念眾生故說是法華經

五二子勸母

時淨藏淨眼二子到其母所合十拍爪掌自言願母往詣雲雷音宿王華智佛所我等亦當侍從親近供養禮拜所以者何此佛於一切天人眾中說法華經宜應聽受 六母遣化父 母告子言汝父信受外道深著婆羅門法汝等應往自父與共俱去 七二子生悔

淨藏淨眼合十拍爪掌白母我等是法王子而生此邪見家 八淨德再勉 母告子言汝等當憂念汝父為現神變若得見者心必清淨或聽我等往至佛所 九二子現變

於是二子念其父故踊在虛空高七多羅樹現種種神變於虛空中行住坐卧身出火身下水身出火身出水身出火或現大身滿虛空中而復現小小復現大於空中滅忽然在地入地如水履水如地現如是等種種神變令其父王心淨信解

得果人能現十八變即此類也 十父發淨信 時父見子神力如是心大歡喜得未曾有合掌向子言汝等師為是誰誰之弟子二子自言大王彼雲雷音宿王華智佛今在七寶菩提樹下法座上坐於一切世間天人眾中廣說法華經是我等師我是弟子

父語子言我今亦欲見汝等師可共俱往

十一子喜報母

於是二子從空中下到其母所合掌白母父王今已信解堪任發阿耨多羅三藐三菩提心

十二子請出家

我等為父已作佛事願母見聽於彼佛所出家修道爾時二子欲重宣其意以偈白母

소자본묘법연화경〈권1~7〉

Sojabonmyobebyeonhwageong<Gwon1~7>
Saddharma-pundarika sutra in small characters part 1~7

小字本妙法蓮華經〈卷一~七〉

- 문화재증별 : 보물 제 693 호
- 지정년월일 : 1981년 3월 18일
- 시 대 : 고려 충렬왕 12년(1286)
- 규모·재질 : 7권 2책(저지)
- 소 재 지 :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가실리 204 호암미술관

- Classification | Treasures 693
- Designated Date | 1981. 3. 18
- Age | King Chungryeol of Goryeo Period

일명 『법화경(法華經)』이라 부르기도 하며 한국 불교 기본 경전의 하나이다. 『법화경』은 『화엄경(華嚴經)』과 함께 한국 불교 사상의 확립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또한 가장 많이 인쇄된 경전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중국 후진(後秦)의 구마라집(鳩摩羅什)이 번역하고 송(宋)의 계환(戒環)이 해석을 쓴 7권본이 대부분이다. 이 책은 총 7권 2책의 완질본(完帙本)으로 목판본이다.

작은 글씨로 되어 있지만 나무에 새긴 솜씨가 정교하고 글체도 단정하며 인쇄도 깨끗하다. 조선시대에는 돈독한 불교신자인 세조(世祖)의 명으로 한글로 번역되었다.



소자본묘법연화경 일부

妙法蓮華經弘傳序
 於南山釋 道宣 述

妙法蓮華經者統諸佛降靈之本致也蘊
 結大夏出彼一齡東傳震旦三百餘載西
 晉惠帝永康年中長安青門嚴焯菩薩竺
 法護者初翻此經名正法華東晉安帝隆
 安年中後秦弘始丘苾沙門鳩摩羅什次
 翻此經名妙法蓮華隋氏仁壽大興善寺
 北天竺沙門闍那笈多後所翻者同名妙
 法三經重沓文旨互陳時所宗尚皆弘奉
 本自餘文品別偈不無其流具如序曆故
 亦非迷 夫以靈岳降靈非大聖無由開
 引適化所及非昔緣無以導心所以仙苑



불설사십이장경합철(불유교경·위산경책)

Bulseol42(sasibi)janggyeonghapcheol(Bulyu gyogyeong · Wisangyeongchaek)

Commentary on three sutras

佛說四十二章經合綴(佛遺教經·爲山警策)

- 문화재종별 : 보물 제 694 호
- 지정년월일 : 1981년 3월 18일
- 시대 : 고려 공민왕 10년(1361)
- 규모·재질 : 1권 1책-가로 16.6cm, 세로 24.5cm(저지)
- 소재지 :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가실리 204 호암미술관

- Classification | Treasures 694
- Designated Date | 1981, 3, 18
- Age | King Gongmin of Goryeo Period

후한(後漢)의 가섭마등(迦葉摩騰)과 축법란(竺法蘭)이 번역한 『불설사십이장경(佛說四十二章經)』과 후진(後秦)의 구마라집(鳩摩羅什)이 번역한 『불유교경(佛遺教經)』 그리고 당(唐)의 영우(靈祐)가 지은 『위산경책(爲山警策)』을 합쳐서 '불조삼경(佛祖三經)'이라고 한다. 송(宋)의 수수법사(守遂法師)가 해석을 하였는데 불교에 입문한 초학승(初學僧)의 교과서로 널리 읽혀졌다. 이 책은 고려 공민왕(恭愍王) 10년(1361)에 전주 원암사(圓巖寺)에서 행심(行心)의 발원으로 법공(法空)과 윤선(尹善)이 함께 간행한 것이다. 글씨체로 보아 원(元)에서 간행한 것을 수입하여 복각(覆刻)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간기

如老女向未開卷以子著眼掀翻案牘
徹玄微挽回真風大興未運若也見義勇
為持束以可成器具或循行數里幸力負
佛祖多矣至元丙戌燈記純牧史德異叙



佛說四十二章經

後漢迦葉摩騰竺法蘭同譯

鄭郊鳳山蘭若嗣祖沙門守遂註

世尊成道已作是思惟離欲寂靜是最為勝
住大禪定降諸魔道於鹿野苑中轉四諦法
輪度憍陳如等五人而證道果法身本無出沒
悲願示現受生
入相道成佛實也思惟方便離欲為戒生定發慧降魔顯
正轉法度人法實也四諦謂苦集滅道真俗兩重因果隨
根修證大小有異憍陳如五人佛初出家雪山修道淨飯
王命家族三人阿濕波二跋提三摩訶男勇氏二人一

慚涼德常遵 先訓庶導秘詮因覽此經每
懷欽奉莫流通而有益因注解以斯形雖寡
昧以難精幸覃研而克就仍俾鏤於方板所
期貽厥庶邦凡在羣倫勉同歸向云爾

佛遺教經

一名佛入涅槃略說教誡經

姚秦三藏法師鳩摩羅什奉 詔 譯

鄭郊鳳山蘭若嗣祖沙門 守遂 註

釋迦牟尼佛初轉法輪度阿若憍陳如最後
說法度須跋陀羅所應度者皆已度訖於娑
羅雙樹間將入涅槃是時中夜寂然無聲為
諸弟子略說法要諸佛悲願赴感應機出世度生無
緣不應與不戒皆方便焉示戒
化儀佛皆示丁寧付囑表悲願之不窮在昔如來四十
九年三百餘會始從鹿野苑終至跋提河一大事因緣已

불설사십이장경합철(불유교경·위산경책)

Bulseol42(sasibi)janggyeonghapcheol(Bulyu gyogyeong · Wisangyeongchaek)

Commentary on three sutras

佛說四十二章經合綴(佛遺教經·爲山警策)

- 문화재종별 : 보물 제 695 호
- 지정년월일 : 1981년 3월 18일
- 시대 : 고려 우왕 10년(1384)
- 규모·재질 : 1권 1책-가로 17.2cm, 세로 26.3cm(저지)
- 소재지 :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가실리 204 호암미술관

- Classification | Treasures 695
- Designated Date | 1981, 3, 18
- Age | King U of Goryeo Period

후한(後漢)의 가섭마등(迦葉摩騰)과 축법란(竺法蘭)이 번역한 『불설사십이장경(佛說四十二章經)』과 후진(後秦)의 구마라집(鳩摩羅什)이 번역한 『불유교경(佛遺教經)』 그리고 당(唐)의 영우(靈祐)가 지은 『위산경책(爲山警策)』을 합쳐서 '불조삼경(佛祖三經)' 이라고 한다. 송(宋)의 수수법사(守遂法師)가 해석을 하였는데 불교에 입문한 학문승들의 지침서로 활용되었다. 고려 말의 대학자인 목은(牧隱) 이색(李穡 : 1328~1396)이 쓴 발문(跋文)에 의해서 우왕(禑王) 10년(1384)에 간행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목판본(木版本)이다.



위산경책



표지

必至六向未滿卷以子著眼擬翻窠汨
徹玄微挽回真風大興末運若也見義勇
為將束心可成器其或循行數墨辜有
佛祖多矣區元丙式燈以能牧史德異



佛說四十二章經

後漢迦葉摩騰竺法蘭同譯

鄭郊鳳山蘭若嗣祖沙門守遂註

世尊成道已作是思惟離欲寂靜是最為勝

住大禪定降諸魔道於鹿野苑中轉四諦法

輪度憍陳如等五人而證道果

法身本無出沒悲願示現受生
入相道成佛寶也思惟方便離欲為戒生定發慧降魔顯
正轉法度人法寶也四諦謂苦集滅道異俗兩重因果隨
根修證大小有異憍陳如五人佛初出家靈山修道淨飯
王命家族三人一阿濕婆二跋提三摩訶男勇氏二人一

漸涼德常遵 先訓庶導秘詮因覽此經
懷欽奉冀流通而有益因法解以斯形雖
昧以難精幸覃研而克就仍俾鑄於方板所
期貽厥庶邦凡在羣倫勉同歸向云爾

佛遺教經

一名佛入涅槃略說教誡經

姚秦三藏法師鳩摩羅什奉 詔 譯

鄭郊鳳山蘭若嗣祖沙門 守遂 註

釋迦牟尼佛初轉法輪度阿若憍陳如最後

說法度須跋陀羅所應度者皆已度訖於娑

羅雙樹間將入涅槃時中夜寂然無聲為

諸弟子略說法要

諸佛悲願赴感應機出世度生無
緣不應戒與不戒皆方便焉示滅
化儀佛昔示丁婢付囑表悲願之不窮在昔如來四十
九年三百餘會始從鹿野苑終至跋提河一大事因緣已

나옹화상어록 · 나옹화상가송

Naonghwasangeorok · Naonghwasanggaso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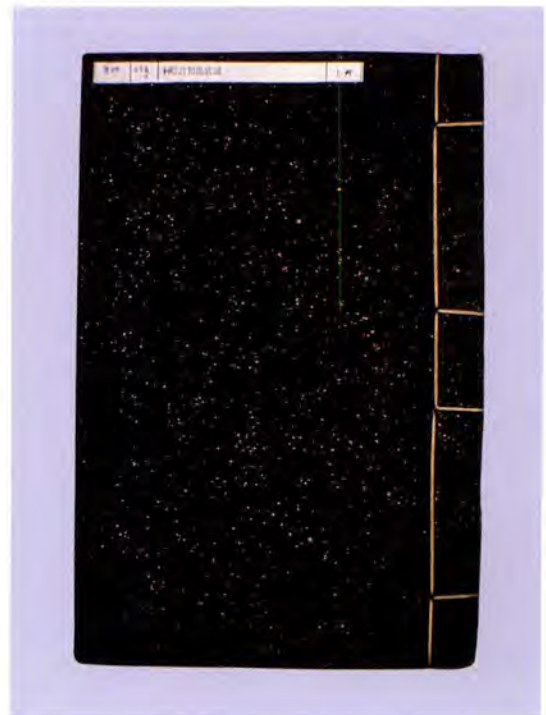
Sermons and poems of Buddhist Priest Naong

懶翁和尚語錄 · 懶翁和尚歌頌

- 문화재종별 : 보물 제 697 호
- 지정년월일 : 1981년 3월 18일
- 시 대 : 고려 우왕 5년(1379)
- 규모 · 재질 : 2권 2책-가로 16cm, 세로 26cm(저지)
- 소 재 지 :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가실리 204 호암미술관

- Classification | Treasures 697
- Designated Date | 1981. 3. 18
- Age | King U of Goryeo Period

고려 말 선종(禪宗)을 대표하는 고승 나옹(懶翁) 혜근(惠勤 : 1320~1376)의 문집이다. 나옹의 절친한 친구이자 고려 말의 대문장가 목은(牧隱) 이색(李穡 : 1328~1396)이 지은 서문(序文)에 의하면 제자인 각우(覺玨) · 각연(覺然) · 각변(覺卞)이 구본(舊本)을 교정하였다고 한다. 이후 같은 시대의 고승 환암(幻菴) 혼수(混脩 : 1320~1392)가 재차 교정을 보고서 목판본(木版本)으로 간행한 것이다. 『나옹화상가송』은 자신이 깨달은 오묘한 진리를 가(歌) · 송(頌) · 계(偈) · 찬(讚) 등의 형식으로 표현한 것을 모은 것이다.



표지

名覺玗覺然覺卞校讎舊本將繡之
梓未予序故略書如此蒼龍己未八
月既望韓山君李 穉序

懶翁和尚語錄

侍者 覺璉 錄

廣通普濟住釋 幻菴 校正

師自江南行脚畢還大都遊涉燕代山川道行
聞于 丙乙未秋奉

聖旨住廣濟禪寺丙申十月望設開堂法會

賜金襴袈裟象牙拂子是日諸山長老江湖衲子
及諸文武官僚無不集會師受袈裟提起問天使
云山河大地草木叢林盡是一箇法王身未審這
箇向甚麼處披天使云不識師指左肩云向這裏

懶翁和尚歌頌

侍者 覺雷 錄

廣通普濟住釋 幻菴 校正

歌三首

說珠歌

這靈珠極玲瓏體徧河沙内外空人人帶裏堂堂
有弄去弄來弄莫窮或摩屈或靈珠名相雖多體
不殊利之塵之明了之還如朗月滿江秋飢也他
渴也他知渴知饑不較多晨朝喫粥齋時飯困則
打眠也不差之也他正也它不勞開口念彌陀若

대불정여래밀인수증료의제보살만행수능엄경<권6~10>

Daebuljeongyeoraemirinsujeungnyouijebosal
manhaengsuneungeomgyeong<Gwon6~10>

Suramagma sutra part 6~10

大佛頂如來密因修證了義諸菩薩萬行首楞嚴經<卷六~十>

- 문화재종별 : 보물 제 698 호
- 지정년월일 : 1981년 3월 18일
- 시 대 : 고려 공민왕 21년(1372)
- 규모 · 재질 : 5권 1책·가로 16.6cm, 세로 26.1cm(저지)
- 소 재 지 :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가실리 204 호암미술관

- Classification | Treasures 698
- Designated Date | 1981. 3. 18
- Age | King Gongmin of Goryeo Period

줄여서 『대불정수능엄경』·『수능엄경』·『능엄경』이라고도 한다. 당(唐)의 반자밀제(般刺蜜帝)가 번역한 것으로 전질 권1~10 가운데 권6~10의 1책으로 권1~5가 빠졌다. 이 책은 『금강경(金剛經)』·『원각경(圓覺經)』·『대승기신론(大乘起信論)』과 더불어 한국 불교 기본 경전의 하나이다. 깨달음의 본질이 무엇이며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과정과 마음의 영원불멸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책 끝의 기록에 의해서 고려 공민왕(恭愍王) 때 대장군(大將軍) 김호(金瑚)·영암군부인(靈巖郡夫人) 최씨(崔氏)·정순옹주(貞順翁主) 이씨(李氏) 등에 의해 안성 청룡사에서 목판본(木版本)으로 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보물 제699호, 보물 제939호와 동일한 책이다. 조선시대에 독실한 불교 신자이며 불경을 한글로 옮기는 데 큰 공을 세운 세조(世祖)에 의해서 세조 7년(1461) 한글로 번역되었다.



간행 기록



표지

선림보훈<권상·하>

Seollimbohun<GwonSang · Ha>

Teaching of buddhist priest Seondeok volumes 1, 2

禪林寶訓<卷上·下>

- 문화재종별 : 보물 제 700 호
- 지정년월일 : 1981년 3월 18일
- 시 대 : 고려 우왕 4년(1378)
- 규모·재질 : 2권 1책·가로 16cm, 세로 26cm(저지)
- 소 재 지 :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가실리 204 호암미술관

- Classification | Treasures 700
- Designated Date | 1981. 3. 18
- Age | King U of Goryeo Period

중국 송(宋)의 승려 종고(宗杲)와 사규(士珪)가 선대 조사(祖師)들이 남긴 가르침을 모은 것을 이후 정선(淨善 : 1676~1759)이 다시 편집한 것이다. 내용의 일부를 보면 “배우는 사람들은 자신의 몸에도와 덕이 채워지지 않음을 걱정하고 권세와 지위가 없음을 염려하지 말아라. 학문이란 하루 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을 두고 쌓아 나갈 때 자신의 몸에 축적되는 것이다.”라고 하여 모든 수행자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교훈을 담고 있다. 우리나라에는 여러 종류의 간행본이 있으나 이 책이 가장 오래되고 인쇄가 정교하다. 권말(卷末)에 있는 고려 말의 승려 환암(幻菴 : 1320~1392)의 발문과 간행 기록에 의해 우왕(禑王) 4년(1378)에 충주 청룡사(靑龍寺)에서 목판본(木版本)으로 개판된 것을 알 수 있다.



간행 기록



표지

白日依山盡 欲窮千里目
黃河入海流 更上一層樓
江東日暮雲 何處不尋酒
重與細論文

月到天心處 一般清意味
東林送客處 笑別廬山遠
風來水面時 料得少人知
月出白猿啼 何煩過虎溪

遙知郡齋夜 時有山僧來
松下問童子 只在此山中
雲深不知處 言師採藥去

春眠不覺曉 夜來風雨聲
斗轉月未落 聞鐘方覺曉
夜半風雨聲 斗轉月未落
舟行夜已過 風便為拜社

西行不覺曉 曉中歌吹舞
人間梅花落 月出鷺山春
曉中歌吹舞 人間梅花落
夜半風雨聲 斗轉月未落

禪林實訓卷上

東吳沙門 淨善重集

明教高和尚曰尊莫尊乎道莫莫乎德道德之所
存雖匹夫非窮也德德之所不存雖王天下非通也
伯夷叔齊古之饑夫也今以斯人比之而人皆喜祭
紉此屬古之主也今以斯人比之而人皆怒是故
學者思道德不充乎身不患勢位不存乎己

明教曰聖賢之學固非一日之具日不足繼之以夜
積之歲月自然可成故曰學以聚之問以辨之斯言
學非辨問無由發明今學者所至罕有發一言問辨

道學無過人者但平生為事無愧於心耳
高庵住雲居見衲子有攻人隱惡者即從容論之曰
事不如此林下人道為急務和乃修身豈可苟縱愛
憎壞人行止其委曲如此師初不赴雲居之命佛眼
遣書勉之云雲居甲於江左可以安衆行道似不煩
固讓師曰自有叢林已來學者被這般名目壞了節
義者不為不少佛繼聞之曰高庵去就衲子所不及
記聞

禪林實訓卷上

東吳沙門 淨善重集

雲堂行和尚住薦福一日問暫到僧甚處來僧云福
州來雲堂云公路見好長老麼僧云近過信州博山
住持本和尚雖不曾拜識好長老也雲堂曰安得知
其為好僧云入寺路徑開廊廡修整殿堂香燈不
絕晨昏鐘鼓分明二時粥飯精潔僧行見人有禮以
此知其為好長老雲堂笑曰本固賢矣然亦具眼
也直以斯言達于郡守吳公傅朋曰這僧持論頗類
范延齡薦張希頰事而閣下之賢不減張忠定公老

禪林實訓卷下

불설장수멸죄호제동자경

Bulseoljangsumyeoljoehojedongjagyeong
Kumara sutra

佛說長壽滅罪護諸童子經

- 문화재종별 : 보물 제 701 호
- 지정년월일 : 1981년 3월 18일
- 시대 : 고려 우왕 4년(1378)
- 규모·재질 : 1첩-가로 11.3cm, 세로 32cm(저지)
- 소재지 :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가실리 204 호암미술관

- Classification | Treasures 701
- Designated Date | 1981, 3, 18
- Age | King U of Goryeo Period

부처가 일반 중생을 위해서 죄를 없애 주고 오래 살기를 기원한 것이 주된 내용이다. 권말(卷末)에 “나라가 태평하고 백성이 안정되며, 비와 바람이 알맞게 내려 곡식이 무르익고 천하가 태평이로세, 무오년 오월 일, 다시 새김.”이라 되어 있다. 이 기록을 근거해서 본다면 무오년(戊午年)은 고려 우왕(禑王) 4년(1378)으로 추측된다. 부처님의 말씀을 그림으로 표현한 두 폭의 변상도(變相圖)가 있는데 판화(版畵)로서 매우 귀중한 가치를 지닌다. 목판본(木版本)이며 형태는 절첩본(折帖本)이다.



권말의 간행 기록

說法聽我出家免斯苦



今時普光正見如來告顛倒言世間有五種懺悔難滅何等為五一者殺父二者殺母三者殺胎四者出佛身血五者破和合僧如此惡業罪難消滅今時顛倒女人啼號哽咽悲泣雨淚五體投地跪轉佛前而白佛言世尊大慈救護

又更說



今時波斯匿王於其夜分在王宮中聞有女人高聲號哭哀慟難忍悲不自勝而自念言我之深宮曾無是事何故有是哀屈之聲於晨朝時即敕所司往城衢路尋求此女使奉王教尋得將來其女驚愕問絕王前王以冷水而灑其面漸漸得蘇大王問言昨夜啼哭審是汝不女人答言是我悲耳王曰何故悉受誰之屈汝女人答言我之所恨實無人屈唯願大王聽我所說我年十四嫡於夫家經三十年生三十子顏容殊妙頭紺青色唇赤如朱齒白如玉身體盛愛如春中花我之戀惜猶如髓腦亦如肝腸甚於性命此子長大不過一歲於春秋時便棄我死其後見甚是我命今現垂困命將欲終我昨夜號哭因此悲耳今時大王聞此語已深大愁惱所有百姓依因於我若不救護非名國王即集

장승법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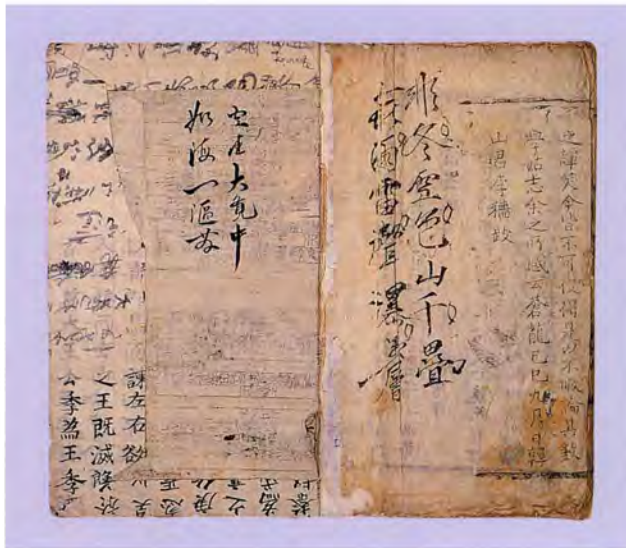
Jangseungbeopsu
Index of buddhist sutras

藏乘法數

- 문화재종별 : 보물 제 703 호
- 지정년월일 : 1981년 3월 18일
- 시대 : 고려 공양왕 원년(1389)
- 규모·재질 : 1책·가로 17.6cm, 세로 28cm(저지)
- 소재지 :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가실리 204 호암미술관

- Classification | Treasures 703
- Designated Date | 1981. 3. 18
- Age | King Gongyang of Goryeo Period

대장경(大藏經)이란 불교 관련 서적을 총칭하여 부르는 말로 일체경(一切經)이라고도 한다. 대장경 속에는 다양한 경전이 들어 있고 아울러 각 경전마다 제각기 다른 심오한 사상을 가지고 있다. 각 경전 속에 숫자로 표시된 중요한 개념을 법수(法數) 또는 명수(名數)라고 한다. 예를 들어 삼계(三界)는 욕계(欲界)·색계(色界)·무색계(無色界), 사고는 생로병사(生老病死)이다. 이러한 법수를 찾기 쉽게 정리한 것이 바로 『장승법수』이다. 중국의 서암(西菴) 스님이 편찬한 것으로 중국에서는 1355년에 간행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무학대사(無學大師) 자초(自超 : 1327~1405)가 이 책을 구입하여 고려 공양왕(恭讓王) 원년(1389)에 간행하였다. 대문장가 복은(牧隱) 이색(李穡 : 1328~1396)이 무학대사가 이 책을 간행한 경위를 밝힌 발문(跋文)을 썼다.



발문



표지

大乘終教假立地位三

一、心真見道
 二、相見道
 三、三智見道

大 苦法類
乘 集法類
見 智法類
道 智法類
位 智法類
行 智法類
相 智法類

情證地位五教開合不同

○大乘始教定有地位三

一、位
 二、地
 三、智

一、位：資糧位、信位、解位、證位
 二、地：見道、初地、二地、三地、四地、五地、六地、七地、八地、九地、十地
 三、智：三賢、三聖

○大乘終教假立地位三

一、位：智種性下度
 二、地：智種性中度
 三、智：智種性上度

周召王前釋氏

截乘法數

依起信論約諸法從本

一、心
 二、心真如門
 三、心生滅門

一、心：源本為心一唯初
 二、心真如門：門一開心一依二
 三、心生滅門：義二明識此依三

一、覺義
 二、覺義
 三、覺義

一、現相
 二、轉相
 三、業相

一、智相
 二、相續相
 三、執取相
 四、計名字相
 五、起業相
 六、覺苦相

一、世尊託胎
 二、摩耶夫人
 三、右脇而生
 四、是時九龍
 五、吐水灌沐
 六、全身即乃
 七、釋迦文佛
 八、闍維七步
 九、日額四方
 十、指地始天
 十一、作獅子吼
 十二、天上天下
 十三、推尊獨尊

불설대보부모은중경합철(불설부모은중태골경)

Bulseoldaebobumoeunjunggyeonghapcheol (Bulseolbumoeunjungtaegolgyeong)

Sakyamuni's teaching on parental love

佛說大報父母恩重經合綴(佛說父母恩重胎骨經)

- 문화재종별 : 보물 제 705 호
- 지정년월일 : 1981년 3월 18일
- 시대 : 고려 우왕 4년(1378)
- 규모·재질 : 1첩·가로 11.3cm, 세로 29cm(저지)
- 소재지 :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가실리 204 호암미술관

- Classification | Treasures 705
- Designated Date | 1981. 3. 18
- Age | King U of Goryeo Period

『부모은중경(父母恩重經)』이라고 줄여서 부르기도 한다. 부모의 은혜가 한없이 크고 깊음을 설명하고 그 은혜에 보답할 것을 가르친 경전으로 부모의 은덕을 열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하였다. 첫째는 어머니 몸속에서 지켜 주시는 은혜, 둘째는 해산할 때 고통을 이기시는 은혜, 셋째는 자식을 낳고 길러 주시는 은혜, 넷째는 쓴 것은 삼키고 단 것은 뱉어 막이시는 은혜, 다섯째는 진자리 마른자리 가려 뉘시는 은혜, 여섯째는 젖을 먹여 기르시는 은혜, 일곱째는 깨끗하게 씻어 주시는 은혜, 여덟째는 자식이 먼 길 떠나면 걱정하시는 은혜, 아홉째는 자식의 장래를 위해 고생을 참으시는 은혜, 열째는 죽을 때까지 사랑하시는 은혜이다. 이 경전은 우리나라에 널리 퍼졌으나 이 책이 그 중에 가장 오래된 고려 목판본(木版本)이다.

각 장면마다 판화(版畵)가 새겨져 있어 고려시대 판화를 연구하는데 귀중한 자료가 된다. 『불설부모은중태골경』도 함께 실려 있다. 형태는 절첩본(折帖本)이다.



본문의 판화와 경문

各發願言我等從今盡未來際盡碎此
身猶如微塵經百千劫誓不違於
如來聖教寧以百千劫拔出其古長百
由旬鐵犁耕之血流成河經百千劫誓
不違於

如來聖教寧以百千刀輪於自身中左
右出入誓不違於

如來聖教寧以鐵網周匝纏身經百千
劫誓不違於

如來聖教寧以剉確斬碎其身百千方
段皮肉筋骨悉皆棄落經百千劫終不
違於

如來聖教寧時阿難從座安詳而起白
佛言世尊此經當何名之云何奉持

佛告阿難此經名為大報父母恩經已
是名字汝當奉持於時大眾天人阿耨
羅等聞佛所說皆大歡喜信受奉行作
禮而退

佛說大報父母恩重經

真言曰 南無阿彌栗帝多羅尼 莎訶
心中真言唵烏倫尼沙 娑婆訶
報父母恩重真言

曼誦 滿多漫獄喻 唵誦誦 娑婆訶
佛說住聖真言

曼誦 滿多漫獄喻 唵誦誦 娑婆訶
佛說住聖真言

佛說父母恩重胎骨經

如是我聞一時佛在舍衛國祇樹給孤
獨園與大比丘眾千二百五十人俱
於時阿難世尊即從座起合掌向佛而
作是言世界之中有甚最大世尊言言

世界之中父母恩重最大阿難問佛願
佛慈悲方便分別解說孩子在母腹中
一箇月日猶如草頭珠露阿難問佛何
名草頭珠露世尊言朝晨聚得將來
却到午時消散只保其朝不保其暮孩

若能為於父母傳香修持常行十善是
為報父母乳哺養育恩

若能為於父母懺悔罪德受持戒是為
報父母洗濯不淨恩

若能為於父母濟貧病人造橋梁義井
是為報父母為造惡業恩

若能為於父母刺血書寫是報恩經是
為報父母究竟降墜恩

於時阿難及諸大衆天龍八部人與非
人聞佛於說身毛皆豎悲泣哽噎不能
自勝同發願言我從今日乃至未來寧
卒此身猶如微塵終不違於如來聖教

復作誓願寧自千劫拔出其古長百由
旬鐵犁耕之血流成河終不違於如來
之語說是語時眾中二萬八千人得無
生法忍

阿難白佛言世尊當何名此經我等云
何奉持

佛告阿難是經名為父母恩重經以是
名字汝當奉持於時阿難及諸大衆聞
佛所說皆大歡喜信受奉行

佛說父母恩重胎骨經

本經非特報
親之同始其報
四恩之有且壽
有報國而消兵殺海劫利生之道亦不與故命刊廣慈悲
見聞者同種佛種云

戊午五月日誌

輸讀功德已請文前啟堂文院覽經抄學志謹啟

光州郡夫人金氏

上黨縣夫人金氏

同級

同級

Bulseoldaebobumoeunjunggyeonghapcheol(Bulseolbumoeunjungtaegolgyeong)

불설대보부모은중경합철(불설부모은중태골경)

김중만장군 영정

Kimjungmanjanggunyeongjeong

Portrait of General Kim Jungman

金重萬將軍景紳

- 문화재종별 : 보물 제 715 호
- 지정년월일 : 1981년 3월 18일
- 시대 : 조선 영조 4년(1728)
- 규모·재질 : 대본-가로 103cm, 세로 170cm,
공신화첩-가로 29cm, 세로 42.5cm,
족자-가로 29cm, 세로 43cm(견본채색)
- 소재지 : 안성시 대덕면 토현리 산 3
- Classification | Treasures 715
- Designated Date | 1981, 3, 18
- Age | King Yeongjo of Joseon Period

김중만(1681~1755)은 이인좌(李麟佐)의 난(1728)을 평정한 공으로 분무공신(奮武功臣) 2등에 책록되었으며, 이후 충청도수군절도사(忠淸道水軍節度使)에 이른 무신이다.

현재 문중에는 그 영정 3폭이 보존되어 있는데, 그 중 큰 것은 가로 103cm, 세로 170cm 크기로 사모단령(紗帽團領)의 정장 관복을 입고 공경하는 뜻으로 두 손을 마주 잡은 공수(拱手) 자세를 취한 전신좌상(全身坐像)을 그린 것이다. 쌍학 문양의 흉배와 학정금대(鶴頂金帶)는 문관 중2품 때의 모습을 말해 주므로 공신 책록 이후 가의대부(嘉義大夫)에 올랐을 때 그려진 것으로 추정된다. 형식은 당시의 다른 분무공신도와 마찬가지로 높은 사모에 갈매색의 단령을 갖추고 호피 깔린 의자에 앉아 족좌대(足座臺)에 발을 올린 모습이다.

다른 2폭의 소본(小本)은 각각 가로 29cm, 세로 42.5cm와 가로 29cm, 세로 43cm 크기로 한 본은 공신화첩이고 나머지 한 본은 족자 형식으로 제작되었다. 공신화첩은 한쪽에 그의 이력을 기록하고 반대편에 초상화를 곁들인 것이다. 이들 소폭의 초상화는 모두 표현 형식과 기법이 동일한데, 공신화첩에서는 흉배의 모양이 해태이고, 족자 형식에서는 흉배가 쌍학이라는 점만 다르다.



족자



공신화첩



Kimjungmanjanggalgunyeongjeong

김중만장군 영정

월인석보<권9, 10>

Worinseokbo<Gwon9, 10>

Songs of the moon's reflection on a thousand rivers and episodes of the life of the buddha part 9, 10

月印釋譜<卷九, 十>

- 문화재종별 : 보물 제 745-3 호
- 지정년월일 : 1983년 5월 7일
- 시 대 : 조선시대
- 규모·재질 : 2권 2책-가로 22.5cm, 세로 30cm(저지)
- 소 재 지 : 성남시(개인소장)
- Classification | Treasures 745-3
- Designated Date | 1983. 5. 7
- Age | Joseon Period

『월인석보』는 『월인천강지곡』과 『석보상절』을 합하여 세조 5년(1459)에 편찬한 불교대장경이다. 석보는 석가모니의 년보 즉 그의 일대기라는 뜻이다.

조선 세종 28년(1446) 소현왕후의 명복을 빌기 위해 아들인 수양대군(후의 세조)이 불교서적을 참고하여 한글로 번역하여 편찬한 것이 곧 『석보상절』이다.

세종 29년(1447) 세종은 『석보상절』을 읽고 각각 2구절에 따라 찬가를 지었는데 이것이 곧 『월인천강지곡』이다. 세조 당시에 간행된 초간본으로, 2권 2책이다. 책의 크기는 가로 22.5cm, 세로 30cm 정도이다.

권9는 첫 장에서 제3장까지 없어졌고 제35, 36장은 상·중·하 3장씩 분류되어 있다. 이밖에 부분적으로 훼손된 것은 베껴서 써놓았다. 권10은 첫 장에서 제122장까지 되어 있으나 문장이 완전히 끝나지 않아 몇 장이 떨어져나갔을 것으로 보인다.

권9의 내용은 『월인천강지곡』 제251장에서 제260장까지이고, 권10은 『월인천강지곡』 제261장에서 제271장까지의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본문 일부(권9)



본문 일부(권10)

月印釋譜
第九

月印釋譜
第十

Worinseokbo(Gwon9, 10)

월인석보(권9, 10)

월인석보<권21>

Worinsekbo<Gwon21>

Songs of the moon's reflection on a thousand rivers and episodes of the life of the buddha part 21

月印釋譜<卷二十一>

- 문화재종별 : 보물 제 745-6 호
- 지정년월일 : 1983년 5월 7일
- 시 대 : 조선 명종 17년(1562)
- 규모 · 재질 : 1권 2책(저지)
- 소 재 지 :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가실리 204 호암미술관
- Classification | Treasures 745-6
- Designated Date | 1983. 5. 7
- Age | King Myeongjong of Joseon Period

1455년에 세조(世祖)는 조카 단종(端宗)을 몰아내고 왕위에 올랐다. 다음 해 아들 도원군(桃源君, 추존 덕종)이 요절하는 인간적인 슬픔을 경험한 후, 요절한 아들과 부모인 세종(世宗)과 소헌왕후(昭憲王后)의 명복을 위하여 부친이 지은 『월인천강지곡(月印千江之曲)』과 자신이 지은 『석보상절(釋譜詳節)』을 합쳐서 『월인석보』를 만들었다. 세조 5년(1459)에 간행되었으며 목판본(木版本)이다. 판각(板刻), 각자(刻字) 묵색(墨色)이 선명하여 인쇄재질이 우아하고 아름답다. 보물 제745호 『월인석보』는 초간본에 빠져 있는 권수에 중간본(重刊本)을 포함하여 일괄로 지정한 것으로 이들 초간본, 중간본은 현재로서는 모두 유일본에 해당하는 귀중한 서적이다. 『월인석보』는 불교학, 국어학 및 서지학 연구에 있어서 귀중한 자료로서 조선 전기 한글 연구에 중요한 저작일 뿐만 아니라 한글로 쓰인 산문 문학의 백미(白眉)라 할 수 있다.



월인천강지곡



변상도



Worinseokbo(Gwon21)

월인석보(권21)

태고사 원증국사탑

Taegosawonjeungguksatap

Bupa to National Preceptor Wonjeungguksa of Taegosa Temple

太古寺圓證國師塔

- 문화재종별 : 보물 제 749 호
- 지정년월일 : 1983년 12월 27일
- 시 대 : 고려시대
- 규모·재질 : 높이 4m(화강암)
- 소재지 : 고양시 덕양구 북한동 산 1-1

- Classification : Treasures 749
- Designated Date : 1983. 12. 27
- Age : Goryeo Period

태고사의 북쪽 봉우리에 있는 고려 말의 명승 원증국사 보우(普愚 : 1301~1382)의 사리탑이다. 본래는 도굴로 인해 쓰러져 있었는데, 1980년 10월에 흩어져 있던 부재를 모아 복원하였다. 수 개의 석재로 구성된 지대석(地臺石) 위에 부도를 놓았다. 하대석은 방형으로 각 면에는 3구씩의 장방형 액(額)을 새겼다. 상대석의 측면에는 판이 넓은 복엽 8판의 양련(仰蓮)을 새겼다. 탑신은 원통형으로 아래쪽에 비해 위쪽이 좁게 조성되었다. 옥개석은 팔각형으로 완만한 U자형의 처마는 두껍고 위로 들려진 형태인데, 낙수면의 함각선은 두껍게 처리되었고 전각(轉角)의 끝에는 여의두문형(如意頭文形)의 귀꽃이 음각되어 있다. 정상에는 원구형의 부재, 보개(寶蓋), 화염보주(火焰寶珠) 등이 놓여 있다. 원증국사는 고려 우왕(禑王) 8년(1382)에 입적하였고, 우왕 11년(1385)에 비석을 세웠다는 원증국사탑비의 비문 내용에 의하여 이 부도의 건립하한(建立下限)을 1385년으로 보아도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Taegosawonjeungguksatap

태고사 원종국사탑

금제환두태도

Geumjehwandutaedo

Gold sword with round pommel

金製環頭太刀

- 문화재종별 : 보물 제 776 호
- 지정년월일 : 1984년 8월 6일
- 시대 : 삼국시대(5~6세기)
- 규모·재질 : 길이 13.8cm, 폭 3.9cm(금조)
- 소재지 :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가실리 204 호암미술관

- Classification | Treasures 776
- Designated Date | 1984. 8. 6
- Age | Three Kingdoms Period(5~6C)

큰 칼의 자루 끝부분과 자루의 외면에 금으로 투조(透彫) 장식된 것으로 칼 몸통은 남아있지 않다. 자루의 상단에는 타원형의 고리가 있고 그 내부에는 두 마리의 용이 목을 감아 몸을 X자로 교차한 형태로 사실적으로 조각되어 있고 둥근 고리 부분에 나머지 몸통이 부조(浮彫)되어 있다. 손잡이 중간 부분에는 가는 선이 조각된 금줄을 스프링처럼 말아서 장식한 부위가 남아있고 손잡이 상·하단에 장식한 꾸미개에도 두 마리의 용이 몸을 X자상으로 교차하여 구름 위로 올라가는 느낌을 가진다. 당시 최고 지배자들이 생시에는 신분을 상징하고 권위를 나타내는 용도로 환두태도를 사용하다가 사후에 무덤에 부장(副葬)하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칼자루 끝의 용조각



Geumjehwandutaedo

금제환두태도

청화백자운룡문병

Cheonghwabaekjaullyongmunbyeong

Blue and white porcelain bottle with cloud and dragon design

靑華白磁雲龍文瓶

- 문화재종별 : 보물 제 785 호
- 지정년월일 : 1984년 8월 6일
- 시 대 : 조선시대(15세기)
- 규모 · 재질 : 높이 21.5cm, 구경 4.6cm, 저경 6.9cm(청화백자)
- 소 재 지 :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가실리 204 호암미술관

• Classification | Treasures 785

• Designated Date | 1984, 8, 6

• Age | Joseon Period(15C)

조선 전기에는 왕가(王家)의 상징인 용이 백자의 장식 무늬로 쓰인 예가 매우 드물다. 이 병은 호암미술관 소장 보물 제786호 운룡문병(雲龍文瓶)과 더불어 용이 장식된 드문 작품이다. 표면에는 짙고 푸른 청화안료(靑華顔料)로 구름 속에서 발톱을 세우고 수염을 휘날리며 여의주를 희롱하는 용 한 마리를 그려 넣었다. 이 그림은 전체의 구도와 용 얼굴, 몸체의 농담(濃淡) 표현이 뛰어나서 궁중 소속의 솜씨 좋은 도화서(圖畫署) 화원(畫員)이 그린 것으로 생각된다. 순백색의 흙으로 형태를 빚은 후 청화로 그림을 그리고 그 위에 맑고 투명한 유약을 고르게 입혔다. 이에 따라 흰색과 푸른색의 대비가 매우 강렬하며, 전체적인 그림이 더욱 힘찬 느낌이다. 광주의 관요(官窯)에서 왕실용(王室用)으로 만들어진 최상품의 백자이다.



뒷면



앞면



Cheonghwaebaekjaullyongmunbyeong

청화백자운룡문병

청화백자운룡문병

Cheonghwabaekjaullyongmunbyeong

Blue and white porcelain bottle with cloud and dragon design

青華白磁雲龍文瓶

- 문화재종별 : 보물 제 786 호
- 지정년월일 : 1984년 8월 6일
- 시 대 : 조선시대(15세기)
- 규모 · 재질 : 높이 25cm, 구경 5.3cm, 저경 7.7cm(청화백자)
- 소 재 지 :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가실리 204 호암미술관

- Classification | Treasures 786
- Designated Date | 1984, 8, 6
- Age | Joseon Period(15C)

왕가(王家)의 상징인 용이 장식된 조선 전기의 작품이다. 이 병은 호암미술관 소장 보물 제785호 운룡문병(雲龍文瓶)과 더불어 용이 장식된 거의 유일한 작품이다. 당당하고 힘찬 형태, 깔끔하게 다듬어진 몸체의 선, 푸른빛이 비끼듯 맑고 투명한 순백의 색깔 등에서 조선 전기 백자의 특징을 잘 살필 수 있다. 이처럼 질 좋은 백자의 대부분은 경기도 광주 일대의 관요(官窯)에서 제작되었는데 이 곳에서는 380명의 장인(匠人)이 모여 왕실에서 쓰는 자기만을 생산하였다. 표면을 장식한 청화안료(靑華顔料)는 비교적 색이 어두우며, 활기차게 하늘을 가르는 용의 모습은 보물 제785호와 거의 동일하지만 머리 부분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다. 용무늬는 왕실 그릇에만 사용되었으므로 이 병도 궁중 잔치에 사용된 술병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뒷면



옆면



Cheongwabaekjaullyongmunbyeong

청화백자운룡문병

청자조각쌍사자두침

Cheongjajogakssangsajaduchim

Celadon pillow incised with a pair of lions

靑磁彫刻雙獅子頭枕

- 문화재종별 : 보물 제 789 호
- 지정년월일 : 1984년 8월 6일
- 시대 : 고려시대(12세기)
- 규모·재질 : 높이 10.5cm, 길이 21.8cm, 폭 8.2cm(침자)
- 소재지 :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가실리 204 호암미술관

• Classification | Treasures 789

• Designated Date | 1984. 8. 6

• Age | Goryeo Period(12C)

한 쌍의 사자가 장방형의 받침 위에 서로 등을 맞댄 채 웅크리고 앉아, 머리에 침판(枕板)을 인 특이한 모양의 베개이다. 사자는 불교와 함께 우리나라에 들어왔으며 고려시대 미술품에 자주 등장한다. 베개에 사자가 장식된 것은 사용하는 사람을 지켜준다는 상징적인 의미로 해석된다. 사자의 조각은 사실적이며 세부의 묘사에 치우치지 않고 좌우대칭과 전체의 조화를 강조하였다.

사자의 눈에는 검은색의 철채(鐵彩)를 가하여 생기를 불어 넣었고, 베개판의 윗면에는 커다란 연잎을 음각으로 마무리하였다. 전반적으로 미끈하게 빼어난 감각으로 사자를 조각하고 그 위에 비색 유약을 고르게 잘 바른 우수한 상형청자(象形靑磁)이다.



위에서 본 모습



Cheongjajogakssangsajaduchim

청자조각쌍사자두침

영월암 마애여래입상

Yeongworammaaeyeoraeipsang

Rook-carved standing buddhist statue in Yeongworam Hermitage

映月庵磨崖如來立像

- 문화재종별 : 보물 제 822 호
- 지정년월일 : 1985년 1월 8일
- 시 대 : 고려시대
- 규모·재질 : 높이 8m
- 소재지 : 이천시 관고동 산 64-1

• Classification | Treasures 822

• Designated Date | 1985. 1. 8

• Age | Goryeo Period

자연 암벽의 전면을 다듬어 머리와 양 손만 얇게 부조(浮彫)하고 나머지 부분은 선각(線刻)으로 처리했다. 원만(圓滿)한 얼굴에는 지그시 감은 눈, 넓적한 코, 두툼한 입, 귀가 표현되었고 온화하고 후덕한 자태에 목에는 삼도(三道)가 표현되었다. 법의(法衣)는 통견(通肩)으로 옷주름이 몸 전체에 유려한 사선(斜線)을 그리고 있다. 양 손은 가슴에 모아 외장(外掌)하면서 엄지와 약지를 맞대고 있다. 영월암에 전하는 석불대좌(石佛臺座)와 광배(光背), 석탑재 등을 볼 때 고려시대 전반기에 조성된 것으로 보인다.



앞면부



수인



Yeongworammaeeyeoraeipsang

영월암 마애여래입상

석남사 영산전

Seongnamsayeongsanjeon

Yeongsanjeon Hall of Seongnamsa Temple

石南寺靈山殿

- 문화재종별 : 보물 제 823 호
- 지정년월일 : 1985년 1월 8일
- 시대 : 조선시대(17세기)
- 규모·재질 : 영산전 1동-정면 3칸, 측면 2칸(목조)
- 소재지 : 안성시 금광면 상중리 508 석남사

• Classification | Treasures 823

• Designated Date | 1985 1. 8

• Age | Joseon Period(17C)

영산전은 석가모니불과 그의 일대기인 팔상도(八相圖)를 봉안한 불전(佛殿)이다. 그러나 이 건물은 16나한(羅漢)과 나한도가 함께 봉안되어 있으므로 나한전(羅漢殿)이라 해야 옳다. 임진왜란(1592~1598)으로 석남사가 전소된 후 언제 중건되었는지 알 수 없으나 암막새에 영조(英祖) 원년(1725)에 수리되었다는 명문(銘文)이 남아 있으므로 17세기 말경에는 건립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근래에는 1940년과 1985년에 중수되었다.

영산전은 대웅전으로 올라가는 계단 오른편의 석축 위에 자리 잡고 있다. 정면 3칸, 측면 2칸의 다포계(多包系) 팔작집인데 칸 수에 비해 규모가 작은 건물이다. 낮은 자연석 기단 위에 세운 민흘림기둥에 공포(拱包)가 걸구되어 오량(五梁)의 지붕가구가 짜 올려져 있다. 지붕에는 하중을 줄이기 위해 덧서까래 구조가 사용되었다. 내부 중앙에는 건물 뒷벽에 붙여 불단(佛壇)이 설치되어 석가삼존불이 봉안되어 있고 그 위에 一자형의 단집이 꾸며져 있다. 중앙의 불단 좌우에는 一자형 불단 위에 16나한상이 모셔져 있다.

이 불전은 공포의 형태나 천장 구성, 지붕의 덧서까래 구조 등으로 미루어 17세기에 건립된 이후에도 여러 번 수리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공포



측면



Seongnamsayeongsanjeon

석남사 영산전

청룡사 대웅전

Cheongnyongsadaeungjeon
Daeungjeon Hall of Cheongnyongsa Temple

靑龍寺大雄殿

- 문화재종별 : 보물 제 824 호
- 지정년월일 : 1985년 1월 8일
- 시 대 : 조선시대(19세기)
- 규모·재질 : 대웅전 1동-정면 3칸, 측면 4칸(목조)
- 소재지 : 안성시 서운면 청룡리 28 청룡사

- Classification | Treasures 824
- Designated Date | 1985 1. 8
- Age | Joseon Period(19C)

청룡사는 고려 원종(元宗) 6년(1265)에 창건되어 공민왕(恭愍王) 13년(1364) 나옹화상(懶翁和尚 : 1320~1376)에 의해 중창되었고 조선 초까지도 왕실의 원찰(願刹)로 경영된 유서 깊은 사찰이다. 대웅전의 중건 시기는 알 수 없으나 조선 선조(宣祖) 34년(1601)의 중수 기록으로 미루어 17세기 이전에 건립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후 숙종(肅宗) 46년(1720)과 순조(純祖) 21년(1821), 현종(憲宗) 15년(1849), 철종(哲宗) 14년(1863)에도 중수되었다.

대웅전은 정면 3칸, 측면 4칸의 다포계(多包系) 팔작집인데 정면보다 측면 칸 수가 많다. 높다란 석축 위의 낮은 기단에 세운 둥근 기둥에 공포(楸包)가 결구되어 칠량(七梁)의 지붕기구가 짜 올려져 있다.

내부 중앙에 불단(佛壇)이 가설되어 석가삼존불이 봉안되어 있고 그 위에 2층의 단집이 장엄하게 꾸며져 있다. 내부 천장은 통상과 달리 반자없이 연등천장으로 마감되어 있다.

이 건물에는 가장 주목할 부분은 자연 형상을 살려 다듬은 부재들은 치목(治木) 수법이다. 특히 전면 기둥은 비교적 가지런하지만 양 측면과 후면에는 휘어지거나 뚱뚱한 것, 가느다란 것 등 여러 형태의 기둥이 사용되었고 지붕기구에서도 자연 곡선에 따라 휘어진 대들보가 채택되었다.

이 불전은 19세기 후반의 목재 부족 현상과 자연주의적 건축관을 잘 보여주고 있는 예이다.



귀공포



측면



Cheongnyongsadaeungjeon

청룡사 대웅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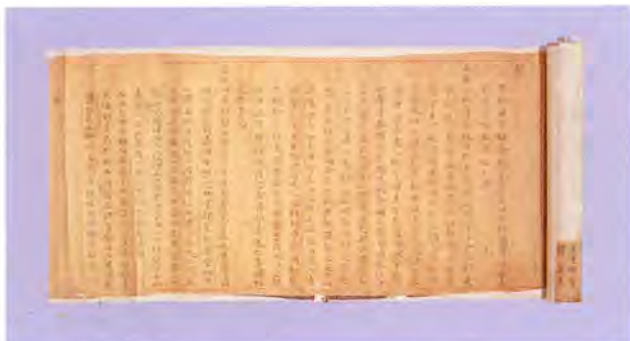
완양부원군 이충원 호성공신 교서

Wanyangbuwongunyichungwonhoseonggongsingyoseo
 Royal certificate meritorious subject for Yi Chungwon for escorting King Seonjo to Uiju during the 1592 Japanese Invas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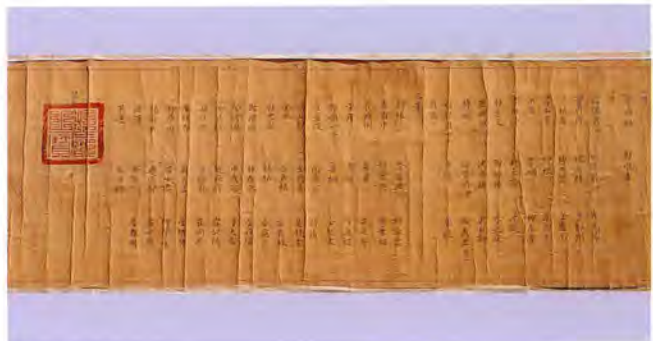
完陽府院君李忠元扈聖功臣教書

- 문화재종별 : 보물 제 874 호
- 지정년월일 : 1986년 10월 15일
- 시대 : 조선 선조 37년(1604)
- 규모·재질 : 가로 230cm, 세로 36cm(한지)
- 소재지 : 여주군 산북면 백자리 244
- Classification | Treasures 874
- Designated Date | 1986. 10. 15
- Age | King Seonjo of Joseon Period

조선 선조(宣祖) 37년(1604) 10월에 국왕이 임진왜란(1592~1598) 때 공이 많은 완양부원군 이충원(1537~1605)에게 포상으로 호성공신 2등을 내린 상훈교서로 1축(軸), 필사본(筆寫本)이다. 명주에 두꺼운 한지를 배접하여 만든 가로 230cm, 세로 36cm의 두루마리이며, 앞뒤 공백 부분까지의 길이는 총 298.8cm이다. 붉은 색의 선으로 굵고 해서체(楷書體)로 묵서(墨書)하였으며, 끝부분 발급년월일 위에 정방형의 '시명지보(施命之寶)'라는 어보(御寶)가 찍혀 있다. 이 문서는 '교 충근정량효절협책호성공신 보국승록대부 완양부원군이충원서(教忠勤貞亮孝節協策護聖功臣輔國崇祿大夫完陽府院君李忠元書)'라 제(題)하여 이충원의 공적 사례, 포상과 특전, 공신의 명단, 사실 증명 등을 차례로 적고 있다. 특전과 포상 내용은 2계급의 작위를 올려 주고 부모와 아내와 아들 또한 2계급씩을 올려주며, 적장(嫡長)이 세습(世襲)하여 녹(祿)을 잃지 않고 영세(永世)토록 면죄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으며, 이어서 반당(伴僞) 6인, 노비 9구(口), 구사(丘史) 4명, 전지 80결(結), 은(銀) 7냥, 옷감 1단(段), 내구마(內廐馬) 1필을 하사하고 있다. 임진왜란 평정에 큰 공훈을 세운 사람들에게 내려진 훈호(勳號)는 호성(扈聖)·선무(宣武) 두 가지로 나누고 있다. 서울에서 의주까지 계속 왕을 모시고 따른 사람을 호성공신으로, 왜병을 정벌한 장수들과 원병 등의 요청을 위해 명나라를 왕래한 사람들을 선무공신으로 책봉하였다. 이 문서는 임진왜란사 연구의 사료이며 이충원의 전기적 자료이기도 하다. 특히 조선 전기 4대 명필의 한 사람인 한호(韓濩: 1543~1605)의 글씨라는 점에서 서예적 가치도 높게 평가된다.



공적 사례, 포상과 특전 내용



호성공신 명단



Wanyangbuwongunyichungwonhoseonggongsingyoseo

완양부원군 이충원 호성공신 교서

감지금니대반야바라밀다경<권175>

Gamjigeumnidaebanyabaramildageong<Gwon175>

Mahaprajna-paramaita sutra in gold on indigo paper part 175

紺紙金泥大般若波羅密多經<卷百七十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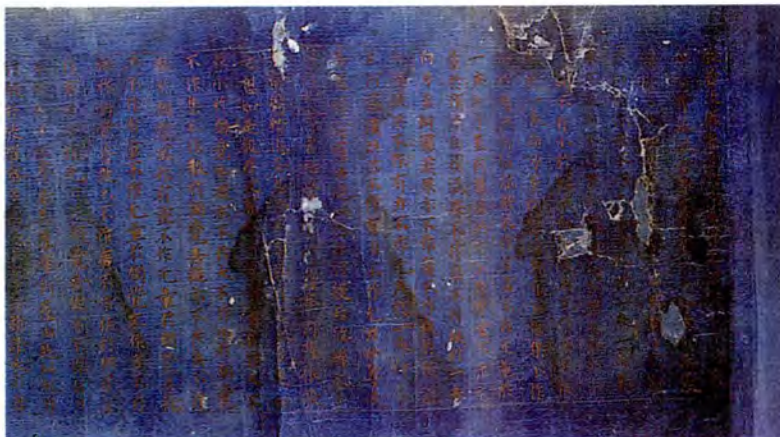
- 문화재종별 : 보물 제 887 호
- 지정년월일 : 1986년 11월 29일
- 시 대 : 고려 문종 9년(1055)
- 규모·재질 : 1권 1축-가로 510cm, 세로 28.7cm(감지)
- 소재지 :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가실리 204 호암미술관
- Classification | Treasures 887
- Designated Date | 1986, 11, 29
- Age | King Munjong of Goryeo Period

금강반야바라밀경은 줄여서 '금강경'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조계종의 근본 경전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반야심경 다음으로 많이 읽히는 경전이다.

이 책은 당나라 현장(玄奘)이 번역한 『대반야경』 600권 가운데 권 175이다. 검푸른 빛이 도는 종이에 금색으로 글씨를 썼으며, 크기는 세로 28.7cm, 가로 510cm이다. 1권이 종이 10장을 연결하여 두루마리 형태로 만든 1축으로 되어 있다.

고려 문종 9년(1055)에 김용범(金融範)이 조·부모의 명복과 가족의 안녕을 위해 만들었는데, 불경의 내용을 정성껏 옮겨 적고 그림을 그려 화려하게 꾸몄다.

권 머리부분은 5장이 탈락되어 있고, 종이와 금색이 깨끗하지 못해 내용도 겨우 읽을 수 있을 정도이다. 권 끝부분에는 간행기록이 있으며 현재까지 알려진 이런 종류의 고려시대 불경 가운데 가장 오래된 것이다.



경문 일부



표지

羅密多作廣作狹於淨戒乃至般若地羅密
 多亦作廣作狹於布施波羅密多作有力作
 無力於淨戒乃至般若波羅密多作有力作
 作無力世尊是菩薩摩訶薩由起此想非思
 般若波羅密多復次世尊若新學大菩薩摩
 訶薩摩訶薩依般若靜慮精進安忍淨戒智
 羅密多起如是想如是般若波羅密多於內
 空作大作小於外空內外空空大空勝義
 空有為空无為空畢竟空无際空散空无礙
 無空本性空自相空共相空一切法空不可
 得空无性空自性空无性自性空亦作大作
 小於內空作集作散於外空乃至无性自性
 空之作集作散於內空作有量作无量於內
 空乃至无性自性空之作有量作无量於內
 空作廣作狹於外空乃至无性自性空亦作
 廣作狹於內空作有力作無力於外空乃至
 无性自性空之作有力作無力世尊是菩薩
 摩訶薩由起此想非行般若波羅密多復次
 世尊若新學大菩薩摩訶薩依般若靜慮不
 精進安忍淨戒布施波羅密多起如是想如
 是般若波羅密多於真如作大作小於法界
 法性不虛忘性不變異性平等性離生性法
 之法住實際虚空界不思議界亦作大作小
 於真如作集作散法界乃至不思議界之作
 作集作散於真如作有量作元於法界量乃
 至不思議界之作有量作无量於真如作靈
 作狹於法界乃至不思議界亦作廣作狹於
 真如作有力作無力於法界乃至不思議界作
 有力作無力世尊是菩薩摩訶薩由起此想非

Gamjigeumnidaebanyabaramildagyeong(Gwon175)

감지금니대반아바라밀다경(권175)

궐장 및 사궐장연회도첩

Gwejangmitsagwejangyeonhoedocheop

Paintings of the staff and chair awarded by the king to aged senior officials and of a celebration of awarding of the two items to Yi Gyeongseok

几杖 및 賜几杖宴會圖帖

- 문화재종별 : 보물 제 930 호
- 지정년월일 : 1987년 12월 26일
- 시대 : 조선 현종 9년(1668)
- 규모·재질 : 궐-높이 930cm, 폭 77.4cm, 장 4개-새머리·칼 모양 삼·뿔족 형태, 도첩 3폭-각 폭 가로 30.4cm, 세로 42.5cm (궐장-목조, 연회도첩-견본채색)
- 소재지 : 용인시 기흥구 상갈동 산 85 경기도박물관
- Classification | Treasures 930
- Designated Date | 1987. 12. 26
- Age | King Hyeonjong of Joseon Period

이 궐장은 조선 현종(顯宗) 9년(1668)에 왕이 원로대신이었던 이경석(李景奭: 1595~1671)에게 하사한 것이며 「사궐장연회도첩」은 궐장을 하사받을 당시의 행사를 그림으로 기록한 것이다. 주인공인 이경석은 대제학(大提學)을 거쳐 영의정과 좌의정을 역임한 문인으로, 자는 상보(尙輔), 호는 백헌(白軒), 본관은 전주(全州)이다.

의자는 930cm이고 폭이 77.4cm로, 고대의 궐(几)라는 주례(周禮)의 의식을 그대로 모방해서 규격과 제도 격식에 맞추어 제작되었다. 의자의 형태는 다리가 절립식(絶立式)으로 앉는 곳은 노끈으로 묶고, 뒤에 기대는 고배는 괴목을 대고, 등받이 표면을 자작나무 껍질로 싼 것이 특징이다. 또한 지팡이는 장(杖)이라 부르며, 새의 머리 모양을 한 지팡이(길이 189.5cm), 칼모양 지팡이(길이 149.5cm), 그리고 긴 막대 끝에 삼 형태와 뿔족한 형태가 있는 것을 합하여 모두 네 점이 있다.

연회도첩은 궐장을 내릴 때 행해진 축하 행사를 3폭에 나누어 글과 그림으로 묘사했는데, 각 폭의 크기는 가로 30.4cm, 세로 42.5cm이다. 그림의 내용은 궁중에서 파견된 악사들이 연주하는 장면을 그린 <지영궐장도(祗迎几杖圖)>와 유사(有司)가 예를 갖추어 궐장을 받들고 사택에 도착하여 궐장을 전달하고 교서를 낭독하는 장면인 <선독교서도(宣讀敎書圖)>, 어주(御酒)·어찬(御饌)과 악원(樂員)이 취주하는 가운데 축하 연회가 진행되는 모습의 <내외선온도(内外宣醞圖)> 등의 장면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도첩의 끝부분에는 사궐장연(賜几杖宴)의 서문·경축문·연시(宴詩), 이경석의 감사문이 수록되어 있다. 이 궐장과 연회도첩은 조선 중기에 관장(官匠)이 제작한 대표적인 목공예라는 점과 궐장을 하사할 때의 당시 풍속을 살필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작품이다.



사궐장연회도첩(지영궐장도)



Gwejang

궤장

지장보살본원경<권상·중·하>

Jijangbosalbonwongyeong<GwonSang·Jung·Ha>
Ksitigarbha purva-pranidhana sutra volumes 1, 2, 3

地藏菩薩本願經<卷上·中·下>

- 문화재종별 : 보물 제 933 호
- 지정년월일 : 1987년 12월 26일
- 시대 : 조선 세종 29년~조선 세종 32년(1447~1450)
- 규모·재질 : 3권 1책·가로 18cm, 세로 28.2cm(저지)
- 소재지 :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가실리 204 호암미술관

- Classification | Treasures 933
- Designated Date | 1987. 12. 26
- Age | King Sejong of Joseon Period

지장보살은 자비와 지혜로 가득 찬 보살로서 모든 중생을 악업(惡業)에서 벗어나게 해 주는 것을 임무로 한다. 이 책은 지장보살이 고통 받는 중생을 교화시키고 그들의 죄를 없애 주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당(唐)나라의 범등(法燈)이 번역한 것이다. 조선 세종(世宗) 32년(1450) 무렵에 간행되었다. 간행 동기는 태종(太宗 : 1367~1422)과 태종비인 원경왕후(元敬王后 : 1365~1420), 그리고 세종비인 소헌왕후(昭憲王后 : 1395~1446)의 명복을 빌기 위한 것이다. 권말(卷末)에 시주(施主)를 한 엄경(嚴敬)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있는 것으로 보아 엄경의 시주에 의해서 이 책이 간행되었음을 알 수 있는데 엄경의 행적은 자세하지 않다. 목판본(木版本)이며 3권 1책이다.



지장보살본원경 일부(좌, 우)

施主敬啟

地藏菩薩本願經卷中

地藏菩薩本願經地獄名号品第五

爾時普賢菩薩摩訶薩白地藏菩薩言仁者

願為天龍八部及未來現在一切衆生說娑

婆世界及閻浮提罪苦衆生所受報處地獄

名號及惡報等事使未來世末法衆生知是

果報地藏菩薩言仁者我今承佛威神及大士

목우자수심결부사범어

Mogujasusimgyeolbu4(sa)beobeo

Korean translation of mogujasusimgyo sermons of national preceptor Bojo and four other sermons

牧牛子修心訣附四法語

- 문화재종별 : 보물 제 934 호
- 지정년월일 : 1987년 12월 26일
- 시대 : 조선 세조 13년(1467)
- 규모·재질 : 1권 1책-가로 16.7cm, 세로 27.5cm(저지)
- 소재지 :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가실리 204 호암미술관
- Classification | Treasures 934
- Designated Date | 1987. 12. 26
- Age | King Sejo of Joseon Period

고려의 고승 목우자(牧牛子) 지눌(知訥: 1158~1210)이 지은 『수심결』을 조선시대에 세조(世祖)의 명에 따라 혜각존자(慧覺尊者) 신미(信眉)가 한글로 번역한 것이다. 세조 13년(1467)에 당시 불경을 간행하는 임시 관청인 간경도감(刊經都監)에서 목판본(木版本)으로 간행하였다. 『수심결』은 선종(禪宗)과 교종(敎宗)의 대립적인 입장을 그치고 인간의 참모습을 밝히고자 지어진 것으로 불가 수행에 있어서 필독서로 꼽힌다. 한글로 번역한 신미는 세조대의 인물로서 세조 연간에 불경언해(佛經諺解)에 많은 공적을 남겼으며 김수온(金守溫: 1410~1481)의 형이기도 하다. 『수심결』 뒤에 첨가되어 있는 사범어(四法語)는 「환산정응선사시몽산법어(皖山正凝先師示蒙山法語)」·「동산승장주송자행각법어(東山崇藏主送子行脚法語)」·「몽산화상시중법어(蒙山和尚示衆法語)」·「고담화상법어(古潭和尚法語)」이다. 글씨를 쓴 사람은 안혜(安惠)·유환(柳皖)·박경(朴耕)이다.



목우자수심결



범어

월인석보〈권11, 12〉

Worinseokbo<Gwon11, 12>

Songs of the moon's reflection on a thousand rivers and episodes from the life of buddha part 11, 12

月印釋譜〈卷十一, 十二〉

- 문화재종별 : 보물 제 935 호
- 지정년월일 : 1987년 12월 26일
- 시 대 : 조선 세조 5년(1459)
- 규모·재질 : 2권 2책(저지)
- 소재지 : 용인시 처안구 포곡읍 가실리 204 호암미술관

- Classification | Treasures 935
- Designated Date | 1987, 12, 26
- Age | King Sejo of Joseon Period

조선 1455년에 세조(世祖)는 조카 단종(端宗)을 몰아내고 왕위에 올랐다. 다음 해 아들 도원군(桃源君)이 요절하는 인간적인 슬픔을 맛보고 요절한 아들과 부모인 세종(世宗)과 소헌왕후(昭憲王后)의 명복을 위하여 부친이 지은 『월인천강지곡(月印千江之曲)』과 자신이 지은 『석보상절(釋譜詳節)』을 합쳐서 『월인석보』를 만들었다. 『월인천강지곡』과 『석보상절』의 합편이지만 수정·편찬한 부분이 상당히 있다. 예를 들면 『석보상절』에서는 부처가 왕사성(王舍城)에서 『법화경』을 설법한 연대를 목왕(穆王) 45년 갑자(甲子)로 하였으나, 『월인석보』에서는 목왕 46년 을축(乙丑)이라 하였다. 이것은 세종 29년(1447)에 간행된 『석보상절』과는 13년의 시차를 두고 간행된 까닭에 『석보상절』의 오류를 검토할 충분한 시간을 가진 것으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세조 5년(1459)에 간행되었으며 목판본(木版本)이다. 조선 전기 한글 연구에 중요한 저작일 뿐만 아니라 한글로 쓰인 산문 문학의 백미(白眉)라 할 수 있다. 총 24권으로 추정되며 초간본으로는 권1·2·7·8·9·10·13·14·17·18이, 중간본은 권21·22·23이 전해진다.



월인천강지곡

月印千江之曲第十
 釋譜詳節第十
 其二百七十一
 靈山애天花
 萬二千羅漢
 薩天人鬼
 東少애

법이며부도護念
 小劫을座애니디아니
 니모단들승리능
 小劫을를관손과위디아니
 야부텃마를를것
 니겨하나
 이저스衆중이
 나기니다法법
 홀씨도통애게
 흥니라法법
 씀스知當
 과로다으
 실월燈
 권을이經
 沙門婆羅門
 신阿脩羅衆

묘법연화경〈권6, 7〉

Myobebyeonhwagyeong <Gwon6, 7>

Saddhdharma-pundarika suta part 6, 7

妙法蓮華經〈卷六, 七〉

- 문화재종별 : 보물 제 936 호
- 지정년월일 : 1987년 12월 26일
- 시 대 : 조선 성종 13년(1482)
- 규모·재질 : 2권 1책-가로 22cm, 세로 35.2cm(저지)
- 소재지 :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가실리 204 호암미술관

• Classification | Treasures 936

• Designated Date | 1987, 12, 26

• Age | King Seongjong of Joseon Period

일명 『법화경(法華經)』이라고도 한다. 현재 한국 불교에서 『화엄경』과 함께 가장 널리 읽히며, 불교가 전래되고 인쇄술이 발달된 이래로 가장 많이 간행된 경전이다. 우리나라에는 후진(後秦)의 구마라집(鳩摩羅什)이 번역하고 송(宋)의 계환(戒環)이 해석을 붙인 7권본이 대부분이다. 이 책은 2권(권6, 7) 1책으로 성종(成宗) 13년(1482)에 덕종비(德宗妃)인 인수대비(仁粹大妃 : 1437~1504)가 그의 외동딸인 명숙공주(明淑公主)의 극락왕생을 빌기 위해서 간행한 것으로 목판본(木版本)이다. 글씨가 보기 좋고 힘차며 종이질도 최상품에 속하는 것으로서 당시의 인쇄술이 얼마나 뛰어났는지 잘 알 수 있다.



표지

華菩薩言善哉善哉宿王華汝成
就不可思議功德乃能問釋迦牟
尼佛如此之事利益無量一切衆
生

妙法蓮華經卷第六

妙法蓮華經卷第七

姚秦三藏法師鳩摩羅什奉 詔譯

妙法蓮華經妙音菩薩品第二十四
爾時釋迦牟尼佛放大人相肉髻
光明及放眉間白毫相光遍照東
方百八萬億那由他恒河沙等諸
佛世界過是數已有世界名淨光
莊嚴其國有佛號淨華宿音王智

大王大妃殿下哀誠惻怛之意發

願廣大之心無所不至者至
於如此況法華正經之刊世
所希有而大字善本尤便於
誦習將使若見若聞遍相隨
喜法界有情同霑利樂同入
於無量義慶則是我
大王大妃殿下自作之功既至而

他作之利又無所不被
功德圓成

世祖大王
睿宗大王
懿敬王所以
登安養而
證佛果又豈有自他物我之可
以擬議於其間哉輔國崇祿

상교정본자비도장참법<권10>

Sanggyojeongbonjabidojangchambeop<Gwon10>
Manual of buddhist rituals part 10

祥校正本慈悲道場鐵法<卷十>

- 문화재종별 : 보물 제 937 호
- 지정년월일 : 1987년 12월 26일
- 시 대 : 고려 말~조선 초
- 규모·재질 : 1권 1첩-가로 14cm, 세로 34cm(저지)
- 소 재 지 :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가실리 204 호암미술관
- Classification | Treasures 937
- Designated Date | 1987, 12, 26
- Age | Late Goryeo Period~Early Joseon Period

중국 양(梁)나라의 무제(武帝 : 재위 502~549)의 지시로 여러 학승(學僧)이 편찬한 것이다. 도량이란 도를 닦거나 불교 행사를 하는 장소를 말하며, 책 제목의 뜻은 '자비로운 도량에서 참회하는 법'이라는 의미다. 간행 동기는 책 첫머리에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어느 날 무제의 꿈에 큰 뱀이 나타나서 자신은 황후 지씨(皇后祿氏)인데 시기심이 많아서 뱀으로 태어났으니 자기를 위하여 공덕(功德)을 쌓아 달라고 황제에게 부탁한다. 황제는 여러 스님을 불러 의논하여 불경에 실린 참회문(懺悔文)을 모아서 10권으로 엮어 이 책을 만들었다고 한다. 영혼을 천도할 때 사용하는 의식집으로 불교 의식 연구에 매우 귀중한 자료이다.

이 책은 총 1~10권 중 마지막 부분인 권10으로 간행 연도는 고려 말~조선 초로 추측된다. 목판본(木版本)이며 형태는 질첩본(折帖本)이다.



본문일부

慈悲懺法卷第十

大慈悲道場懺法變相

南無過去毗盧尸佛

南無尸棄佛

南無毗舍浮佛

南無拘留孫佛

南無拘那含牟尼佛

南無迦葉佛

南無本師釋迦牟尼佛

南無當來彌勒尊佛

善哉正本慈悲道場懺法卷第十

梁朝諸大法師 集撰

菩薩迴向法

今日道場同業大眾相與已得捍
勞忍苦修如是等無量善根宜復

聞大慈悲父

南無彌勒佛 南無釋迦牟尼佛

南無具實佛 南無天主佛

南無高音佛 南無信淨佛

南無耆舊羅陀佛 南無福德意佛

南無炎熾佛 南無無邊德佛

南無乘成佛 南無師子遊佛

南無不動佛 南無信清淨佛

南無虛空藏菩薩 南無薩陁波輪菩薩

南無無邊身菩薩 南無觀世音菩薩

又復歸依如是十方盡虛空界一

切三寶 拜

願以慈悲力哀愍覆護令其等得

如所願滿菩提願 一拜

次發身根願

又願今日道場同業大眾廣及十

方一切眾生從今日去乃至菩提

身常不覺五欲邪媚之觸不覺鑊

湯爐炭灰河等觸不覺餓鬼頭上

火然烓銅灌口焦爛之觸不覺畜

生剝裂苦楚之觸不覺四百四病

諸苦之觸不覺大熱大寒難耐之

觸不覺蚊蚋蚤虱諸虫之觸不覺

刀杖毒藥加害之觸不覺飢渴困

苦一切諸觸願身常覺諸天妙衣

之觸常覺自然甘露之觸常覺清

涼不寒不熱之觸常覺不飢不渴

無病無惱休強之觸常覺卧安覺

安無憂無怖之觸常覺十方諸佛

淨土微風吹身之觸常覺十方諸

대방광원각락소주경〈권상지2〉

Daebanggwangwongaknyaksojugyeong<GwonSangji2>
Commentary on Daebanggwangwongak sutra part 2 of first volume

大方廣圓覺略疏注經〈卷上之二〉

- 문화재종별 : 보물 제 938 호
- 지정년월일 : 1987년 12월 26일
- 시 대 : 고려 말~조선 초
- 규모·재질 : 1권 1책·가로 19cm, 세로 34.3cm(저지)
- 소재지 :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가실리 204 호암미술관
- Classification | Treasures 938
- Designated Date | 1987, 12, 26
- Age | Late Goryeo Period~Early Joseon Period

『대방광원각수다라요의경(大方廣圓覺修多羅義經)』을 줄여서 『원각경(圓覺經)』이라 부른다. 북인도(北印度) 출신의 학승(學僧) 불타다라(不陀多羅)가 한문으로 번역하고, 그 후 당(唐)의 종밀(宗密)이 『원각경대소초(圓覺經大疏鈔)』라는 해설서를 내었다. 이 책 『대방광원각락소주경』도 역시 당의 배휴(裵休)가 나름대로 해설을 덧붙인 것이다. 간행 연대가 적혀있지 않지만 고려 말~조선 초로 추측되며 목판본(木版本)이다. 『원각경』은 부처가 10만의 대중 앞에서 설교한 것으로, 원만한 깨달음에 대한 설명이 주된 내용이다. 모든 인간은 부처가 될 수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마음에 있는 더러운 때를 닦아 내어야 하는데 그 때를 닦아내는 과정이 원만한 깨달음이라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원각경』이 승려의 교과 과목으로 채택되어 널리 읽혀졌다. 조선 세조(世祖) 11년(1465)에 한글로 번역되어 간행되었으며, 해설서로는 조선 초기의 고승 기화(己和 : 1376~1433)의 『원각경소(圓覺經疏)』가 있는데 일명 『원각경함허당득통해(圓覺經函虛堂得通解)』라고도 한다. 그리고 조선 후기 승려 유일(有一 : 1720~1799)의 『원각경사기(圓覺經私記)』가 있다.



대방광원각락소주경 일부

滅幻心滅故幻塵亦滅前於身心之中

求無我故名我空

此則身心及境一自空故名法空然身等本空非今始滅故經云色即是空非色滅空但以迷時執有今執盡始無幻塵滅故幻滅亦滅有情即見幻生有觀察之智即見幻滅對幻生故別言幻滅對情執故則言智慧對待之法皆屬緣生緣生則無相故皆云滅般若心經云無眼界乃至無智亦無得授仰云一切法如幻遠離於心識智不得有

無而興大悲心上文第二顯理即二空所顯真如理也由前執盡故此理現如雲散月出塵盡鏡明非謂無雲便名為月但於無雲之處而見月矣非謂無幻便是真如但於無幻之處見真理矣文中二初法本淨圓明獨體全

幻滅滅故前非幻不滅正顯也顯圓覺性真不因循得衆幻雖滅自性常存不假緣生故云非幻益剛三昧亦云若得空心心不幻化然對前妄盡釋云真如若以本宗但名圓覺後喻磨鏡垢盡明現

金非銷故有雖復本來金終以銷成就

一成真金體不復重為鑛略不頌空華影在後段故

生死與涅槃凡夫及諸佛同為空華相所造雜念良由長行華無起滅喻中結文與此段同故此亦取空華之喻意該前後

思惟猶幻化何況詰虛妄能造帶情

若能了此心上二然後求圓覺三三此第四一段是依解起行

也與長行第一四互有五無

大方廣圓覺略疏注經卷上之二

대불정여래밀인수증료의제보살 만행수능엄경<권4~7, 8~10>

Daebuljeongyeoraemirinsujeungnyouijebosalman
haengsuneungeomgyeong<Gwon4~7, 8~10>

Suramagma sutra part 4~7, 8~10

大佛頂如來密因修證了義諸菩薩 萬行首楞嚴經<卷四~七, 八~十>

- 문화재종별 : 보물 제 939 호
- 지정년월일 : 1987년 12월 26일
- 시 대 : 고려 말~조선 초
- 규모·재질 : 7권 2책·가로 16.7cm, 세로 26cm(저지)
- 소재지 :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가실리 204 호암미술관
- Classification | Treasures 939
- Designated Date | 1987, 12, 26
- Age | Late Goryeo Period~Early Joseon Period

줄여서 「대불정수능엄경」·「수능엄경」 또는 「능엄경」이라고도 한다. 당(唐)의 반자밀제(般刺蜜帝)가 번역한 것으로 전질 권1~10 가운데 권4~7, 8~10의 2책으로 권1~3이 빠졌다. 이 책은 한국 불교 기본 경전의 하나로 『금강경(金剛經)』·『원각경(圓覺經)』·『대승기신론(大乘起信論)』과 더불어서 필수적으로 읽어야 하는 경전이다. 깨달음의 본질이 무엇이며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과정과 마음의 영원불멸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책 끝의 기록에 의해서 고려 공민왕(恭愍王) 때 대장군(大將軍) 김호(金瑚), 영암군부인(靈巖郡夫人) 최씨(崔氏), 정순옹주(貞順翁主) 이씨(李氏) 등에 의해 안성 정룡사(靑龍寺)에서 목판본(木版本)으로 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보물 제698호·제699호와 동일한 책이다. 조선시대에는 독실한 불교 신자이며 불경을 한글로 옮기는 데 큰 공을 세운 세조(世祖)에 의해서 세조 7년(1461) 한글로 번역되었다.



능엄경 일부

無量能及也今之自稱上人法雨冥竊法王有多矣
 宜以經言為識大勸令直實
 若諸比丘心如直線一切真實入三摩地求無量義我印
 是成就菩薩無上知覺
 以上所說名為佛說不如此說即彼句說
 如我所說名為佛說不如此說即彼句說
 上文聰明四童滅也初標三學而終止四戒有定慧已
 備前文
 大佛頂如來密因修證了義普賢菩薩萬行首楞嚴經卷第六
 驅于暴報割念切壇切官切毒切痴切暗切靴切瓜
該古夫敷姑顏耗到神甲掉劫入危好撫地累習切智
泄列誅精變暗結結切

功德王大將軍金 珊
 盛宏郡夫人崔氏
 同願真順公羽主李承
 安城寺有龍寺刊板

大佛頂如來密因修證了義普賢菩薩萬行首楞嚴經卷第七
 溫陵開元蓮寺比丘 戒環 解
 前示內攝此示外攝 文二
 二外攝執則
 一徵引內攝
 阿難汝問攝心我今先說入三摩地修學妙門求菩薩道
 要先持此四種律儀皎如冰霜自不能生一切枝葉心三
 口四住必無因阿難如是四事若不遺失心尚不緣色香
 味觸一切魔事云何發生
 內攝為要故先說妙門先持四律四律為本餘戒為末
 故四律潔淨則枝葉不生緣塵不偶而魔事潛消正定
 可入矣心三即意三備舉十重也
 二正示外攝四初勸誦神呪
 若有宿習不能滅除汝教是一心誦我佛頂光明摩訶

Daebuljeongyeoraemirinsujeungnyouijebosalmanhaengsuneungeomgyeong(Gwon4~7, 8~10)

대불정여래말인수증류의제보살만행수능엄경(권4~7, 8~10)

백지묵서지장보살본원경 <권상·중·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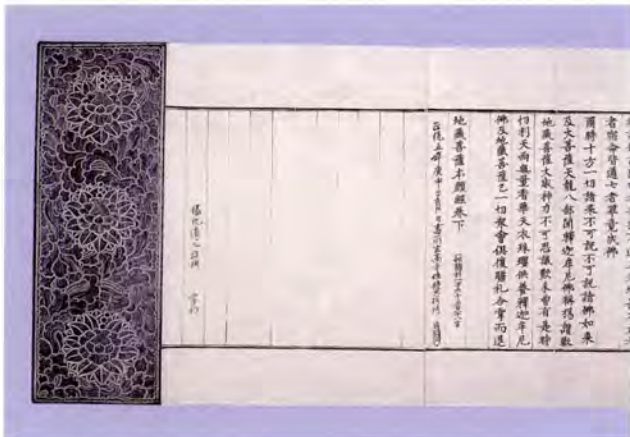
Baekjimukseojijangbosalbonwongyeong
<GwonSang · Jung · Ha>

Ksitigarbha purva-pranidhana sutra in ink on white paper
volumes 1, 2, 3

白紙墨書地藏菩薩本願經 <卷上·中·下>

- 문화재종별 : 보물 제 940 호
- 지정년월일 : 1987년 12월 26일
- 시대 : 조선 세종 22년(1440)
- 규모·재질 : 3권 3첩-상권(가로 15.5cm, 세로 42.3cm),
중·하권(가로 15.5cm, 세로 49.3cm)
- 소재지 :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가실리 204 호암미술관
- Classification | Treasures 940
- Designated Date | 1987. 12. 26
- Age | King Sejong of Joseon Period

이 경은 지장보살이 온갖 방법으로 중생들을 교화하는 데 노력하며 죄를 짓고 고통 받는 중생들을 해탈하겠다고 세운 서원이 주된 내용이다. 조선 세종 22년(1440)에 선종 사찰(禪宗寺刹)인 현고사(玄高寺)의 주지를 역임했던 해연(海淵)이 필사(筆寫)한 사경(寫經)으로 두꺼운 백지에 먹으로 쓴 것이다. 이 사경은 최천경(崔天景) 등 22인의 시주를 받아 만든 것으로 비단으로 배접된 गो판(包匣) 속에 결손없이 보존되어 온 것이다. 표지의 장식이나 경의 제목 표시 방법 등 고려시대의 수법을 잇는 조선 초기의 사경이다. 그러나 개인이 발원하여 만들었던 고려 사경과는 달리 이 사경은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발원하여 만든 것으로 특히 시주자가 평민 또는 천민인 것으로 추정되는 등 조선 초기 사경 연구에 귀중한 자료이다. 3권 3첩으로 크기는 가로 15.5cm, 세로 42.3cm이다.



지장보살 본원경 일부(좌, 위)





Baekjimukseojijangbosalbonwongyeong(GwonSang · Jung · Ha)

백지묵서지장보살본원경원경(권상 · 중 · 하)

선조어서사 송언신 밀찰첩 및 송언신 영정

Seonjoeseosasongeonsinmilchalcheommit songeonsinnyeongjeong

Letters of King Seonjo to Song Eonsin and Portrait of Song Eonsin

宣祖御書賜宋言慎密札帖 및 宋言慎景頌

- 문화재종별 : 보물 제 941 호
- 지정년월일 : 1987년 12월 26일
- 시 대 : 조선 선조 26년~조선 선조 32년(1593~1599)
- 규모·재질 : 밀찰첩 1책, 영정 1점
- 소재지 : 여주군 가남면 심석리 산 66

- Classification | Treasures 941
- Designated Date | 1987. 12. 26
- Age | King Seonjo of Joseon Period

이 서첩은 조선조 선조임금이 직접 써서 이조판서 등을 역임한 문신인 송언신(1542~1612)에게 남모르게 보낸 서찰 7건이다.

송언신은 선조 10년(1577) 문과에 급제하여 여러 벼슬을 두루 거쳐 호조를 제외한 5조의 판서를 지냈다. 명종 때에는 불교를 배척하여 중 보우(普雨 : 1515~1565)를 처형할 것을 건의하기도 했다. 서첩은 원래 길게 이어있던 종이를 옆으로 적당하게 잘라, 그 앞뒤에 따로 표지를 붙인 것이다.

정조가 이 서첩을 보고 나서 7건에 대한 내용해설을 곁들여 직접 발문을 지어내리고, 호조판서에게 명하여 원첩을 궤에 담아 송언신 선생의 후손가에 되돌려주고 따로 한 부를 똑같이 써서 내각에 보관하도록 하였다.

이 어사첩은 이때 모사된 것이다. 『선조어서사송언신밀찰첩』은 선조가 의주로 피난하면서 왕의 자녀 3인을 찾아 보호해달라는 내용과 그 공을 높이 사서 물품을 하사한다는 내용 등이 들어있으며, 크기는 가로 24.2cm, 세로 36.6cm이다. 『정조어제선조어서밀찰발』은 『선조어서밀찰』을 보고 소감을 적은 것으로 총 59줄을 6줄씩 총 10면으로 나누어 놓았다. 『만력십삼년십이월십팔일에조입안』은 송언신에게 자식이 없어 10촌형되는 사람에게서 자식을 입양하는 것을 만력 13년(선조 18년, 1585) 2월 18일 예조에서 허락한다는 문서이다.

이 책을 통해 선조임금이 심복인 지방장관들을 관리하는 수완을 엿볼 수 있으며, 당시 조선의 국방, 군신간의 사신왕래와 선물교환, 조선 전기의 가족제도 및 송언신의 가계 등을 알 수 있는 귀중한 역사적 자료가 된다.



예조입안

咸鏡道觀察使宋

北道之事專委於卿卿宜盡心
且予女子二人男子一人俱各幼稚
當初亂離流落民間仍入於北道
云其存其死消息茫々晝夜
夜懷幸宜尋覓保恤則卿之
恩德將無以報矣

七月二十四日

壬義叔

御書

선조어서사 송언신 밀찰첩 및 송언신 영정

Seonjoeseosasongeonsinmilchalcheommit songeonsinnyeongjeong

Letters of King Seonjo to Song Eonsin and Portrait of Song Eonsin

宣祖御書賜宋言慎密札帖 및 宋言慎景幀

- 문화재종별 : 보물 제 941 호
- 지정년월일 : 1987년 12월 26일
- 시 대 : 조선 선조 26년~조선 선조 32년(1593~1599)
- 규모·재질 : 밀찰첩 1책, 영정 1점
- 소재지 : 여주군 가남면 심석리 산 66

- Classification | Treasures 941
- Designated Date | 1987. 12. 26
- Age | King Seonjo of Joseon Period

송언신영정은 오사모에 단령을 입고 의자에 앉아 있는 전신좌상이다. 가슴에는 모란과 운안(雲雁) 문양을 한 흉배가 부착되어 있으며, 삼금대를 두르고 있어 1603~1614년에 정이품의 대사헌과 이조판서를 지낸 송언신의 당시 품계와 정확히 일치한다. 안면은 좌안칠분면이며 몸체는 팔분면 정도이다.

공수자세를 취한 단령 사이로 흰 창의를 소매가 보이며, 의자의 손잡이는 인물의 양 편으로 뻗어 있는데, 이러한 표현형식은 이종로 영정 등 정사(靖社) 공신상 보다는 앞선 형식이다.

바닥에는 채전이 깔려 있고 족좌대(足座臺) 위에는 팔자형(八字形)으로 벌린 흑피혜(黑皮鞋)가 보인다. 사모의 채색에 있어 앞쪽은 흑색으로 일관하여 시채되어 있지만 뒤쪽 솟은 부분은 진회색으로 처리하였다.

안면은 약간 토황색(土黃色) 기운이 있으며, 눈썹의 털을 확연히 그려내고자 하였다. 안모의 외곽선을 짙은 토황색으로 윤곽 지웠으며, 눈동자는 동공은 검은 색, 그 주변은 흑회색으로 칠하였다.

얼굴에는 음영법이 거의 들어가 있지 않으며, 단지 범령과 험, 그리고 귀의 이문(耳紋) 부위에만 선으로 처리한 주변에 약간 음영을 삽입하였다. 수염 처리는 흑색 선 위에 백색 선을 올을 따라 그렸는데, 약간 곱슬거리게 표현하였다.

단령의 외곽선은 부드럽게 처리한 데 반하여 공수자세 부위의 주름이나 윤곽은 각지게 처리되어 있고, 옷 주름은 몇 개의 선만을 뽑아 매우 간단히 균일한 선으로 처리하였다. 흑단령의 문양은 많이 벗겨져 있으며, 채전의 문양은 도드라지게 표현되어 있지 않다. 단령의 트임 사이로 보이는 고와 단령의 안감은 뭉그러져 있다.

정확한 초상화 제작시기와 화제시를 쓴 시점은 확실히 단정 짓기 어려우나, 표제가 최소한 선조가 승하한 뒤인 '선종(宣宗)'이라는 묘호가 정해진 광해군 즉위년(1608) 이후에 쓰여진 것이며 또한 왼쪽 제시 중 '신해(辛亥)년 봄'이라 하였는데 이 시기는 송언신이 죽기 1년 전인 1611년 봄을 가리키는 것으로 추정된다. '광거(廣居)' 역시 만년에 송언신이 은거했던 광주(廣州) 방암(放菴)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17세기 초의 공신상(功臣像)으로 옷주름 표현, 채연(彩筵)을 깔고 좌안칠분면(左顔七分面)의 자세로 앉아 있는 형식 등은 이 시기의 전형적인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Songeonsinnyeongjeong

송연신 영정

묘법연화경<권3>

Myobebyeonhwagyeong<Gwon3>
Saddharma-pundarika sutra volume 3

妙法蓮華經<卷三>

- 문화재종별 : 보물 제 968 호
- 지정년월일 : 1988년 12월 28일
- 시대 : 조선시대(15세기)
- 규모·재질 : 1권 1첩·가로 11cm, 세로 32.9cm(저지)
- 소재지 :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가실리 204 호암미술관

- Classification | Treasures 968
- Designated Date | 1988, 12, 28
- Age | Joseon Period(15C)

『묘법연화경』은 『법화경(法華經)』이라 약칭하여 부르기도 한다. 부처는 언제나 사바세계에 머물면서 중생을 교화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성불하게 한다는 내용을 담은 이 책은 우리나라 법화 신앙의 근거로 매우 중요한 경전이다. 한국 불교 근본 경전의 하나인 이 책은 『화엄경(華嚴經)』과 함께 중국 불교 사상의 확립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경전이다. 본 책은 불상의 배에서 나와 전래된 것으로 권의 간기(刊記)를 잃어 간행 동기와 경위는 알 수 없다. 그러나 태종(太宗) 원년(1401)에 신충(信聰)이 태조(太祖)의 명으로 간행한 『수능엄경(首楞嚴經)』과 본문 글씨가 동일하며 각판하여 찍어낸 듯 인쇄가 매우 정교하다. 목판본(木版本)이며 1권 1첩이다.



묘법연화경 일부(좌, 우)

妙法蓮華經卷第三

地秦三藏法師鳩摩羅什奉 詔譯

妙法蓮華經藥草喻品第五

爾時世尊告摩訶迦葉及諸大弟子善哉善哉迦葉善說如來真實功德誠如所言如來復有無量無邊阿僧祇功德汝等若於無量

億劫說不能盡迦葉當知如來是諸法之王若有所說皆不虛也於一切法以智方便而演說之其所說法皆悉到於一切智地如來觀知一切諸法之所歸趣亦知一切眾生深心所行通達無礙又於諸法究盡明了示諸眾生一切智慧迦葉譬如三千大千世界山

川谿谷土地所生卉木叢林及諸藥草種類若干名色各異密雲彌布徧覆三千大千世界一時等澍其澤普洽卉木叢林及諸藥草小根小莖小枝小葉中根中莖中枝中葉大根大莖大枝大葉諸樹大小隨上中下各有所受一雲所雨稱其種性而得生長華果數

寶雖一地所生一雨所潤而諸草木各有差別迦葉當知如來亦復如是出現於世如大雲起以大音聲普徧世界天人阿脩羅如彼大雲徧覆三千大千國土於大眾中而唱是言我是如來應供正徧知明行足善逝世間解無上士調御丈夫天人師佛世尊未度者

今度未解者令解未安者令安未涅槃者令得涅槃今世後世如實知之我是一切知者一切見者知道者開道者說道者汝等天人阿脩羅眾皆應到以為聽法故爾時無數千萬億種眾生來至佛所而聽法如來于時觀是眾生諸根利鈍精進懈怠隨其所堪而為

說法種種無量皆令歡喜使得善利是諸眾生聞是法已現世安隱後生善處以道受樂亦得聞法既聞法已離諸障礙於諸法中任力所能漸得入道如彼大雲雨於一切卉木叢林及諸藥草如其種性具足蒙潤各得生長如來說法一相一味所謂解脫相離相滅

화성 봉림사 목아미타불좌상

Hwaseongbongnimsamogamitabuljwasang

Amitabha buddha of Bongnimsa Temple

華城鳳林寺木阿彌陀佛坐像

- 문화재종별 : 보물 제 980 호
- 지정년월일 : 1989년 4월 10일
- 시 대 : 고려 공민왕 11년(1362))
- 규모·재질 : 높이 88.5cm(목조)
- 소 재 지 : 화성시 북양동 642 봉림사
- Classification | Treasures 980
- Designated Date | 1989. 4. 10
- Age | King Gongmin of Goryeo Period

봉림사 법당 내에 봉인되어 있는 높이 88.5cm의 목조여래좌상이다. 1978년 불상의 개금(改金)시 발견된 조상(造像)에 관한 기록을 보면 고려 공민왕(恭愍王) 11년(1362)을 하한으로 조성된 것임이 밝혀졌다. 나발(螺髮)의 머리에는 둥근 육계(肉髻)가 솟았고, 이마에는 백호(白毫)가 표현되어 있다. 상호(相好)는 단아하고 엄숙한 모습을 취하고 있는데, 긴 눈썹과 반개한 눈, 오목한 코, 입술이 묘사되었다. 양 귀는 길게 늘어졌고 목에는 삼도(三道)가 표현되어 있다. 법의(法衣)는 통견(通肩)으로 가슴의 전면을 드러내고, 양 어깨로부터 팔로 이어져 자연스레 무릎으로 흐르고 있다. 오른손은 가슴에 들어 엄지와 중지를 맞잡고, 왼손은 복부에서 엄지와 중지를 맞대고 있는 점으로 보아 하품중생인(下品中生印)을 결한 것으로 보인다. 가부좌를 튼 무릎에는 5줄의 의문(衣文)과 함께 왼팔에서 흐른 옷주름이 무릎으로 이어지고 있다. 단정하면서도 장대한 체구는 앞으로 약간 숙인 상태로 무릎이 직각으로 처리되어 안정감 있는 구도를 보이고 있다.



상호



하품중생인



Hwaseongbongnimsamogamitabuljwasang

봉림사 목아미타불좌상

태평이년명 마애약사불좌상

Taepyeong2(l)nyeonmyeongmaeayaksabuljwasang

Seated buddhist image carved on rock surface with inscription of Taepyeong2(l)nyeon

太平二年銘磨崖藥師佛坐像

- 문화재종별 : 보물 제 981 호
- 지정년월일 : 1989년 4월 10일
- 시 대 : 고려 경종 2년(977)
- 규모·재질 : 높이 93cm
- 소 재 지 : 하남시 교산동 55-1

• Classification | Treasures 981

• Designated Date | 1989. 4. 10

• Age | King Gyeongjong of Goryeo Period

교산동의 약수터 옆 삼각형 바위에 조각된 대좌(臺座)와 불신(佛身) 및 광배(光背)를 구비한 마애불이다.

대좌는 일반적인 불상의 그것과 같은 형식을 보이고 있다. 즉, 하대석에는 복련(覆蓮)이 장식되었고, 중대석은 짧은 4개의 기둥으로 처리하였다. 상대석에는 단판 복엽(單瓣複葉)의 양련(仰蓮)이 불상의 무릎을 감싸며 조각되어 있다. 광배는 3중의 원형 두광(圓形頭光)과 신광(身光)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주변에는 화염문(火焰文)이 조각되었다. 불상은 좌상으로 소발(素髮)의 머리에는 육계(肉髻)가 있고, 가름한 상호(相好)에는 눈·코·입과 길쭉한 귀가 표현되었다. 법의(法衣)는 우견편단(右肩偏袒)으로 왼쪽 어깨로부터 여러 줄의 가사 자락이 흐르고 있는데, 팔목에서 내려온 의문(衣文)이 왼쪽 무릎을 덮고 있다. 오른손은 가슴에서 내장(內掌)하였고, 왼손은 복부에서 약합(藥盒)을 들고 있어 불상의 존명이 약사불임을 보여 준다. 불상의 오른쪽에 '태평 2년 정축 7월 29일(太平二年丁丑七月二十九日)'이란 명문(銘文)이 있어 불상의 조성 연대가 고려 경종(景宗) 2년(977)임을 알려 주고 있다. 이 마애불은 조성 연대가 확실할 뿐만 아니라 조각의 기법이 섬세하고 보존 상태가 양호하여 고려 전기 불상의 연구에 귀중한 자료로 평가되고 있다.



Taepyeong2(l)nyeonmyeongmaeyaksabuljwasang

태평이년명 마애약사불좌상

태평흥국명 마애보살좌상

Taepyeongheungkungmyeongmaebosaljwasang

Seated buddhist image carved on rock surface with inscription of Taepyeong2(l)nyeon

太平興國銘磨崖菩薩坐像

- 문화재종별 : 보물 제 982 호
- 지정년월일 : 1989년 4월 10일
- 시 대 : 고려 경종 6년(981)
- 규모·재질 : 높이 3.2m
- 소 재 지 : 이천시 마장면 장암리 183-1
- Classification | Treasures 982
- Designated Date | 1989. 4. 10
- Age | King Gyeongjong of Goryeo Period

장암리에 있는 속칭 '미륵 바위'라는 커다란 화강암 벽에 조각되어 있는 높이 3.2m의 보살좌상이다. 머리에 3판의 연꽃과 화불(化佛)이 새겨진 보관(寶冠)을 쓰고 있고, 손에 연꽃을 들고 있는 데에서 이 보살상의 명칭이 관음보살(觀音菩薩)임을 알 수 있다. 상호(相好)는 비대하여 사각형에 가깝고 넓은 이마, 짧은 코와 귀, 두툼한 입술, 양쪽 턱에서 바로 이어지는 어깨 등이 답답하고 둔중한 느낌을 주고 있다. 법의(法衣)는 통견(通肩)으로 아래로 흐르면서 대좌(臺座)까지 덮고 있으나 마멸이 심해 희미하게 보인다. 신체에 비해 작은 양 손목에는 팔찌가 채워져 있다. 오른손은 가슴에서 내장(內掌)한 채 연꽃이 핀 긴 가지를 잡고 있고, 왼손은 복부에서 외장(外掌)하고 있다. 이 보살상은 앉은 자세에서 반가상(半跏像)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즉, 오른발은 내려 연화좌(蓮花坐) 위에 놓고, 왼발은 오른쪽 무릎에 걸쳐 놓은 형태이다. 불상이 조각된 바위의 뒷면에 '태평흥국6년...(太平興國六年...)'의 명문이 음각되어 있어 조성 연대가 고려 초인 경종(景宗) 6년(981)임을 알 수 있다. 이 보살상은 조성 연대가 확실하고, 조각 수법에서 지방색을 띤 반가상의 형식을 보이고 있어 고려 초반의 불상을 연구하는 데 귀중한 자료로 평가된다.



관음보살 상호



Taepyeongheunggungmyeongmaebosaljwasang

태평흥국명 마애보살좌상

안성 봉업사 석불입상

Anseongbongeopsaseokburipsang
Stone standing buddha statue from Bongeopssa Temple

安城奉業寺石佛立像

- 문화재종별 : 보물 제 983 호
- 지정년월일 : 1989년 4월 10일
- 시 대 : 고려 전기
- 규모 · 재질 : 총 높이 1.98m(화강암)
- 소 재 지 : 안성시 죽산면 칠장리 764 칠장사

- Classification | Treasures 983
- Designated Date | 1989. 4. 10
- Age | Early Goryeo Period

안성시 죽산면 죽산중학교에 있던 것을 칠장사 경내로 이전하였는데, 불상과 광배가 하나의 석재로 구성되었다. 소발(素髮)의 머리에는 큼직한 육계(肉髻)가 있고, 원만한 상호(相好)에는 눈·코·입이 묘사되었지만 마멸이 심해 정확한 모습을 알기 어렵다. 양 귀는 길게 늘어져 어깨에 닿았고 목에는 삼도(三道)가 표현되어 있다. 법의(法衣)는 통견(通肩)으로 유려하게 어깨에서 다리로 이어졌다. 오른손은 가슴에 내장(內掌)하고 왼손은 아래로 내려 법의 자락을 잡고 있다. 광배는 거신광배(舉身光背)로 두광(頭光)은 하나의 원으로 구성되었는데, 안에는 3구의 화불이 배치되어 있다. 신광은 하나의 선과 주위의 화염문(火焰文)으로 조각되었다.

대좌는 원통형으로 초화문(草花文)이 양각되어 있다. 이 불상은 신체 비례의 조화와 유려한 옷주름 등의 조각 기법을 볼 때 고려시대 초반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석불입상 정면



Anseongbongeopsaseokburipsang

안성 봉업사 석불입상

나암수록 외 전적

Naamsurokoejeonjeok

羅巖隨錄外典籍

- 문화재종별 : 보물 제 1008 호
- 지정년월일 : 1989년 8월 1일
- 시 대 : 조선시대
- 규모 · 재질 : 7종 46점(저지)
- 소 재 지 : 용인시

- Classification | Treasures 1008
- Designated Date | 1989, 8, 1
- Age | Joseon Period

함양 박씨 문중에서 보관하고 있던 것으로, 주로 조선 후기의 것들이 많은데 그 가운데 연대가 오래된 것과 희귀한 것, 역사적 자료로서 가치가 있는 것 등을 뽑아 7종 46점만을 지정하였다.

『나암수록』을 비롯하여 이외에도 『당시고취(唐詩鼓吹)』, 『당조책림(唐朝策林)』, 『만국전도(萬國全圖)』, 『저상일월(渚上日月)』, 『통감(通鑑)』, 『저상일용(渚上日用)』 등이 있다.

『나암수록』은 구한말 유학자였던 나암 박주대(朴周大 : 1836~1912) 선생이 구한말의 격변하는 당시의 세태와 상황들을 연차적으로 수록한 책이다.

『당시고취』는 조선 전기 목간본으로 간행한 책으로 1책(권 1~4)이며, 『당조책림』은 조선 전기에 당나라 조정의 책문 75문을 편찬한 것이다. 『통감』은 조선 전기 목활자 간행본으로 18권 3책이며, 『만국전도』는 현종 2년(1661)에 박연설이 그린 세계전도로 바다와 육지를 각각 다른 색으로 채색하였으며, 가로 133cm, 세로 71.5cm이다. 『저상일월』은 대하일기의 성격이며, 『저상일용』은 6대 140여년 동안 매일 집에서 소요되는 수입과 지출을 상세하게 기록한 것으로 20책이다.

이러한 함양 박씨 소유의 전적들은 조선 후기 당시의 사회, 경제, 문화, 정치 등 다양한 분야의 학술연구에 주요한 자료가 되고 있다.



표지

廣西司官自前年縣匪蔓延在官未歸國賊在陝川郡守回後載在廣一事余其于金
門多志事一 公卿保其全私集議可必誠具志而思且日社去其要事由事于其去其以師斷之志
不知有國不知有身仍傳四子官國勢尚思其此定君臣上下則新舊腹人全予一依政即歸
作持定作于所予一全私集議其去則兩臣亦不志于其要事由事于其去其以師斷之志
臣等向方別召民彈未以遂中地云法務法門全基臥水多矣於所人

廣政府軍紀大甲兩判官中學校職銜全係南門出新又事紀即見廣南司趙君德報列西後
去方特令更事一該傳事在階進是之安守職在年去國臣月之乃及此種前進而不究其前收其
係師者多者進是之安守職在年去國臣月之乃及此種前進而不究其前收其
亦多事兩領兵丁召下送相捕捕王一 又事紀全務軍而廣報則蕭司華印此至其前收其
江東及兵士處候進廣官已閱更有事一討許多守軍同是官守法化印在至一該報該守令係律
勅勅地仍也告之 又事紀保川郡守洪用親以前任刑犯職事為先獲報一其代述地仍也
廣政府軍紀大甲兩判官中學校職銜全係南門出新又事紀即見廣南司趙君德報列西後
去方特令更事一該傳事在階進是之安守職在年去國臣月之乃及此種前進而不究其前收其
係師者多者進是之安守職在年去國臣月之乃及此種前進而不究其前收其
亦多事兩領兵丁召下送相捕捕王一 又事紀全務軍而廣報則蕭司華印此至其前收其
江東及兵士處候進廣官已閱更有事一討許多守軍同是官守法化印在至一該報該守令係律
勅勅地仍也告之 又事紀保川郡守洪用親以前任刑犯職事為先獲報一其代述地仍也

去其作居病

廣政府軍紀大甲兩判官中學校職銜全係南門出新又事紀即見廣南司趙君德報列西後
去方特令更事一該傳事在階進是之安守職在年去國臣月之乃及此種前進而不究其前收其
係師者多者進是之安守職在年去國臣月之乃及此種前進而不究其前收其
亦多事兩領兵丁召下送相捕捕王一 又事紀全務軍而廣報則蕭司華印此至其前收其
江東及兵士處候進廣官已閱更有事一討許多守軍同是官守法化印在至一該報該守令係律
勅勅地仍也告之 又事紀保川郡守洪用親以前任刑犯職事為先獲報一其代述地仍也
廣政府軍紀大甲兩判官中學校職銜全係南門出新又事紀即見廣南司趙君德報列西後
去方特令更事一該傳事在階進是之安守職在年去國臣月之乃及此種前進而不究其前收其
係師者多者進是之安守職在年去國臣月之乃及此種前進而不究其前收其
亦多事兩領兵丁召下送相捕捕王一 又事紀全務軍而廣報則蕭司華印此至其前收其
江東及兵士處候進廣官已閱更有事一討許多守軍同是官守法化印在至一該報該守令係律
勅勅地仍也告之 又事紀保川郡守洪用親以前任刑犯職事為先獲報一其代述地仍也

몽산화상법어약록

Mongsanhwasangbeobeoyangnok
Sermons of buddhist Priest Mongsan

蒙山和尚法語略錄

- 문화재종별 : 보물 제 1012 호
- 지정년월일 : 1989년 8월 1일
- 시대 : 조선 성종 3년(1472)
- 규모·재질 : 1권 1책-가로 20cm, 세로 30.8cm(저지)
- 소재지 : 성남시

- Classification | Treasures 1012
- Designated Date | 1989. 8. 1
- Age | King Seongjong of Joseon Period

『몽산화상법어약록』은 법어(法語), 즉 부처님의 말씀이나 가르침을 적어놓은 것으로 승려들의 수행에 있어 길잡이 구실을 하며, 우리나라에서는 조선시대에 널리 유통되었다. 원나라의 몽산화상 덕이(德異)의 법어 6편과 고려 나옹화상 혜근(慧勤: 1320~1376)의 법어 1편을 엮은 책이다.

조선의 혜각존자 신미(信眉)가 토를 달고 한글로 번역한 것으로, 목판에 새긴 후 닥종이에 찍어냈으며, 크기는 가로 20cm, 세로 30.8cm이다.

몽산화상 덕이는 고려의 승려들과 교류가 많았는데 특히 혜감 국사 만항(萬恒: 1259~1319), 보감국사 혼구(混丘: 1250~1322)와 깊은 교류가 있었다. 그는 고려말 이후 한국 불교계에 커다란 영향을 끼쳤던 인물로, 그가 편집한 『육조단경(六祖壇經)』과 법어는 중국의 승려가 지은 책 가운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유통되었다.

책 끝에 있는 김수온의 발문(跋文, 책의 끝에 대강의 내용과 그에 관련된 일을 간략하게 적은 글)에 의하면, 인수대비(仁粹大妃: 1437~1504)가 성종 3년(1472)에 대대적으로 펴낸 불교서적 중에 하나임을 알 수 있다. 당시 인수대비는 선조들의 명복을 빌고 대왕대비의 무병장수를 기원하기 위해 29종의 불경을 인쇄하였는데, 이때 이 몽산화상법어약록은 200부를 찍었다고 한다.

이 책은 조선 초기에 한글로 풀어 간행한 불교서적 가운데 하나로써, 불교사 뿐만 아니라 초기 훈민정음 연구에도 귀중한 자료가 된다.



표지

若약疑의一일上상少少時時又又會會

疑의者者장면

하다가疑의心심을이름이변져그던이그도

疑의心심을아니이면

非비眞진心심發발疑의屬속做做作作

라니

眞진實실心심發발疑의心심을發발疑의

는디아니라짓와괴요매屬속하니라

是是故故昏昏沉침掉掉舉舉入入

心심作작得得라니

이렇게스오름과雜잡念념과다스매

드러오드민드이라

更更要要坐坐得得端端正正호리

다시모디안조디端단正정히호리라

一일者者安안睡수魔마來來當當知知是是

何何境경界계호리

청자양각연당초상감운학문대접

Cheongjayanggagyeondangchosanggamunhang mundaenjeop

Celadon bowl with relief lotus and arabesque intaid cloud and crane design

靑瓷陽刻蓮唐草象嵌雲鶴文大椀

- 문화재종별 : 보물 제 1024 호
- 지정년월일 : 1990년 5월 21일
- 시 대 : 고려시대(12세기)
- 규모 · 재질 : 높이 5cm, 구경 16.2cm, 저경 4.4cm(청자)
- 소 재 지 :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가실리 204 호암미술관

• Classification | Treasures 1024

• Designated Date | 1990, 5, 21

• Age | Goryeo Period(12C)

작은 크기의 대접이지만 형태가 시원스럽고 장식이 독특하다. 청자의 전성기인 고려 중기 작품이다. 이 작품은 제작 방법 특이한데, 내면은 연꽃과 당초(唐草) 무늬를 압인양각(壓印陽刻)으로 장식한 후 음각선(陰刻線)으로 세부를 정교하게 다듬었다. 바깥면은 흑백상감(黑白象嵌)으로 구름과 학을 묘사하였다. 이처럼 안과 밖이 다른 기법으로 장식되면, 가마에서 구울 때 변형될 가능성이 높아 그 제작이 까다로운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지금까지 남아 있는 예도 매우 드물다. 이런 대접의 형태는 고려 중기까지만 제작되었으며, 찻잔으로 쓰였을 가능성도 있다. 전체적으로 형태가 깔끔하며 장식이 아름답고 특이하다.



Cheongjayanggagyeondangchosanggamunhangmundaeyeop

청자양각연당초상감운학문대접

청자양인각도철문방형향로

Cheongjayanginkakdocheolmunbanghyeonghyangno

Celadon square incense burner relief with legendary ferocious animal design

靑磁陽印刻饗饗文方形香爐

- 문화재종별 : 보물 제 1026 호
- 지정년월일 : 1990년 5월 21일
- 시대 : 고려시대
- 규모·재질 : 높이 11.8cm, 구경-가로 17.5cm, 세로 14.9cm, 저경-가로 12.5cm, 세로 9.4cm(청자)
- 소재지 :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가실리 204 호암미술관
- Classification | Treasures 1026
- Designated Date | 1990, 5, 21
- Age | Goryeo Period

고려청자로는 매우 드물게 보이는 형태로, 예로부터 의례(儀禮)에 사용되던 동기(銅器)를 모방한 것이다. 길고 네모난 몸체 윗면의 두 곳에 직사각형의 손잡이가 달렸다. 그 안쪽에 계단형의 턱이 있어 원래는 뚜껑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바깥면에는 주둥이 쪽에 번개를 상징하는 뇌문(雷文)이 있고, 몸체 전면에 동심원(同心圓)과 회오리 모양의 무늬를 반복적으로 장식하면서 아래쪽에 두 눈을 부릅뜬 것 같은 형상의 기봉(夔鳳), 혹은 도철(饗饗) 무늬를 양각하였다. 도철은 전설 속에 나오는 '탐욕'을 상징하는 짐승으로, 주로 제기(祭器)의 표면에 무늬로 장식되어 사람들로 하여금 '욕심'을 경계하라는 의미로 사용되어 왔다. 복잡하고 섬세한 문양의 시문(施文) 수법이 매우 정교하며, 아름답고 은은한 청자 유약이 문양을 돋보이게 한다.



향로 앞면



향로 내부



Cheongjayanggakdocheolmunbanghyeonghyangno

청자양인각도철문방형향로

청자상감모란문주자

Cheongjasanggam Moranmunjuja

Celadon pitcher inlaid with peony design

靑磁象嵌牡丹文注子

- 문화재종별 : 보물 제 1029 호
- 지정년월일 : 1990년 5월 21일
- 시대 : 고려시대
- 규모·재질 : 높이 19.2cm, 구경 3.4cm, 저경 10.3cm(청자)
- 소재지 :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가실리 204 호암미술관
- Classification | Treasures 1029
- Designated Date | 1990, 5, 21
- Age | Goryeo Period

통통한 공모양의 몸체에 연봉오리 모양의 뚜껑이 달린 아담한 형태의 주전자이다. 이 작품은 형태도 좋지만 표면의 문양 장식이 뛰어나다. 뚜껑의 윗면과 몸체의 어깨에 이중으로 연꽃잎을 양각하고, 몸체 중앙에는 커다란 모란꽃을 흑백상감(黑白象嵌)으로 대담하고 활달하게 장식하였다.

모란은 보통 부귀(富貴)의 상징으로 고려시대를 거쳐 조선시대에 까지 여러 가지 미술품의 장식 소재로 즐겨 사용되었으며, 이 작품에서는 매우 탐스럽고 화려하게 표현되었다. 표면에는 광택이 좋고 투명한 담녹색(淡綠色)의 유약을 입혔는데, 특히 양각된 부분에 두껍게 씌워져 깊고 아름다운 비색(翡色)이 표현되었다. 단정한 형태의 주전자에 양각과 상감 무늬가 함께 베풀어진 초기 상감청자의 드문 예이다.



위에서 본 모습



뒷면



Cheongjasanggamoranmunjuja

청자상감모란문주자

청자상감운학문화분

Cheongjasanggamunhangmunhwabun
Celadon flowerpot inlaid with cloud and crane

靑磁象嵌雲鶴文花盆

- 문화재종별 : 보물 제 1030 호
- 지정년월일 : 1990년 5월 21일
- 시 대 : 고려시대
- 규모·재질 : 높이 23cm, 구경 28.2cm, 저경 22cm(청자)
- 소재지 :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가실리 204 호암미술관
- Classification | Treasures 1030
- Designated Date | 1990. 5. 21
- Age | Goryeo Period

바닥 중간에 큰 구멍이 뚫려 있는 원통형의 화분으로 가마 안에서 구울 때 형태가 약간 일그러졌다. 일반적인 화분의 형태와 같이 주둥이의 가장자리는 도톰하다. 몸체의 중간과 밑둥에는 굵은 돌을 띠무늬가 구획되었다. 윗간에는 수평·하강·상승하는 여러 자세의 커다란 학이 흑백상감(黑白象嵌)으로 장식되었다. 학의 사이사이에는 큼직한 구름무늬가 백상감되었다. 아래 간에는 굵은 음각선으로 이중의 연잎 무늬를 베푼 후 가는 선으로 세부를 묘사하였다. 학과 구름이 장식된 여러 청자 중에서도, 이 작품의 아름답고 활달한 묘사가 주목된다. 표면에 광택이 있고 반투명한 담녹색(淡綠色)의 청자유(靑磁釉)를 입혔으나, 발색이 고르지 않아 일부에서는 갈녹색(褐綠色)을 띤다. 청자화분의 유례가 매우 드물며, 특히 무늬의 형태나 기법으로 보아 비교적 이른 시기의 것으로 보인다.



뒷면



화분 바닥



Cheongjasanggamunhangmunhwabun

청자상감운학문화분

청자양인각파어포련문접시

Cheongjaeumgagyeondangchosanggamgukhwajeoljimundaejeop
Celadon bowl incise with lotus and arabesque inlaid chrysanthemum and branch design

靑磁陽陽印刻波魚蒲蓮文楨匙

- 문화재종별 : 보물 제 1031 호
- 지정년월일 : 1990년 5월 21일
- 시 대 : 고려시대
- 규모 · 재질 : 높이 3.9cm, 구경 16.1cm, 저경 6.1cm(정자)
- 소재지 : 용인시 처안구 포곡읍 가실리 204 호암미술관

- Classification | Treasures 1031
- Designated Date | 1990. 5. 21
- Age | Goryeo Period

시원스런 접시의 형태에 갖가지 독특한 무늬가 장식되었다. 접시 가장자리 여섯 곳에 같은 간격으로 작은 홈을 파내어 전체적으로 꽃잎의 형태를 만들었다. 또 여섯 등분된 꽃잎 안쪽 면에는 연꽃을 배경으로 연못 속에서 노는 어린아이와 오리 등을 묘사하였다. 접시의 바닥에는 파도 속을 헤엄치는 물고기를 장식하였다. 이 접시는 압인양각(壓印陽刻)의 방법으로 만들어졌다. 표면에는 광택이 은은한 담녹색(淡綠色)의 유약이 입혀졌는데, 유약과 무늬의 절묘한 조화가 연못과 물고기의 풍경에 사실감을 더해 준다. 평화로운 풍경을 섬세한 양각 문양으로 처리한 뒤, 물빛같이 고운 청자유(靑磁釉)를 씌워, 마치 그릇 속에 물고기가 놀고 있는 듯한 신묘한 느낌을 준다.



앞면



Cheongjaeumgagyeondangchosanggamukhwajeoljimundaejeop

청자양인각파어포린문접시

청자음각연당초상감국화절지문대접

Cheongjaeumgagyeondangchosanggamgukhwajeoljimundaejeop
Celadon bowl incise with lotus and arabesque inlaid chrysanthemum and branch design

靑磁陰刻蓮唐草象嵌菊花折枝文大椀

- 문화재종별 : 보물 제 1032 호
- 지정년월일 : 1990년 5월 21일
- 시대 : 고려시대
- 규모·재질 : 높이 6.9cm, 구경 16.6cm, 저경 4cm(청자)
- 소재지 :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가실리 204 호암미술관
- Classification | Treasures 1032
- Designated Date | 1990. 5. 21
- Age | Goryeo Period

몸체가 시원스럽게 뻗은 대접으로, 음각 무늬와 상감 무늬가 함께 장식된 초기 상감청자이다. 안쪽 면에는 음각으로 연꽃과 당초(唐草) 무늬를 가득히 그려 넣고, 바깥 면에는 흑백상감(黑白象嵌)으로 네 곳에 매우 간결한 국화 무늬를 같은 간격으로 장식하였다. 이 작품처럼 안쪽과 바깥쪽에 장식 기법을 달리하는 경우는 각각의 성질 차이에서 생기는 그릇의 변형 등으로 제작이 까다로워, 그 예가 매우 드물다. 안팎으로 장식기법을 달리하는 작품들은 대부분 안쪽의 무늬를 음각으로 조밀하게 표현한 후, 바깥쪽에 상감된 무늬를 적게 두고 여백을 살려 장식하는 특징이 있다.

표면에는 맑고 투명한 비색(翡色)의 유약이 입혀졌는데, 장식 기법의 차이로 다른 느낌을 준다. 상감청자의 초기 양상을 알 수 있는 예이며, 섬세한 음각 무늬와 간결한 상감무늬, 은은한 청자색이 한데 어울려 청순한 분위기를 빚고 있다.



대접 내부



Cheongjaeumgagyeondangchosanggamukhwajeoljimundaejeop

청자음각연당초상감국화절지문대접

청자음각여의운문병

Cheongjaeumgagyeouiunmunbyeong

Celadon bottle incise with Yeoui and cloud design

靑磁陰刻如意雲文瓶

- 문화재종별 : 보물 제 1035 호
- 지정년월일 : 1990년 5월 21일
- 시대 : 고려시대
- 규모·재질 : 높이 29cm, 구경 5.9cm, 저경 9.5cm(청자)
- 소재지 :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가실리 204 호암미술관

• Classification | Treasures 1035

• Designated Date | 1990. 5. 21

• Age | Goryeo Period

반양각 기법으로 운문(雲文)의 문양이 몸체에 시문된 청자병이다. 가느다란 목에 구연(口緣)이 부드럽게 외반되어 있는 이 병은 구연 부에서 볼록한 동체의 저부로 선이 유려하게 흘러 보는 이에게 안정감과 우아함을 느끼게 한다. 구연 아래 양각의 당초문대(唐草文帶)가 섬세하게 시문되어 있고 두 줄의 가는 음각선이 둘러 있는 견부(肩部) 아래 여의두문대(如意頭文帶)가 있으며 굽 주위에는 연판문대(蓮瓣文帶)가 반양각되어 있다. 겉에는 녹색을 띤 청색의 유약(釉藥)이 입혀져 있다. 몸체에 자유롭게 배치된 구름무늬와 기형에 단아하게 흐르는 선은 수준 높은 고려의 생활의 한 단면을 보여준다.



바닥



구연부



Cheongjaeumgagyeouiunmunbyeong

청자음각여의운문병

청자상감앵무문표형주자

Cheongjasanggamaengmumunpyohyeongjuja
Celadon pitcher in the shape of a gourd with inlaid parrot design

靑磁象嵌鸚鵡文瓢形注子

- 문화재종별 : 보물 제 1036 호
- 지정년월일 : 1990년 5월 21일
- 시 대 : 고려시대
- 규모·재질 : 높이 26cm, 구경 3.7cm, 저경 7.8cm(청자)
- 소 재 지 :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가실리 204 호암미술관

- Classification | Treasures 1036
- Designated Date | 1990, 5, 21
- Age | Goryeo Period

표주박 모양으로 부드러운 곡선(曲線)을 그리는 대부분의 호리병 형태와는 달리 윗 박에선 상부(上部)가 아래 박에선 저부(底部)가 부풀어 올라 강한 곡선의 변화를 보여 주는 고식(古式) 형태의 주전자이다. 잘록한 목에 양각의 돌출선이 있고 동체(胴體)와 주구(注口)의 부착 부분에는 능형(菱形)의 흑백선상감문(黑白線象嵌文)으로 장식하였다. 이중원(二重圓)의 흑백선상감으로 장식된 아래 박의 불룩한 앞뒷면에는 두 마리의 앵무새와 그 사이에 구름을 하나 배치하였다. 앵무새 무늬는 대체로 12세기 대접의 내측 면이나 함(盒)의 뚜껑 상면에 음각되는 일반적 소재이다. 뚜껑 상면의 측면과 이에 맞물려 있는 밑쪽의 구부(口部)에 변형된 연꽃잎이 음각 표현되어 있다. 이 주전자는 고식의 호리병 형태, 앵무새 무늬의 상감기법 등을 볼 때 12세기 초에 제작된 매우 희귀한 명품이다.



구연부



주전자 바닥



Cheongjasanggamaengmumunpyohyeongjuja

청자상감앵무문표형주자

청자음각국당초문대접

Cheongjaeumgakgukdangchomundaejeop
Celadon bowl incise with chrysanthemum and arabesque design

靑磁陰刻菊唐草文大椀

- 문화재종별 : 보물 제 1037 호
- 지정년월일 : 1990년 5월 21일
- 시 대 : 고려시대
- 규모·재질 : 높이 5.9cm, 구경 17.5cm, 저경 4.8cm(청자)
- 소 재 지 :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가실리 204 호암미술관

- Classification | Treasures 1037
- Designated Date | 1990. 5. 21
- Age | Goryeo Period

11세기경에 만들어진 고려 청자대접으로 높이 5.9cm, 구경 17.5cm, 저경 4.8cm이다.

굽은 낮으며 바닥에 닿는 면이 넓은 햇무리 굽을 하고 있다. 햇무리 굽은 거의 무늬가 없는데, 이 대접은 무늬가 있는 귀한 예이다. 아가리 선은 밖으로 벌어져 있으며 대접의 밖은 무늬가 없는데, 안쪽 아가리부분 아래쪽에는 띠 모양이 둘러져 있고, 옆면에는 국화 덩굴무늬가 새겨져 있다. 유약은 담록색의 밝고 투명한 청자유로 전면에 굵은 빙렬(氷裂)이 나 있다.

이 청자대접은 무늬가 없는 무문대접에서, 한 단계 나아간 양식을 소개해 주는 유일한 초기 청자대접으로, 고려 청자의 초기 역사를 밝혀주는 매우 중요한 유물이다.



구연부



바닥



Cheongjaeumgakgukdangchomundaejeop

청자음각국당초문대접

청자철채양각연판문소병

Cheongjacheolchaeyanggagyeonpanmunsobyong
Celadon Sobyong(vase) relief with lotus petal design in underglaze iron

青磁鐵彩陽刻蓮瓣文小瓶

- 문화재종별 : 보물 제 1038 호
- 지정년월일 : 1990년 5월 21일
- 시대 : 고려시대
- 규모·재질 : 높이 8.1cm, 구경 0.7cm, 저경 2.7cm(청자)
- 소재지 :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가실리 204 호암미술관

- Classification | Treasures 1038
- Designated Date | 1990. 5. 21
- Age | Goryeo Period

13세기경 만들어진 고려 청자병으로 높이 8.1cm, 구경 0.7cm, 저경 2.7cm이다.

표주박 형태의 작은 병으로 윗부분은 양감이 없이 길쭉한 마름모 꼴이며, 아래쪽 몸통은 원형에 가깝다. 유약은 미세한 기포가 있고 투명하며, 철채가 된 부분은 흑갈색을 띤다.

아가리에는 철채를 두르고 상부 전면에 큼직한 풀잎무늬를 양각 하였으며, 돌출부에 철채를 바르고 위쪽 하단에도 역시 구슬 문양을 양각하고 돌출부에 철채를 입혔다. 아래쪽 몸통 전면에는 연꽃무늬를 새겼다. 바닥은 *형의 기호가 있으며 가운데 '궁(宮)' 자가 음각되었다. 이 병은 형태가 독특할 뿐 아니라 양각에 철채를 하여 주목된다.

비록 소형 청자이나 그릇의 형태, 문양, 바닥의 글씨 등이 특이한 작품이다.



구연부



바닥



Cheongjacheolchaeyanggagyeonpanmunsobyong

청자철채양각연판문소병

청자상감모란절지문바릿대

Cheongjasanggammoranjeoljimunbaritdae

Celadon bowl inlaid with peony and branch design

靑磁象嵌牡丹折枝文바릿대

- 문화재종별 : 보물 제 1039 호
- 지정년월일 : 1990년 5월 21일
- 시대 : 고려시대(13세기)
- 규모·재질 : 바릿대 3점-높이 4.4~7.3cm, 구경 16.1~18.9cm, 저경 5.9~6.1cm, 전접시 1점-높이 12.9cm, 구경 14cm, 저경 5.7cm(청자)
- 소재지 :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가실리 204 호암미술관
- Classification | Treasures 1039
- Designated Date | 1990. 5. 21
- Age | Goryeo Period(13C)

고려시대 만들어진 높이 4.4~7.3cm, 구경 16.1~18.9cm, 저경 5.9~6.1cm의 바릿대 3점과 높이 12.9cm, 구경 14cm, 저경 5.7cm의 전접시 1점이다.

바릿대는 불교에서 사용하던 식기를 일컫는 말로, 크기가 점점 작아져 포개어 넣을 수 있는 형식으로 되어있다. 전접시는 아가리 부분이 밖으로 수평에 가깝게 꺾인 형태의 접시로, 바릿대 3점과 같이 1세트를 이룬다.

무늬를 보면 바릿대는 안쪽 밑바닥에 국화가 상감되어 있고, 옆면에는 모란 3송이가 자연스러운 형태로 세밀한 부분까지 묘사되어 있다. 바깥쪽은 입술 부분에 번개무늬가 백상감 되었고, 옆면 전체에 꽃모양 텅굴무늬가 백상감 되어 있다.

전접시는 안쪽 밑바닥에 국화문이 있고, 옆면에 모란을 4송이 그렸다. 그 외에는 바릿대와 비슷하다.

4점 모두 같은 질과 문양, 형식이어서 같은 시기에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



구연부



바닥



Cheongjasanggamoranjeoljimunbaritdae

청자상감모란절지문바릿대

분류두공부시언해<권13>

Bullyudugongbusienhae<Gwon13>

分類杜工部詩諺解<卷十三>

- 문화재종별 : 보물 제 1051 호
- 지정년월일 : 1990년 9월 20일
- 시 대 : 조선 성종대
- 규모·재질 : 1권 1책-가로 18.7cm, 세로 29.3cm(저지)
- 소재지 : 용인시 기흥구 상갈동 85 경기도박물관

- Classification | Treasures 1051
- Designated Date | 1990. 9. 20
- Age | King Seongjong of Joseon Period

중국 당나라의 유명한 시인 두보(杜甫: 712~770)의 시(詩)를 성종때 홍문관의 유윤겸(柳允謙: 1420~?) 등이 왕의 명을 받들어 한글로 번역하여 편찬한 책이다.

‘두공부시’라고 이름을 붙인 것은 두보가 공부원외랑의 벼슬을 지냈기 때문이며 ‘분류’는 중국 송나라의 분문집주두공부시(分門集注杜工部詩)를 참고하여 따온 것이다.

초인본의 조위가 쓴 서문에 의하면 성종 12년(1481) 가을에 왕의 명을 받아 한글 번역을 착수하여 그 해 12월에 완성하였고, 본권 13의 인본을 보면 을해자, 중자 및 소자 그리고 한글 활자로 찍었는데 인쇄가 깨끗하지 못한 편이다.

성종 13년(1482)에 가뭄이 심하여 『두시』를 비롯한 『춘추』, 『이백시』, 『용학구결』 등의 발행을 멈추고 그 비용을 가뭄극복에 씬에 따라 그 인쇄발행은 다소 뒤에 이루어진 듯하다.

이 『분류두공부시언해』는 한글로 표현된 유창한 문체와, 풍부한 어휘 등으로 볼 때 국문학과 국어학연구에 중요한 자료로 평가된다.



표지

有下句... 春來準擬開懷久老去親知見
 面稀... 他日一盃難強進重嗟筋力故
 山遠... 他日即指春日... 故鄉人...
 歲暮... 歲暮... 歲暮...

歲暮

歲暮遠爲客邊隅還用兵
歲暮... 歲暮... 歲暮...

吹角入... 煙塵犯雪嶺... 鼓角動江城... 天地日流
 血朝廷誰請纓... 濟時敢愛死寂寞
 壯心驚... 壯心驚... 壯心驚...

分類社工部詩卷之十

천태사교의

Cheontaesagyoui

天台四教儀

- 문화재종별 : 보물 제 1052 호
- 지정년월일 : 1990년 9월 20일
- 시 대 : 고려 충숙왕 2년(1315)
- 규모·재질 : 1책-가로 16.5cm, 세로 24.5cm(저지)
- 소 재 지 : 용인시 기흥구 상갈동 85 경기도박물관
- Classification | Treasures 1052
- Designated Date | 1990. 9. 20
- Age | King Chungsusuk of Goryeo Period

『천태사교의』는 고려 승려 제관(諦觀 : ?~970)이 천태대사(天台大師) 지의(智顱 : 538~597)의 저술을 이용하여 천태학의 개요를 저술한 것으로서 천태학의 입문서로 널리 강독되었던 책이다. 책 권말에 목암노인(牧庵老人)이 쓴 개관 기록을 보면 원래 이 책에는 구본(舊本)이 있었는데 글자가 크고 책이 무거워서 사람들이 휴대하고 다니기에 불편해서 평지대선사(宏之大禪師)가 산인(山人) 수여(水如)를 시켜 고쳐 써 충숙왕(忠肅王) 2년(1315) 5월 기복도감(祈福都監)에서 간행하였다. 기복도감에서 다소 후에 인쇄해 낸 판본이지만 본문이 완전하게 판독될 수 있을 정도로 상태가 양호하다. 형태는 선장본(線裝本)이다.



표지



천태사교의 일부

天台山者上

應天之台星

故曰天台山

亦云天梯山

謂此山高峻

如梯可以登

而昇天故曰

天梯山後人

訛云天台天

天台四教儀

高麗沙門

諦觀 錄

陳隋國師天台智者大師以五時八教判釋

東流一代聖教盡無不盡言五時者一華嚴

時二鹿苑時阿舍四方等時說維摩思益按

光明勝四般若時說摩訶般若光讚般若金

經五法華涅槃時是為五時亦名五味言八

教者頓漸秘密不定藏通別圓是名八教頓

等四教是化儀如世藥方藏等四教名化法

諦觀

진언권공

Jineongwongong

眞言勸供

- 문화재종별 : 보물 제 1053 호
- 지정년월일 : 1990년 9월 20일
- 시 대 : 조선 연산군 2년(1496)
- 규모·재질 : 1책·가로 21.2cm, 세로 34.5cm(저지)
- 소재지 : 용인시 기흥구 상갈동 85 경기도박물관

- Classification | Treasures 1053
- Designated Date | 1990. 9. 20
- Age | King Yeonsan of Joseon Perio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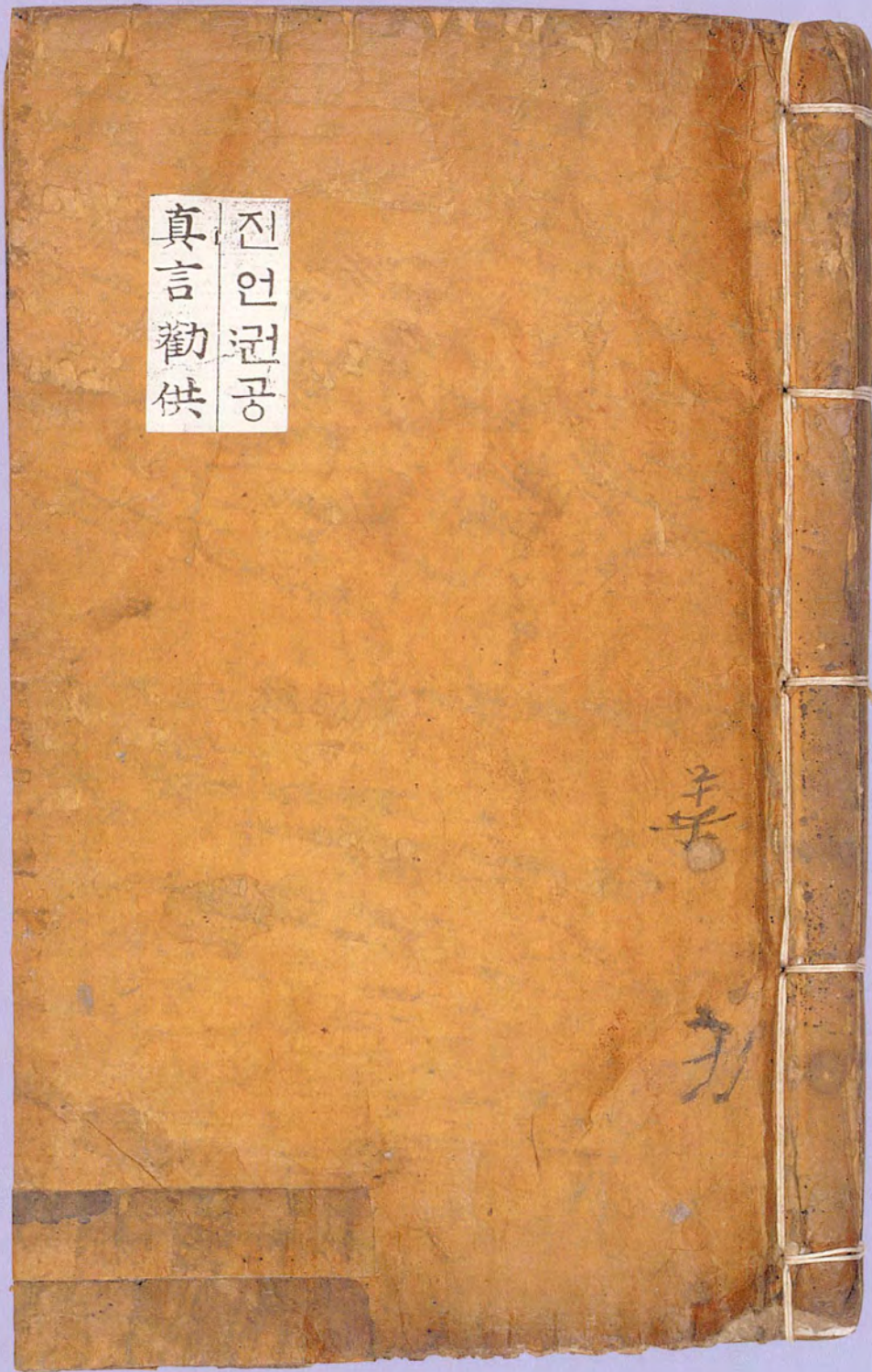
이 책은 시식권공(施食勸供)과 일상 법사(法事)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조선조 고승(高僧) 학조(學祖)가 국역한 것이다. 연산군(燕山君) 2년(1496) 5월에 인경목활자(印經木活字)로 4백 부를 간행하였는데 간행 동기는 덕종비(德宗妃)인 인수대왕대비(仁粹大王大妃 : 1437~1504)와 성종계비(成宗繼妃)인 정현왕대비(貞顯王大妃 : 1462~1530)가 성종의 명복을 빌기 위한 것이다. 대비들이 돈을 내어 활자(活字)를 정성껏 만들어 찍어 냈기 때문에 글자 자체가 단정하고 새김이 잘 되어 있어 인쇄가 매우 정교하다. 한글 활자체는 종전의 것보다 훨씬 필서체화(筆書體化) 되었으며 한글의 표기가 완전히 실제음(實際音)을 따랐으므로 국어 연구상 매우 중요한 자료이다.



본문 일부



발문



Jineongwongong

진언권공

청화백자운룡문호

Cheonghwabaekjaullyongmunho

Blue and white porcelain jar with cloud and dragon design

青華白磁雲龍文壺

- 문화재종별 : 보물 제 1064 호
- 지정년월일 : 1991년 1월 25일
- 시대 : 조선시대
- 규모·재질 : 높이 35.5cm, 구경 14.7cm, 저경 14.7cm(청화백자)
- 소재지 :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가실리 204 호암미술관

- Classification | Treasures 1064
- Designated Date | 1991. 1. 25
- Age | Joseon Period

조선시대 만들어진 높이 35.5cm, 구경 14.7cm, 저경 14.7cm의 전형적인 항아리로, 수직으로 낮게 선 아가리에서 서서히 팽창되어 어깨부분에서 가장 넓어졌다가 다시 서서히 좁아져, 밑둥부분에서 살짝 벌어진 형태를 하고 있다.

몸통 3곳에 커다란 꽃무늬 모양의 창(窓)을 만들고, 각각의 창 안에는 구름 속에서 용이 여의주를 가지고 노는 모습을 푸른색 안료로 그렸다.

용의 눈동자에는 검은색 점을 찍어 화룡점정의 효과를 냈으며, 푸른색은 흐려서 회청색에 가깝다. 유약은 잘 녹아 투명하고 광택이 있으며, 표면은 회백색을 띠고 병렬(氷裂)이 그물처럼 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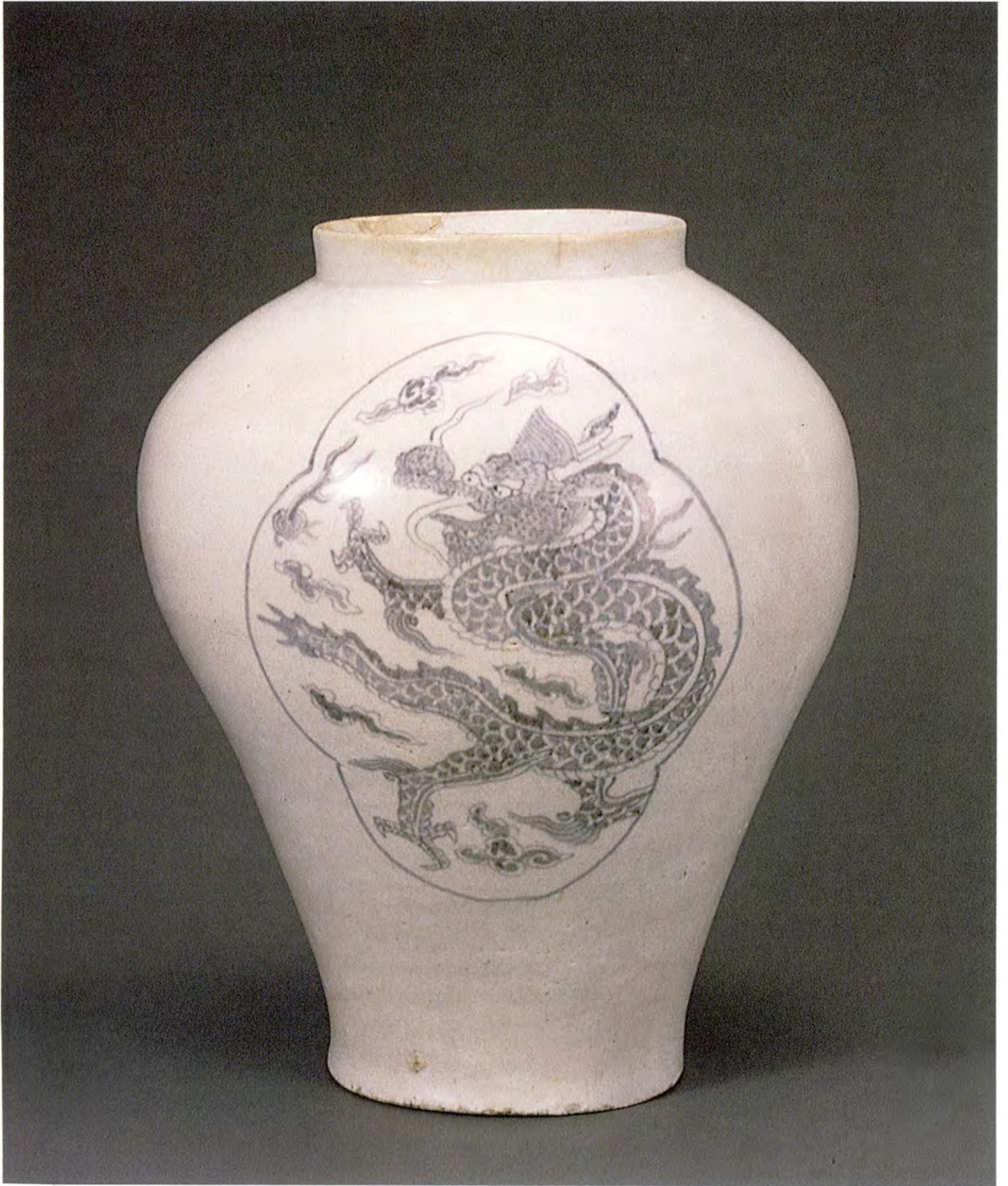
다른 문양은 없이 커다란 창 속에 용만 그려 넣은 것이 특이하며, 문양 구성이나 병 모양, 유약색으로 보아, 18세기 후반 경기도 광주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짐작된다.



구연부



바닥



Cheongwabaekjaullyongmunho

청화백자운룡문호

청화백자화조문팔각통형병

Cheonghwaebaekjahwajomunpalgaktonghyeongbyeong
Blue and white porcelain bottle in the shape of octagonal tub
with flower and bird design

靑華白磁花鳥文八角筒形瓶

- 문화재종별 : 보물 제 1066 호
- 지정년월일 : 1991년 1월 25일
- 시대 : 조선 후기
- 규모·재질 : 높이 18.9cm, 구경 5.2cm, 저경 7.3cm(청화백자)
- 소재지 :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가실리 204 호암미술관

• Classification | Treasures 1066

• Designated Date | 1991. 1. 25

• Age | Late Joseon Period

조선 후기에 만들어진 백자로 높이 18.9cm, 구경 5.2cm, 저경 7.3cm의 크기이다.

통형병이란 일반적으로 몸체가 원통형이고 목과 입이 작은 술을 담아 따르는 술병을 일컫는 말이다.

8각으로 모를 깎은 몸체 위에 나팔 모양으로 생긴 아가리와 좁고 길쭉한 원통형의 목이 있다. 몸체 바닥에는 둥근 굽다리가 있다.

문양은 청색 안료(청화)로 큼직하게 화조문(花鳥文)을 앞뒤에 그렸는데, 석류나무 위에 새 한 마리가 앉아있는 구성을 하고있다. 굽안쪽 바닥에 유약을 칠하기 전에 가는 음각선으로 새긴 '관(官)'자가 있다.

모를 깎은 통형병의 모양이나 청화문양, '관(官)'자 들로 보아, 18세기 후반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대표적 통형병으로 손꼽을 수 있다.



구연부



바닥



Cheongwabaekjahwajomunpalgaktonghyeongbyeong

청화백자화조문팔각통형병

봉림사 목아미타불좌상 복장전적 일괄

Bongnimsamogamitabuljwasangbokjangjeonjeokilgwal

Sealed wooden gimitabha (Buddha statue) and its accompanying relics of Bongnimsa Temple

鳳林寺木阿彌陀佛坐像腹藏典籍一括

- 문화재증별 : 보물 제 1095 호
- 지정년월일 : 1991년 9월 30일
- 시 대 : 고려 말~조선 초
- 규모·재질 : 8종 17점·사경 3종, 목판본 5종(저지)
- 소재지 : 화성시 북양동 642 봉림사

- Classification : Treasures 1095
- Designated Date : 1991, 9, 30
- Age : Late Goryeo Period~Early Joseon Period

봉림사 대웅전이 목조아미타좌상을 1978년에 다시 금칠할 때, 복장(腹藏)에서 나온 고려 말에서 조선 초에 걸쳐 제작된 사경(寫經) 3종과 목판본 5종의 전적(典籍)이다. 이들을 종류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수진본금강반야바라밀경(袖珍本金剛般若波羅蜜經)

고려 충숙왕(忠肅王) 복위 8년(1339)에 강금강(姜金剛) 등에 의해 간행된 소자(小字)의 『금강경』 목판본이다. 이 책은 후진(後秦)의 구마라집(鳩摩羅什)이 한역한 것이다. 권머리에 신중상(神衆像), 설법상(說法像), 금강경계칭(金剛經啓請), 정구업진언(淨口業眞言), 팔금강상(八金剛像), 사보살상(四菩薩像), 발원문(發願文), 운허범(云何梵)이 실려 있다. 권말에 지기(誌記), 범자(梵字)로 된 불정심다라니(佛頂心陀羅尼) 등 6개의 짝막한 다라니와 여의인(如意印) 등 10개의 부(符)가 있고 마지막에 강금강의 인출기(印出記)가 붙어 있다.

이 판본(板本)은 호신(護身) 또는 독송용(讀誦用)으로 판각한 수진본(袖珍本)이다. 권말의 기록에 의하면 각원(覺圓)이 고연(古燕)에서 우연히 본국의 승려 홍준(洪准)이 쓴 소자본 『금강경』을 구하여 비구(比丘) 달현(達玄), 영흥(永興), 이기(李琦), 전대동(田大同) 등과 함께 발원하여 고려 충선왕(忠宣王) 3년(1311)에 판각한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에 붙어 있는 인출기를 보면 충숙왕 복위 8년에 원나라에서 활약하던 강금강이 시주하여 찍어 냈음을 알 수 있다. 이 수진본은 사용하던 것을 복장에 넣었던 듯 일부 해지기도 하였다. 인출기에는 판본이 새겨진 지 28년 후에 찍었다고 하는데 글자에 마멸이 없고 인쇄 상태가 양호하다. 이 책이 나온 봉림사 목조여래좌상의 개금기(改金記)에 의해 공민왕(恭愍王) 11년(1362) 개금 때 복장된 것으로 추정된다.

2) 감지은니대방광불화엄경(紺紙銀泥大方廣佛華嚴經(卷第四十八))

이 사경은 감지(紺紙)로 된 종이에 은가루를 아교에 개서 썼다. 그 내용은 당나라 실차난타(實叉難陀)가 한역한 80권으로 구성된 『화엄경』 가운데 한 권이다. 사성기(寫成記)와 변상도(變相圖)가 없고 표지의 장식이나 본문 글씨가 그리 뛰어나지는 않지만, 전형적인 고려시대 사경체의 특징을 지니고 있는 고려 말기의 사경으로 추정된다.

봉림사 목아미타불좌상 복장전적 일괄

Bongnimsamogamitabuljwasangbokjangjeonjeokilgwai

Seated wooden amitabha buddha statue and accompanying relics at Bongnimsa Temple

鳳林寺木阿彌陀佛坐像腹藏典籍一括

- 문화재종별 : 보물 제 1095 호
- 지정년월일 : 1991년 9월 30일
- 시 대 : 고려 말~조선 초
- 규모·재질 : 8종 17점-사경 3종, 목판본 5종(저지)
- 소재지 : 화성시 북양동 642 봉림사

- Classification | Treasures 1095
- Designated Date | 1991, 9, 30
- Age | Late Goryeo Period~Early Joseon Period

3) 백지묵서묘법연화경<권제2>(白紙墨書妙法蓮華經<卷第二>)

이 사경(寫經)은 후진(後秦)의 구마라집(鳩摩羅什)이 한역한 7권으로 구성된 『법화경』을 백지에 먹으로 쓴 것으로 그 중 둘째 권이 전래되었다. 이 사경은 후만부가 없어지고 사성기(寫成記)가 없어서 확실한 제작 연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감지(紺紙)에 금으로 묘사된 표지의 장식과 본문의 글씨로서 고려 말에서 조선 초 사이의 것으로 추정된다.

4) 백지묵서범망경(白紙墨書梵網經)

이 사경은 양질의 두꺼운 백지에 먹으로 썼다. 그 내용은 후진의 구마라집이 한역한 『범망경노사나불설보살심지계품(梵網經盧舍那佛說菩薩心地戒品)』 제10의 하(下)이다. 권말에 사성기는 없고 화주(化主) 혜상(惠尙) 묘원(妙圓) 최신성(崔信誠), 시주(施主) 경화택주 이씨(慶和宅主李氏) 등 사경에 참여한 화주와 시주자의 이름만이 기록되었다. 그러나 이들이 언제 살았는지 알 수 없어서 확실한 연대를 가늠하지 못한다. 뒤표지의 장식과 본문 글씨로써 조선 초기로 추정한다.

妙法蓮華經卷第二

姚秦三藏法師鳩摩羅什奉 詔譯

妙法蓮華經譬喻品第三

余時舍利弗踊躍歡喜即起合掌瞻仰尊顏而白佛言今從世尊聞此法音心懷踊躍得未曾有所以者何我昔從佛聞如是法見諸菩薩受記作佛而我等不預斯事甚自感傷失於如來無量知見世尊我常獨處山林樹下若坐若行每作是念我等同入法性云何如來以小乘法而見濟度是我等俗非世尊也所以者何若我等待說所因成就阿耨多羅三藐三菩提者必以大乘而得度脫然我等不解方便隨宜所說初聞佛法過便信受思惟取證世尊我從昔來終日竟夜每自勉責而今從佛聞所未聞未會有法斷諸疑悔身意泰然快得安隱今日乃知真是佛子從佛口生從法化生得佛法分余時舍利弗欲重宣此義而說偈言

我聞是法音 得所未曾有 心懷大歡喜 疑網皆已除 昔來蒙佛教 不失於大乘 佛音甚希有 能除眾生惱 我已得漏盡 聞亦除憂惱 我處於山谷 或在林樹下 若坐若經行 常思惟是事 為師深自責 云何而自欺 我等亦佛子 同入無漏法 不能於未來 演說無上道 金色三十二 十力諸辭脫 同共一法中 而不得此事 八下重少子 下法去 如是等功德



諸佛子是四十八輕戒汝等受持過去諸菩薩已學未來諸菩薩當學現在諸菩薩今學諸佛子諦聽此十重四十八輕戒三世諸佛已誦當誦今誦我今亦如是誦汝等一切大眾若國王王子百官比丘比丘尼信男信女受持菩薩戒者應受持讀誦解說書寫佛性常住戒卷流通三世一切眾生不絕得見千佛佛佛授手世世不墮惡道八難常生人道天中我今在此樹下略開七佛法戒汝等大衆當一心學波羅提木叉歡喜奉行如無相天王品勸學中一一廣明三千學士時坐聽者聞佛自誦心頂戴喜躍受持

今時釋迦牟尼佛說上蓮華臺藏世界虛舍那佛心地法門品中十無盡戒法品竟千百億釋迦亦是說從摩醯首羅天王宮至此道樹下十任處說法品為一切菩薩不可說大眾受持讀誦解說其義亦如是千百億世界蓮華藏世界微塵世界一切佛心藏地藏戒藏無

化王 惡尚

施王 慶和宅王李

持經施王 濟命王 長子 羅性 道人 僧子 雲

道人 僧子 雲

봉림사 목아미타불좌상 복장전적 일괄

Bongnimsamogamitabuljwasangbokjangjeonjeokilgwai

Sealed wooden amita(buddha) statue and accompanying relics at Bongnimsa Temple

鳳林寺木阿彌陀佛坐像腹藏典籍一括

- 문화재종별 : 보물 제 1095 호
- 지정년월일 : 1991년 9월 30일
- 시 대 : 고려 말~조선 초
- 규모·재질 : 8종 17점·사경 3종, 목판본 5종(저지)
- 소 재 지 : 화성시 북양동 642 봉림사
- Classification | Treasures 1095
- Designated Date | 1991. 9. 30
- Age | Late Goryeo Period~Early Joseon Period

5) 과주묘법연화경합부(科注妙法蓮華經合部)

이 책은 명나라 초기에 간행한 과주(科注)가 붙은 『법화경』 목판본이다. 이 판본의 내용은 후진(後秦)의 구마라집(鳩摩羅什)이 한역한 『법화경』 7권이다. 여기에서는 본문을 수록한 다음 내용을 이해하기 쉽도록 주(注)를 붙였다. 양질의 중국 종이인 얇은 모변지(毛邊紙)를 사용하였다. 앞뒤로 인쇄하고 한 권의 책으로 제본되었다.

6) 소자금강반야바라밀경(小字金剛般若波羅密經)

고려 고종(高宗) 15년(1228)에 목판에서 찍은 낱장 본으로 구성된 『금강경』이다. 마지막 장에 무의자(無依子)의 발문(跋文)이 있다. 무의자는 고려시대 수선사(修禪社)의 제2세 국사인 혜심(慧諶 : 1178~1234)이다.

발문에 의하면 『금강경』, 『법화경보문품』, 『화엄행원품』 등은 일반인이 배움을 통해 단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유익한 경전이라서, 도인 열가(悅可)에게 쓰게 하고 시랑(侍郎) 이평(李紘), 삼중대사 문광(文光)과 함께 간행하였다고 한다.

이 판본은 본래 휴대하면서 독송하기 위한 수진본(袖珍本)이나 제본하지 않은 낱장을 불상의 내부에 넣은 것으로 보인다. 현재 둘째 장은 없어지고 4장만이 남았다.

妙法蓮華經弘傳序

終南山釋道宣述

妙法蓮華經者統諸佛降靈之本教也

靈結大夏出彼千齡東傳震旦三百餘載

西晉覺帝永康年中長安青門外煇煌菩薩

法護者初翻此經名正法華東晉安帝隆安

年中後秦弘始丘慈沙門鳩摩羅什次翻此

經名妙法蓮華隋代仁壽大興善寺北天竺

沙門闍那夏多後所翻者同名妙法

三經重沓文旨互陳時所宗尚皆弘奉本

自謂支品別傷不異其流具如序蓋故所非

夫以靈空降靈非大靈無由開化通化所及

非昔殊難以導心

所以仙苑告戒微分小大之別金河頓道

味半滿之科豈非教被曩時無足憂其高會

是知五千退席萬進增慢之儀五百授記俱

崇宏化之迹

所以放光現瑞開發請之教源出定揚德揚

佛慧之宏略巧宅通入大之文軌化城引昔

練之不墜擊理明性之常在暨并顯示悟

之多方辭義宛然喻陳惟遠

自非大義曠濶深滯濁之沉流一極悲心拯

昏迷之失性

自漢至唐六百餘載總群籍四千餘軸受

持盛者無出此經

將非機教相扣並智勝之遺塵聞而深敬似

咸王之餘韻 輒於經首序而結之

庶得卑淨六根仰慈尊之喜會建成四德趣

樂土之玄歎

弘贊集別承此諸後云爾

法華文句要義釋云天台智者大師分三初品為序方便品說分初

傳品十九行現凡五品十五正授佛後經凡十一而十名皆通之二時分

而二後序安樂行十四出功速開權顯當須出此經十四品本攝攝顯

實本後各序五法通初品高序方便教授學受之記品為正結品安樂行

乃流通通止此序也即華佛令答之序品皆序後佛者阿耨多三藐三

功德品十九行現者後世諸師說通今此說前二說皆妄也

初序分三

妙法蓮華經卷第一

佛在舍城耆闍崛山中

與大比丘眾

萬二千人俱

皆是阿羅漢

諸漏已盡無復煩惱得已利盡諸有結

心得自在

全附般若數釋疑

如是為第一佛在舍國祇樹給於樹園與大比丘眾千

二百五十人俱舍國祇樹給於樹園與大比丘眾千

二百五十人俱舍國祇樹給於樹園與大比丘眾千

二百五十人俱舍國祇樹給於樹園與大比丘眾千

二百五十人俱舍國祇樹給於樹園與大比丘眾千

二百五十人俱舍國祇樹給於樹園與大比丘眾千

二百五十人俱舍國祇樹給於樹園與大比丘眾千

二百五十人俱舍國祇樹給於樹園與大比丘眾千

二百五十人俱舍國祇樹給於樹園與大比丘眾千

二百五十人俱舍國祇樹給於樹園與大比丘眾千

二百五十人俱舍國祇樹給於樹園與大比丘眾千

二百五十人俱舍國祇樹給於樹園與大比丘眾千

二百五十人俱舍國祇樹給於樹園與大比丘眾千

二百五十人俱舍國祇樹給於樹園與大比丘眾千

二百五十人俱舍國祇樹給於樹園與大比丘眾千

二百五十人俱舍國祇樹給於樹園與大比丘眾千

二百五十人俱舍國祇樹給於樹園與大比丘眾千

二百五十人俱舍國祇樹給於樹園與大比丘眾千

二百五十人俱舍國祇樹給於樹園與大比丘眾千

二百五十人俱舍國祇樹給於樹園與大比丘眾千

二百五十人俱舍國祇樹給於樹園與大比丘眾千

二百五十人俱舍國祇樹給於樹園與大比丘眾千

二百五十人俱舍國祇樹給於樹園與大比丘眾千

二百五十人俱舍國祇樹給於樹園與大比丘眾千

二百五十人俱舍國祇樹給於樹園與大比丘眾千

二百五十人俱舍國祇樹給於樹園與大比丘眾千

二百五十人俱舍國祇樹給於樹園與大比丘眾千

二百五十人俱舍國祇樹給於樹園與大比丘眾千

二百五十人俱舍國祇樹給於樹園與大比丘眾千

二百五十人俱舍國祇樹給於樹園與大比丘眾千

二百五十人俱舍國祇樹給於樹園與大比丘眾千

二百五十人俱舍國祇樹給於樹園與大比丘眾千

二百五十人俱舍國祇樹給於樹園與大比丘眾千

二百五十人俱舍國祇樹給於樹園與大比丘眾千

二百五十人俱舍國祇樹給於樹園與大比丘眾千

二百五十人俱舍國祇樹給於樹園與大比丘眾千

二百五十人俱舍國祇樹給於樹園與大比丘眾千

二百五十人俱舍國祇樹給於樹園與大比丘眾千

二百五十人俱舍國祇樹給於樹園與大比丘眾千

二百五十人俱舍國祇樹給於樹園與大比丘眾千

二百五十人俱舍國祇樹給於樹園與大比丘眾千

二百五十人俱舍國祇樹給於樹園與大比丘眾千

二百五十人俱舍國祇樹給於樹園與大比丘眾千

二百五十人俱舍國祇樹給於樹園與大比丘眾千

二百五十人俱舍國祇樹給於樹園與大比丘眾千

二百五十人俱舍國祇樹給於樹園與大比丘眾千

二百五十人俱舍國祇樹給於樹園與大比丘眾千

봉림사 목아미타불좌상 복장전적 일괄

Bongnimsamogamitabuljwasangbokjangjeonjeokilgwal

Sealed wooden amitabha buddha statue and accompanying relics at Bongnimsa Temple

鳳林寺木阿彌陀佛坐像腹藏典籍一括

- 문화재종별 : 보물 제 1095 호
- 지정년월일 : 1991년 9월 30일
- 시 대 : 고려 말~조선 초
- 규모·재질 : 8종 17점-사경 3종, 목판본 5종(저지)
- 소 재 지 : 화성시 북양동 642 봉림사
- Classification | Treasures 1095
- Designated Date | 1991. 9. 30
- Age | Late Goryeo Period~Early Joseon Period

7) 소자범총지집 일부<小字梵總持集一部>

범어(梵語)로 된 총지집으로 목판에서 찍은 낱장이다. 이것은 낱장 한 장에 내용이 2단으로 배열되어 있다. 현재 제3장과 4장이 없어졌고 낱장 5장(내용 10장)이 남아 있다. 간행기록은 없지만 전체적인 인쇄 조건으로 보아, 무의자(無依子) 발문(跋文)의 『소자금강반야바라밀경』 낱장본과 같은 시기로 추정된다.

8) 소자불정심관세음보살대라니경<권상·중·하>(小字佛頂心觀世音菩薩大陀羅尼經<卷上·中·下>)

이 다라니경은 목판에서 찍어낸 낱장이며, 둘째 장이 없어져서 현재 4장이 남았다. 마지막 장의 끝에 발문이 있지만 먹이 제대로 보이지 않아 간행 연대는 확실히 알 수 없다. 그러나 '성수만세청하 상국복수무강(聖壽萬歲清河相國福壽無疆)' 이란 기록으로 고려 고종(高宗) 때 권력자인 최우(崔瑀 : ?~1249)의 수복을 빌기 위해 간행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쇄미록

Swaemirok

瑣尾錄

- 문화재종별 : 보물 제 1096 호
- 지정년월일 : 1991년 9월 30일
- 시 대 : 조선 선조 24년~조선 선조 34년(1591~1601)
- 규모·재질 : 7책-임진남행일록·임진일록, 계사일록, 갑오일록, 을미·병신·정유일록, 정유일록, 정유·무술일록, 기해·경자·신축일록(저지)
- 소재지 :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오산리 98-1

- Classification | Treasures 1096
- Designated Date | 1991, 9, 30
- Age | King Seonjo of Jarseon Period

조선 선조(宣祖) 24년(1591)부터 선조 34년까지의 사실을 기록한 오희문(吳希文)의 일기로 7책 필사본이다.(후손들이 1909년에 베껴 쓴 후 편집한 부분도 약간 있다.) 『쇄미록』은 피란기(避亂記)라는 뜻으로서 『시전(詩傳)』 모구장(旆丘章)의 문구에서 따온 것이다. 1책이 1591년부터 1592년까지, 2책이 1593년, 3책이 1594년, 4책이 1595년부터 1597년 1월까지, 5책이 1597년 2월부터 8월까지, 6책이 1597년 9월부터 1598년까지, 7책이 1599년부터 1601년까지 기록하였다. 일기 외에도 국왕의 교서(敎書)·의병의 격문(檄文)·각종 공문서·과거 합격자 명단·편지·기타 잡문 등이 실려 있다.

오희문은 중종(中宗) 34년(1539)에 출생하여 광해군(光海君) 5년(1613)에 죽었다. 과거에 급제하지 못하여 벼슬을 하지는 못하였으나 그의 아들은 인조(仁祖) 때 영의정을 지냈고, 손자는 병자호란(1636~1637) 때 끝까지 싸울 것을 주장하다가 청나라에 끌려가서 죽은 삼학사(三學士)의 한 사람이다. 오희문은 대대로 서울에서 살았으나 지방에 있는 친척과 노비를 찾아보려고, 선조 24년 겨울에 서울을 떠나 충청도·전라도를 여행하다가 이듬해 4월 전라도 장수(長水)에서 임진왜란(1592~1598)을 만났다. 이후 산속으로 피란하여 여러 지방을 돌아다니면서 이 일기를 썼다.

이 책은 임진왜란에 관한 자료뿐만 아니라 당시의 사회·경제를 연구하는 데 귀중한 자료이다. 먼저 임진왜란과 관련된 기록을 보면, 전쟁의 정황이 대략적으로 기술되었으며 또한 그가 전라도에서 직접 보고 들은 전황과 함께 곽재우(郭再祐 : 1552~1617)·김천일·고경명(高敬明 : 1533~1592)·조헌(趙憲 : 1544~1592) 등의 병장의 활동상, 왜군의 살육·약탈·방화 만행·명나라 군대의 약탈, 한양의 파괴 상황, 민중 생활의 파괴상 등 다른 자료에서는 볼 수 없는 내용이 실려 있다. 향청(鄉廳)의 좌수(座首)·경주인(京主人)·영주인(營主人) 등 당시 지방 행정 실무자의 임무와 생활상, 군대 징발, 공물 징수, 군량 수송 등 농민의 조세 및 부역 상황 등을 알려 주는 자료가 많다. 셋째, 오희문은 양반으로서 많은 노비를 거느리고 있어서 노비들의 비참한 생활(노비의 경제적 부담, 노비 매매의 실상 등)에 대해서도 자세히 기록하였다. 이 책은 1962년 국사편찬위원회에서 활자화하여 2책으로 간행하였고, 1990년에는 해주 오씨 추탄공파(海州吳氏攄灘公派) 중중에서 번역문과 활자화한 원문을 덧붙여 2책으로 간행하였다.



일기문



대방광불화엄경소〈권제21, 24〉

Daebanggwangbulhwaemyeongso<Gwonje21, 24>
Avalamsaka sutra part 21, 24

大方廣佛華嚴經疏〈卷第二十一, 二十四〉

- 문화재종별 : 보물 제 1128 호
- 지정년월일 : 1992년 4월 20일
- 시 대 : 고려 말기
- 규모·재질 : 2권 2첩-가로 10.6cm, 세로 32.4cm(저지)
- 소재지 : 성남시 분당구 운중동 50 한국학중앙연구원

- Classification | Treasures 1128
- Designated Date | 1992, 4, 20
- Age | Late Goryeo Period

이 책은 당(唐)나라 승려인 실차난타(實叉難陀)가 번역한 『80화엄경』의 주석서(註釋書)로 120권 가운데 권제21, 24에 해당한다. 고려의 대각국사(大覺國師) 의천(義天: 1055~1101)과 친교가 있던 정원(淨源)이 주석한 것으로, 선종(宣宗) 4년(1087) 송(宋)나라 상인을 통해 보내 온 목판에서 찍어낸 것이다. 이 목판은 다시 일본 측에서 조선 세종(世宗) 5년(1423)에 해인사 소장의 대장경판(大藏經版)을 달라고 원해서, 규주(圭籌)를 통하여 다음 해에 보내 주었다.

이들 판본은 송나라에서 고려 그리고 다시 일본으로 전파되어 동양 삼국의 불교문화 교류에 큰 역할을 하였다. 현재까지 권28, 29, 30, 41, 42, 68, 84, 97, 100(복본), 101, 102, 117이 보물로 지정되어 있다.



표지

大方廣佛華嚴經疏卷第二十一

清涼山沙門 惟觀述 晉水沙門 淨德錄疏注經

光明覺品第九

此一品略以五門初末意中

然五隔對前二品已答名學廣說二問此品正答三問謂長行故光答佛成德見成正覺答成菩提文殊說偈答佛法性今更一別謂長行但現相答已如前說偈中具答三問謂初五答菩提火一答成德後四答佛法性三為廣名答菩提多端正廣種種觀察是意若故三者即說十信之體性故如下三會將說正位皆有備讚此其類也四顯實偏故假所說有二一謂二法佛有二一身二名法亦有一二一實前佛名偏此顯身偏四辨即實之推偏此品顯即權之實偏五現證故上二云福聚未日能令光亦偏相故六顯證偏故前但名辨別偏今此一會即偏法界一皆悉同時同處同界同說同偏故七顯圓偏故謂前顯意別一切方能偏一切今顯無差別一切即圓融一切故八與下雖為其例故謂下經結通云偏一世界地化分界皆如此故九亦示前神通相故上云現通如何現那一會不動偏法界故十為顯理事俱證障礙今捨就法故此意彈運在文偏顯有上法義故此品來也三釋名者一開二合初開者光明覺也覺者用也此二各二謂光有身智二光覺有覺知覺悟又光有能照所照覺有能覺所覺如來身故身死聖事法界今菩薩覺知見事無礙文殊演智光雙照理事今覺覺悟法之性相三合者良以事理俱融無一障礙故得一事即偏無邊而不壞本相身智無二障一無礙光故涅槃琉璃光菩薩處云光明者名為智慧如指不殊惟一平等覺悟心之知無事非理故又此二不具覺境此三圓融無礙之法界雖平等覺相不壞光明之覺品中辨此故以萬名若從開釋光明之覺光明有覺之用通依主有財若從合說光明即覺可持業也三宗趣者以一身智二光無礙覺悟為宗令物主信為趣又釋名華嚴品宗宗意蓋高意趣品解疑妨問此是輪光何障於耶若說名覺竟如何佛利菩薩東巖並同名者先已於前何不說此是前名劣品故但前二品思文殊止會說不壞光顯今辨百億剎乃至偏法界說故項光以顯示其所來菩薩即前菩薩故並全同又有妙云光顯百億何不照此釋云此為主故若彼為主則說仗照又有妙云下光說窮法界金色更在何許當利當利有不會處皆去十刹土爾時世尊從兩足輪下放百億光明

足輪下放百億光明

是下效光者表信四美一自下而上信最初故二最

大方廣佛華嚴經疏卷第二十四

清涼山沙門 惟觀述 晉水沙門 淨德錄疏注經

賢首品第十二

初來意者夫行不虛設必有其

前行顯其功德用故次來也又前賢首品是微因賢來前顯其因略顯其果云云一切功德功德故問賢首今來首首是以佛智顯其功德三釋者謂賢首至顯顯其賢首功德顯其功德首首即以此名其法廣說此法賢首是賢首之品以當賢位之初攝諸法故備舉賢名三宗趣行於門中成賢賢德而自在莊嚴無方大用建立舉三門其功德顯諸位以顯其宗今起圓融信行成行法用而為意趣四釋文三初文殊發起爾時文殊師利菩薩說無濁亂清淨行大功德已結前已說顯其言悲智雙游萬境不能離其處是四欲顯示其清淨行大功德者即前所成之果欲顯示其菩提心功德故菩提心功德功德實具五位圓行其功德故今顯示之正明能發以偈問賢首菩薩曰我今已為諸菩薩說佛往修清淨行仁亦當於此會中演暢修行勝功德前半結前篇文空故略無修行之德則與長行文有彰所成之德後半勸請今說三賢首廣說二初攝攝舉爾時賢首菩薩曰以偈答曰以偈答者此略有一少言攝多意說經難盡故顯此勝妙之功德故三正顯獨勝有三五十九頌半大為三初初四頌讚讚詩能分丈三百四十六偈半正顯勝德分三九偈校量勸持分初二初說明

不可稱量無與等 何況無量無邊劫

我今隨力說少分 猶如大海一滴水

若求當證佛菩提 彼之功德無邊際

彼之功德無邊際 彼之功德無邊際

彼之功德無邊際 彼之功德無邊際

彼之功德無邊際 彼之功德無邊際

彼之功德無邊際 彼之功德無邊際

彼之功德無邊際 彼之功德無邊際

彼之功德無邊際 彼之功德無邊際

彼之功德無邊際 彼之功德無邊際

彼之功德無邊際 彼之功德無邊際

彼之功德無邊際 彼之功德無邊際

彼之功德無邊際 彼之功德無邊際

彼之功德無邊際 彼之功德無邊際

彼之功德無邊際 彼之功德無邊際

彼之功德無邊際 彼之功德無邊際

彼之功德無邊際 彼之功德無邊際

彼之功德無邊際 彼之功德無邊際

彼之功德無邊際 彼之功德無邊際

彼之功德無邊際 彼之功德無邊際

彼之功德無邊際 彼之功德無邊際

彼之功德無邊際 彼之功德無邊際

彼之功德無邊際 彼之功德無邊際

彼之功德無邊際 彼之功德無邊際

彼之功德無邊際 彼之功德無邊際

彼之功德無邊際 彼之功德無邊際

彼之功德無邊際 彼之功德無邊際

彼之功德無邊際 彼之功德無邊際

彼之功德無邊際 彼之功德無邊際

彼之功德無邊際 彼之功德無邊際

대불정다라니

Daebuljeongdarani

Dharani sutra

大佛頂陀羅尼

- 문화재종별 : 보물 제 1129 호
- 지정년월일 : 1992년 4월 20일
- 시대 : 고려 말기
- 규모·재질 : 1권 1첩-가로 8.8cm, 세로 25.6cm(저지)
- 소재지 : 성남시 분당구 운중동 50 한국학중앙연구원

- Classification | Treasures 1129
- Designated Date | 1992, 4, 20
- Age | Late Goryeo Period

우리나라에서 가장 널리 유통된 다라니(陀羅尼)의 하나이다. 범어(梵語)와 한문을 나란히 배열한 목판첩장본(木版帖裝本)이며 1권 1첩이다.

다라니는 범문(梵文)으로, 짧은 구절을 진언(眞言) 또는 주(呪)라 하고 긴 구절로 된 것을 다라니라 하는데 구별없이 불리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다라니는 범문을 번역하지 않고 음(音) 그대로 독송한다. 이는 원문의 뜻이 한정되는 것을 피하고 본래의 뜻을 그대로 전한다는 신앙적인 목적에 의한 것이다.

이 판본(版本)은 간기(刊記)가 없어 정확한 간행 시기는 알 수 없으나 판식(版式)과 장정(裝幀) 등에서 고려 말의 간행으로 추정된다. 특히 고려 말 밀교(密敎)가 성행했던 '충(忠)' 자 임금 때의 간행으로 보이거나 후대에 간행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이 시기에 간행한 밀교 경전으로는 기림사(祈林寺) 소장인 『정본일체여래대불정백솔개총지(正本一切如來大佛頂白率蓋總持)』가 있다. 조선시대에는 이 다라니 등 5개의 다라니를 모은 『오대진언집(五大眞言集)』이 널리 유통되었다.



표지

약사유리광여래본원공덕경

Yaksayurigwangyeoraebonwongongdeokgyeong
Bhaisajyaguru sutra

藥師瑠璃光如來本願功德經

- 문화재종별 : 보물 제 1130 호
- 지정년월일 : 1992년 4월 20일
- 시 대 : 고려 말기
- 규모·재질 : 1권 1책·가로 16cm, 세로 30cm(저지)
- 소재지 : 성남시 분당구 운중동 50 한국학중앙연구원

- Classification | Treasures 1130
- Designated Date | 1992, 4, 20
- Age | Late Goryeo Period

고려 숙종(肅宗) 7년(1102) 흥왕사(興王寺)의 간기(刊記)가 있는 목판본이다. 흥왕사는 대각국사(大覺國師) 의천(義天: 1055~1101)에 의해 숙종 6년(1101)까지 『신편제종교장(新編諸宗教藏)』을 간행했던 곳이다. 그런데 이 책은 대장경의 주석서(註釋書)인 교장이 아니고 일반 경전인데 대장경의 천자함(千字函) 표시인 '국(鞠)' 자가 새겨져 있다. 일반적으로 천자함 표시는 대장경 간행에만 한정되고 개별 경전 간행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이 판본은 대각국사가 입적(入寂)하고 난 다음 해에 간행되었는데, 아마 국사의 쾌유를 빌기 위해 이 경전의 간행을 시작하여 저본(底本)의 천자함 표시를 그대로 새겼을 것으로 보인다.

이 책은 흥왕사의 간기가 있으나 성격이 다른 정장(正藏)이며 또 판식(板式)이나 지질(紙質)이 다르다. 현존 판본의 상태로 보아 이 당시의 간행으로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이 판본은 숙종 7년의 판본을 저본으로 후대에 번각(飜刻)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번각 수법이 뛰어나서 왕실이나 국가적인 기관에서 간행했을 가능성이 짙다. 이 가능성으로 보면 조선시대 세조(世祖) 때의 간경도감(刊經都監)이 먼저 주목된다. 그런데 이 판본의 번각으로 추정되는 같은 경전의 판본이 고려대학교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고려대학교 소장본은 권말의 발원문에 의해 성종(成宗)의 계비(繼妃)인 자순왕대비(慈順王大妃)의 발원으로 중종(中宗) 23년(1528)에 봉은사에서 간행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 책에서 보면 세조 5년(1459)에도 간행되었음을 어제발(御製跋)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이를 보면 간경도감 복각(覆刻) 가능성은 희박해진다. 세조 7년(1461)에 설치된 간경도감에서 이를 다시 복각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 판본은 고려시대 판본의 격을 갖추고 있고 조선조 초기 복각의 가능성이 희박하므로 고려 말로 추정한다.



표지

藥師瑠璃光如來本願功德經一卷

三藏法師玄奘奉

詔譯



翰

如是我聞。一時薄伽梵遊化諸國。至廣
嚴城。住樂音樹下。與大苾芻眾八千人
俱。菩薩摩訶薩三萬六千。及國王大臣
婆羅門居士。天龍藥叉人非人等。無量

법망경노사나불설보살십지계품<제10의하>

Beommanggyeongnojanabulseolbosalsimjigyepum<Jae10(sip)uiha>
Beommang sutra last volume of 10

梵網經盧舍那佛說菩薩心地戒品<第十之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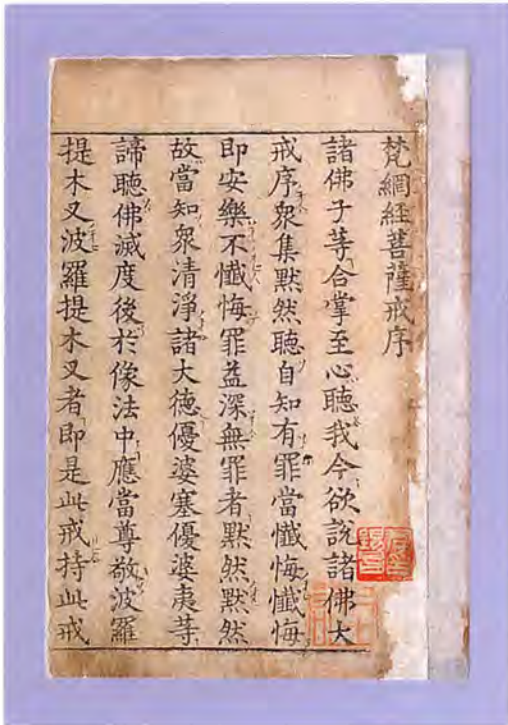
- 문화재종별 : 보물 제 1131 호
- 지정년월일 : 1992년 4월 20일
- 시대 : 고려 말기
- 규모·재질 : 1권 1책·가로 14.9cm, 세로 22.6cm
- 소재지 : 성남시 분당구 운중동 50 한국학중앙연구원
- Classification | Treasures 1131
- Designated Date | 1992. 4. 20
- Age | Late Goryeo Period

고려 말에 간행한 『법망경』의 목판본이며 1권 1책이다. 이 책은 『법망경노사나불설보살십지계품』 제10의 상·하 가운데 하권이다. 승조(僧肇)의 『법망경후서(梵網經後序)』에 의하면 『법망경』은 112권 61품으로 구성되었다 하나 전체가 한역(漢譯)되지는 않았다. 이 하권의 내용은 보살이 지녀야 하는 10가지 무거운 계(十重大戒)와 48가지 경범죄에 해당하는 계(四十八輕戒)를 설(說)한 것인데, 대승불교의 기본 계율서로서 널리 유통되어 왔다.

이 판본에는 충렬왕(忠烈王) 32년(1306) 원(元)나라 고승인 소경(紹瓊)의 후서(後序)가 붙어 있어 원본(元本) 계열로 오인하기 쉽다. 그러나 실제로는 당시 고려 승려와 친교를 맺었던 소경의 후서를 받아 고려에서 간행한 책이다. 소경은 충렬왕 30년(1304) 7월에 우리나라를 방문하였다. 이 때 왕이 승지(承旨) 안우기(安于器)를 교외에 보내어 영접하였으며 친히 군신을 거느리고 예복을 갖추어 수녕궁(壽寧宮)에서 맞이하여 설선(說禪)하는 것을 들었다고 한다.(高麗史列傳卷第三十二, 忠烈王三十年七月, 八月條) 또 궁중에서 불화(佛畫)에 점안(點眼)하고 화엄경(華嚴經)을 전독(轉讀)하고 왕과 왕비가 보살계를 받았다는 기록이 있다.(高麗史列傳卷第十七, 韓希愈條) 충렬왕 때 지침의부사(知僉議府事) 권단(權坦)이 소경에게 머리를 깎고 출가를 했다고 한다.(高麗史列傳卷第二十, 權坦條) 소경은 고려시대 고승 해감국사(慧鑑國師) 만항(萬恒 : 1259~1319), 보감국사(寶鑑國師) 혼구(混丘 : 1250~1322)와 친밀한 교류가 있었던 몽산(蒙山) 덕이선사(德異禪師)의 제자이기도 하다.

간행 당시 소경이 고려에 있었는지 후서의 내용으로는 알 수 없으나, 간행 즈음 소경과 친교가 있던 고려 고승의 부탁으로 고려 불교계가 부처님의 법을 떨치고 있다는 내용을 써 준 것이다. 그러므로 이 판본은 고려시대 원나라와 불교를 통한 교류의 일면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라 할 수 있다.

이 판본은 현재 번각본(飜刻本)일 가능성도 있어 고려 말기로 추정하고자 한다.



법망경보살계서

此是佛行處 聖主所稱歎 我已隨順說
福德無量聚 迴以施衆生 共向一切智
願聞是法者 疾得成佛道
梵網經盧舍那佛說菩薩心地戒品第十之下
梵網經菩薩戒後序

沙門釋 僧肇 述

夫宗本湛然理不可易是以窮妙於
真源之境萬行起於深信之宅是以
天竺法師鳩摩羅什誦持此品以為
心首此經本有一百一十二卷六十
一品什少踐於本方齊異學於迦夷
和始三年淳風東扇秦主姚興道契
百王玄心大法於草堂之中三千學

백운화상초록불조직지심체요절목판본

Baegunhwasangchorokbuljokjikjimsicheyojeolmokpanbon
Jikjimsicheyojeol abstract by Baegunhwasang

白雲和尚抄錄佛祖直指心體要節木板本

- 문화재종별 : 보물 제 1132 호
- 지정년월일 : 1992년 4월 20일
- 시 대 : 고려 우왕 4년(1378)
- 규모·재질 : 2권 1책·가로 15.8cm, 세로 21.4cm
- 소 재 지 : 성남시 분당구 운중동 50 한국학중앙연구원

- Classification | Treasures 1132
- Designated Date | 1992, 4, 20
- Age | King U of Goryeo Period

고려 우왕(偶王) 4년(1378) 취암사(鷲巖寺)에서 간행한 목판본이며 2권 1책이다. 이 책은 백운화상(白雲和尚) 경한(景閑 : 1299~1375)이 75세 때(1372) 제자인 법린(法隣)의 요청으로 임제종(臨濟宗) 18대손인 석옥(石屋) 청공화상(淸珙和尚)에게서 받은 『불조직지심체요절(佛祖直指心體要節)』을 증보하여 2권으로 편집한 것이다. 내용은 '직지인심견성성불(直指人心見性成佛)' 하는데 중요 내용이 되는 것으로, 과거 7불로부터 석옥의 제자인 법안선사(法眼禪師)에 이르기까지 역대 제불(歷代諸佛)과 조사들의 법어, 계송 등으로 구성되었다.

이 책은 백운화상이 입적한 3년 후(1377)에 청주목의 흥덕사(興德寺)에서 석찬(釋璨)의 주도로 성사달(成士達)의 서문을 받아 비구 묘덕(妙德)의 주도하에 동할자로 인쇄한 바 있다. 그러나 흥덕사의 활자 인쇄는 그 속성상 인쇄 부수가 한정되고 다시 인쇄하기도 어려워 판하본(板下本)을 마련하여 다시 새긴 것이다. 이 판본은 우왕 4년에 백운화상이 입적(入寂)한 취암사에서 제자인 법린 등이 주관하여 이색(李穡 : 1328~1396)의 서문을 붙이고 정순대부판통예문사(正順大夫判通禮門事) 김계생(金繼生) 등의 시주를 받아 목판으로 간행한 책이다. 이 때 판하본은 민암(民庵), 선화(禪和) 등이 썼고 흥덕사 주자본(鑄字本)의 시주자였던 묘덕도 참여했다.



불조직지심체요절 표지

而重達際上人清姑以鄰
 辭書諸卷首云宣光七
 年丁巳三月日推忠協理
 功臣奎大匡昌山君成士達
 兼著序

白雲和尚抄錄佛祖直指心體要節卷上

毗婆尸佛過去莊嚴劫偈曰

身從无相中受生猶如幻出諸形相
 多人心識本來无罪福皆空无兩住

尸棄佛同前劫偈曰

起諸善法本是多造諸惡業亦是幻身如聚沫
 心如風幻出无根无實相如云幻起无根即實相是了妄即真

毗舍浮佛同前劫偈曰

假借四大以為身心本无生因境有前境若无心亦
 无罪福如幻起亦滅如云心本无形托境方生境性亦空心

拘留孫佛現在賢劫第一偈曰

원릉군 원균 선무공신 교서

Wolleunggunwongyunseonmugongsingyoseo

Royal certificate of meritorious subject for Won Gyun

原陵君元均宣武功臣教書

- 문화재종별 : 보물 제 1133 호
- 지정년월일 : 1992년 4월 20일
- 시대 : 조선 선조 37년(1604)
- 규모·재질 : 1축-가로 272cm, 세로 37.9cm
- 소재지 : 평택시 도일동 480
- Classification | Treasures 1133
- Designated Date | 1992, 4, 20
- Age | King Seonjo of Joseon Period

조선 선조(宣祖) 37년(1604) 10월에 국왕이 임진왜란(1592~1598) 때 해전에 전공을 세운 원릉군 원균(1540~1597)에게 포상으로 선무공신 1등을 내린 상훈교서(賞勳敎書)이다. 선조 37년 정월 18일에 국왕이 원균의 영위(靈位)에 예관(禮官)을 보내어 제사 지내게 한 치제문(致祭文)이 첨부되었다. 교서 1축(軸), 치제문 1건이며 필사본(筆寫本)이다. 공신교서는 가로 272cm, 세로 37.9cm이며 명주 바탕에 붉은 색의 선을 그어 해서체(楷書體)로 묵서(墨書)하였으며, 끝머리의 발급년월일 위에 정방형의 어보(御寶)가 찍혀 있다. 원균은 명종(明宗)~선조대의 무신으로 본관은 원주(原州)이다. 무과에 급제하여 임진왜란 때 경상우수사(慶尙右水使)로서 왜적을 격파하고 정유재란(丁酉再亂, 1597) 때 통제사(統制使)로서 출전했다가 패전하여 죽었다. 선조 37년 선무공신 1등에 추록(追錄)되고 좌찬성(左贊成)에 추증(追贈), 원릉군에 추봉되었다. 교서의 내용은 원균의 공적 사례, 포상과 특전이 서술되어 있고, 뒤에 공신의 명단, 사실 증명 등을 차례로 적고 있다. 특전과 포상 내용은 원균에게는 2계급의 작위를 올려주고 부모와 아내, 아들 또한 2계급씩 올려 주며 적장(嫡長)이 세습하여 녹을 받고 영세(永世)토록 면직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으며 이어서 노비 13구(口), 전지 150결(結), 은(銀) 10냥, 옷감 1단(段), 내구마(內丘馬) 1필을 하사하고 있다. 치제문은 선조 38년(1605) 정월 18일에 국왕이 예조정랑(禮曹正郎) 류성(柳愷)을 보내어 원균의 영위에 제사 지내게 한 글을 담은 것이다. 이 문서는 원균의 전기적 자료이며 임진왜란사 연구의 사료이다.



선조 치제문



선무공신 명단

教

資憲大夫知中樞府事贈忠愍我迪毅協力宣武功臣崇祿大夫議政府左贊成兼判義禁府事原陵君元均書

王若曰見危立謹虎臣效敵愾之忠僭爵策勳驚紙舉酬勞之典武中哀贈用獎毅魂惟卿隴石

人持山西將望李輕騎之猿臂百中爭能班定遠之虎頭萬里食肉蛇矛用壯豹略多奇清班

膺執戰之星妙譽藹分符之地紆紫綬於北塞草木知名擁蒼兕於南塢狐狸屏跡屬千三

吞運百六災年海水羣飛鯨鯢滿雕題瘴谷敢為警報

大邦封豕長蛇擬荐食乎

上國邊鄙外聳螽賊內訐唐廟社之西遠音衣

冠之南渡兩賴卿與李舜臣等意氣懸合親謨大同理蓋海之戈松蒼鷹赤爵列連雲之戰

艦鐵軸牙檣營開絕岳之咽唯陣據常山之首尾壯張盜濡瀕之勢激周瑜赤髯之師塵精日不

翅於十圍格閭月惟奏於三捷前後種破倭賊日三十艘斬斃數百泥水死者不知其數再將卒

斬得三百三十七級功勳下瀨名重伏波軍聲

柳應奎

金時敏

李廷範

李億祺

三等

鄭期遠

權 悛

柳思璣

高彥伯

李光岳

趙 徹

權 俊

李純信

奇孝謹

李雲龍



日

정사공신 조운 사여왕지

Jeongsagongsinjoonsayewangji

Royal certificate of meritorious subject for Jo On

定社功臣趙溫賜與王旨

- 문화재종별 : 보물 제 1135 호
- 지정년월일 : 1992년 7월 28일
- 시대 : 조선 정종 원년(1399)
- 규모·재질 : 1폭-가로 80.7cm, 세로 82.4cm(저지)
- 소재지 : 성남시 분당구 운중동 50 한국학중앙연구원
- Classification | Treasures 1135
- Designated Date | 1992. 7. 28
- Age | King Jeongjong of Joseon Period

조선 정종(定宗) 원년(1399) 2월에 국왕이 태조 7년(1398)에 일어난 제1차 왕자의 난 때 세운 정사공신 한천군(漢川君) 조운(趙溫)에게 공전(功田)을 내리는 왕지이다. 1장 필사본(筆寫本)이며 가로 80.7cm, 세로 82.4cm의 닥종이에 총 11줄에 걸쳐 해서체로 묵서(墨書)하였으며 '왕지' '한천군 조운' 및 글의 끝에 '조선 왕보(朝鮮王寶)'라는 어보(御寶)가 각각 찍혀 있으며 맨 끝에 왕지를 받들어 사급(賜給)한 지이조사(知吏曹事) 이문화(李文和)의 서압(署押)이 있다. 왕지 다음에 '추충협찬개국정사공신...한천군조운(推忠協贊開國定社功臣...漢川君趙溫)'이라 제(題)하여 조운의 정사공신 녹권에 기록된 150결(結)의 공전에 대해 그 위치와 결(結)·부(負)·속(束)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이어서 자손이 영구히 전지(傳持)할 수 있는 특권을 적고 있다. 제1차 왕자의 난은 태조 7년에 일어난 왕자 이방원(태종)과 세자 이방석(李芳碩)의 싸움으로 이방원이 주동이 되어 방석 및 그를 옹호하는 정도전(鄭道傳 : 1337~1398) 일파를 제거하고 이에 공을 세운 29명에게 정사공신의 호를 주었는데, 조운은 2등에 선정되었다. 조운은 고려 말에서 태종대까지의 문신으로 본관은 한양(溟陽)이다. 이성계(李成桂 : 1335~1408, 태조)의 조선 건국에 공을 세워 개국공신 2등이 되고 한천군에 봉해졌다. 제1차 왕자의 난에 방원을 도와 정사공신 2등이 되고 제2차 왕자의 난에 방간(芳幹) 등의 군사를 평정했으며 뒤에 좌명공신(左命功臣) 4등 부원군(府院君)에 봉해졌다. 시호는 양절(襄節)이다. 이 문서는 정사공신에게 사여(賜與)한 공전문권(功田文券)으로는 처음 발견된 것으로 이두(吏讀)가 섞여 있어 조선 초기의 역사 연구는 물론, 고문서·이두 연구에도 중요한 자료가 된다. 또한 왕지는 임금의 분부로서, 세종(世宗) 17년(1435) 이전에는 왕지, 그 이후에는 교지(教旨)로 명칭이 바뀌었으며, 새보(璽寶)도 왕지에는 '조선왕보'로, 교지에는 '시명지보(施命之寶)'로 바뀌었다. 새보의 변천을 살피는 자료이기도 하다.



정종하사문권

王命

推忠協贊開國定社功臣才憲大夫高顯閣下府軍器監使兼大司憲知密院使美川君趙

卿天啟年秋八月廿五日

宗社為予的勢重大可曾是去青守以印臣極奉付楊州府上古漢陽軍字丁伍世才未古見州土文字丁拾陸結外拾各日

未人字丁拾陸律拾貳員秋東交河土習字丁拾陸順歌留後司上古湖城軍中位字丁律結拾律員廣州土慶字丁

拾結壹未相字丁內地而拾結壹員未未迎安府土華字丁拾結未拾律員秋大利川土福字丁拾伍結江華土慶字丁拾中

結拾陸員未未瑞原地皇字丁拾結森中土月字丁伍結捌員伍未盈字丁伍拾員秋未水原任內永新土臣字丁拾陸

原任內林任土張字丁伍結金由未未壹伍伍拾壹結未拾捌員七賜與為外不事是予子孫傳將預長有持兄大拾為故

建文元年春月初八日伏奉

王旨安印

都承旨通設大任趙君世宗留再尚瑞月之文歷在冊士印製 敕知事奉林館司官知事官事在事

卷

입학도설

Iphakdoseol

入學圖說

- 문화재종별 : 보물 제 1136 호
- 지정년월일 : 1992년 7월 28일
- 시대 : 조선 세종 7년(1425) 새김(후쇄)
- 규모·재질 : 1책
- 소재지 : 성남시 분당구 운중동 50 한국학중앙연구원

- Classification | Treasures 1136
- Designated Date | 1992. 7. 28
- Age | King Sejong of Joseon Period

고려 말 조선 초의 문신이며 학자인 권근(權近 : 1352~1409)이 성리학(性理學)을 처음 공부하는 사람을 위하여 그 기본적인 원리를 그림을 실어 설명한 책이다. 목판본이며 전후집(前後集) 1책으로 구성되었다. 고려 공양왕(恭讓王) 2년(1390)에 권근이 금마군(金馬郡)에 귀양살이할 때 지은 것이다. 전집은 저자의 수교(手校)를 거쳐 태조(太祖) 6년(1397)에 진양(晉陽)에서 간행하였고, 전집에 후집을 합친 합간본(合刊本)은 저자가 죽은 뒤 그의 아들 권도(權蹈)의 부탁에 의해 세종(世宗) 7년(1425)에 역시 진양에서 간행하였다. 권근의 서문(序文), 정도전(鄭道傳 : 1337~1398)의 지문(識文), 변계량(卞季良 : 1369~1430)의 발문(跋文)이 있다. 이 책은 전후집 합간본으로는 초간본(初刊本)에 해당한다. 중국 송나라 주돈이(周敦頤)의 『태극도설(太極圖說)』을 본뜨고 『중용』·『대학』은 주자장구(朱子章句)를 창작하여 그림을 그린 후 선현(先賢)의 격언을 취하여 그 뜻을 해석했다. 이 밖에도 저자와 배우러 온 사람과의 문답을 덧붙여 기록하고 여러 경전에서 그림을 그려 보일만 한 것을 뽑아 그림을 그려 저자의 의견을 덧붙였다. 전후집에 40종의 도설이 수록되었다. 그 중 중요한 도설은 후대의 이황(李滉 : 1501~1570)·정지운(鄭之雲 : 1509~1561) 등에게 큰 영향을 끼쳐 조선시대 성리학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권근은 고려 말 조선 초의 문신으로 본관은 안동(安東)이며 호는 양촌(陽村)이다. 고려 공민왕(恭愍王) 17년(1368)에 문과에 급제, 예의판서(禮儀判書) 등을 지냈다. 조선이 개국되자 대사성(大司成) 등을 지내고 제1차 왕자의 난 평정 후 좌명공신(左命功臣) 1등 길창부원군(吉昌府院君)에 봉해지고 의정부찬성사(議政府贊成事)에 이르렀다. 시호는 문충(文忠)이다.



표지



入學圖說序

洪武庚午秋謫在金馬郡有一二初學董來
讀庸學二書者語之諄復尚不能通曉乃本
周子之圖參章句之說作圖以示又取先賢
格言以釋其意學者因有所問又隨而答之
仍記其問答之言以附其後名之曰入學圖
說旁取他經凡可作圖者皆圖之往往各附

入學圖說
洪武庚午秋謫在金馬郡有一二初學董來

예념미타도량참법〈권제6~10〉

Yenyeommitadoryangchambeop<Gwonje6~10>

Manual of buddhist ritual for amitabha buddha part 6~10

禮念彌陀道場讖法〈卷第六~十〉

- 문화재증별 : 보물 제 1144 호
- 지정년월일 : 1992년 12월 11일
- 시 대 : 조선 성종 5년(1474)
- 규모·재질 : 5권 1책·가로 22cm, 세로 34.4cm(저지)
- 소 재 지 : 여주군 강천면 이호리 396 목아불교박물관

• Classification | Treasures 1144

• Designated Date | 1992. 12. 11

• Age | King Seongjong of Joseon Period

조선 성종(成宗) 5년(1474)에 세조비(世祖妃)인 정희대왕대비(貞禧大王大妃 : 1418~1483)가 성종비인 공혜왕후(恭惠王后 : 1456~1474) 한씨의 명복을 빌기 위해 간행한 목판본이며 5권 1책이다.

권말에 있는 김수온(金守溫 : 1410~1481)의 발문(跋文)을 보면 글씨는 당시 지중추부사(知中樞府事) 성임(成任 : 1421~1484)이 써서 판각한 것이다. 이 책은 공혜왕후가 돌아가시자, 세종(世宗)·소헌왕후(昭憲王后)·세조·의경대왕(懿敬大王)·예종(睿宗) 등을 추앙하면서 함께 명복을 빌기 위해서 새긴 것이다. 이 때 왕실에서 인수대비(仁粹大妃), 인혜대비(仁惠大妃)를 비롯하여 공주·숙의·상궁 등과 당시의 고승 신미(信眉)·학열(學悅)·학조(學祖) 등과 왕실의 종친들인 월산대군(月山大君), 제안대군(齊安大君) 등이 대거 참여하였다. 또한 당시 일류 화가와 각수(刻手)들인 백종린(白終麟)·이장손(李長孫)·장막동(張莫同)·이영산(李永山) 등이 총동원되어 판각한 것으로 조선시대 전적(典籍) 가운데 가장 뛰어난 목판본이다.

禮念彌陀道場懺法卷第六

誓

禮懺罪障第六

夫禮懺罪障者禮謂禮佛懺謂懺罪真性本空曾無一物
妄心既作遂有萬端罪起之源於斯為最由是三毒內發
十惡外彰舉足盡是無明觸目皆成有漏十二支而因緣
不斷十八界而生滅無窮生天上而每遇五衰慶人間而
常遭八苦無逾六趣難出四生俱屢輪迴未蒙解脫欲成
淨果須懺業因信悲相接則何罪不除凡聖交通則何障
不遣欲入往生之路須歸禮懺之門罪障既以消除身心
必然清淨六門冷落悉亡久翳之塵一性圓明定裁本來
之照但得雪消去自然春到來

今日道場同業大眾前以廣明極樂莊
嚴勝妙樂事隨喜已竟喜躍無量歎未

Yenyeommitadoryangchambeop(Gwonje6~10)

예념미타도량참법(권제6~10)

묘법연화경〈권제1〉

Myobebyeonhwagyeong<Gwonje1>

Saddhārma-puṇḍarīka sūtra part 1

妙法蓮華經〈卷第一〉

- 문화재종별 : 보물 제 1145 호
- 지정년월일 : 1992년 12월 11일
- 시 대 : 조선 태종대
- 규모·재질 : 1권 1첩-가로 10.6cm, 세로 26cm(저지)
- 소재지 : 여주군 강천면 이호리 396 목아불교박물관

- Classification | Treasures 1145
- Designated Date | 1992, 12, 11
- Age | King Taejong of Joseon Period

조선 태종(太宗) 때 신총(信聰)의 글씨로 새긴 목판본으로 1권 1첩이다. 권말의 간기(刊記)는 없었으나, 본문의 서법(書法)으로 보아 조선 태종 원년(1401)에 신총이 태상왕(太上王) 태조(太祖)의 명을 받아 필사한 것을 판각한 『수능엄경』이 보물 제759호로 지정되었고, 『법화경』 권3이 보물 제968호로 지정되어 있다. 이 판본은 권머리에 변상도(變相圖)가 있는 조선 초기의 독자적인 판본이다.



묘법연화경 일부



及到天帝釋 龍世四天王 及大自在天
 并餘諸天眾 眷屬百千萬 恭敬合掌禮
 請我轉法輪 我即自思惟 若但讚佛乘
 眾生沒在苦 不能信是法 破法不信故
 墮於三惡道 我寧不說法 滅入於涅槃
 善念過去佛 所行方便力 我今所得道
 亦應說三乘 作是思惟時 十方佛皆現
 梵音慰喻我 喜我轉迦文 第一之導師
 得是無上法 隨讚一切佛 而用方便力
 我等亦皆得 最妙第一法 為諸眾生類
 分別說三乘 少智樂小法 不自信作佛
 是故以方便 分別說諸乘 雖復說三乘
 但為救世 舍利弗當知 我問聖師子
 深淨微妙音 稱南無諸佛 復作如是念
 我出濁惡世 如諸佛所說 我亦隨順行
 思惟是事已 即趣波羅奈 諸法齊滅相
 不可以言宣 以方便力故 為五比丘說
 是名轉法輪 便有涅槃音 及以阿羅漢
 法僧差別名 從久遠劫來 顯示涅槃法
 生死若水盡 我常如是說 舍利弗當知
 我見佛子等 志求佛道者 無量千萬億
 咸以恭敬心 皆來至佛所 曾從諸佛聞
 方便所說法 我即作是念 如來所以出
 為說佛慧故 今正是其時 舍利弗當知
 鉢提小智人 著相憍慢者 不能信是法
 今我若無畏 於諸菩薩中 正直捨方便
 但說無上道 甚難聞是法 疑網皆已除
 千二百羅漢 應亦當作佛 如三世諸佛
 說法之儀式 我今亦如是 說無分別法
 諸佛興出世 懸遠值遇難 正使出于世
 說是法復難 無量無數劫 聞是法亦難
 能聽是法者 斯人亦復難 譬如優曇華
 一切皆愛樂 天人所希有 則時乃一出
 聞法歡喜讚 乃至發一言 則為已供養
 一切三世佛 是人甚稀有 過於優曇華
 汝等勿有疑 我為諸法王 普告諸大眾
 但以一乘道 教化諸菩薩 無聲聞弟子
 汝等舍利弗 聲聞及菩薩 當知是妙法
 諸佛之秘密 以五濁惡世 但樂著諸欲
 如是等眾生 終不求佛道 當來世惡人
 聞佛說一乘 遂惑不信受 破法誣惡道
 有慳悭清淨 志求佛道者 當為如是等
 廣說一乘道 舍利弗當知 諸佛法如是
 以萬億方便 隨宜而說法 其不習學者
 不能曉了此 汝等既已知 諸佛世之師
 隨宜方便事 無復諸疑惑 心生大歡喜
 自知當作佛 妙法蓮華經卷第一

Myobebyeonhwagyeong(Gwonje1)

묘법연화경(권제1)

대방광불화엄경정원본〈권제24〉

Daebanggwangbulhwaemgyeongjeongwonbon<Gwonje24>

Avatamsaka sutra part 24

大方廣佛華嚴經貞元本〈卷第二十四〉

- 문화재종별 : 보물 제 1146 호
- 지정년월일 : 1992년 12월 11일
- 시대 : 고려시대
- 규모·재질 : 1권 1첩-가로 12.3cm, 세로 30.5cm(저지)
- 소재지 : 여주군 강천면 이호리 396 목아불교박물관

• Classification | Treasures 1146

• Designated Date | 1992, 12, 11

• Age | Goryeo Period

이 책은 『화엄경』중에서 「보현행원품(普賢行願品)」을 따로 반야삼장(般若三藏)이 한역(漢譯)한 정원본(貞元本) 40권 중의 제24권이다.

이 판본은 국보 제206호로 지정된 해인사 소장 고려각판(高麗刻板)에서 인쇄한 것이다. 판각 시기는 12~13세기로 추정되며, 인출(印出)은 감색 표지에 금은니(金銀泥)의 보상화문(寶相花文), 지질(紙質), 인쇄 상태 등으로 미루어 14세기경으로 추정된다. 이미 보물 제1017호로 지정된 정원본(貞元本)과 같은 계봉이나 표장법(裱裝法)에서 보상화문(寶相花文)이 있고 없는 차이를 보여 준다.



隨心樂皆得開悟應時調伏捨不喜業善行
 圓滿善男子當知此由往昔種種大願力故
 具一切智速疾力故善薩解脫廣大力故救
 護衆生大悲力故安樂衆生大慈力故勤求
 隨順不退力故一切如來加持力故作如是
 事善男子我入此解脫了知法性無有差別
 而能示現無量色身於一身顯現無量諸
 色相海於一一相普放無量大光明雲一一
 光明照現無量諸佛刹土一一刹土現無量
 佛出興于世一一如來顯現無量大神通力
 隨諸衆生心行不同開發覺悟宿世善根未
 種者令種已種者令增長已增長者令成熟
 於念念中令無量衆生於阿耨多羅三藐三
 菩提得不退轉安住種種解脫門中

大方廣佛華嚴經卷第二十四

婁俠上餘針切 樵枯上即消切 菜蕪上學光切
 油雲上以周切 膏雨上古勞切 蔽身上必被切
 元旱上抗音 靈洽上張廉切 溝阬上古後切
 堆阜上堆切 撫拘上芳武切 譏苦上居彼切

七

大方廣佛華嚴經卷第二十四

蜀賓國三藏般若奉

梁

入不思議解脫境界普賢行願品

爾時大王知此童女發如是心作如是願觀
 其意樂而告之言童女當知隨汝所欲我皆
 與汝我今所有一切皆捨令諸衆生普得滿
 足一切平等心無分別隨汝所願恣意取之
 特寶光明女信心清淨生大歡喜速疾增長
 一切善根即以妙偈而讚王言

昔此娑羅大城邑 威德聖王未出時
 凡諸事物悉無堪 可畏猶如餓鬼起
 一切衆生相殺害 竊盜姪俠性難調
 虛誑不實廣惡言 雜穢乖離無義語
 常樂貪奪他財物 恒懷瞋毒害害心
 依邪惡見不善行 從此命終墮惡道
 此諸非法衆生類 愚癡黑闇之所迷
 壞滅正法邪見興 由是天龍不降澤
 多歷年歲無時雨 百穀芽莖皆不生
 樹木藥草悉焦枯 大小泉流亦乾竭
 大王昔日未出時 河池及井皆枯涸
 一切園苑盡荒蕪 白骨縱橫積曠野
 今得大王居寶位 惠及一切諸羣生
 油雲膏雨被八方 大地率土皆充滿
 大王出興爲世主 止諸盜賊息奸欺

所有牢獄悉皆空 一切尊獨無憂怖
 昔時世界衆生類 好相殺害起怨讎
 飲血肉恣無厭 今悉慈心互相親
 昔時國內諸衆生 貧窮裸露無衣服
 飢渴衰羸如餓鬼 以草蔽身受寒苦
 大王今既興於世 稻粱甘果自然生
 劫波樹藏出妙衣 一切男女皆嚴飾

劫波樹藏出妙衣 一切男女皆嚴飾

법집별행록절요병입사기

Beopjipbyeolhaengnokjeoryobyongipsagi

法集別行錄節要屏入私記

- 문화재종별 : 보물 제 1148 호
- 지정년월일 : 1993년 1월 15일
- 시 대 : 조선 성종 17년(1486)
- 규모·재질 : 1권 1책·가로 16.3cm, 세로 25.7cm(저지)
- 소 재 지 : 용인시 처인구 남동 산 38-2 명지대박물관

- Classification | Treasures 1148
- Designated Date | 1993, 1, 15
- Age | King Seongjong of Joseon Period

이 책은 고려시대 보조국사(善照國師) 지눌(知訥: 1158~1210)이 수행자들을 위해 저술한 수행지침서(修行指針書)로서, 조선 성종(成宗) 17년(1486)에 광주 무등산 규봉암(圭峯菴)에서 간행한 목판본이다.

『법집별행록절요병입사기』는 지눌이 사상적으로 가장 완숙한 시기라고 할 수 있는 입적(入寂) 한 해 전인 52세(1209년) 때에 집필한 책이다. 그는 교(敎)에 의해 마음을 깨달으려 하는 사람을 위해서 종밀(宗密)의 『법집별행록(法集別行錄)』을 간략하게 줄여 실었다. 또한 자신의 사상을 여러 문헌을 인용하여 수록하면서, 부처의 마음 '공적령지심(空寂靈知心)' 을 바로 깨닫고 만행(萬行)을 닦아 자리타(自利利他)를 갖추어야 올바른 수행자라고 역설하고 있다. 또한 상당한 단계에 있는 수행자가 여러 가지 얇은 피에 걸려서 올바른 수행을 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 경절문(徑截門)의 수행법인 '화두참구(話頭參究)' 를 아울러 밝혀 주고 있다.

이 책은 고려시대 선교통합(禪敎統合)을 이룩하고 정혜쌍수(定慧雙修)의 한국 불교의 전통을 확립한 보조국사 지눌의 전사상(禪思想)이 모인 한국 최고의 철학서로 평가받는다. 또 일찍부터 한국 불교의 강원(講院) 필수 교과목인 사집과(四集科)의 하나로 이용되고 있다. 그리고 이 책의 연구주석서(研究註釋書)로서 정원(淨源)의 『절요사기분석(節要私記分析)』과 추봉(秋鵬)의 『사기(私記)』가 있었고 현재 정혜(定慧)의 『법집별행록절요사기해(法集別行錄節要私記解)』와 유일(有一)의 『법집별행록절요과목병입사기(法集別行錄節要科目并入私記)』 등의 주석서(註釋書)가 전해진다.

『법집별행록절요병입사기』는 이처럼 많은 학승들이 연구하고 주석하였으며, 고승의 저술로서는 가장 많이 간행된 중요한 책이다.



본문 일부



간행기록

倚天長劍寒雲燭 竟滿如來濟子裡
柄在祿家冷眼修 位登菩薩法華球

觀音菩薩 變身示會 憐神呀

寒山頂上月輪孤

照見空一物無

可貴天然無價寶

埋子五盞匡身粒

在

法集別行錄節要并私記

牧牛子曰荷澤神會是知解宗師雖未為曹溪嫡子
然悟解高明決擇了然密師宗承其旨故於此錄中
伸而明之豁然可見今為回教悟心之者除去繁詞
鈔出綱要以為觀行龜鑑予觀今時修心人不依文
字指歸直以密意相傳慶為道則溟洋然徒勞坐睡
或於觀行失心錯亂故須依如實言教決擇悟修之
本末以鏡自心即於時中觀照不枉用功亦又錄中
所載神秀等諸宗在前者辨明得失從淺至深故也
今鈔荷澤宗在初者更令觀行人之居

금문 공민



김희재 공민



신간표제공자가어구해

Singanpyojegongjagaogunhae

Commentary on the doctrine of the mean Gongjagae

新刊標題孔子家語句解

- 문화재종별 : 보물 제 1149 호
- 지정년월일 : 1993년 1월 15일
- 시대 : 조선 태종 2년(1402)
- 규모·재질 : 6권 1책
- 소재지 : 용인시 처인구 남동 산 38-2 명지대박물관
- Classification | Treasures 1149
- Designated Date | 1993. 1. 15
- Age | King Taejong of Joseon Period

「공자가어(孔子家語)는 공자와 당시 벼슬아치 및 72제자들의 문답(問答) 중에 「논어(論語)」에 수록되지 않은 내용을 편집한 것이다. 이 책은 원(元)나라의 왕광모(王廣謨)가 각 장별로 제목을 표시하고 구절마다 해석을 붙인 것이다. 6권 1책이며 목판본이다. 원 태정(泰定) 1년(1324)에 청암서원(淸巖書院)에서 간행한 원판본(原版本)을 수입하여, 조선 태종 2년(1402)에 강원도 도판찰을 역사(江原道都觀察 謝步士) 박은(朴倫 : 1370~1422)이 명하여 강릉에서 번각(飜刻)한 것이다. 간행자 박은은 고려 말 조선 초의 문신으로, 본관은 반남(潘南), 호는 조은(釣隱)이다. 고려 우왕(禑王) 11년(1385) 문과에 급제하여 개성소윤(開城少尹) 등을 지냈다. 조선 시대에 들어와서 단(愼)·호조(戶曹)의 판서(判書) 등을 지냈으며, 1·2차 왕자의 난 때에 공을 세워 좌명공신(左命功臣) 3등으로 반남군(潘南君)에 봉해졌다. 좌의정까지 벼슬이 올랐고 금천부원군(錦川府院君)에 진봉(進封)되었다으며, 시호는 평도(平度)이다. 이 책은 공자어를 이해하는 데 있어 『논어』 다음 가는 전기 자료로서, 총 44편이 수록되었다. 조선 초기의 지방판본(地方官板本)으로 사지학 연구의 귀중한 자료가 다.

魯司冠像



王冠色綠
黃纓紫褶求

新刊素王事紀

目錄

奉定甲子秋蒼巖書院刊行

設拜	頒祝
賜贊	禁淫祀
賜書	賜田
蠲稅役	襲封
世官曲阜	墓給洒掃
墓禁樵採	拜謁滄政

선종영가집<권하>

Seonjongyeonggajip<GwonHa>
Essence of seon/zen buddhism last volume

禪宗永嘉集<卷下>

- 문화재종별 : 보물 제 1163 호
- 지정년월일 : 1993년 6월 15일
- 시 대 : 조선 연산군 1년(1495)
- 규모·재질 : 1권 1책-가로 21cm, 세로 32.8cm(저지)
- 소 재 지 : 하남시

- Classification | Treasures 1163
- Designated Date | 1993. 6. 15
- Age | King Yeonsan of Joseon Period

선종영가집은 당나라의 영가 현각선사(玄覺禪師)가 선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것을 정리한 책에 송나라의 행정이 주를 달고, 정원이 수정하여 항목별로 정리해 놓은 것이다.

이 책은 『선종영가집』에 세조가 토를 달고 신미(信眉) 등이 한글로 번역하여 세조 10년(1464)에 간경도감(刊經都監, 불경을 한글로 풀이하여 간행하기 위해 설치한 기관)에서 목판에 새긴 것을 연산군 1년(1495)에 찍어낸 것이다.

탁종이에 찍은 목판본으로 크기는 가로 21cm, 세로 32.8cm이다.

성종의 계비(繼妃)인 정현대비(貞顯大妃)가 성종의 명복을 빌기 위하여 원각사에서 대대적으로 간행한 경전 중의 하나로, 책의 끝부분에는 고승 학조(學祖)가 쓴 간행기록이 나무활자로 찍혀있다.

이 나무활자는 성종의 명복을 빌기 위하여 간행한 모든 경전에 똑같은 내용의 간행기록을 붙이기 위해 만든 것으로 인경자(印經字)라고 부르며 매우 정교하게 만들었다. 『선종영가집』(보물 제774호)의 권하와 동일한 판본으로 인쇄가 정교하고 종이질이 좋아 책의 품위가 돋보인다.



간행기록

남은 유서분재기 부 남재 왕지

Nameunyuseobunjaegibunamjaewangji

Document transferring properties of Nam Eun and royal decree document for Nam Jae

南閻遺書分財記附南在王旨

- 문화재종별 : 보물 제 1173 호
- 지정년월일 : 1993년 9월 10일
- 시대 : 유서-조선 태조 연간, 왕지-조선 태종 15년(1415)
- 규모·재질 : 유서 1점-가로 59.5cm, 세로 24cm
왕지 1점-가로 85.7cm, 세로 23cm
(유서-저지, 왕지-유지)
- 소재지 :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창리 167
- Classification : Treasures 1173
- Designated Date : 1993. 9. 10
- Age : Document transferring properties-King Taejo of Joseon Period, Royal decree document-King Taejong of Joseon Period

보물 제1173호는 남은(南閻 : 1354~1398)의 유서(遺書)와 남재(南在 : 1351~1419)에게 내려진 왕지(王旨)가 두 부분으로 되어 있다. 먼저 남은의 유서에 대해 살펴본다. 남은은 조선 건국 때 공을 세워 개국공신(開國功臣) 1등이 되었는데 태조(太祖) 7년(1398) 제1차 왕자의 난 때 이방원(태종)의 공격을 받아 죽었다. 유서는 이처럼 생사를 기약할 수 없는 급박한 상황에서 직접 쓴 것으로서, 총 35행이며 초서체(草書體)로 적었다. 유서의 끝에 남은과 그의 부인을 기록하였고, 증인으로 남은의 형인 남재를 비롯한 4명을 기록하였다. 내용은 조상의 제사를 모시는 일과 개국공신으로 받은 전답을 포함한 재산을 나누는 일이다. 따라서 유서는 재산을 나누는 문서, 즉 분재기(分財記)이기도 하다. 이 유서는 조선 초기의 분재기 중 가장 오래된 것으로서 조선 초기의 사회, 특히 가족제도 연구에 중요하다.

남재에게 내려진 왕지는 태종(太宗) 15년(1415) 9월 21일에 남재에게 '수문전대제학세자시(修文殿大提學世子侍)'라는 관직을 주는 국왕의 명령서로서, 원본은 아니고 나중에 베껴 쓴 것이다. 남재는 동생 남은과는 달리 태종과의 관계가 원만하여 평탄한 관직 생활을 한 끝에 태종 16년(1416)에는 영의정에까지 올랐다.

청흥군 이증로 정사공신 교서 및 영정

Cheongheunggunyijungnojeongsagongsingyoseomichyeongjeong
Royal certificate of meritorious subject for Yi Jungro and Portrait of Yi Jungro

青興君李重老靖祀功臣教書 및 影幀

- 문화재종별 : 보물 제 1174 호
- 지정년월일 : 1993년 11월 5일
- 시대 : 조선 인조 3년(1625)
- 규모·재질 : 교서 1점, 영정 1폭(영정 - 견본채색)
- 소재지 : 용인시 기흥구 상갈동 85 경기도박물관

- Classification | Treasures 1174
- Designated Date | 1993, 11, 5
- Age | King Injo of Joseon Period



이증로 영정

이 교서는 인조 3년(1625)에 이증로에게 추증한 것으로 그가 죽은 뒤에 내린 것이다.

교서에는 이증로의 초상을 그려 후세에 길이 남기고 관직을 2계급 올려주었고, 또한 부모, 처자에게도 마찬가지로 2계급 올려주었으며, 큰이들에게는 이증로가 누리던 벼슬의 지위를 영원히 세습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이 담겨있다.

그리고 관에서 일하는 노비와 공신에게 내리는 노비 등을 합쳐 19명의 노비, 밭 80결, 은 30량, 옷감 1단, 말 1필 등을 내리도록 지시하고 있다. 이 교서는 인조반정에 참여한 공신에 대한 포상의 내역을 알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다.

이증로 영정은 오사모에 단령을 입고 의자에 앉은 전신좌상이다. 흉배는 모란 및 해태문양이 수놓인 것을 착용하고 있으며, 학정금대(鶴頂金帶)를 두르고 있어 이 초상화가 무관 종2품 때의 도상임을 말해준다.

이 상의 특징을 들자면, 안면을 비롯하여 상반신은 완전히 7분면인데 반하여 하반신은 거의 8~9분면으로서, 이 시기보다 앞선 선무(宣武), 호성(扈聖), 청난(淸難) 세 공신상들이 왼쪽 단령의 트임만 표시된 데 비하여 이 상은 오른쪽에도 단령의 트임이 살포시 나타나서 상하반신의 취세에 약간 뒤틀림이 보인다.

안면처리법은 안색의 주조색은 옅고 밝은 살빛인데, 이목구비 등 안면의 구성요소 및 외곽은 갈색 선으로 규정하고 다만 윗 눈꺼풀 부위만 검은 세선으로 처리되어 있다. 그리고 골상학에서 말하는 오악(五岳) 부위, 즉 안면골상에서 튀어 나온 부분에만 홍기(紅氣) 내지 적기(赤氣)를 약간씩 빛의 흔적이 보이지 않도록 살짝 칠하였다. 이것은 피부 밑 골(骨)의 구조에 의해 만면의 고심세(高深勢, 높고 낮은 형세)를 표현하고자 한 것으로 이해된다.

단령은 굵고 검은 선으로 전체의 윤곽을 규정하고, 옷주름은 대강 간략히 그려 넣었는데, 아직 주름진 부위의 음영삽입은 시도되어 있지 않다. 바닥에는 화려한 채전(彩纈, 채색 카펫)이 깔려 있는데 이 채전의 높이가 상당히 높아서 고식을 보여주며, 그림 전체에 장중한 느낌을 더해준다.

청원군 심대 호성공신 교서

Cheongwongunsimdaehoseonggongsingyoseo
Royal certificate of meritorious subject for Sim Dae

靑原君沈岱屬聖功臣敎書

- 문화재종별 : 보물 제 1175 호
- 지정년월일 : 1993년 11월 5일
- 시대 : 조선 선조 37년(1604)
- 규모·재질 : 교서 1축
- 소재지 : 용인시 기흥구 상갈동 85 경기도박물관

- Classification | Treasures 1175
- Designated Date | 1993, 11, 5
- Age | King Seonjo of Joseon Period

심대(1546~1592)가 호성공신 2등에 녹훈된 것을 알리는 교서이다. 임진왜란(1592~1598) 때 선조(宣祖)를 모시고 의주까지 가는데 공이 있는 사람들을 선조 37년(1604) 3등급으로 나누어 호성공신으로 녹훈하였다. 1등 2명, 2등 31명, 3등 53명으로 모두 86명이다. 이 교서에는 심대에게 주어지는 포상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다.

심대는 명종(明宗) 원년(1546)에 태어나 선조 25년(1592)까지 활동한 조선 중기의 문신이다. 선조 5년(1572)에 문과에 급제하여 홍문관(弘文館)의 여러 관직을 거쳤다. 선조 25년 승정원(承政院) 관리로서 국왕을 가까이에서 모셨고, 선조를 모시고 평양을 거쳐 의주까지 다녀왔다. 선조 25년 9월 경기관찰사(京畿觀察使)에 임명되어 한양 수복 작전을 세우던 중 삭녕(朔寧)에서 왜군의 야습을 받아 전사하였다. 나중에 이조판서(吏曹判書)에 추증되었고 청원군(靑原君)에 봉해졌다. 시호는 충장(忠壯)이다.



호성공신 명단

一
 二
 三
 四
 五
 六
 七
 八
 九
 十
 十一
 十二
 十三
 十四
 十五
 十六
 十七
 十八
 十九
 二十
 二十一
 二十二
 二十三
 二十四
 二十五
 二十六
 二十七
 二十八
 二十九
 三十
 三十一
 三十二
 三十三
 三十四
 三十五
 三十六
 三十七
 三十八
 三十九
 四十
 四十一
 四十二
 四十三
 四十四
 四十五
 四十六
 四十七
 四十八
 四十九
 五十
 五十一
 五十二
 五十三
 五十四
 五十五
 五十六
 五十七
 五十八
 五十九
 六十
 六十一
 六十二
 六十三
 六十四
 六十五
 六十六
 六十七
 六十八
 六十九
 七十
 七十一
 七十二
 七十三
 七十四
 七十五
 七十六
 七十七
 七十八
 七十九
 八十
 八十一
 八十二
 八十三
 八十四
 八十五
 八十六
 八十七
 八十八
 八十九
 九十
 九十一
 九十二
 九十三
 九十四
 九十五
 九十六
 九十七
 九十八
 九十九
 一百

Cheongwongunsimdaehoseonggongsingyoseo

청원군 심대 호성공신 교서

유수 영정병함

Yusuyeongjeongbyeongham

Yu, Su's portrait and case

柳綏景紳眞并函

- 문화재종별 : 보물 제 1176 호
- 지정년월일 : 1993년 11월 5일
- 시대 : 조선 영조 2년(1726)
- 규모·재질 : 영정 1폭·가로 88cm, 세로 165.5cm(건본채색)
- 소재지 :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일산리 276

• Classification | Treasures 1176

• Designated Date | 1993, 11, 5

• Age | King Yeongjo of Joseon Period

유수(1678~?)는 정국공신(靖國功臣) 유순정(柳順正)의 9대손으로 경종(景宗) 원년(1721)에 문과에 급제하고 1724년에는 통정대부(通政大夫)가 되었다. 호는 성곡(聖谷), 자는 여희(女媿)이다. 이 초상화의 오른쪽 상단에 '사십구세병오년재동래침사진재해모진(四十九歲丙午年在東萊僉使秦再奚摸眞)'이라는 내용이 적혀 있어 영조(英祖) 2년(1726)에 어용화사(御用畫師)였던 진재해(秦再奚 : 1691~1769)에 의해 동래에서 그려진 작품임을 알 수 있다.

초상화는 가로 88cm, 세로 165.5cm의 비단 바탕에 채색이 사용되었다. 높은 사모단령(紗帽團領)의 정장 관복을 입고 공경하는 뜻으로 두 손을 마주 잡은 공수(拱手) 자세를 취한 전신좌상(全身坐像)이다. 단학 문양의 흉배(胸背)와 급금대(級金帶)는 당시 유수의 당하관(堂下官) 품계를 말해 준다. 또한 호피(虎皮) 깔린 의자, 족좌대(足座臺) 위의 발의 모습과 돛자리 문양 등은 영조 연간 초기의 양식적 특색을 잘 반영하고 있다. 얼굴 표현은 이목구비를 선묘(線描) 위주로 처리하였으며, 안면(顔面)의 들어간 부위는 붓을 거듭 칠해 어둡게 함으로써 자연스럽게 명암을 주었다.

화면의 왼쪽 상단에는 그가 62세 되던 진갑(進甲)날 쓴 자찬문(自撰文)이 적혀 있는데, 세속에 굴하지 않고 강직하면서도 온화한 그의 성품이 잘 드러나 있다.



영정함



聖旨柳公諱鏐字汝懷 乙酉生進 庚寅陞任 辛丑文科
 中辰通政 生於 肅宗四年戊子正月初七日亥時

四十九歲丙午在東萊 傳西王鎮命使奉葬恭哀

畫像自書

勿執老朽 採心忍性 至任科第 傲骨脫膜 不阿於世
 零丁一身 備嘗艱辛 祇為悅親 跡謝安津 不媚於人
 滿汗積黃 退守先廬 稼圃莖菜 丘壑適意 可月樓中
 動輒逢噴 樂道安貧 棋釣社編 棟宇葺新 島九角巾
 杜阮墳典 庶幾無詐 戲倚畫手 竹風掃月
 志負名臣 為子為臣 七念當真 想像精神

六十二歲己未正月初七日自書

Yusuyeongjeong

유수 영정

오명항 영정병합 부양무공신 교서

Omyeonghangyeongjeongbyeonghambuyangmugongsingyoseo
Royal certificate of meritorious subject for O Myeonghang and his portrait and case

吳命恒景頌并函附揚武功臣敎書景頌

- 문화재종별 : 보물 제 1177 호
- 지정년월일 : 1993년 11월 5일
- 시대 : 조선 영조 4년(1728)
- 규모·재질 : 영정 1폭·가로 1.03m, 세로 1.74m, 교지함 1점, 교서 1축(영정-견본채색)
- 소재지 : 용인시 기흥구 마북동 245
- Classification | Treasures 1177
- Designated Date | 1993, 11, 5
- Age | King Yeongjo of Joseon Period

조선 영조(英祖) 4년(1728) 오명항(1673~1728)이 분무공신(奮武功臣)이 되었을 때 그려진 초상화와 그 보관함, 오명항이 분무공신 1등에 녹훈되었다는 사실을 오명항에게 알린 교서이다. 영조 4년 이인좌(李麟佐 : ?~1728)와 정희량(鄭希亮 : ?~1728) 등이 일으킨 반란을 진압한 공로가 있는 사람들을 분무공신과 분무원종공신(奮茂原從功臣)에 녹훈하였는데 분무공신은 총 15명이고 분무원종공신은 약 6,000여 명이다. 분무공신은 1등 1명, 2등 7명, 3등 7명으로 오명항은 1등이었다. 명나라 의종(毅宗)의 휘호와 겹친다는 이유로 분무공신 명칭은 영조 40년(1764)에 양무공신(揚武功臣)으로 바뀌었다. 따라서 이 교서도 '분(奮)' 자를 '양(揚)' 자로 바꾼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다.

오명항의 영정은 전형적인 공신화첩(功臣畫帖)으로서 오명항이 분무공신 1등에 책봉되었을 때인 영조 4년 무렵에 “도형(圖形)을 후세에 길이 남기라.”는 규정에 따라 그려진 것으로 보인다. 분무공신 중에는 오명항 외에도 조문명(趙文命 : 1680~1732)·권희학(權熹學 : 1672~1742)·김중만(金重萬 : 1681~1755) 등의 영정이 전해진다.



양무공신 교서

반야바라밀다심경약소

Banyabaramildasimgyeongyakso

Prajna-paramita sutra

般若波羅密多心經略疏

- 문화재종별 : 보물 제 1211 호
- 지정년월일 : 1994년 10월 17일
- 시대 : 조선 세조 10년(1464)
- 규모·재질 : 1권 1책·가로 31cm, 세로 19.1cm(저지)
- 소재지 : 동두천시 상봉암동 1 차재암

- Classification | Treasures 1211
- Designated Date | 1994. 10. 17
- Age | King Sejo of Joseon Period

당나라 현장(玄奘)이 번역한 『반야바라밀다심경』에 대한 주석서(註釋書)이다. 법장(法藏)의 『반야심경약소(般若心經略疏)』에 송나라 중희(仲希)의 「현정기(顯正記)」를 붙인 것을 교정하여 국역한 책이다. 권머리에 「금강경심경전(金剛經心經箋)」이 붙어서 세조(世祖) 10년(1464)에 『금강경』과 함께 간경도감(刊經都監)에서 간행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권말의 한계희(韓繼禧 : 1423~1482) 발문에 의하면 왕명으로 효령대군(孝寧大君 : 1396~1486)과 함께 고승(高僧)의 도움을 받아 교정하고 국역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 책은 교정인(校正印)이 찍혀 있으며 보물 제771호로 지정된 서울대학교 도서관 소장본에 없는 전(箋)이 붙어 있고 보존 상태도 양호하다.



반야심경약소



발문

般若心經疏顯正記 并序
 縉雲沙門釋 仲希 述
 予嘗輒以賢首大師般若心經疏注於經文之下
 無治科文又述記一卷釋之目曰顯正文華無取
 蓋逃學者忽忘之患豈敢呈諸先覺云爾時
 皇宋慶曆四年歲次甲申季冬月朔日序
 釋疏分二初題目
 二初經疏總題
 般若波羅蜜多心經略疏 并引十字之題能所
 餘為所解經字為能詮上皆所詮心字為能喻上
 皆所喻今摠取一經之題為疏之別名疏即通名
 也般若心經之疏依主受稱般若等八字如下開
 題處釋言略疏者以此疏但釋經文大旨更不妄
 明三科境智等諸法名體故云略也又簡非解廣
 部但釋略本亦名略也疏者疎也決也疎通經文

般若心經疏顯正記 并序
 縉雲沙門釋 仲希 述
 予嘗輒以賢首大師般若心經疏注於經文之下
 無治科文又述記一卷釋之目曰顯正文華無取
 蓋逃學者忽忘之患豈敢呈諸先覺云爾時
 皇宋慶曆四年歲次甲申季冬月朔日序
 釋疏分二初題目
 二初經疏總題
 般若波羅蜜多心經略疏 并引十字之題能所
 餘為所解經字為能詮上皆所詮心字為能喻上
 皆所喻今摠取一經之題為疏之別名疏即通名
 也般若心經之疏依主受稱般若等八字如下開
 題處釋言略疏者以此疏但釋經文大旨更不妄
 明三科境智等諸法名體故云略也又簡非解廣
 部但釋略本亦名略也疏者疎也決也疎通經文

Banyabaramildasimgyeongyakso

반야바라밀다심경약소

묘법연화경〈권제7〉

Myobebyeonhwagyeong<Gwonje7>

Saddharma-pundarika sutra part 7

妙法蓮華經〈卷第七〉

- 문화재종별 : 보물 제 1225 호
- 지정년월일 : 1995년 7월 19일
- 시 대 : 조선시대
- 규모·재질 : 1책-가로 23cm, 세로 32.5cm(저지)
- 소 재 지 : 김포시 풍무동 159-1 중앙승가대학교

- Classification | Treasures 1255
- Designated Date | 1995, 7, 19
- Age | Joseon Period

묘법연화경은 줄여서 '법화경'이라고 부르기도 하며, 부처가 되는 길이 누구에게나 열려있다는 것을 중심사상으로 하고 있다. 천태종의 근본경전으로 화엄경과 함께 한국 불교사상 확립에 중요한 영향을 끼친 경전이다.

이 책은 닥종이에 찍은 목판본으로 크기는 가로 23cm, 세로 32.5cm이며, 2책으로 만든 권7의 내용 중 뒷부분에 해당한다.

세조 때 불경을 한글로 풀어 쓰는 작업을 위해 설치한 간경도감(刊經都監)에서 간행한 것이다. 본문과 계환(戒環)이 해석을 달아놓은 부분은 한글로 풀어쓰고 있으며, 책 끝에는 만들게 된 경위를 적은 김수온(金守溫: 1333~1382)의 글이 있다.

세조 9년(1463)에 간경도감에서 목판에 새긴 것을, 성종 3년(1472)년에 인수대비가 세조·예종·의경왕·인성대군의 명복을 빌기 위한 목적에서 찍어낸 것이다.

당시 인수대비가 찍어낸 29종의 불경 중 묘법연화경이 간경도감에서 간행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귀중한 자료이다.



표지

청자음각반룡문주자

Cheongjaeumgakballyongmunjuja

Celadon pitcher incise with dragon design

靑磁陰刻蟠龍文注子

- 문화재종별 : 보물 제 1228 호
- 지정년월일 : 1995년 12월 4일
- 시 대 : 고려시대(12세기)
- 규모 · 재질 : 높이 21.1cm, 구경 6.7cm, 저경 8.4cm(청자)
- 소재지 :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가실리 204 호암미술관

- Classification | Treasures 1228
- Designated Date | 1995, 12, 4
- Age | Goryeo Period(12C)

고려시대 만들어진 청자 주전자로 높이 21.1cm, 구경 6.7cm, 저경 8.4cm이다. 하늘에 오르기 직전 땅에 앉아있는 용(반룡) 모양을 새겼다고 하여 반룡문주자로 불린다.

크기에 비해 아가리 지름이 넓으며, 전체적으로 안정된 형태를 이루고 있는 몸통과 손잡이가 있는 병모양의 주전자이다. 물을 따르는 주구와 몸통은 번개무늬 띠를 2곳에 둘러 크게 3등분 되어 있다.

반룡문은 몸통의 위쪽 2부분에 앞·뒤로 한 마리씩 모두 4마리가 새겨 있는데, 한마리는 아가리가 긴 삼각형의 얼굴이며, 다른 한마리는 사각형이어서 암수를 표현한 것으로 생각된다.

아가리 지름이 넓고 목부분은 짧고 굵은 병모양의 몸통과 밖으로 벌어진 낮은 굽, 손잡이 상부의 꺾음, 힘차게 뻗은 아가리에서 금속제 주전자를 모델로 했다고 보여진다. 정교하게 처리된 번개무늬와 반룡문에서 12세기 전반에 제작된 우수한 청자임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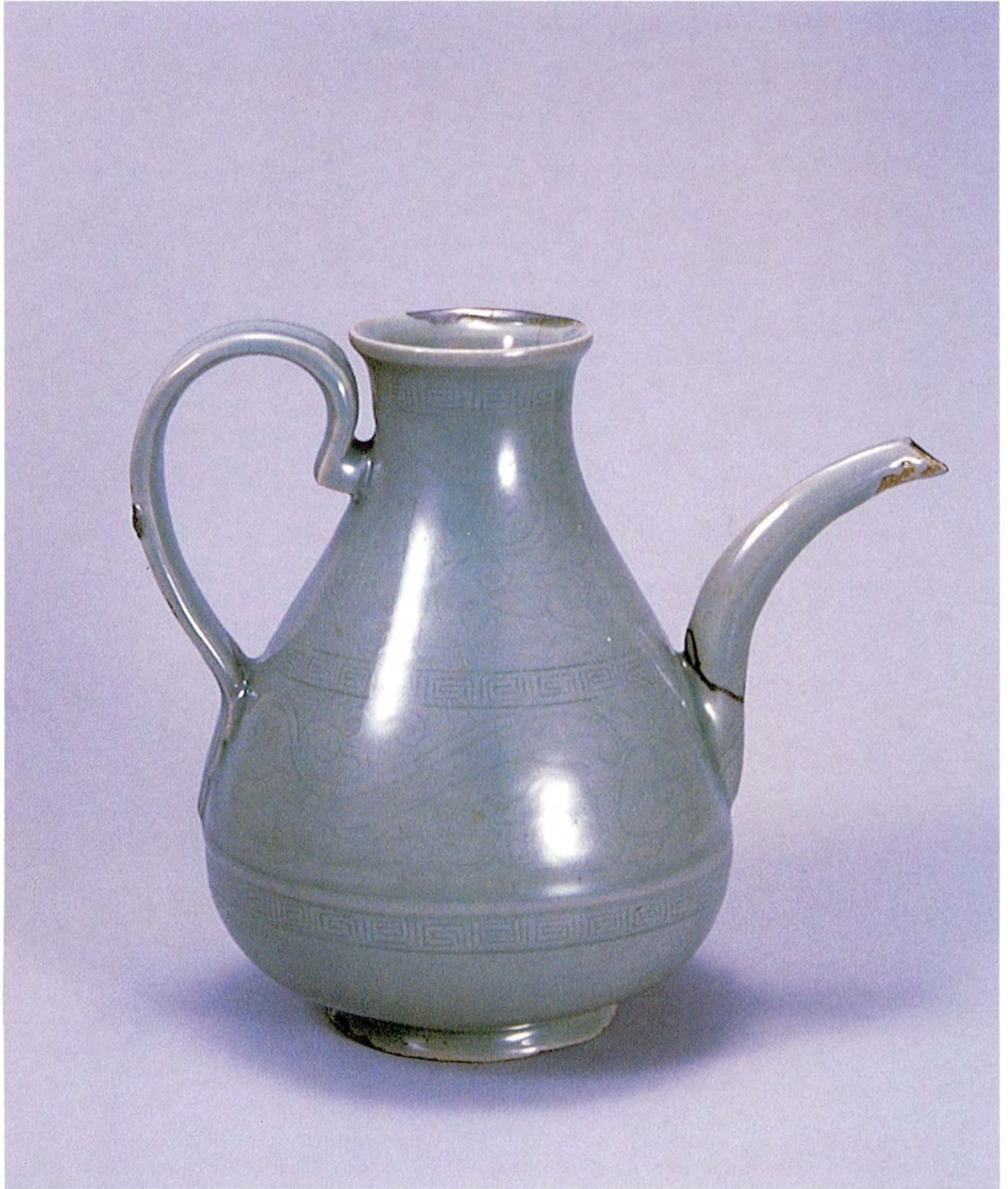
이러한 형태의 주전자는 지금까지 그 유래가 알려지지 않은 특이한 형태로 전라남도 강진의 가마에서 제작된 것으로 보인다.



구연부



바닥



Cheongjaeumgakballyongmunjuja

청자음각반룡문주자

분청사기조화절지문편병

Buncheongsagijohwajeoljimunpyeonbyeong
Buncheong pyeonbyeong(vase) with flower and branch design

粉靑沙器彫花折枝文扁瓶

- 문화재종별 : 보물 제 1229 호
- 지정년월일 : 1995년 12월 4일
- 시 대 : 조선시대(15세기)
- 규모·재질 : 높이 20.5cm, 구경 5cm, 저경 8.3cm(분청사기)
- 소 재 지 :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가실리 204 호암미술관

- Classification | Treasures 1229
- Designated Date | 1995. 12. 4
- Age | Joseon Period(15C)

조선시대 만들어진 두 면이 납작한 높이 20.5cm, 구경 5.0cm, 저경 8.3cm인 편병이다.

이 병은 물레로 둥글게 만든 다음 앞·뒤를 두들겨 평평하게 만든 것으로, 몸통이 풍만하며 비교적 두껍게 백토를 발랐다. 문양을 보면 아가리 주위에는 연꽃무늬로 띠를 둘렀고, 몸통의 앞·뒤 평평한 면에는 연꽃을 표현하였고, 좌우에는 풀을 새겨 넣었다.

얇은 녹색의 유약이 전면에 고르게 잘 녹아들어 투명하며, 굽이 높고 밖으로 약간 벌어져 안정감을 준다. 조선시대 작품으로 풍부한 양감과 문양이 잘 어울리는 중요한 자료이다.



구연부



바닥



Buncheongsagijohwajeoljimunpyeonbyeong

분청사기조화절지문편병

백자상감연당초문병

Baekjasanggamyehandangchomunbyeong

白磁象嵌蓮唐草文瓶

- 문화재종별 : 보물 제 1230 호
- 지정년월일 : 1995년 12월 4일
- 시 대 : 조선 전기
- 규모 · 재질 : 높이 29.9cm, 구경 6.9cm, 저경 8.5cm(백자)
- 소 재 지 :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가실리 204 호암미술관

- Classification | Treasures 1230
- Designated Date | 1995. 12. 4
- Age | Early Joseon Period

조선시대 만들어진 높이 29.9cm, 구경 6.9cm, 저경 8.5cm의 연질 백자이다.

연질백자는 표면이 단단하지 않으며, 유약이 쉽게 떨어진다. 아가리는 나팔같이 밖으로 벌어져 있다. 좁아진 목부분을 지나면서 서서히 팽창하여, 몸 아랫부분이 팽배되었다가 좁아져 굽에 이른다.

어깨부분에는 덩굴무늬를 중심으로 아래·위 2줄의 횡선을 흑상감했고, 몸통에는 먼저 3곳에 연꽃을 배치하고 충분한 여백을 두면서 덩굴무늬를 사이사이에 흑상감하였다. 상감한 선의 굵기가 일정하여, 단정하고 깔끔한 느낌을 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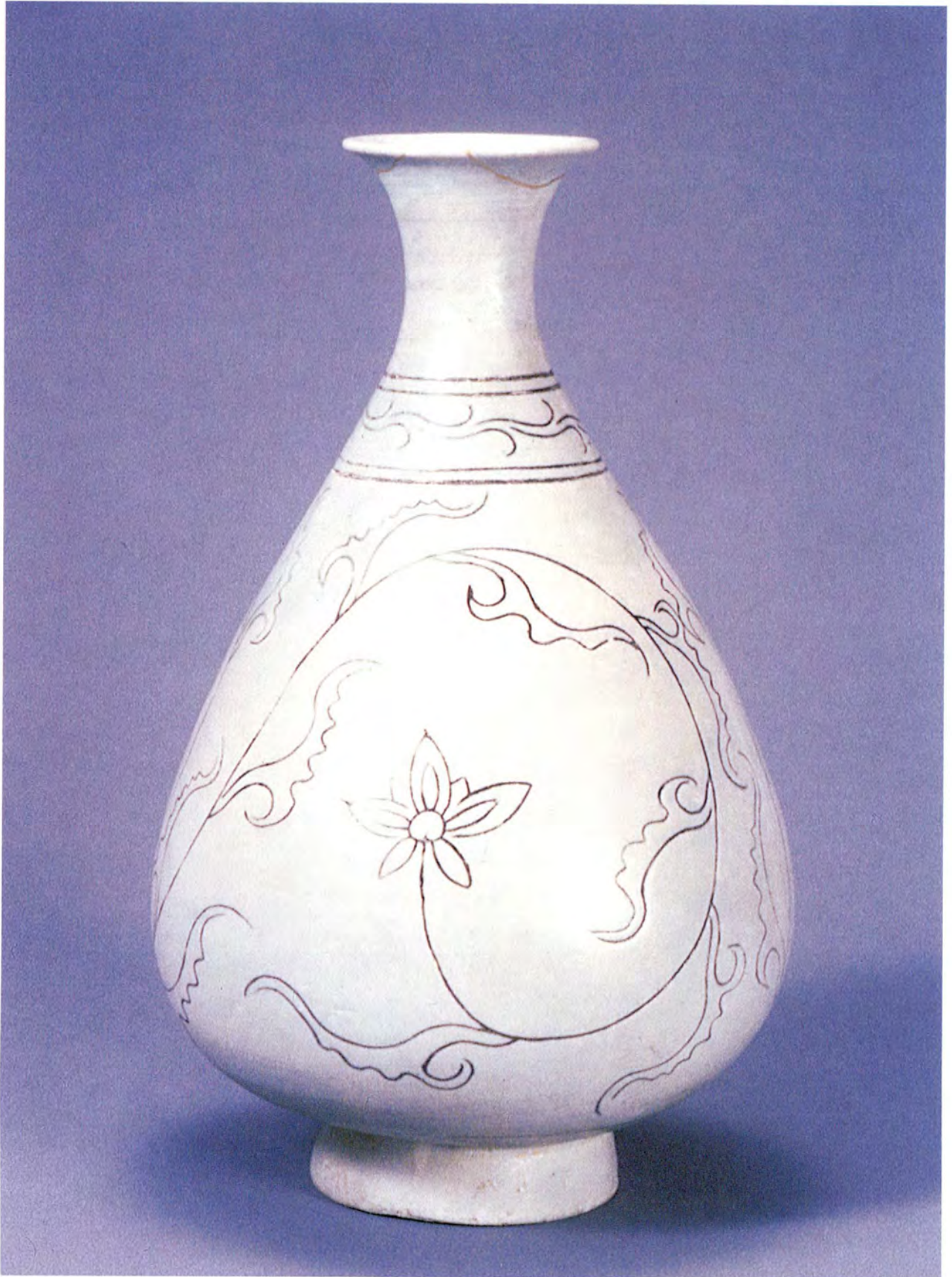
이 병은 백자상감초화문편병(국보 제172호), 백자상감모란문병(보물 제807호)과 형태와 문양이 유사하여, 조선백자의 계보를 파악하는데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된다.



구연부



바닥



Baekjasanggamyedangchomunbyeong

백자상감연당초문병

백자철화운죽문호

Baekjacheolhwaunjungmunho

White porcelain jar with cloud and bamboo design underglaze iron

白磁鐵畫雲竹文壺

- 문화재종별 : 보물 제 1231 호
- 지정년월일 : 1995년 12월 4일
- 시 대 : 조선 중기
- 규모·재질 : 높이 33.2cm, 구경 16.8cm, 저경 15.2cm(백자)
- 소재지 :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가실리 204 호암미술관

- Classification | Treasures 1231
- Designated Date | 1995. 12. 4
- Age | Middle Joseon Period

조선시대 만들어진 높이 33.2cm, 구경 16.8cm, 저경 15.2cm의 항아리로, 동체 중앙의 팽배된 부분에 접합 자국이 있다.

아가리는 작은 각을 이루고 있으며, 아가리 둘레가 몸통의 아랫 부분보다 커서 조선 중기의 형태임을 알 수 있다. 아가리 주위에는 10개의 커다란 구름으로 구성된 구름무늬 띠가 있으며, 그 아래로 역시 10개의 작은 구름으로 이루어진 띠가 있다.

몸통 아랫부분에도 6개의 구름으로 이루어진 구름무늬가 있다. 몸통 중앙에는 산화철 안료를 사용하여 대나무무늬를 그렸다. 유약은 얇으나 잘 녹아 투명하고, 유면을 흐르는 색은 회백색이다.

조선시대 철화백자는 전기에도 만들어졌으나 그 예가 많지 않으며, 임진왜란(1592~1598) 이후인 17세기경에 부족한 청화안료에 대체되어 많이 만들어졌다. 이 항아리는 형태가 크고 당당하며 문양을 그린 필치가 주저함이 없이 유려하여 보는 이로 하여금 시원함을 느끼게 한다.

이 도자기는 조선 중기 철화백자의 전형을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자료로 평가된다.



구연부



바닥



Baekjacheolhwaunjungmunho

백자철화운죽문호

칠장사 삼불회 괘불탱

Chiljangsasambulhoegwaebultaeng

Triad buddhist painting in Chiljangsa Temple

七長寺三佛會掛佛幀

- 문화재종별 : 보물 제 1256 호
- 지정년월일 : 1997년 6월 12일
- 시 대 : 조선 숙종 36년(1710)
- 규모·재질 : 길이 6.28m, 폭 4.54m(건본채색)
- 소재지 : 안성시 죽산면 칠장리 764 칠장사

- Classification | Treasures 1256
- Designated Date | 1997. 6. 12
- Age | King Sukjong of Joseon Period

이 탱화는 가로 6.28m, 세로 4.54m 크기의 화폭 위에 군집도(群集圖) 형식으로 영산회(靈山會)를 도회한 것이다. 화기에 의하면 대영산회(大靈山會) 괘불 1부와 미타회(彌陀會) 괘불 1부, 현왕탱화 1부 등과 함께 비구 탄명이 부모를 위하여 조성하였다고 한다. 전체적으로 짙은 녹색과 홍색, 청색 위주로 채색되었고 간간이 금박이 사용되어 짜임새 있게 구성되었다. 거신광배(擧身光背)에 결가부좌(結跏趺坐)한 석가불을 중심으로 팔대보살(八大菩薩), 십대제자(十大弟子), 사리불(舍利佛), 제석(帝釋)과 범천(梵天), 사천왕(四天王), 벽지불(辟支佛), 금강역사(金剛力士) 등의 협시(脇侍)들이 겹겹이 그려져 있다.

수미단 아래에는 사리불이 법문을 청하고 있으며 문수·보현보살과 나머지 보살들도 본존과 같은 얼굴 표정을 짓고 각기 합장한 모습을 취하고 있다. 제석과 범천은 약간 작은 크기로 얼굴 채색을 달리하여 보살들과 구별하였다.

상단에는 화면을 구획하는 보탑 사이로 노사나불(盧舍那佛)과 아미타불(阿彌陀佛)이 그려져 있다. 이중원광(二重圓光)의 노사나불과 아미타불이 각기 협시를 거느리고 배치되었는데 노사나불은 보살형으로 보관과 영락 장식, 설법인(說法印)의 모습이며 아미타불은 지장보살과 대세지보살 등 사대보살이 협시하고 있다.

최상단에는 용왕, 용녀, 야차, 건달바, 아수라, 가루라 등이 배치되어 있고 가운데에는 반월형의 광배 안에 9구의 보살과 좌우 5구씩十方諸佛(十方諸佛)이 천상 세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 괘불은 하단은 영산회상도, 상단은 노사나불과 아미타불을 묘사하고 있는데 상단을 떼어 내도 단독의 영산회상도를 보여 주는 독특한 도상이다. 이러한 구성은 조선 후기에 유행하는데 대형 불전에 봉안되는 삼세불이 역할을 한 화면에 나타내고 있어 후기 불화 연구에 귀중한 작품이다.



Chiljangsasambulhoegwaebultaeng

칠장사 삼불회 괘불탱

청룡사 영산회 괘불탱

Cheongnyongsayeongsahogwaebultaeng
Buddhist painting in Cheongnyongsa Temple

靑龍寺靈山會掛佛幀

- 문화재종별 : 보물 제 1257 호
- 지정년월일 : 1997년 8월 8일
- 시대 : 조선 효종 9년(1658)
- 규모·재질 : 길이 9m, 폭 6.56m(견본채색)
- 소재지 : 안성시 서운면 청룡리 28 청룡사

- Classification | Treasures 1257
- Designated Date | 1997. 8. 8
- Age | King Hyojong of Joseon Period

이 탕화는 길이 9m, 폭 6.56m 크기의 화폭 위에 군집도(群集圖) 형식으로 영산회(靈山會)를 도회한 것이다. 화기(畵記)에 의하면 병옥(明玉) 등의 화원이 그렸음을 알 수 있다. 주존(主尊)은 석가불이며 석가불을 중심으로 육대보살(六大菩薩), 십대제자(十大弟子), 제석(帝釋)과 범천(梵天), 사천왕(四天王), 팔부중(八部衆), 벽지불(辟支佛)이 그려져 있다. 짙은 적색과 청색 위주로 채색된 그림의 화면은 전체적으로 무거우나 상단의 화려한 천상 세계와 하단의 상서로운 구름과 화문(花文)이 복잡한 구도를 여유 있게 만들고 있다.

화면 구성은 거신형(擧身形) 광배에 걸가부좌(結跏趺坐)한 석가불이 아미타구품인(阿彌陀九品印)이 수인을 취하고 있고 제석과 범천, 보살중(菩薩衆), 사리불(舍利佛)이 V자형 구도로 석가불을 협시하고 있다. 제석은 화관(花冠)을 쓴 보살의 모습을 취하고 있으며 범천은 원류관(遠遊冠)에 홀을 든 제왕(帝王)의 모습이다. 육대보살은 문수보살, 보현보살, 관음보살, 대세지보살(大勢至菩薩)과 이보살(二菩薩)로서 문수와 보현보살은 연꽃가지와 서책을 엮은 연꽃가지를 들고 있으며 관음과 옥세지보살은 화불(化佛)과 정병(淨瓶)을 봉안한 화관을 쓰고 있다. 이보살은 합장한 모습을 취하고 있다. 그 뒤로 제자상이 그려져 있는데 아난(阿難)과 가섭존자(迦葉尊者)만이 두광(頭光)에 합장한 모습이고 나머지 제자상들은 두광없이 배치되어 있다.

상단에 7구의 화불과 보개(寶蓋) 좌우의 보살형 화불, 용왕(龍王)과 용녀(龍女), 야차(夜叉)와 건달바(乾闥婆), 아수라(阿修羅)와 가루라(伽樓羅) 등이 머리 부분만 그려졌다. 제자상 좌우에 4구의 금강역사상(金剛力士像)을 제자상과 같은 크기로 표현하였다. 이 탕화는 조선시대 불화 연구의 귀중한 자료이다.



Cheongnyongsayeongsahoegwaebultaeng

청룡사 영산회 괘불탱

조영복 영정

Joyeongbokyongjeong
Portrait of Jo Yeongbok

趙榮福景仲眞

- 문화재종별 : 보물 제 1298 호
- 지정년월일 : 1999년 12월 15일
- 시대 : 유복상-조선 경종 4년(1724), 공복상-조선 영조 1년(1725)
- 규모·재질 : 유복상-길이 125cm, 폭 76cm, 공복상-길이 154cm, 폭 79cm(건본채색)
- 소재지 : 용인시 기흥구 상갈동 85 경기도박물관
- Classification | Treasures 1298
- Designated Date | 1999, 12, 15
- Age | Confucian uniform-King Gyeongjong of Joseon Period, Official uniform-King Yeongjo of Joseon Period

조선 숙종 때의 문신인 조영복(1672~1728)의 초상화 2점으로 하나는 흰색의 도포를 입고 있는 모습이고, 다른 하나는 공복을 입고 있는 모습이다. 조영복은 조선 숙종 31년(1705)에 과거에 합격하여 여러 벼슬을 지냈다.

도포를 입은 모습의 초상화는 동생인 조영석(趙榮錫 : 1686~1761)이 그린 것으로 길이 125cm, 폭 76cm 크기이며, 앉아 있는 전신상이다. 오른쪽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인데, 조선 초상화에서는 드물게 양손이 나와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 영정은 유학자의 기품이 잘 드러난 사대부의 모습을 생생하고 실감나게 담아낸 매우 가치있는 그림이다.

다른 하나의 초상화는 공복을 입은 모습으로 의자에 앉아 오른쪽을 향하고 있다. 길이 154cm, 폭 79cm의 크기의 이 그림은 당대 유명한 화가인 진재해(秦再奚 : 1691~1769)가 그린 것인데, 세밀하고 정교한 묘사가 돋보이며 17세기 말에서 18세기 초 공신상의 모습을 잘 반영하고 있다.

도포를 입은 모습의 초상화는 경종 4년(1724)에 그리고, 그 이듬해인 영조 1년(1725)에 공복을 입은 모습의 초상화를 그렸다.

같은 시기에 동일한 인물을 그린 두 영정은 그림의 성격과 특성을 비교해볼 수 있는 좋은 자료이다.



유복상



Joyeongbokyeongjeong

조영복 영정

청룡사 감로탱

Cheongnyongsagamnotang

靑龍寺甘露幀

- 문화재종별 : 보물 제 1302 호
- 지정년월일 : 2000년 10월 16일
- 시대 : 조선 숙종 18년(1692)
- 규모·재질 : 가로 200cm, 세로 237.5cm(건본채색)
- 소재지 : 안성시 서운면 청룡리 28 청룡사

- Classification : Treasures 1302
- Designated Date : 2000. 10. 16
- Age : King Sukjong of Joseon Period

감로탱은 조상의 극락왕생을 빌기 위해 그린 불교그림이다.

이 그림은 가로 200cm 세로 237.5cm 크기이며 3단으로 화면구성을 하고 있다.

그림의 맨 윗부분에는 가운데 아미타삼존을 포함한 칠(七)여래와 극락세계로 영혼을 인도하는 인로왕보살 등을 그려 이상세계를 표현하였다. 특히 불·보살의 몸을 금가루로 칠했는데, 이는 다른 불화에서는 거의 그 예를 찾아볼 수 없다.

그림의 중간에는 산수(山水)를 배경으로 영혼이 극락으로 인도되길 기원하는 제사상을 차려 공양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고, 아래부분에는 속세의 여러 장면이 생동감있게 묘사되어 당시 풍속연구에 귀중한 자료가 되고 있다.

조선 숙종 18년(1692)에 제작된 이 불화는 명료한 주제와 안정된 구도, 선명한 색채로 조선 후기 불화 연구에 귀중한 자료일 뿐만 아니라 중생제도와 유교의 효사상 강조에 따른 종교적 의의 또한 매우 크다.



Cheongnyongsagamnotang

청룡사 감로탱

파주 공효공 박중손 묘역내 장명등

Pajugonghyogongbakjungsonmyoyeoknae jangmyeongdeung

坡州恭孝公朴仲孫墓域內長明燈

- 문화재종별 : 보물 제 1323 호
- 지정년월일 : 2001년 9월 21일
- 시대 : 조선시대
- 규모·재질 : 장명등 2기(화강암)
- 소재지 : 파주시 탄현면 오금리 산 19

• Classification | Treasures 1323

• Designated Date | 2001. 9. 21

• Age | Joseon Period

공효공 박중손과 정경부인의 묘 앞에 있는 2기의 장명등이다. 박중손(朴仲孫 : 1412~1466)은 조선 전기의 문신으로 여러 벼슬을 지냈으며 특히 전문을 관찰하는데 뛰어난 재능이 있었다.

그의 부인인 정경부인 남평 문씨는 공조정랑 문승조의 딸이다.

2기의 장명등은 각각 2개의 화강암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하나는 받침대인 대좌와 불을 밝히는 화사(火舍)로 이루어져 있고, 다른 하나는 지붕돌인 옥개석과 그 위에 연꽃봉우리 모양의 보주로 구성되어 있다.

공효공 박중손 묘 앞 장명등의 앞면과 뒷면 화창(火窓) 모양은 사각형이나 동쪽의 화창은 동그란 원형이며 서쪽의 화창은 반달모양으로 화창의 모양이 매우 특이하다. 화창의 사각형은 땅(地)을, 원형은 해(日)을, 반달모양의 화창은 달(月)을 각각 상징한다.

정경부인 묘 앞의 장명등은 박중손 묘 앞 장명등보다 전체적으로 가늘고 긴 모양을 하고 있다. 화창은 4면 모두 사각형으로 만들어 서로 비교가 된다. 이 장명등은 화사석과 대좌가 하나의 돌로 만들어졌고, 특히 화창의 모양이 각각 땅과 해, 달을 상징하여 매우 독특하다.

이러한 특수한 수법과 형태의 장명등은 매우 희귀한 예로서 역사적, 학술적으로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반달모양 화창



사각형 화창



Pajugonghyogongbakjungsonmyoyeoknaejangmyeongdeung

파주 공효공 박중손 묘역내 장명등

시흥 소래산 마애상

Siheungsoraesanmaaesang

Rock-carved buddha statue in Mt.Soraesan, Siheung

始興蘇萊山磨崖像

- 문화재종별 : 보물 제 1324 호
- 지정년월일 : 2001년 9월 21일
- 시 대 : 고려시대
- 규모·재질 : 높이 14m
- 소재지 : 시흥시 대야동 산 140-3

• Classification | Treasures 1324

• Designated Date | 2001. 9. 21

• Age | Goryeo Period

소래산의 마애상은 서있는 모습의 부처를 얇은 선으로 새긴 것으로, 장군바위라고 부르는 바위에 새겨져 있다.

무늬가 새겨진 모자 모양의 둥근 보관을 쓰고 있으며 작고 좁은 관대가 옆으로 휘날리고 있다. 목에는 삼도가 굵은 띠처럼 새겨져 있고 가슴에는 대각선으로 가로지른 꽃무늬가 새겨진 속에 입은 옷과 띠매듭이 보인다. 양어깨를 모두 감싼 옷을 입었는데, 가슴 밑에서부터 반원을 그리며 규칙적으로 흘러내린 주름은 볼륨감은 없으나 유려한 선으로 이어져 있다. 반원으로 둥글게 흘러내린 상의자락 밑 양쪽으로 발을 벌렸는데 발가락의 표현이 매우 섬세하다.

균형잡힌 신체에 사각형의 각진 얼굴, 양어깨를 덮은 옷, 원통형 보관에 텅굴무늬가 새겨져 있는 점 등이 특징적이다. 특히 무늬를 새긴 원통형의 화려한 보관과 양어깨를 덮은 옷의 형태는 고려 전기 석조상의 특징으로 조성년대를 추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시흥 소래산 마애상은 약 5mm 정도의 얇은 선각임에도 불구하고 보존상태가 좋은 편이며 기법이 우수하고 회화적인 표현이 뛰어난 세련된 작품이다.



Siheungsoaraesanmaaesang

시흥 소래산 마애상

교지(교첩)

Gyoji(Gyocheop)
Royal Degree Documen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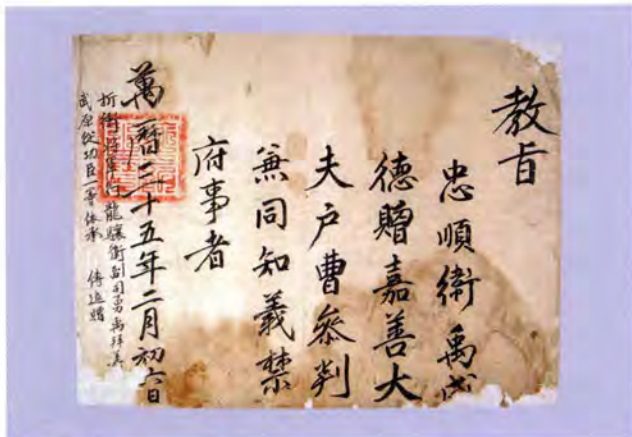
教旨(教牒)

- 문화재종별 : 보물 제 1334-2 호
- 지정년월일 : 2002년 1월 2일
- 시 대 : 조선 선조대
- 규모·재질 : 교지 12점
- 소재지 : 안양시 동안구(개인소장)
- Classification | Treasures 1334-2
- Designated Date | 2002, 1, 2
- Age | King Seonjo of Joseon Period

교지는 왕이 신하에게 관직(官職), 관작(官爵), 시호(諡號), 자격(資格), 토지 및 노비 등을 하사하면서 내려주는 문서이다. 교첩은 왕이 5품 이하의 관리를 임명할 때 발급하는 사령장이다. 4품 이상의 관리는 대간(臺諫) 즉 사헌부와 사간원의 서경(署經)을 거치지 않고 왕이 직접 임명하였으나 5품 이하의 관리는 대간의 서경을 거친 후에 이조와 병조에서 왕명을 받들어 임명하였다.

우배선의 교첩 내용을 보면, 1593년(선조 26) 2월 군공(軍功)으로 장사랑 예빈시참봉(將仕郎禮賓寺參奉)인 우배선을 선무랑 행군기시주부(宣務郎行軍器寺主簿)로, 같은 해 3월 역시 군공으로 군기시주부에서 봉훈랑 군기시판관(奉訓郎軍器寺判官)으로 승진시킨 사령장이다.

교지는 그를 1593년 5월 통훈대부 군자감정 겸 합천군수(通訓大夫軍資監正兼陝川郡守)로 임명하는 것에서 1605년(선조 38) 4월 절충장군 행경상좌도수군우후(折衝將軍行慶尙左道水軍虞侯)에 임명하는 것까지 8점이 있다. 추증교지 2점은 1603년(선조 36) 2월 우배선이 선무원종공신(宣武原從功臣)에 책록됨으로써, 그의 부친 우성덕(禹成德)을 가선대부 호조참판 겸 동지의금부사(嘉善大夫戶曹參判兼同知義禁府事), 같은 해 같은 날 그의 모친 장씨(蔣氏)를 정부인(貞夫人)에 각각 추증한 것이다.



우성덕의 추증교지



모친 장씨의 추증교지

教首

禹拜善為

政大夫行金

山郡守者

萬曆二十三年三月十日



Gyoji(Gyocheop)

교지(교첩)

간찰

Ganchal
Letter

簡札

- + 문화재종별 : 보물 제 1334-3 호
- + 지정년월일 : 2002년 1월 2일
- + 시대 : 조선 선조대
- + 규모·재질 : 간찰 1점
- + 소재지 : 인양시 동안구(개인소장)

- Classification | Treasures 1334-3
- Designated Date | 2002. 1. 2
- Age | King Seonjo of Joseon Period

우배선은 임진왜란 때의 의병장으로 본관은 단양(丹陽), 자는 사성(師聖), 호는 월곡(月谷)이다. 일찍이 부모를 여의고 외가에 의탁하여 성장하다가 1592년(선조 25년)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가재를 털어 의병을 모집, 왜군과 싸워 연전연승하여 그 위용을 떨쳤다. 이에 예빈시 참봉에 기용되고, 군기시판관·합천군수·금산군수·낙안군수(樂安郡守)를 역임하였다. 1604년에 선무원종공신(宣武原從功臣)에 책록되었다.

이 간찰(簡札)은 정인홍(鄭仁弘:1535~1623)이 당시 합천군수를 지내고 있던 우배선에게 보낸 것이다. 편지의 내용은 정인홍의 노비가 진주에 있는 군인들에게 겁탈당한 것과 소를 탈취당한 것을 이야기하며 이것을 잘 조치해서 처리해 줄 것 쓰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 내용으로 노비들에 대한 끼니걱정을 전하고 있다.

城主前狀上

仁弘拜即令

令氣執候何如憲仰強切仁弘之依又吾輩亡子奴
婢多在晉何賸避之際皆被陣軍所奪
收獲此乞生是為廉吉象軍人亦亦次今在
在郭康京所里尋獲得三心至處在
世者細乞首末幸

城主係孫建奴是係推以對應全者許信
之如如等幸在濟生皆將俄死國
形此物輕者亦在為可先手何較
令宣石宣謹狀上

仁弘
三月二十一日

蕭漢仁弘拜上

각택기

Gaktaekgi

各宅記

- 문화재종별 : 보물 제 1334-4 호
- 지정년월일 : 2002년 1월 2일
- 시 대 : 조선 선조대
- 규모·재질 : 각택기 1점
- 소재지 : 안양시 동안구(개인소장)

- Classification | Treasures 1334-4
- Designated Date | 2002. 1. 2
- Age | King Seonjo of Joseon Period

각택기(各宅記)는 영의정 이덕형(李德馨)·좌의정 윤승훈(尹承勳)·우의정 류영경(柳永慶) 등 주요 고관들의 명단과 그들의 거주지를 간략하게 적어 놓은 것이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영의정 이덕형택 도계동 남대문밖 / 좌의정 윤승훈택 명례방동
 우의정 류영경택 부동교 건너편 / 돈영부사 이원익택 사도사 부근
 오성부원군 이항복택 장동 / 좌찬성 심희수택 장흥고동
 이조판서 기지현택 명례방동 / 이조참판 허성택 장흥고동
 이조참의 박이장택 사헌부 뒤 / 병조판서 서성택 저시전동
 병조참판 윤돈택 회현방동 / 병조참의 윤유기택 향고동
 병조참지 송준택 왜관동 / 호조판서 성영택 사헌부 뒤
 호조참판 정광적택 서소문 밖 / 호조참의 서인원택 왜관동
 예조판서 노직택 왜관동 / 예조참판 박승종택 주자동
 예조참의 이철택 서소문 밖 / 공조판서 황진택 장의동
 공조참판 이희득택 장흥고동 / 공조참의 손윤선택 왜관동
 형조판서 윤승길택 왜관동 / 형조참판 홍가신택〇..〇앞
 형조참의 이광준택 모교 / 대사헌 홍여순택 행문교
 집의 이덕형택 서소문 안 / 장령 윤의택 장흥고동
 장령 강홍립택 서소문 밖 / 지평 류시행택 서소문 안
 지평 최동식택 서소문 안 / 대사간 성이문택 향고동
 사간 윤수민택 해민서 근처 / 정언 이신원택 중추내
 정언 정립택 전옥 근처 / 헌납 문려택 종묘 근처
 도승지 이상의택 호조 근처 / 좌승지 강연택 서소문 밖
 우승지 윤정택 서소문 재안암 근처 / 좌부승지 이경함택 서소문안 이층택
 우부승지 정의여 오은내동 / 동부승지 송응순택 장의동
 〇〇추홍 / 청평부원군 한응인택 명례방동
 김판서택 서소문 안 / 박홍로택 부둣
 이수광택 / 송사재택

백자투각상감모란문병

Baekjatugaksangammoranmunbyeong

White porcelain openwork bottle inlaid with peony design

白磁透刻象嵌牡丹文瓶

- 문화재종별 : 보물 제 1391 호
- 지정년월일 : 2003년 12월 30일
- 시 대 : 조선시대
- 규모 · 재질 : 높이 36.2cm, 구경 16.3cm, 저경 14.3cm(백자)
- 소 재 지 :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가실리 204 호암미술관

- Classification | Treasures 1391
- Designated Date | 2003, 12, 30
- Age | Joseon Period

조선시대 전기에 제작된 상감장식이 있는 병으로 당시 백자병의 전형적인 형태와 장식소재, 유약의 색깔, 굽의 특징 등을 갖추고 있다.

특히 전형적이면서도 당당하고 우아한 형태와 독특한 이중의 제작기법, 투각과 상감기법을 혼용한 특이한 장식기법은 현재까지 알려진 예가 없는 희귀한 사례이다.

이 병은 주둥이가 나팔처럼 벌어져 있고 목은 가늘고 길며, 몸체는 저부에서 평퍼짐하게 벌어진 형태이다. 굽의 높이가 비교적 높고 크기도 큰 편으로 조선시대 전기에 제작된 백자병의 특징이 잘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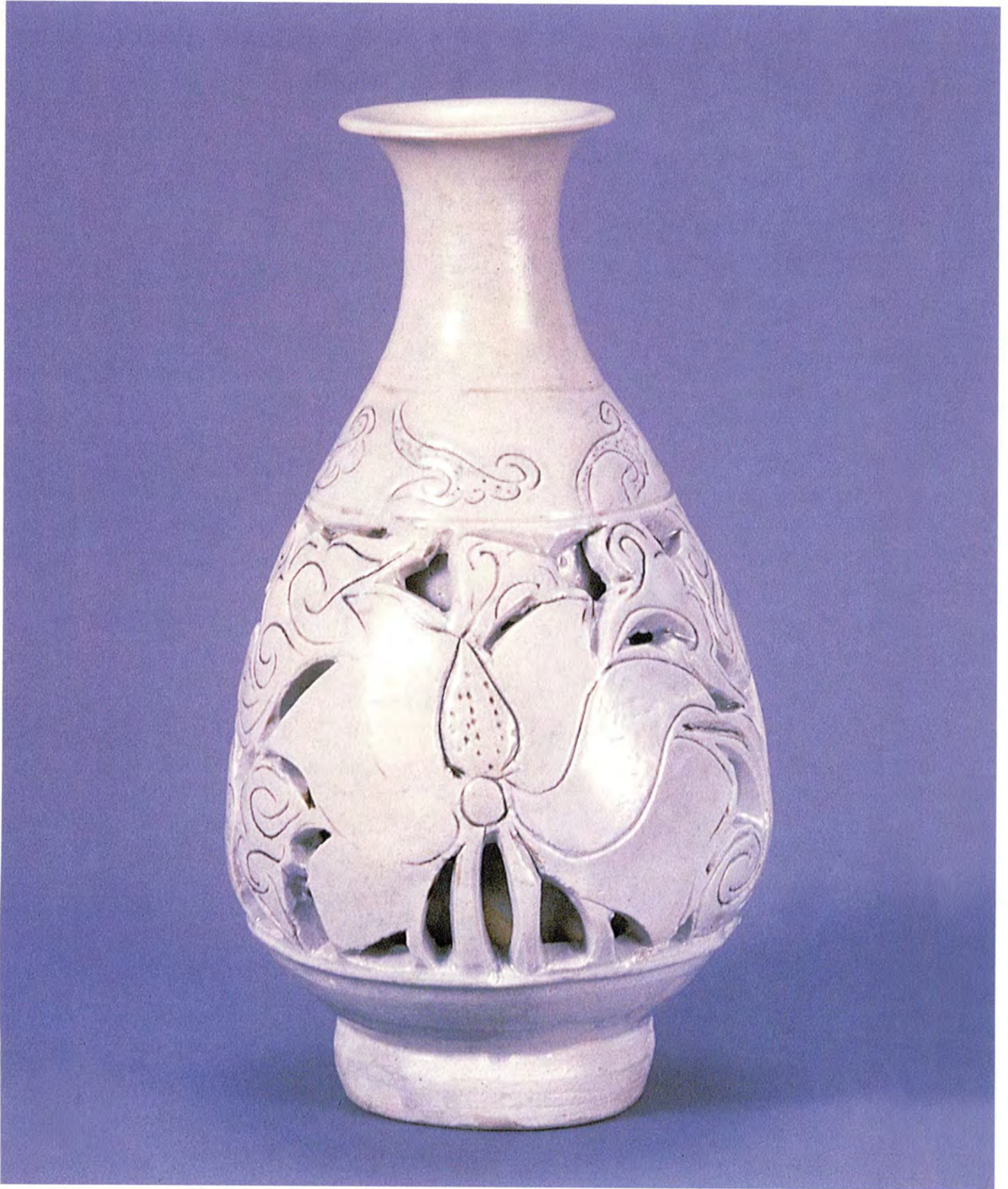
투각이 된 바깥 면과 그 안쪽에 실제로 내용물을 담는 작은 병을 따로 제작한 것으로, 현재까지 알려져 있는 백자상감병과 확연히 구분되는 독특한 작품이다.



구연부



바닥



Baekjatugaksangammoranmunbyeong

백자투각상감모란문병

김홍도필 추성부도

Kimhongdopilchuseongbudo

Landscape in night of autumn, painting by Kim Hongdo

金弘道筆秋聲賦圖

- 문화재종별 : 보물 제 1393 호
- 지정년월일 : 2003년 12월 30일
- 시 대 : 조선시대
- 규모·재질 : 가로 214cm, 세로 56cm(수묵담채)
- 소재지 :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가실리 204 호암미술관

- Classification | Treasures 1393
- Designated Date | 2003. 12. 30
- Age | Joseon Period

이 작품은 중국 송대(宋代) 구양수(歐陽修, 1007~1072)가 지은 '추성부(秋聲賦)'를 단원 김홍도(1745~1806)가 그림으로 그려낸 시의도(詩意圖)이다.

화면의 왼쪽에는 백문타원인(白文橢圓印)으로 기우유자(騎牛游子)라 찍혀 있으며 추성부 전문이 김홍도의 자필로 쓰여져 있는데, 끝부분에 '을축년동지후삼일(乙丑年冬至後三日) 단구사(丹邱寫)'라 하였으므로 이 그림은 1805년 즉, 단원의 나이 61세에 제작된 것임을 알 수 있다. 화면의 오른쪽에는 메마른 가을 산이 그려져 있고, 산 능선 위로는 수평방향의 갈필로 음양을 주어 밤 중임이 시사되어 있다. 중앙에는 중국식 초옥(草屋)이 있으며 둥근 창 안에는 구양수가 보인다.

이 그림은 구양수가 책을 읽다 소리가 나자 동자에게 무슨 소리인지 나가서 살펴라 했고, 이에 밖으로 나간 동자는 '별과 달이 환히 빛날 뿐(明下在天) 사방에 인적은 없고(四無人聲), 소리는 나무 사이에 서 납니다.(聲在樹間)'라고 답했다는 바로 그 장면을 그려낸 것이다.

동자는 손을 들어 바람소리 나는 쪽을 가리키고 있으며, 집에서 키르는 학 두 마리는 목을 빼고 입을 벌려 그 바람소리에 화답하듯 묘사되어 있다. 또 마당의 낙엽수들은 왼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에 흔들리고 바닥에는 떨어진 낙엽들이 드문드문 흩날리고 있다. 화면 왼쪽 언덕에는 나무가 두 그루 서 있고, 그 옆쪽에는 대나무에 둘러싸인 초가집이 보이며 위로는 보름달이 떠 있다.

이 그림은 전체적으로 어둡게 시채되어 있으며 갈필(渴筆)을 사용하여 가을밤의 스산한 분위기가 잘 드러나 있다. 좌우에 산이나 언덕을 배치하여 초옥과 마당을 감싸듯, 부감(俯瞰)하듯 그려냄으로써 주제를 강조하는 포치방식은 역시 구도에 대한 단원의 뛰어난 감각을 단적으로 말해주며, 호리호리하면서도 불규칙하게 꺾여 올라가 끝이 갈라지는 나무형태 또한 단원의 전형적인 화법을 보여준다. 왼쪽에서 서부터 오른쪽으로 약간 비비듯이 처리된 메마른 붓질들은 차가운 달빛 속에서 거칠고 황량한 나뭇가지 사이로 불어오는 매서운 바람소리를 효과적으로 전달해 내고 있다. 그것은 곧 구양수가 전하고자 했던 노년의 비애이자 또한 동시에 죽음을 앞둔 단원의 심회의 형상화이기도 할 것이다.

구양수가 만물이 조락(凋落)하는 가을을 맞아 인생의 허무함을 탄식하는 '백가지 근심을 마음에 느껴(百憂感其心)'라는 구절은 바로 단원이 1805년 김생원이라는 이에게 보낸 편지 속에서도 인용했던 구절로서 단원의 당시 심적 상태를 여실히 반영해 준다. 아픈 몸에도 아직은 어린 외아들 김양익의 장래문제, 출가한 딸에 대한 걱정 등이 겹쳐 단원 역시 인생의 허무함에 절로 탄식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백문타원인



Kimhongdopilchuseongbudo

김홍도필 추성부도

경기감영도병

Gyeonggigamnyeongdobyong
Twelve-panel folding screen

京畿監營圖屏

- 문화재종별 : 보물 제 1394 호
- 지정년월일 : 2003년 12월 30일
- 시 대 : 조선시대
- 규모·재질 : 가로 442.2cm, 세로 135.8cm(수묵채색)
- 소재지 :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가실리 204 호암미술관

- Classification | Treasures 1394
- Designated Date | 2003, 12, 30
- Age | Joseon Period

이 작품은 인왕산의 연봉들 아래로 넓게 펼쳐진 서대문 밖 경기감영(京畿監營)의 풍경을 12폭의 화폭에 담아낸 것이다.

전경은 부감법(俯瞰法)의 높고 넓은 시점으로 처리되어 있으며, 건물들은 오른쪽 위에서 왼쪽 아래를 향하는 사선방향의 평행투시도법으로 표현되어 있다.

또한 이 그림에는 화면 전체에 상당히 많은 수목들이 그려져 있다. 원산에는 능선을 따라 소나무가 줄줄이 배치되어 있고, 중경과 근경의 나지막한 구릉과 집들 사이사이에도 여러 종류의 나무가 울긋불긋한 채색으로 풍성하게 묘사되어 있다.

산은 피마준에 미점을 찍은 토산과 쓸어 내린 듯한 암산 등으로 묘사되어 있다.

병풍은 오른쪽부터 시작하여 1폭에 서대문(돈의문(敦義門))과 수문장청(守門將廳)이 보이며, 제4폭에는 솟을대문에 기영(圻營)이라 쓰여진 것이 보인다. 제6폭 중앙에 있는 큰 건물은 관찰사가 근무하



Gyeonggigamnyeongdobyo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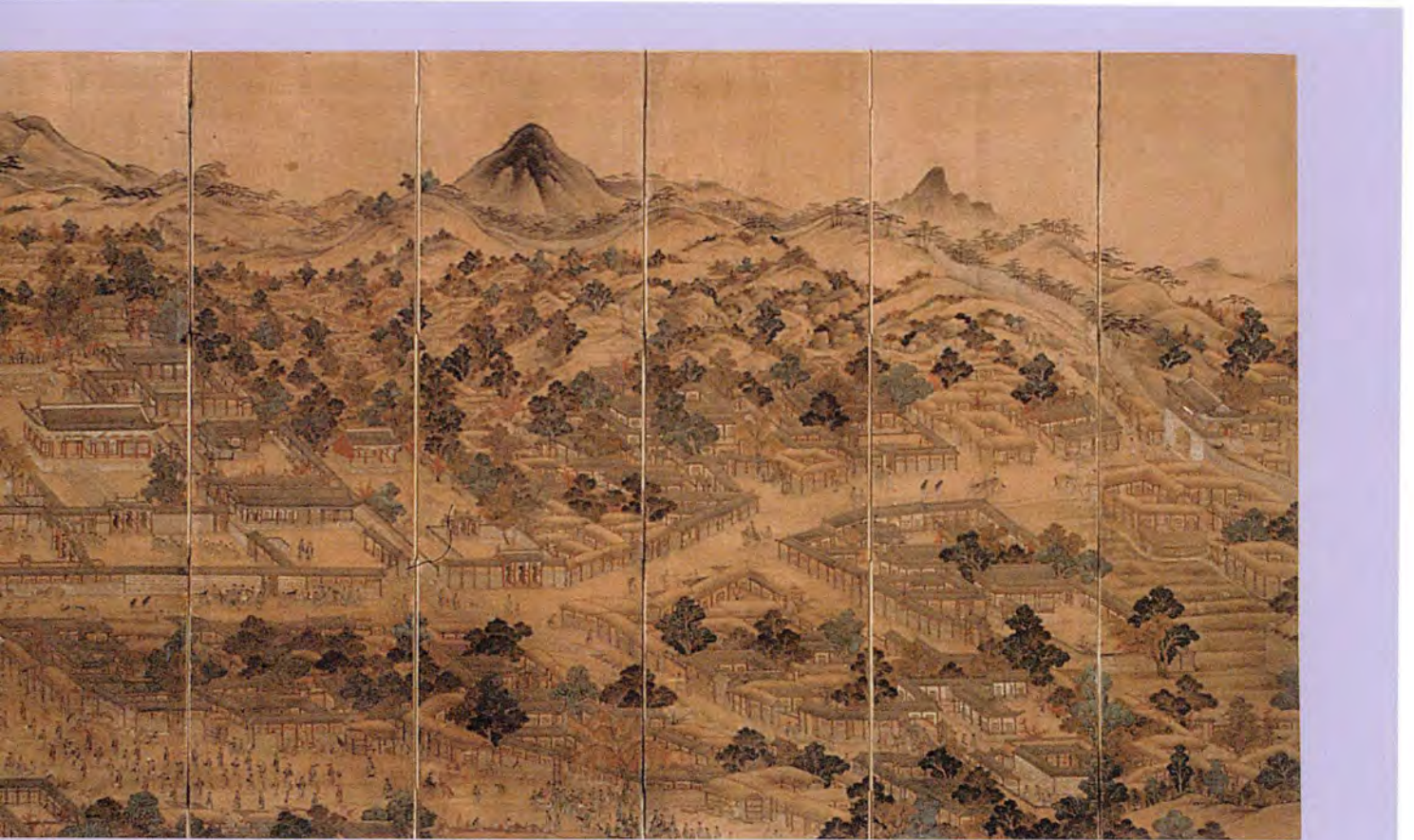
는 선화당(宣化堂)이며, 8쪽 위쪽에는 영은문(迎恩門)과 모화관(慕華館)이 있고, 제8쪽에서 9쪽에 걸쳐 연꽃이 만발한 연지가 보이며, 제10쪽의 위쪽에는 대현(大峴), 소현(小峴)과 음승정(楸升亭)이라는 활터가 있으며, 그리고 제12쪽에는 사정(射亭)이 보인다.

이러한 대표적인 건물 외에도 관아의 측간이나 작은 창고까지 묘사되고 사람들이 사는 기와집과 초가집들, 그리고 약방이나 신발가게, 쌀가게, 주막, 좌매(坐賣, 행상) 등도 배치되어 있다. 하지만 건물들이나 풍경묘사 보다는 이 그림에 활력을 부여하고 재미를 더해 주는 요소는 바로 화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생활장면이다.

이 그림이 문헌에 나오는 성시도(城市圖)의 형식을 빌린 것이라는 견해 또한 바로 이러한 산수도, 지도, 그리고 풍속화의 결합에 기인하는 것이다. 생활장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오른쪽으로부터 제3쪽에서 제6쪽 하단에 걸쳐 진행되고 있는 경기감사의 긴 행렬인데, 여기서 경기감사로 추정되는 말 탄 인물은 여타 인물과 달리 눈

코, 입이 확연하게 그려져 있어 그 중요성을 말해준다. 이 행차에 참여한 진악대와 수종인물들, 그리고 이를 구경하고 있는 어른과 아이들 역시 현장감을 살려 표현되어 있다.

이 밖에도 건물에 딸린 마당과 큰 길이나 골목길 여기저기에는 다양한 포즈와 동작 중의 인물들이 묘사되어 풍속화의 좋은 예를 보여준다. 이를테면 소나무 밑에서 한가로이 쉬고 있는 갓 쓴 선비들, 자연스런 포즈로 잡담을 나누는 포졸들, 관아 앞에서 대기중인 말과 마부들, 물동이를 이고 가는 아낙네들, 동자를 데리고 말 타고 가는 선비, 가위 든 엿장수, 지게 진 인물들이 그려져 있으며, 그 밖에도 논밭에서 일하는 농부들, 새참을 머리에 이고 가는 아낙네들, 논두렁을 달려가는 개의 모습 등은 마치 당시의 실제 정경이 눈앞에서 펼쳐지는 듯 이 그림을 보는 이에게 실감나게 다가온다.



경기감영도병

청자상감압형주자

Cheongjasanggamaphyeongjuja
Celadon wine pot with inlaid in the shape of duck

靑磁象嵌鴨形注子

- 문화재종별 : 보물 제 1398 호
- 지정년월일 : 2004년 3월 3일
- 시대 : 고려시대(12세기)
- 규모·재질 : 높이 15.3cm, 구경 2.5cm, 저경 9.5cm(청자)
- 소재지 : 성남시 수정구(개인소장)
- Classification | Treasures 1398
- Designated Date | 2004, 3, 3
- Age | Goryeo Period(12C)



바닥



연밥형상 뚜껑

몸통이 둥글며 한 쪽 옆면에 주구의 기능을 하는 오리머리를 부착하고, 그 반대편에는 오리의 두 다리를 모아 올려붙인 듯한 손잡이가 달린 주자이다. 등에는 작은 연잎과 줄기를 늘어뜨렸는데, 연잎 중앙에 구멍을 뚫고 연밥의 형태를 응용한 뚜껑을 만들어 막았다.

넓적한 부리를 조금 벌려 물을 따를 수 있게 하고 다리를 모아 뒤편으로 연결하여 손잡이 기능을 부여한 점, 연밥 형상으로 뚜껑을 만든 점 등 오리주자를 구성하는 제반요소들이 매우 구조적이며 참신한 발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유태의 색은 맑고 투명하며 약간의 담녹색을 띤다. 유층은 기본적으로 균열이 없지만 위편 날개 부분에 굵은 수직상의 빙열이 몇 줄 나 있으며, 전체에 미세한 기포가 꼭 차고 광택은 비교적 강하면 서 은은한 편이다.

꼭지 밑 유약을 씌우지 않은 부분에 흑갈색의 거친 입자가 포함된 내화토 비짐을 받친 흔적이 있으며, 집지면 주변의 유약을 완전히 닦아낸 밑바닥에도 비슷한 재질의 내화토 비짐을 받친 흔적이 있다.

엷은 녹색을 띠는 유약층을 통해 회청색 태토가 비취 보이면서 나타나는 색은 최상급 청자에서 볼 수 있는 상태이며 음각과 양각, 백상감과 흑상감을 적재적소에 응용하여 나타내려는 형상의 질감을 잘 묘사하고 있다.

현존하는 오리모양을 한 주전자 형태의 청자 중 장식이 매우 특이한 형태로 오리의 깃털을 음각·양각의 흑백상감기법으로 표현하였고 뚜껑의 장식과 오리의 머리, 손잡이가 잘 어울린다.

오리를 주제로 한 파격적이고 독창적인 기형과 화려하고 정교한 문양장식의 표현, 비색(翡色)의 유약(釉藥)과 정선된 태토(胎土)로 제작된 고려시대 최절정기(12세기)의 청자이다. 현존하는 예도 극히 드문 상형청자(象型靑磁)의 새로운 자료로 고려시대 도자사연구에 매우 귀중한 자료로 평가된다.



Cheongjasanggamaphyeongjuja

청자상감압형주자

청자퇴화표형주자

Cheongjatoehwapyohyeongjuja

Celadon ewer in the shape of a gourd with dot design

靑磁堆化瓢形注子

- 문화재종별 : 보물 제 1399 호
- 지정년월일 : 2004년 3월 3일
- 시대 : 고려시대(12세기)
- 규모·재질 : 높이 26.3cm, 구경 4.5cm, 저경 10.3cm(청자)
- 소재지 : 성남시 수정구(개인소장)
- Classification | Treasures 1399
- Designated Date | 2004, 3, 3
- Age | Goryeo Period(12C)

이 주자는 윗 밖의 규모가 작고 수직상태로 누른 여섯 개의 선으로 장식하였으며, 아래 밖은 양감이 풍부하고 저부가 크게 팽창되어 밑으로 처진 듯한 형태를 하고 있다. 특히 나팔의 벌어진 끝 부분과 같이 넓게 벌어진 높은 굽이 반치고 있으며 표주박 형태의 몸통에는 아무런 문양장식이 없다.

몸통이 완전한 소문인 것과는 달리 주구(注口)와 손잡이는 가늘고 섬세한 음각과 반양각을 써서 대나무의 어린 싹과 마디를 소재로 하여 기하학적 분위기로 재구성하였는데, 그 음각과 반양각이 새겨진 선을 따라 흰색 백토로 퇴화점(堆花點)을 질서 정연하게 찍어 넣었다.

손잡이와 몸통의 연결부는 마치 가는 대줄기를 꼬아 감으면서 부착한 것 같은 형태를 하였으며, 주구는 어린 죽순의 형상을 조금 변형시킨 형태를 하고 있다.

유태의 색은 옅은 녹색을 띠는 맑은 회청색이며, 유층에는 미세한 기포가 콕 차고 약간 두꺼운 편이며 부분적으로 망상의 병열이 있으나 짧고 깊게 나타나며 저부와 굽 주변은 완전한 상태이다.

나팔과 같이 벌어진 굽은 별도로 만들어 붙인 방법을 썼으며 접지면에 백색 내화도 비짐을 6개소 받쳐 구워서 비짐이 있는 부분은 조금씩 눌러진 상태를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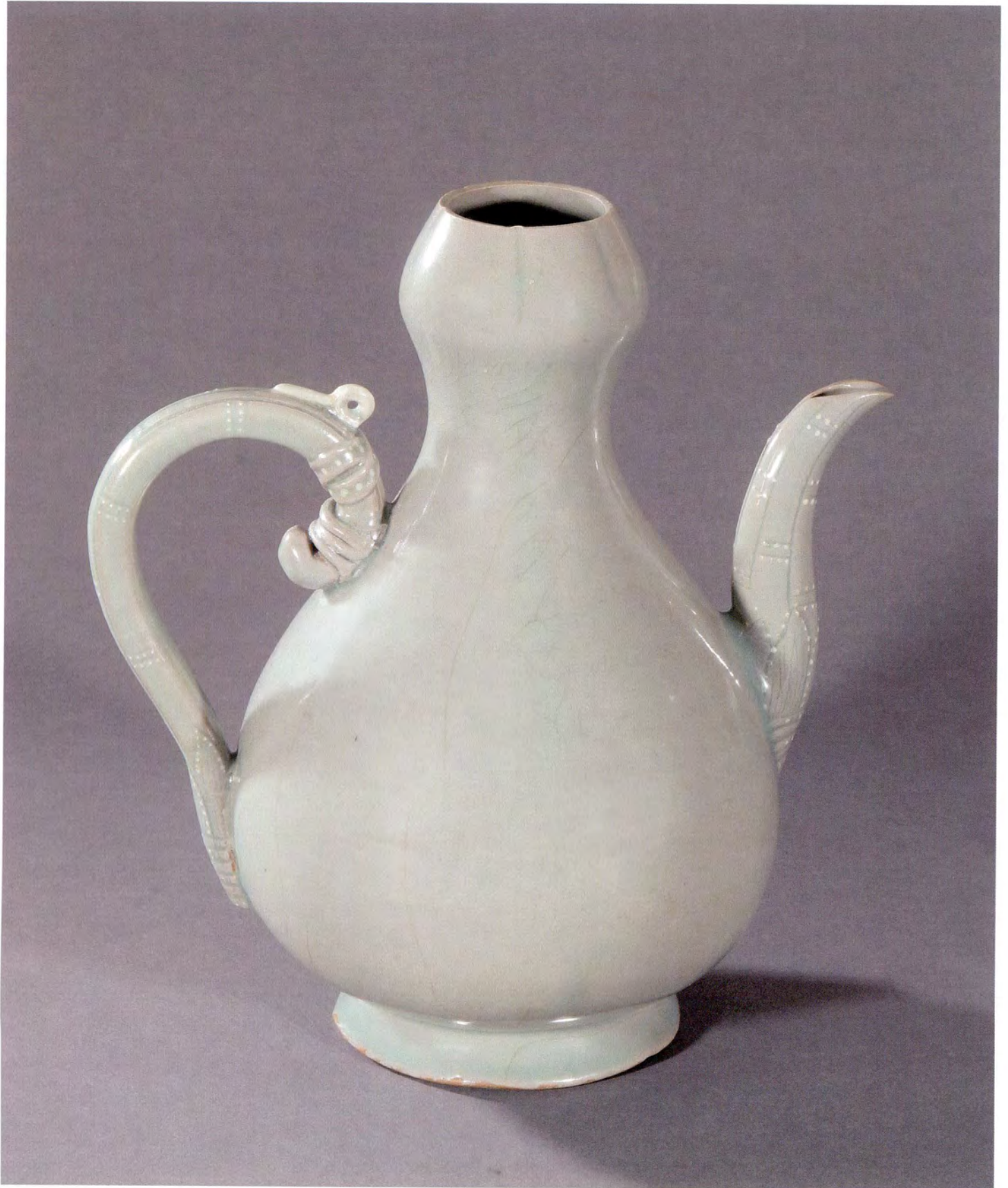
문양이 없는 표주박 모양의 병 몸체에 주구와 손잡이를 붙인 청자로 주구의 손잡이에는 대나무 문양을 상감기법으로 처리하였고 사이사이에 퇴화점의 대담한 처리가 돋보인다. 당당하고 안정된 기형에 유려한 곡선미를 지닌 형태로 비색(翡色)의 맑은 유색(釉色)과 최상의 태토(胎土)로 만들어진 기품 있는 12세기 청자이며 고려시대 도자사연구에 귀중한 자료이다.



손잡이



바닥



Cheongjatoehwapyohyeongjuja

청자퇴화표형주자

분청사기상감모란당초문장군

Buncheongsagisanggamorandangchomunjanggun
Buncheong pot inlaid with peony and arabesque design

粉靑沙器象嵌牡丹唐草文장군

- 문화재종별 : 보물 제 1400 호
- 지정년월일 : 2004년 3월 3일
- 시 대 : 조선시대(15세기)
- 규모·재질 : 높이 20.2cm, 구경 6.9cm, 저경 19.3cm(분청사기)
- 소재지 : 성남시 수정구(개인소장)
- Classification | Treasures 1400
- Designated Date | 2004. 3. 3
- Age | Joseon Period(15C)



구연부



바닥

측면이 완전한 직사각형에 가깝고 양쪽 옆면이 직선에 가까운 완만한 곡면을 이루고 있어서 양감이 크고 듬직하며 무게감이 느껴지는 형태이다. 몸통의 듬직함과 같이 입술도 넓고 굽으며 굽다리도 완전한 직사각형으로 넓게 만들어 붙여서 전체는 크고 듬직하며 당당한 모습을 하고 있다.

전면에는 윤곽선이 굵은 모란당초문과 조밀하게 찍은 인화문(印花文)을 중심으로 가는 상감선을 사용하였는데 굵은 면은 더욱 굽고 듬직하게, 가는 선은 섬세하고 유려하게 새겨 넣어 강과 약의 조화를 꾀하였다.

문양은 넓은 몸통을 수직상으로 나누고 다시 구연부를 중심으로 좌우 대칭되게 나누었는데, 중심부에 가는 선상감의 당초문대를 내리고 좌우편에 간결한 선으로 윤곽을 두른 넓은 잎과 모란꽃을 좌우 대칭으로 면상감 한 후 옆면 둥근 마구리면은 인화상감을 조밀하게 찍어 넣었다. 굽의 안바닥에는 복부에 2~3줄의 음각선이 있는데 이것은 음각하고 굽을 붙인 후 백상감을 한 흔적이다.

태토는 밝은 회청색이며 좁쌀만한 크기의 철분이 유층으로 튀어 나온 상태이며, 유약(釉藥)은 얇고 투명하여 기포가 거의 없고 부분적으로 두껍게 묻힌 곳은 약간의 녹색을 띠며 불투명한 상태를 나타낸다.

전체에 결손 부분이 없는 완전한 작품으로 전면에 망상의 균열이 있고 백토분장은 순수하게 밝은 흰색이다. 특히 백토 상감된 부분의 균열은 매우 기늘고 조밀하게 나 있으며 부분적으로 유층이 탈락된 곳이 있다.

측면 마구리 한쪽을 밑으로 하여 받쳤는데 이면에 8개의 사질 내화토 비집을 받쳤다. 저부 일부에 태토 균열을 방지하기 위하여 유약을 두껍게 바른 흔적이 남아 있다.

면(面)과 선(線)의 상감기법으로 모란문과 당초문, 그리고 인화문이 몸체 전면에 화려하게 시문(施文)된 분청사기로 유약이 굽 안바닥에 이르기까지 전면에서 시유(施釉)되어 기형, 장식과 더불어 완성도를 높이고 있다.

안정감있는 당당한 기형에 활달하고 대담한 문양, 섬세한 인화기법의 표현 등에서 15세기 분청사기장군을 대표하는 예이며 도자사의 흐름을 파악하는데 귀중한 자료이다.



Buncheongsagisanggammandangchomunjanggun

분청사기상감모란당초문장군

이십삼상대회도 및 김종한 교지

Isipsamsangdaehoeditgimjonghangyoji

Painting of a social gathering of retired high ranking scholar-officials and Royal document of Kim Jonghan

二十三霜臺會圖 및 金從漢教旨

- 문화재종별 : 보물 제 1406 호
- 지정년월일 : 2004년 5월 7일
- 시대 : 조선시대
- 규모·재질 : 회화도 1점-가로 32.5cm, 세로 92cm,
교지 5점-가로 73~82.5cm, 세로 47.4~48.5cm
- 소재지 : 용인시 기흥구 상갈동 85 경기도박물관

• Classification | Treasures 1406

• Designated Date | 2004. 5. 7

• Age | Joseon Period

이 회화도는 사헌부에서 벼슬을 지낸 김종한(金從漢) 등 23명이 가졌던 회화를 토대로 제작된 것이다.

상단에는 전서로 쓴 표제가 있으며, 그 아래에는 회화를 하는 장면이 그려져 있고 찬시(贊詩)가 쓰여 있다. 그리고 하단에는 참가자들의 이름 및 품계, 그리고 그 부친의 관직 및 이름 등을 기록한 좌목(座目)이 있다. 이러한 체제는 조선조 초기 회화도에서 볼 수 있는 형식으로서 그 보다 후에 제작된 회화도에 비하여 그림 자체의 비중이 대단히 적으며, 참가자 부친에 대한 정보를 기재하기 위해 단을 따로 설정한 점도 이채롭다.

한편 하단의 추기를 별도로 기록한 좌목 추기가 있는데 이 문서는 후손에 의하여 정서된 것으로 정확한 작성 연대는 불명이다.

교지류는 사헌부회화에 참여했던 김종한(金從漢) 관련 자료 5점이 모두 고신이다.

김종한의 자세한 이력은 다른 자료가 함께 전해지지 않아 파악이 어려운데, 회화도를 통하여 자가 종해(宗海)이고 본관이 상주(尙州), 그리고 부친이 교위(校尉)인 김하(金遐)임을 알 수 있다.

김종한은 성화(成化) 원년(1465)에 문과에 입격하고 선무랑훈도를 거쳐 성화 4년에 종사랑 훈도(訓導)로 전직하여 관직생활을 시작하여 홍치(弘治) 18년(1505)에 성균관사성으로 치사(致仕)했던 것으로 부분에 나타나 있다. 따라서 현존하는 5점의 교지는 홍치 1년(1488)부터 9년(1496) 사이에 발급된 것으로 대부분 김종한이 장년기에 임명되었던 것임을 알 수 있다.



교지

봉업사명 청동향로

Bongeopsamyongcheongdonghyangno

Bronze incense burner with inscription of Bongeopsa Temple

奉業寺銘靑銅香爐

- 문화재종별 : 보물 제 1414 호
- 지정년월일 : 2004년 8월 31일
- 시대 : 고려시대(13세기)
- 규모·재질 : 높이 87cm, 지름 35cm(청동)
- 소재지 :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가실리 204 호암미술관

- Classification | Treasures 1414
- Designated Date | 2004. 8. 31
- Age | Goryeo Period(13C)

정기도 안성의 고려시대 절터인 봉업사지 출토로 전해지는 대형의 이 향로는 몸체[노신(爐身)]와 덮개[개부(蓋部)], 그리고 기대(器臺) 부분에 삼족(三足)의 받침을 지닌 특수한 형태이다. 즉, 몸체 구연부의 넓은 전을 지니지 않은 것이 고려시대 일반적인 향완의 모습과는 다르다.

향로의 중간 부분은 고려시대의 향완과 비슷한 형태를 보여주며 보주(寶珠)가 달린 뚜껑이나 세발이 달린 원형의 대좌는 전체적으로 균형 잡힌 비례감과 장중하고 아름다운 형태를 구성한다.

덮개부의 불꽃형상 보주는 사리기에 나타나는 화염보주(火焰寶珠) 형태인데 도금의 흔적이 남아 있으며 조형미가 우수하다. 덮개부에는 '봉업사삼중대사원준'이란 점열로 새긴 명문이 있는데 이는 봉업사의 원준대사가 직접 만들었다기보다는 원준의 발원으로 조성되었다고 할 것이며, 받침부분의 '중념육근'의 명문은 향로주조에 구리 26근이 소요되었음을 알게 한다.

명문에 의해 고려 초의 사찰이었던 봉업사에서 제작한 13세기 작품으로 추정할 수 있다.



몸체 및 기대



덮개



Bongeopsamyongcheongdonghyangno

봉업사명 청동향로

삼현수간

Samhyeonsugan

Collection of three wise man's letters

三賢手簡

- 문화재종별 : 보물 제 1415 호
- 지정년월일 : 2004년 8월 31일
- 시 대 : 조선시대
- 규모·재질 : 서신 4첩·가로 약 27cm, 세로 약 39cm
- 소재지 :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가실리 204 호암미술관

- Classification | Treasures 1415
- Designated Date | 2004, 8, 31
- Age | Joseon Perio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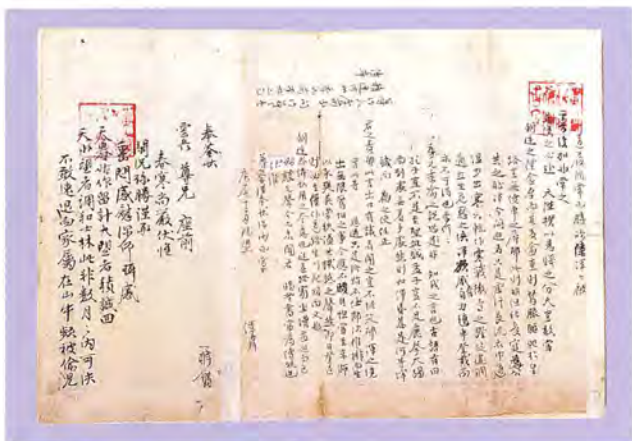
『삼현수간(三賢手簡)』은 주로 구봉(龜峯) 송익필(宋翼弼; 1534~1599), 우계(牛溪) 성혼(成渾; 1535~1598), 율곡(栗谷) 이이(李珣; 1536~1584) 사이에 왕래한 편지를 후대에 4첩(帖)으로 제작한 것이다.

구봉, 우계, 율곡은 서로 절친한 친구들로서 16세기의 성리학(性理學)의 대가(大家)들인데 이들이 주로 이기(理氣)·심성(心性)·사단(四端)·예론(禮論) 등 성리학을 둘러싸고 토론·논의한 편지를 모아 엮어 놓은 이 책은 사상사적(思想史的), 학술사적(學術史的)으로도 귀중한 자료가 된다.

이들의 편지 내용은 구봉집(龜峯集), 우계집(牛溪集), 율곡전서(栗谷全書) 등에서 찾아볼 수 있으나 그러한 문집(文集)에서 찾아볼 수 없는 것도 적지 않다는 사실은(이들 문집에 실려 있지 않은 것이 16편, 일부만 실려 있는 것이 15편) 이 책의 가치를 더욱 높이 평가할 수 있게 한다.

이들의 친필 편지들은 그 글씨만으로도 서예사적(書藝史的)으로 중요한 자료가 되며, 특히 구봉의 초서(草書)는 한자도 흐트러짐 없이 정연하여 마치 초서교본(草書敎本)을 대하는 듯 느껴진다.

또한 율곡의 친필 글씨는 현전(現傳)하는 것이 희귀한데, 여기에 율곡이 구봉에게 보낸 편지가 13편이나 실려 있어 이 책의 가치를 더욱 높이고 있다.



본문 일부



본문 일부



Samhyeonsugan

삼현수간

청자퇴화화문주자 및 승반

Cheongjatoehwahwamunjujamitseungban
Celadon ewer with dot, flower designs and celadon tray

靑磁堆花花文注子 및 承盤

- 문화재종별 : 보물 제 1421 호
- 지정년월일 : 2004년 11월 26일
- 시 대 : 고려시대(12세기)
- 규모·재질 : 주자 1점-높이 14.1cm, 구경 4.4cm, 저경 8.3cm,
승반 1점-높이 6.4cm, 구경 17.4cm, 저경 7.1cm
(청자)
- 소 재 지 :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가실리 204 호암미술관
- Classification | Treasures 1421
- Designated Date | 2004, 11, 26
- Age | Goryeo Period(12C)

주자와 뚜껑, 승반이 제각으로 갖추어진 완전한 한 세트로 작은 원판형 뚜껑에 주자의 몸통은 공처럼 둥근 구형(球形)을 이루었으며, 구연이 크게 외반된 승반은 안바닥이 넓고 편평하게 만들었다.

문양은 미립으로 정제된 백토니(白土泥)와 자토니(砒土泥)를 붓에 묻혀 그리는 퇴화(堆花) 기법으로 그려 넣었다. 뚜껑에는 간략한 꽃잎을 그리고, 주전자의 앞·뒷면에는 활짝 핀 큼직한 화문(花文)을 활달한 필치로 그린 후 주구와 손잡이 등에는 흑색과 백색의 조화를 고려하면서 그렸다.

승반에는 외측면 세 곳에 일정한 간격으로 간략화시킨 꽃을 그려 넣었다. 은은하고 투명한 회청색 광택의 유약을 약간 두껍게 시유하였으며 주자와 승반은 황갈색 모래비짐을 받쳤고, 뚜껑에는 백색 내화토 비짐을 받친 흔적이 남아 있다.

둥근 몸통에 굽적굽직한 주구와 손잡이가 달린 힘찬 형태, 힘 있고 빠른 필치로 그린 문양, 투명한 회청색의 유색 등 12세기의 세련된 청자 양식을 유감없이 보여주는 작품이다.



주자 및 뚜껑 바닥



승반 바닥



Cheongjatoehwahwamunjujamitseungban

청자퇴화화문주자 및 승반

수월관음도

Suwolgwaneumdo

水月觀音圖

- 문화재종별 : 보물 제 1426 호
- 지정년월일 : 2005년 1월 22일
- 시 대 : 고려시대(14세기)
- 규모 · 재질 : 가로 70cm, 세로 215cm(건본채색)
- 소 재 지 : 용인시 기흥구 보라동 314-1 디 아모레 뮤지엄

- Classification | Treasures 1426
- Designated Date | 2005. 1. 22
- Age | Goryeo Period(14C)

수월관음도는 비록 조성연대와 작가가 명확하지 않고 부분적으로 변·퇴색과 수리 및 덧그린 흔적이 엿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일본 소재의 1323년작 서구방필 수월관음도를 위시한 고려시대 14세기 관세음보살도들과 비교해 보면 마치 한 본을 사용하더라도 한 듯 구도와 인물의 형태가 거의 같고, 고려불화의 특징적인 화사한 색채와 세련되고 우아한 선을 구사한 인물 묘사 등 세부묘사에 있어서도 서로 유사한 점이 엿보여 예술성 높은 동일 시기의 작품으로 추정된다.

화면 구성이 충실하며 표현기법 역시 고려불화의 전형을 잘 보여 주고 있다는 점 그리고 국내에는 제대로 된 고려시대 수월관음도가 2~3점에 불과하다는 자료의 희소성, 나아가 이미 보물로 지정되어 있는 두 점의 수월관음도와 비교하여도 질적인 면에서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미술사적으로 자료적 가치가 충분하다.



수월관음 상반신



선재동자



Suwolgwaneumdo

수월관음도

정통십삼년명 분청사기상감묘지 외 인화분청사기 일괄

Jeongtongsipsamnyeonmyeongbuncheong
sagisanggammyojioehwabuncheongsagiilgwai
Buncheong epitaph with inscription of thirteen year of Jeonglong
era and entire of Buncheong with stamped design

正統十三年銘粉青沙器象嵌墓誌外 印花粉青沙器一括

- 문화재종별 : 보물 제 1428 호
- 지정년월일 : 2005년 1월 22일
- 시 대 : 조선 세종대
- 규모·재질 : 분청사기 묘지 1점, 인화분청사기 6점(분청사기)
- 소재지 :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가실리 204 호암미술관
- Classification | Treasures 1428
- Designated Date | 2005. 1. 22
- Age | King Sejong of Joseon Period

정통(正統) 13년(세종 30년, 1448)의 연기(年紀)가 있는 장방형 기
둥 모양에 둥근 구멍이 뚫려 있는 분청사기 묘지(墓誌) 1점 및 일괄
로 나온 것으로 추정된 인화분청사기 6점(편구발 1점, 대반 1점, 소
호 2점, 접시 2점)이다.

도자묘지(陶磁墓誌)는 조선시대부터 나타나는데, 조선 초기의 것
은 극히 드물다.

도자로 만들어진 것 가운데 오래된 것에 속하는 이 묘지(墓誌)는
묘주(墓主)인 영인(令人) 이씨(李氏)의 남편, 부(父), 조(祖), 증조(曾
祖) 및 외조(外祖)와 1남 2녀에 대한 이력사항과 묘주의 졸년(卒年),
피장자의 가계(家系), 신분 등 개인 신상에 대한 내용이 네 면에 기
재되어 있어서 당시의 사회를 파악하는데 매우 중요한 자료이다.

또한 묘지를 만든 절대연대(세종 30년, 1448)가 있어 도자사 연
구 자료로서 가치가 매우 높다. 아울러 이 묘지와 같이 출토되었다
고 전해지는 인화문 분청사기 등도 묘지와 동시에 출토되었다는 점
에서 이 시기 분청사기 연구에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다.



묘지



Jeongtongsipsamnyeonmyeongbuncheongsagisanggammyojioeinhwabuncheongsagiilgal

정통십삼년명 분청사기상감묘지 외 인화분청사기 일괄

화성행행도팔첩병

Hwaseonghaenghaengdopalcheopbyeong
Eight-fold screen

華城行幸圖八疊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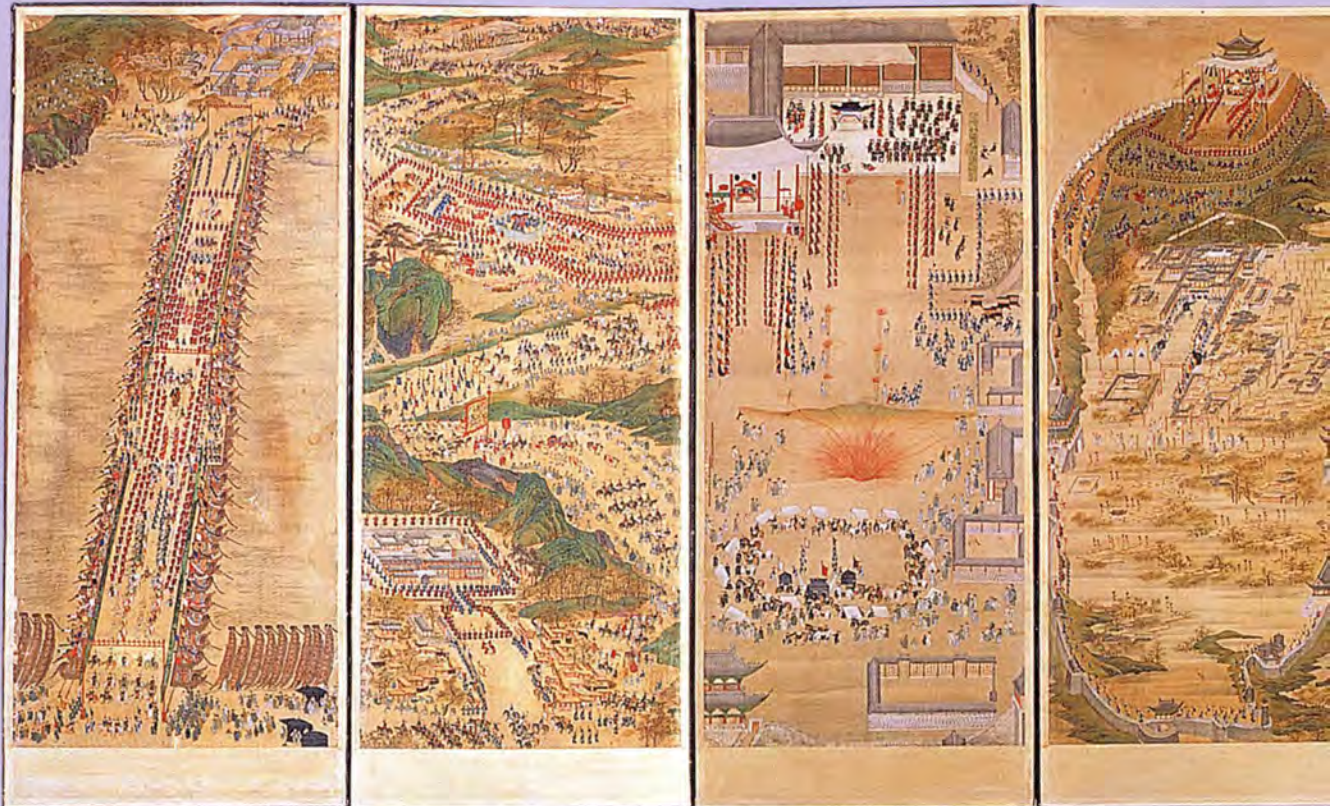
- 문화재종별 : 보물 제 1430 호
- 지정년월일 : 2005년 4월 15일
- 시 대 : 조선시대
- 규모·재질 : 8첩병풍 1점(견본채색)
- 소재지 :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가실리 204 호암미술관

- Classification | Treasures 1430
- Designated Date | 2005. 4. 15
- Age | Joseon Period

정조가 부친인 사도세자의 회갑을 맞이하여, 정조 19년(1795) 윤 2월 9일부터 8일간에 걸쳐 모친인 혜경궁 홍씨(경의왕후, 1735~1815)를 모시고 사도세자의 묘소가 있는 화성의 현릉원(顯陵園)을 행행했을 때 거행한 주요 행사를 그린 8첩 병풍이다.

각 폭의 내용은 '화성성묘진배도(華城聖廟展拜圖)', '낙남헌방방도(洛南軒放榜圖)', '봉수당진찬도(奉壽堂進饌圖)', '낙남헌양로도(洛南軒養老圖)', '서장대야조도(西將臺夜擲圖)', '득중정어사도(得中亭御射圖)', '환어행렬도(還御行列圖)', '한강주교환어도(漢江舟교還御圖)'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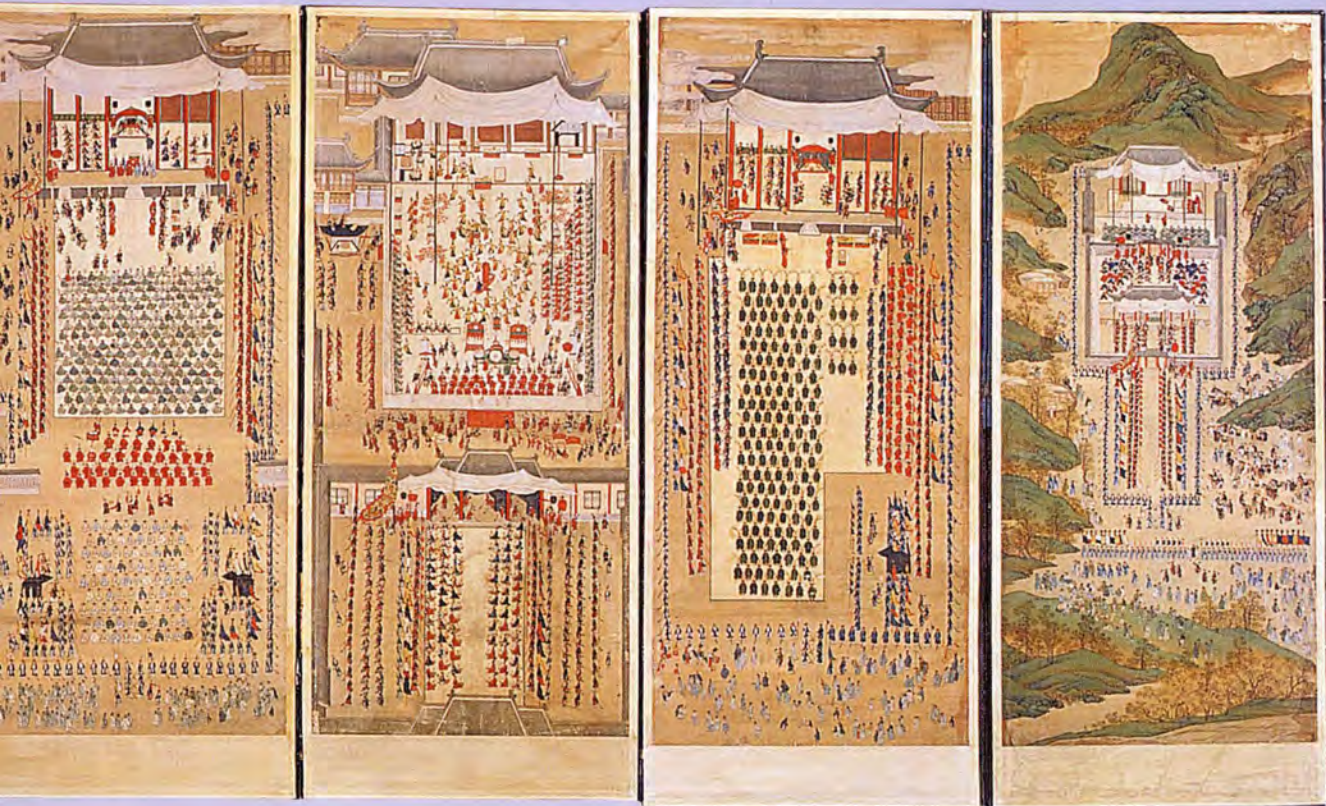
당시 최고의 화원으로 규장각 자비대령화원이었던 김득신(金得臣 : 1754~1822), 이인문(李寅文 : 1745~1821) 등이 그렸는데, '봉수당진찬도' 등은 기존의 전통적인 구도 방식을 따르고 있으나, '환어행렬도'에서는 김홍도의 평생도에 나타나는 '지(之)' 자형의 구도를 지니고 있다.



Hwaseonghaenghaengdopalcheopbyeong

‘한강주교환어도’에서도 기존 궁중행사도에서 보기 힘든 새로운 화면전개방식을 취하고 있다. 또한 그림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다양하고 해학성이 있어 당시의 풍속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다. 색채 또한 세련된 색채를 구사하였고 묘사가 매우 정교하게 되어 있다.

이 그림은 대표적인 역사적 기록화로서 풍속화적인 성격도 강한데, 그림으로서만이 아닌 사료로서의 가치가 매우 크며 묘사, 색채 면에서 매우 우수하여 18세기 최고의 기록화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화성행행도팔첩병

정사신동참제계회도

Jeongsasindongchamjegyeheodo

Painting of a social gathering of retired high ranking scholar-officials

鄭士信同參諸契會圖

- 문화재종별 : 보물 제 1431 호
- 지정년월일 : 2005년 4월 15일
- 시대 : 조선시대
- 규모·재질 : 6첩병풍 1점(견본채색)
- 소재지 :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가실리 204 호암미술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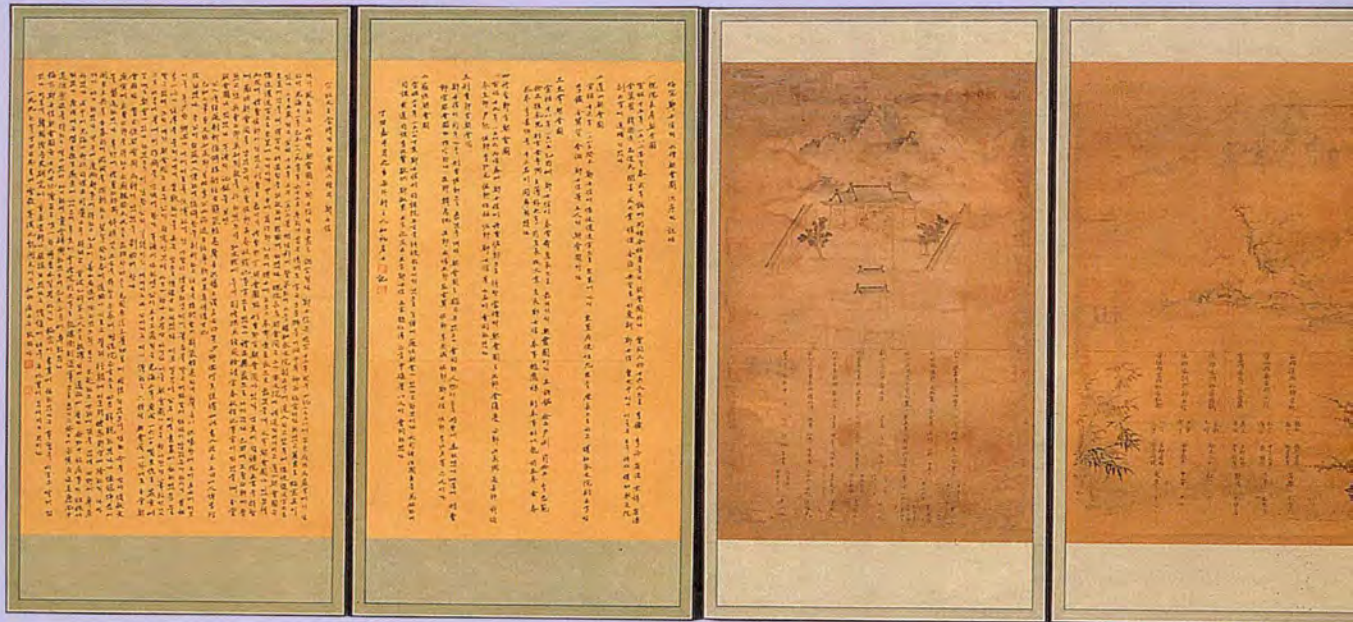
- Classification | Treasures 1431
- Designated Date | 2005. 4. 15
- Age | Joseon Period

선조 때의 문신인 정사신(1558~1619)이 1583년에서 1587년 사이에 관원으로서 참여했던 계 모임을 그린 6폭의 그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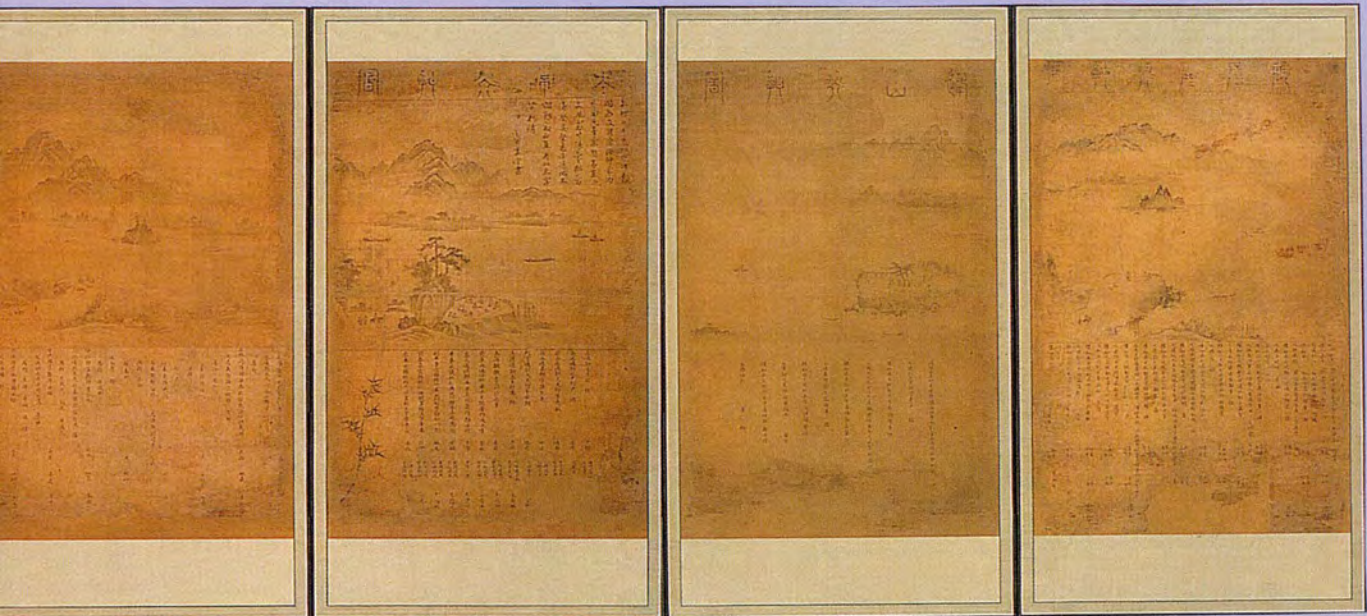
‘괴원장방계회도’(槐院長房契會圖, 1583), ‘봉산계회도’(蓬山契會圖, 1583), ‘태상계회도’(太常契會圖, 1585), ‘예조낭관계회도’(禮曹郎官契會圖, 1586), ‘형조낭관계회도’(刑曹郎官契會圖, 1586), ‘미원계회도’(薇垣契會圖, 1587)로 구성되어 있는데, 봉산계회도, 태상계회도, 형조낭관계회도는 16세기 전반 안견파의 편파구도 산수의 전통을 토대로 경물들의 분리가 확대된 변화를 보여준다.

괴원장방계회도, 예조낭관계회도는 서호계 야외계회도의 특징을 반영하고 있다. 미원계회도는 1570년대 경 대두된 관아묘사 계회도의 새로운 유형으로 제작되었다.

이 계회도는 제작연대와 참여자들이 확실하게 밝혀져 있고 1580년대의 회풍을 반영하고 있어서 학술적, 회화사적 가치가 높으며, 동일한 인물이 참여했던 여러 폭의 계회도 일괄이어서 자료적 의미가 매우 크다.



Jeongsasindongchamjegyeheodo



정사신동참제회도

오리 이원익 영정

Oriiwonigyeongjeong
Portrait of Yi Won-ik

梧里李元翼景仲

- 문화재종별 : 보물 제 1435 호
- 지정년월일 : 2005년 7월 7일
- 시대 : 조선시대
- 규모·재질 : 가로 108cm, 세로 197cm(견본채색)
- 소재지 : 광명시 소하2동 1086 충현박물관

- Classification | Treasures 1435
- Designated Date | 2005, 7, 7
- Age | Joseon Period

이 영정은 오리 이원익(1547~1634)이 1604년 호성공신(扈聖功臣) 2등에 녹훈(錄勳)된 것을 기념해 제작된 것으로 같은 해 조성된 청난공신(淸難功臣)과 선무공신(宣武功臣)의 도상에 비해 사모(紗帽)의 모양이 다소 변한 것으로 보아 책록된 시기보다 몇 년 뒤에 그려진 것으로 추정된다.

영정의 주인공인 오리 이원익의 자(字)는 공려(公勵), 호(號)는 오리, 본관은 전주이며 태종의 아들 익녕군(益寧君) 치의 현손(玄孫)이며 이억재의 아들로 태어났다. 1569년(선조 2년) 별시 문과에 급제하여 대사헌, 호조판서, 이조판서 등을 지냈으며 조선시대 대표적인 청백리로 유명하다.

영정의 형태는 축으로 장식되어 있으며 의자에 앉아 있는 모습의 전신상으로 그 모습은 오사모(烏紗帽)에 흑단령(黑團領)을 입고 공수(拱手) 자세를 취하고 있는데 사모의 양쪽에는 운문(雲紋)이 들어가 있다.

얼굴에는 음영 효과가 거의 들어가 있지 않고 이목구비의 형용은 선묘 위주로 되어 있으며 족좌대 위에 흑피혜(黑皮鞋)와 채전(采箋)이 깔려 있어 공신상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Oriwonigyeongjeong

오리 이원의 영정

백자대호

Baekjadaeho

白磁大壺

- 문화재종별 : 보물 제 1441 호
- 지정년월일 : 2005년 8월 12일
- 시대 : 조선시대
- 규모·재질 : 높이 44.5cm, 구경 18.2cm, 저경 17.7cm(백자)
- 소재지 : 용인시 기흥구 보라동 314-1 디 아모레 박물관

- Classification | Treasures 1441
- Designated Date | 2005, 8, 12
- Age | Joseon Period

높이에 비례하여 몸통의 크기도 적당하며 입과 굽 지름의 비례도 좋아서 전체적으로 안정적이며 단정해 보인다.

입과 굽은 급하게 외반되고 몸통도 둥근 모습보다 마름모 형태로 연결되어 비교적 직선적인 느낌을 주고 있다.

좌우대칭은 비교적 잘 이루어졌고 유약은 비교적 두껍고 윤택하며 태토의 색은 옅은 유백색을 띤다.

대체적인 비례는 적당하지만 입술이 얇고 작으며 짧게 벌어져서 듬직한 맛은 없지만 백자대호의 둥글고 큰 맛과 절도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구연부



하단부



Baekjadaeho

백자대호

가

각택기 各宅記	286
간찰 簡札	284
감지금니대반야바라밀다경(권175)	140
紺紙金泥大般若波羅密多經(卷百七十五)	
경기감영도병 京畿監營圖屏	292
고달사 원종대사 해진탑 高達寺元宗大師慧眞塔	14
고달사 원종대사 해진탑비 귀부 및 이수	12
高達寺元宗大師慧眞塔碑龜趺吳螭首	
고달사지 석불좌 高達寺址石佛座	16
광주 춘궁리 삼층석탑 廣州春宮里三層石塔	26
광주 춘궁리 오층석탑 廣州春宮里五層石塔	24
교지(교첩) 教旨(教牒)	282
괘장 및 사괘장연회도첩 几杖吳賜几杖宴會圖帖	142
금동미륵보살반가사유상 金銅彌勒菩薩半跏思惟像	94
금동여래입상 金銅如來立像	60
금제환두태도 金製環頭太刀	124
김정희서심경첩 金正喜書心經帖	74
김중만장군 영정 金重萬將軍影幀	116
김홍도필 추성부도 金弘道筆秋聲賦圖	290

나

나암수록 외 전적 羅巖隨錄外典籍	174
나옹화상어록·나옹화상가송 懶翁和尚語錄·懶翁和尚歌頌	104
남은 유서분재기 부 남재 왕지 南閻遺書分財記附南在王旨	248

다

대방광불화엄경소(권제21, 24)	220
大方廣佛華嚴經疏(卷第二十一, 二十四)	
대방광불화엄경정원본(권제24) 大方廣佛華嚴經貞元本(卷第二十四)	240
대방광원각각소주경(권상지2) 大方廣圓覺略疏注經(卷上之二)	154
대불정다라니 大佛頂陀羅尼	222
대불정여래밀인수증료의제보살만행수능엄경(권4~7, 8~10)	156
大佛頂如來密因修證了義諸菩薩萬行首楞嚴經(卷四~七, 八~十)	
대불정여래밀인수증료의제보살만행수능엄경(권6~10)	106
大佛頂如來密因修證了義諸菩薩萬行首楞嚴經(卷六~十)	
동제은입사향완 銅製銀入絲香垸	50

마

만기사 철조여래좌상 萬奇寺鐵造如來坐像	84
목우자수심결부사범어 牧牛子修心訣附四法語	146
몽산화상법어약록 蒙山和尚法語略錄	176
묘법연화경(권3) 妙法蓮華經(卷三)	164
묘법연화경(권6, 7) 妙法蓮華經(卷六, 七)	150
묘법연화경(권7) 妙法蓮華經(卷七)	96
묘법연화경(권제1) 妙法蓮華經(卷第一)	238
묘법연화경(권제7) 妙法蓮華經(卷第七)	260

바

반야바라밀다심경약소 般若波羅密多心經略疏	258
-----------------------	-----

백운화상초록불조직지심체요절목판본	228
白雲和尙抄錄佛祖直指心體要節木板本	
백자대호 白磁大壺	318
백자상감연당초문병 白磁象嵌蓮唐草文瓶	266
백자철화운죽문호 白磁鐵畫雲竹文壺	268
백자투각상감모란문병 白磁透刻象嵌牡丹文瓶	288
백지묵서지장보살본원경(권상·중·하)	158
白紙墨書地藏菩薩本願經(卷上·中·下)	
범망경노사나불설보살심지계품(제10의하)	226
梵網經盧舍那佛說菩薩心地戒品(第十之下)	
법집별행록절요병입사기 法集別行錄節要屏入私記	242
봉림사 목아미타불좌상 복장전적 일괄	210
鳳林寺木阿彌陀佛坐像腹藏典籍一括	
봉선사 대종 奉先寺大鐘	58
봉업사명 청동향로 奉業寺銘青銅香爐	302
분류두공부시언해(권13) 分類杜工部詩諺解(卷十三)	200
분청사기상감모란당초문장군 粉靑沙器象嵌牡丹唐草文장군	298
분청사기조화절지문편병 粉靑沙器彫花折枝文扁瓶	264
불설대보부모은중경합철(불설부모은중태골경)	114
佛說大報父母恩重經合綴(佛說父母恩重胎骨經)	
불설사십이장경합철(불유교경·위산경책)	100
佛說四十二章經合綴(佛遺教經·爲山警策)	
불설사십이장경합철(불유교경·위산경책)	102
佛說四十二章經合綴(佛遺教經·爲山警策)	
불설장수멸죄호제동자경 佛說長壽滅罪護諸童子經	110

사

삼현수간 三賢手簡	304
상교정본자비도장참법(권10) 祥校正本慈悲道場懺法(卷十)	152
서봉사 현오국사탑비 瑞峰寺址玄悟國師塔碑	18
석남사 영산전 石南寺靈山殿	134
석보상절(권11) 釋譜詳節(卷十一)	70
선림보훈(권상·하) 禪林寶訓(卷上·下)	108
선조어사서 송언신 밀찰첩 및 송언신 영정	160
宣祖御書賜宋言慎密札帖 및 宋言慎影幀	
선종영가집(권하) 禪宗永嘉集(卷下)	246
소자본묘법연화경(권1~7) 小字本妙法蓮華經(卷一~七)	98
쇄미록 瑣尾錄	218
수월관음도 水月觀音圖	308
시흥 소래산 마애상 始興蘇萊山磨崖像	280
신간표제공자가어구해 新刊標題孔子家語句解	244
신록사 다층석탑 神勒寺多層石塔	38
신록사 다층전탑 神勒寺多層塔	40
신록사 대장각기비 神勒寺大藏閣記碑	46
신록사 보제존자 석종 神勒寺普濟尊者石鐘	42
신록사 보제존자 석종비 神勒寺普濟尊者石鐘碑	44
신록사 보제존자 석종 앞 석등 神勒寺普濟尊者石鐘 앞 石燈	48
신록사 조사당 神勒寺祖師堂	36
심복사 석조비로자나불좌상 深福寺石造毘盧舍那佛坐像	82

아

안성 봉업사 석불입상 安城奉業寺石佛立像	172
안성 죽산리 오층석탑 安城竹山里五層石塔	66
안성 청룡사 동종 安城靑龍寺銅鐘	20
안중근의사 유묵 安重根義士遺墨	86
약사유리광여래본원공덕경 藥師琉璃光如來本願功德經	224
여주 창리 삼층석탑 驪州倉里三層石塔	30
여주 하리 삼층석탑 驪州下里三層石塔	32
영월암 마애여래입상 映月庵磨崖如來立像	132
예념미타도량집법(권제6~10) 禮念彌陀道場儀法(卷第六~十)	236
오리 이원익 영정 梧里李元翼影幀	316
오명항 영정병함 부 양무공신 교서	256
吳命恒影幀并函附揚武功臣教書影幀	
완양부원군 이충원 호성공신 교서 完陽府院君李忠元扈聖功臣教書	138
용문사 정지국사 부도 및 비 龍門寺正智國師浮屠 및 碑	72
원릉군 원균 선무공신 교서 原陵君元均宣武功臣教書	230
월인석보(권9, 10) 月印釋譜(卷九, 十)	118
월인석보(권11, 12) 月印釋譜(卷十一, 十二)	148
월인석보(권21) 月印釋譜(卷二十一)	120
유문칠우 有文漆盂	78
유수 영정병함 柳綏影幀并函	254
의왕 청계사 동종 儀旺淸溪寺銅鐘	22
이상좌 불화첩 李上佐佛畫帖	90
이십삼상대화도 및 김종한 교지 二十三星臺會圖 및 金從漢教旨	300
입학도설 入學圖說	234

자

장승법수 藏乘法數	112
정사공신 조온 사여왕지 定社功臣趙溫賜與王旨	232
정사신동참제계회도 鄭士信同參諸契會圖	314
정통십삼년명 분청사기상감요지 외 인화분청사기 일괄	310
正統十三年銘粉靑沙器象嵌墓誌外印花粉靑沙器一括	
조영복 영정 趙榮福影幀	274
중초사지 당간지주 中初寺址幢竿支柱	10
지장보살본원경(권상·중·하) 地藏菩薩本願經(卷上·中·下)	144
진술선예백장동인 晉率蕭歲伯長銅印	80
진언권공 眞言勸供	204

차

창성사 진각국사 대각원조탑비 彰聖寺眞覺國師大覺圓照塔碑	28
천태사교의 天台四教儀	202
청룡사 감로탕 靑龍寺甘露幀	276
청룡사 대웅전 靑龍寺大雄殿	136
청룡사 영산회 괘불탱 靑龍寺靈山會掛佛幀	272
청원군 심대 호성공신 교서 靑原君沈岱扈聖功臣教書	252
청자상감모란문주자 靑磁象嵌牡丹文注子	182
청자상감모란절지문바릿대 靑磁象嵌牡丹折枝文바릿대	198
청자상감압형주자 靑磁象嵌鴨形注子	294
청자상감앵무문표형주자 靑磁象嵌鸚鵡文瓢形注子	192
청자상감운학문화분 靑磁象嵌雲鶴文花盆	184

청자양각연당초상감운학문대접 靑瓷陽刻蓮唐草象嵌雲鶴文大楨	178
청자양인각도철문방형향로 靑磁陽印刻鸞鶯文方形香爐	180
청자양인각파어포련문접시 靑磁陽印刻波魚蒲蓮文楨匙	186
청자음각국당초문대접 靑磁陰刻菊唐草文大楨	194
청자음각반룡문주자 靑磁陰刻蟠龍文注子	262
청자음각여의운문병 靑磁陰刻如意雲文瓶	190
청자음각연당초상감국화절지문대접 靑磁陰刻蓮唐草象嵌菊花折枝文大楨	188
靑磁陰刻蓮唐草象嵌菊花折枝文大楨	
청자조각쌍사자두침 靑磁彫刻雙獅子頭枕	130
청자철채양각연판문소병 靑磁鐵彩陽刻蓮瓣文小瓶	196
청자퇴화표형주자 靑磁堆化瓢形注子	296
청자퇴화화문주자 및 승반 靑磁堆花花文注子 및 承盤	306
청화백자운룡문병 靑華白磁雲龍文瓶	126
청화백자운룡문병 靑華白磁雲龍文瓶	128
청화백자운룡문호 靑華白磁雲龍文壺	206
청화백자화조문팔각통형병 靑華白磁花鳥文八角筒形瓶	208
청흥군 이중로 정사공신 교서 및 영정 靑興君李重老靖祀功臣敎書 및 影幀	250
칠장사 삼불회 괘불탱 七長寺三佛會掛佛幀	270
칠장사 혜소국사비 七長寺慧紹國師碑	68

타

태고사 원증국사탑 太古寺圓證國師塔	122
태고사 원증국사탑비 太古寺圓證國師塔碑	92
태평이년명 마애약사불좌상 太平二年銘磨崖藥師佛坐像	168
태평흥국명 마애보살좌상 太平興國銘磨崖菩薩坐像	170
퇴도선생 필법일책 부 퇴도선생 유첩	76

退陶先生筆法一冊附退陶先生遺帖

퇴우 이선생 진적 退尤二先生眞蹟 88

파

파주 공효공 박중손 묘역내 장명등 坡州恭孝公朴仲孫墓域內長明燈 278

파주 용미리 석불입상 坡州龍尾里石佛立像 34

팔달문 八達門 62

하

화서문 華西門 64

화성 봉림사 목아미타불좌상 華城鳳林寺木阿彌陀佛坐像 166

화성행행도팔첩병 華城行幸圖八疊屏 312

회암사지 부도 檜巖寺址浮屠 54

회암사지 선각왕사비 檜巖寺址禪覺王師碑 52

회암사지 쌍사자석등 檜巖寺址雙獅子石燈 56

시군별 문화재 목록

● 수원시	창성사 진각국사 대각원조탑비 彰聖寺眞覺國師大覺圓照塔碑	보물 제14호	28
	팔달문 八達門	보물 제402호	62
	화서문 華西門	보물 제403호	64
	퇴우 이선생 진적 退尤二先生眞蹟	보물 제585호	68
● 성남시	월인석보(권9, 10) 月印釋譜(卷九, 十)	보물 제745-3호	118
	몽산화상법어약록 蒙山和尚法語略錄	보물 제1012호	176
	대방광불화엄경소(권제21, 24) 大方廣佛華嚴經疏(卷第二十一, 二十四)	보물 제1128호	220
	대불정다라니 大佛頂陀羅尼	보물 제1129호	222
	약사유리광여래본원공덕경 藥師琉璃光如來本願功德經	보물 제1130호	224
	범망경노사나불설보살심지계품(제10의하) 梵網經盧舍那佛說菩薩心地戒品(第十之下)	보물 제1131호	226
	백운화상초록불조직지심체요절목판본 白雲和尚抄錄佛祖直指心體要節木板本	보물 제1132호	228
	정사공신 조온 시어왕지 定社功臣趙溫賜與王旨	보물 제1135호	232
	입학도설 入學圖說	보물 제1136호	234
	선종영가집(권하) 禪宗永嘉集(卷下)	보물 제1163호	246
	청자상감압형주자 靑磁象嵌鴨形注子	보물 제1398호	294
	청자퇴화표형주자 靑磁堆化瓢形注子	보물 제1399호	296
	분청사기상감모란당초문장군 粉靑沙器象嵌牡丹唐草文장군	보물 제1400호	298
	● 고양시	태고사 원증국사탑비 太古寺圓證國師塔碑	보물 제611호
태고사 원증국사탑 太古寺圓證國師塔		보물 제749호	122
● 안양시	중초사지 당간지주 中初寺址幢竿支柱	보물 제4호	10
	퇴도선생 필법일책 부 퇴도선생 유첩 退陶先生筆法一冊附退陶先生遺帖	보물 제548호	76
	교지(교첩) 教旨(教牒)	보물 제1334-2호	282
	간찰 簡札	보물 제1334-3호	284
	각택기 各宅記	보물 제1334-4호	286
● 용인시	서봉사 현오국사탑비 瑞峰寺玄悟國師塔碑	보물 제9호	18
	금동여래입상 金銅如來立像	보물 제401호	60

석보상절(권11) 釋譜詳節(卷十一)	보물 제523-3호	70
김정희서심경첩 金正喜書心經帖	보물 제547-4호	74
유문칠우 有文漆盃	보물 제559호	78
진술선에백장동인 晉率蓮歲伯長銅印	보물 560호	80
년년세세화상사세세년년인부동 年年歲歲花相似歲歲年年人不同	보물 제569-3호	86
인지당 仁智堂	보물 제569-17호	86
이상좌 불화첩 李上佐佛畫帖	보물 제593호	90
금동미륵보살반가사유상 金銅彌勒菩薩半跏思惟像	보물 제643호	94
묘법연화경(권7) 妙法蓮華經(卷七)	보물 제692-2호	96
소자본묘법연화경(권1~7) 小字本妙法蓮華經(卷一~七)	보물 제693호	98
불설사십이장경합철(불유교경·위산경책) 佛說四十二章經合綴(佛遺教經·爲山警策)	보물 제694호	100
불설사십이장경합철(불유교경·위산경책) 佛說四十二章經合綴(佛遺教經·爲山警策)	보물 제695호	102
나옹화상어록·나옹화상가송 懶翁和尚語錄·懶翁和尚歌頌	보물 제697호	104
대불정여래밀인수증료의제보살만행수능엄경(권6~10) 大佛頂如來密因修證了義諸菩薩萬行首楞嚴經(卷六~十)	보물 제698호	106
선림보훈(권상·하) 禪林寶訓(卷上·下)	보물 제700호	108
불설장수멸죄호제동자경 佛說長壽滅罪護諸童子經	보물 제701호	110
장승법수 藏乘法數	보물 제703호	112
불설대보부모은중경합철(불설부모은중태골경) 佛說大報父母恩重經合綴(佛說父母恩重胎骨經)	보물 제705호	114
월인석보(권21) 月印釋譜(卷二十一)	보물 제745-6호	120
금세환두태도 金製環頭太刀	보물 제776호	124
청화백자운룡문병 靑華白磁雲龍文瓶	보물 제785호	126
청화백자운룡문병 靑華白磁雲龍文瓶	보물 제786호	128
청자조각쌍사자두침 靑磁彫刻雙獅子頭枕	보물 제789호	130
김지금니대반아바라밀다경(권175) 紺紙金泥大般若波羅密多經(卷百七十五)	보물 제887호	140
귀장 및 사귀장연회도첩 几杖 및 賜几杖宴會圖帖	보물 제930호	142
지장보살본원경(권상·중·하) 地藏菩薩本願經(卷上·中·下)	보물 제933호	144
목우지사수심결부사범어 牧牛子修心訣附四法語	보물 제934호	146
월인석보(권11, 12) 月印釋譜(卷十一, 十二)	보물 제935호	148
묘법연화경(권6, 7) 妙法蓮華經(卷六, 七)	보물 제936호	150
상교정본자비도장참법(권10) 祥校正本慈悲道場懺法(卷十)	보물 제937호	152
대방광원각각락소주경(권상지2) 大方廣圓覺略疏注經(卷上之二)	보물 제938호	154
대불정여래밀인수증료의제보살만행수능엄경(권4~7, 8~10) 大佛頂如來密因修證了義諸菩薩萬行首楞嚴經(卷四~七, 六~十)	보물 제939호	156

백지묵서지장보살본원경(권상·중·하) 白紙墨書地藏菩薩本願經(卷上·中·下)	보물 제940호	158
선조어서사 송언신 밀찰첩 및 송언신 영정 宣祖御書賜宋言愼密札帖及宋言愼影幀	보물 제941호	160
묘법연화경(권3) 妙法蓮華經(卷三)	보물 제968호	164
나암수록 외 전적 羅巖隨錄外典籍	보물 제1008호	174
청자양각연당초상감운학문대접 靑瓷陽刻蓮唐草象嵌雲鶴文大椀	보물 제1024호	178
청자양인각도철문방형항로 靑磁陽印刻鐵文方形香爐	보물 제1026호	180
청자상감모란문주자 靑磁象嵌牡丹文注子	보물 제1029호	182
청자상감운학문화분 靑磁象嵌雲鶴文花盆	보물 제1030호	184
청자양인각파어포련문접시 靑磁陽印刻波魚蒲蓮文碟匙	보물 제1031호	186
청자음각연당초상감국화절지문대접 靑磁陰刻蓮唐草象嵌菊花折枝文大椀	보물 제1032호	188
청자음각여의운문병 靑磁陰刻如意雲文瓶	보물 제1035호	190
청자상감앵무문요형주자 靑磁象嵌鸚鵡文瓢形注子	보물 제1036호	192
청자음각국당초문대접 靑磁陰刻菊唐草文大椀	보물 제1037호	194
청자철채양각연판문소병 靑磁鐵彩陽刻蓮瓣文小瓶	보물 제1038호	196
청자상감모란절지문바릿대 靑磁象嵌牡丹折枝文바릿대	보물 제1039호	198
분류두공부시언해(권13) 分類杜工部詩諺解(卷十三)	보물 제1051호	200
천태사교의 天台四教儀	보물 제1052호	202
진언권공 眞言勸供	보물 제1053호	204
청화백자운룡문호 靑華白磁雲龍文壺	보물 제1064호	206
청화백자화조문팔각통형병 靑華白磁花鳥文八角形瓶	보물 제1066호	208
쇄미록 瑣尾錄	보물 제1096호	218
법집별행록절요병입사기 法集別行錄節要屏入私記	보물 제1148호	242
신간표제공자기어구해 新刊標題孔子家語句解	보물 제1149호	244
남은 유서본재기 부 남재 왕지 南閣遺書分財記附南在王旨	보물 제1173호	248
청흥군 이중로 정사공신 교서 및 영정 靑興君李重老靖祀功臣敎書 및 影幀	보물 제1174호	250
청원군 심대 호성공신 교서 靑原君沈岱扈聖功臣敎書	보물 제1175호	252
유수 영정병함 柳綬影幀并函	보물 제1176호	254
오명항 영정병함 부 양무공신 교서 吳命恒影幀并函附揚武功臣敎書影幀	보물 제1177호	256
청자음각반룡문주자 靑磁陰刻蟠龍文注子	보물 제1228호	262
분청사기조화절지문편병 粉靑沙器彫花折枝文扁瓶	보물 제1229호	264
백자상감연당초문병 白磁象嵌蓮唐草文瓶	보물 제1230호	266
백자철화운죽문호 白磁鐵畫雲竹文壺	보물 제1231호	268
조영복 영정 趙榮福影幀	보물 제1298호	274
백자투각상감모란문병 白磁透刻象嵌牡丹文瓶	보물 제1391호	288

	김홍도필 추성부도 金弘道筆秋聲賦圖	보물 제1393호	290
	경기감영도병 京畿監營圖屏	보물 제1394호	292
	이십삼상대회도 및 김종한 교지 二十霜臺會圖 및 金從漢教旨	보물 제1406호	300
	봉업시명 청동항로 奉業寺銘靑銅香爐	보물 제1414호	302
	삼현수간 三賢手簡	보물 제1415호	304
	청자퇴화화문주자 및 승반 靑磁堆花花文注子 및 承盤	보물 제1421호	306
	수월관음도 水月觀音圖	보물 제1426호	308
	정통십삼년명 분청사기상감모지 외 인화분청사기 일괄 正統十三年銘靑沙器象嵌墓誌外印花靑沙器一括	보물 제1428호	310
	화성행행도팔첩병 華城行幸圖八疊屏	보물 제1430호	312
	정사신동참제계회도 鄭士信同參諸契會圖	보물 제1431호	314
	백자대호 白磁大壺	보물 제1441호	318
● 남양주시	봉선사 대종 奉先寺大鐘	보물 제397호	58
● 평택시	심복사 석조비로자나불좌상 深福寺石造毘盧舍那佛坐像	보물 제565호	82
	만기사 철조여래좌상 萬奇寺鐵造如來坐像	보물 제567호	84
	원릉군 원균 선무공신 교서 原陵君元均宣武功臣敎書	보물 제1133호	230
● 광명시	오리 이원익 영정 梧里李元翼影幀	보물 제1435호	316
● 시흥시	시흥 소래산 마애상 始興蘇萊山磨崖像	보물 제1324호	280
● 군포시	사군천리이표촌성망안옥천행물부정 思君千里以表寸誠望眼欲穿幸勿負情	보물 제569-11호	86
● 화성시	화성 봉림사 목아미타불좌상 華城鳳林寺木阿彌陀佛坐像	보물 제980호	166
	봉림사 목아미타불좌상 복장전적 일괄 華城鳳林寺木阿彌陀佛坐像腹藏典籍一括	보물 제1095호	210

시군별 문화재 목록

● 파주시	파주 용미리 석불입상 坡州龍尾里石佛立像	보물 제93호	34
	파주 공효공 박중손 묘역내 장명등 坡州恭孝公朴仲孫墓域內長明燈	보물 제1323호	278
● 이천시	영월암 마애여래입상 映月庵磨崖如來立像	보물 제822호	132
	태평흥국명 마애보살좌상 太平興國銘磨崖菩薩坐像	보물 제982호	170
● 김포시	묘법연화경(권제7) 妙法蓮華經(卷第七)	보물 제1225호	260
● 안성시	안성 청룡사 동종 安城靑龍寺銅鐘	보물 제11-4호	20
	안성 죽산리 오층석탑 安城竹山里五層石塔	보물 제435호	66
	칠장사 해소국사비 七長寺慧炤國師碑	보물 제488호	68
	김중만장군 영정 金重萬將軍影幀	보물 제715호	116
	석남사 영산전 石南寺靈山殿	보물 제823호	134
	청룡사 대웅전 靑龍寺大雄殿	보물 제824호	136
	안성 봉업사 석불입상 安城奉業寺石佛立像	보물 제983호	172
	칠장사 삼불회 괘불탱 七長寺三佛會掛佛幀	보물 제1256호	270
	청룡사 영산회 괘불탱 靑龍寺靈山會掛佛幀	보물 제1257호	272
	청룡사 감로탕 靑龍寺甘露幀	보물 제1302호	276
● 하남시	광주 춘궁리 오층석탑 廣州春宮里五層石塔	보물 제12호	24
	광주 춘궁리 삼층석탑 廣州春宮里三層石塔	보물 제13호	26
	태평이년명 마애약사불좌상 太平二年銘磨崖藥師佛坐像	보물 제981호	168
● 의왕시	의왕 청계사 동종 儀旺淸溪寺銅鐘	보물 제11-7호	22
	동제은입사향안 銅製銀入絲香垵	보물 제288호	50
● 양주시	회암사지 선각왕사비 檜巖寺址禪覺王師碑	보물 제387호	52
	회암사지 부도 檜巖寺址浮屠	보물 제388호	54
	회암사지 쌍사자석등 檜巖寺址雙獅子石燈	보물 제389호	56

● 여주군

고달사 원종대사 해진탑비 귀부 및 이수 高達寺元宗大師慧眞塔碑龜趺 및 螭首	보물 제6호	12
고달사 원종대사 해진탑 高達寺元宗大師慧眞塔	보물 제7호	14
고달사지 석불좌 高達寺址石佛座	보물 제8호	16
여주 창리 삼층석탑 驪州倉里三層石塔	보물 제91호	30
여주 하리 삼층석탑 驪州下里三層石塔	보물 제92호	32
신륵사 조사당 神勒寺祖師堂	보물 제180호	36
신륵사 다층석탑 神勒寺多層石塔	보물 제225호	38
신륵사 다층전탑 神勒寺多層壇塔	보물 제226호	40
신륵사 보제존자 석종 神勒寺普濟尊者石鐘	보물 제228호	42
신륵사 보제존자 석종비 神勒寺普濟尊者石鐘碑	보물 제229호	44
신륵사 대장각기비 神勒寺大藏閣記碑	보물 제230호	46
신륵사 보제존자 석종 앞 석등 神勒寺普濟尊者石鐘 앞 石燈	보물 제231호	48
원양부원군 이충원 호성공신 교서 完陽府院君李忠元扈聖功臣敎書	보물 제874호	138
예념미타도량참법(권제6~10) 禮念彌陀道場懺法(卷第六~十)	보물 제1144호	236
묘법연화경(권제1) 妙法蓮華經(卷第一)	보물 제1145호	238
대방광불화엄경정원본(권제24) 大方廣佛華嚴經貞元本(卷第二十四)	보물 제1146호	240

● 양평군

용문사 정지국사 부도 및 비 龍門寺正智國師浮屠 및 碑	보물 제531호	72
-------------------------------	----------	----

● 동두천시

반야바라밀다심경약소 般若波羅密多心經略疏	보물 제1211호	258
-----------------------	-----------	-----

집필 |

강진갑 경기문화재단 문예진흥실 실장
 김우림 서울역사박물관 관장, 경기도 문화재위원
 김지욱 경기도 박물관 학예연구사, 경기도 문화재전문위원
 박경식 단국대학교 교수, 경기도 문화재위원
 박상국 국립문화재연구소 예능민속실 실장
 배병선 문화재연구소 건조물연구실 실장, 경기도 문화재위원
 안귀숙 인천공항 문화재감정관, 경기도 문화재위원
 양윤식 경기도 문화재전문위원
 윤희상 신홍전문대학 교수, 경기도 문화재위원
 이 영 경원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이원우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이인숙 중앙문화재위원회위원
 이정섭 문화재청 상근전문위원, 경기도 문화재위원
 하문식 세종대학교 교수, 경기도 문화재위원
 한창균 한남대학교 교수, 경기도 문화재위원
 호암미술관 학예연구실팀
 문화재청(원고제공)

촬영 및 필름제공 |

촬영 신홍균(사진작가)
 제공 국립문화재연구소, 문화재청, 호암미술관

자료정리 및 교정·교열 |

이한성 한양대학교 문화인류학과 졸업

편집실무 |

박신환 경기도 문화정책과장
 이창수 경기도 문화재담당사무관
 송성근 경기도 학예연구관
 문성진 경기도 학예연구사

경기문화재총람

| 국가지정편 |

발행일 2006년 2월

발행처 경기도

발행처 경기도

주 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도청앞길 63(매산로3가 1번지)
경기도청 문화정책과

전 화 031-249-4684

팩 스 031-249-2289

제 작 경인 M&B (031-231-5521)

(비매품)

※ 이 책에 수록된 내용을 전재하거나 활용하고자 할 때에는 경기도청 문화정책과와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